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미술학박사 학위논문

북아일랜드 벽화: 동시대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시각적 발언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미술경영

이 민 아

북아일랜드 벽화:
동시대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시각적 발언

지도교수 김 정 희

이 논문을 미술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미술경영
이 민 아

이민아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2월

위 원 장 김 진 엽 (인)

부위원장 오 병 욱 (인)

위 원 심 상 용 (인)

위 원 김 희 영 (인)

위 원 김 정 희 (인)

국문초록

통칭 북아일랜드 벽화는 1921년 이후의 북아일랜드와 그 이전 아일랜드 북부지역에 그려진 벽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첫 벽화가 1908년에 제작된 이후 2010년대까지 2천여 점이 제작되었다. 북아일랜드에서 벽화는 20세기 동시대의 정치적 사건에 대한 대응 방식의 하나로 제작되었지만, 종교, 언어와 민족이 다른 영국의 침략으로 인한 갈등이 근본적인 제작 배경이었다. 본 연구는 동시대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벽화와 그 의미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 사건에 따라 벽화의 사회적 역할과 벽화의 주제 및 형식이 변화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아일랜드는 영국의 침략과 이주로 이주민들과 원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이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국가가 된 영국은 가톨릭 영토인 아일랜드에 개신교를 전파하며 아일랜드를 정치적·경제적으로 종속시켰다. 특히 1921년 아일랜드 분할이 결정되면서 영국에 통합된 현재의 북아일랜드, 즉 아일랜드 북부 얼스터(Ulster)는 잉글랜드인과 스코틀랜드인이 17세기 초부터 이주하여 생존권을 놓고 아일랜드 원주민과 끊임없이 분쟁했던 지역이다.

북아일랜드 벽화의 대부분은 트러블(the Troubles, 1968-1998)로 불리는 북아일랜드 분쟁 기간과 이후 평화 정착기에 제작되었다. 트러블은 영국 정부와 아일랜드 공화국군(Irish Republican Army)인 IRA, 그리고 IRA와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들(UVF, UDA 등) 간의 유혈 분쟁이었다. 영국 정부는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 역시 불법 단체로 간주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도 분쟁이 있었다. 이들은 북아일랜드의 통치권을 놓고 싸웠고, 트러블 시기의 벽화 역시 통치권을 둘러싼 하나의 의사 표명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북아일랜드 벽화의 제작 주체는 크게 두 개의 축으로 나뉜다. 그 한 축은 개신교 노동자 계층인 로열리스트(Loyalist)로 불린다. 이들은 17세기부터 아일랜드 북부 얼스터에 정착한 영국 개신교 후손들이 북아일랜

드 영토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다루고 있다. 로열리스트는 20세기 초 아일랜드 독립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17세기 말 개신교 왕권을 확립한 윌리엄 3세(William Ⅲ)의 도상을 벽화로 그리며 얼스터 영토에 대한 정통성이 영국 정체성을 지닌 얼스터 개신교도에게 있다는 것을 표명하고자 했다. 그러나 로열리스트는 1985년의 앵글로-아이리시 협정(Anglo-Irish Agreement)으로 개신교도로서의 기득권을 잃을 위험에 처하자 가톨릭교도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총으로 무장한 자신들의 이미지를 벽화로 그렸다. 이들이 영국 정부의 정치적 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방식은 가톨릭교도에 대한 공격이었고 이는 벽화에도 드러나 있다. 로열리스트 벽화는 북아일랜드 개신교도들이 아일랜드 영토를 3세기 이상 점유하고 있는 침략자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었다고 볼 수 있다.

벽화를 그린 다른 한 축은 IRA와 가톨릭 노동자 계층인 공화주의자(Republican)다. 이들은 북아일랜드 가톨릭교도에 대한 차별에 저항하고 아일랜드 통일을 위해 투쟁하면서 벽화를 제작했다. 공화주의자들은 트러블 초기인 1969년에 그라피티 형식의 벽화를 그리며 개신교도와 가톨릭교도 사이에 영토 분쟁이 재개된 것을 표명했다. 또한, 아일랜드 통일을 위한 IRA의 무장활동을 본격화했다. 1981년 IRA 수감자들의 단식투쟁을 계기로 급증한 공화주의 벽화는 가톨릭교도에 대한 영국 정부의 정치적 탄압과 제도적 차별을 서구사회에 폭로하는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 1990년대 공화주의 벽화는 벽화의 주제를 아일랜드 고유의 역사와 문화로 확장하는 한편 사회 비판적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1998년 영국과 아일랜드 공화국은 성 금요일 협정(Good Friday Agreement)을 통해 북아일랜드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이후 영국 정부는 북아일랜드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했다. 그 결과, 2004년부터 북아일랜드 자치정부는 가톨릭 커뮤니티와 개신교 커뮤니티의 화합을 위해 벽화 교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무장조직들의 이미지를 벽에서 제거하도록 했다. 벽화를 제작한 주체는 예술위원회 협력단과 이들이 고용한 예술가들로 바뀌었고, 벽화 주제 역시 지역 역사

외에도 실업·건강·범죄와 같은 사회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의도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벽화 교체 프로젝트는 가톨릭 거주민들과 개신교 거주민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무엇보다 정부가 벽화 주제를 통제하면서 벽화에 정부의 정치적 관점이 포함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가 새로 제작한 벽화 도상들은 북아일랜드 사회에 개신교 우월주의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분쟁이 완전히 종식되고 아일랜드 통일이 가까워진 브렉시트 이후의 상황에서 북아일랜드 벽화는 역사적 기념물로서의 가치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북아일랜드 벽화, 트러블(the Troubles), 로열리스트(Loyalist), 공화주의자(Republican), 단식투쟁(Hunger Strike), 성금요일 협정(Good Friday Agreement), 정부의 벽화 교체 프로젝트
학 번 : 2017-30502

목 차

국문초록 ····· i
도판목차 ····· vi

Ⅰ. 서론 ····· 1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 1
2. 선행 연구 ····· 6
3. 논문의 구성 ····· 10

Ⅱ. 아일랜드 자치법안 통과(1914) 및 아일랜드 분할 이후의 변화(1922-1980) ····· 12
1. 아일랜드 북부 지역의 변화의 등장 ····· 14
1) 얼스터 개신교 사회의 특징과 변화의 등장 ····· 15
2) 얼스터 개신교 로열리스트의 변화 제작 목적과 선택된 이미지 ····· 21
2. 북아일랜드 “트러블(1968-1998)”의 시작과 변화 ····· 34
1) 가톨릭 시민권 운동과 공화주의 변화의 등장 ····· 36
2) 개신교 준군사조직들의 창설과 로열리스트 변화 전통의 쇠퇴 ····· 46
3) 노동당 정부 주도의 변화 프로젝트(1977-1980) ····· 56

Ⅲ. 단식투쟁 이후 정치적 격변기의 변화 (1981-2003) ····· 64
1. 동시대의 정치적 사건과 변화 주제 상의 변화 ····· 65
1) 단식투쟁(1981)과 저항의 표명으로서의 변화 ····· 66
2) 앵글로-아이리시 협정(1985)과 변화 양상 및 형식의

변화 ····· 80
3) “민족주의 신화화”와 벽화 ····· 87
2. 대중적 주제의 등장과 벽화의 대중화 ····· 96
1) IRA와 UVF·UDA의 휴전 선언(1994)과 벽화의 대중화 ·· 97
2) 성 금요일 협정(1998)과 그에 대한 입장 표명으로서의 벽화 ····· 109
3) 벽화 주제의 확장: 실존 인물을 이용한 서사 ····· 118

Ⅳ. 정부 주도의 벽화 제작과 활용(2004-) ····· 123
1. 정부 주도의 벽화 교체 프로젝트 ····· 126
1) 문화유산으로의 벽화와 활용 ····· 127
2) 벽화 교체 프로젝트의 성과와 한계 ····· 131
2. 브렉시트와 북아일랜드 벽화 ····· 138

Ⅴ. 결론 ····· 145

참고문헌 ····· 150
도판 ····· 163
Abstract ····· 183
연표 ····· 186

도 판 목 차

[도판 1] 아일랜드 지도
[도판 2] 오렌지회 행진(Orange Order Parade)
[도판 3] 작가미상, <빌리왕 King Billy>, 1908, 헨리빌 스트리트(Henryville Street), 벨파스트.
[도판 4] 작가미상, <보인 전투에서의 윌리엄 3세 William III at the Battle of the Boyne>, 1920s, 헨리 스트리트(Henley Street), 벨파스트.
[도판 5] 벤자민 웨스트(Benjamin West), <보인 전투에서의 윌리엄 3세 William III at the Battle of the Boyne>, 1778, 마운트 스튜어트(Mount Stewart), 북아일랜드.
[도판 6] 바비 잭슨(Bobby Jackson), <1690년 6월 키릭퍼거스에 도착한 윌리엄 3세 The Landing of William Ⅲ at Carrickfergus June 1690>, 1916, 클라렌스 플레이스(Clarence Place), 데리.
[도판 7] 작가미상, <조지 5세와 엘리자베스의 대관식 Coronation of King George Ⅵ and Elizabeth>, 1937, 리틀 쉽 스트리트(Little Ship Street), 벨파스트.
[도판 8] 작가미상, 동벨파스트 역사와 문화 협회(the East Belfast Historical and Cultural Society), <얼스터 엄숙동맹규약 Ulster's Solemn League and Covenant>, 2005, 쏜다이크 스트리트(Thorndyke Street), 벨파스트.
[도판 9] 바비 잭슨 주니어(Bobby Jackson Jr.), 왼쪽 <보인 전투에서의 윌리엄 3세 William III at the Battle of the Boyne>, 오른쪽 <데리 구출 the Relief of Derry>, 1982. 파운튼(Fountain), 데리.
[도판 10] <항복하지 말자 No Surrender>, 1970, 호프웰 스트리트(Hopewell Street), 벨파스트.
[도판 11] <당신은 지금 자유로운 데리로 들어가고 있다 You are now entering Free Derry>, 1971 촬영, 보그사이드(Bogside), 데리.
[도판 12] <당신은 지금 자유로운 데리로 들어가고 있다 You are now

entering Free Derry>, 2019 촬영, 보그사이드(Bogside), 데리.
[도판 13] 평화의 벽(Peace Wall), 2019 촬영, 벨파스트.
[도판 14] 민중의 민주주의(People's Democracy) 포스터, 1969.
[도판 15] <IRA>, 1969.
[도판 16] <자유를 위한 임시파 IRA 대원들 Provisionals For Freedom>, 1972, 브랜디웰(Brandywell), 데리.
[도판 17] <영국특수부대 살인자들 SAS Murderers>, 1972, 그로스베너 로드(Grosvenor Road), 벨파스트.
[도판 18] 작가미상, <제임스 코놀리 James Connolly>, 1972, 페어필드 스트리트(Fairfield Street), 벨파스트.
[도판 19] 왼쪽: 1914년의 아일랜드 시민군(Irish Citizen Army) 깃발, 오른쪽: 1934년에 수정된 깃발.
[도판 20] 도위에 형제(Dowie Brothers), <윌리엄 3세 King William>, 1968, 얼 른 스트리트(Earl Ln Street), 벨파스트.
[도판 21] 작가미상, <믿음, 희망과 관용 Faith, Hope and Charity>, 1969, 란(Larne).
[도판 22] 작가미상, <신과 얼스터를 위해 For God and Ulster>, 1972, 벨파스트.
[도판 23] 왼쪽: 북아일랜드(얼스터 6개 카운티) 국기 1953-1973, 오른쪽: 14세기 얼스터 지방의 깃발.
[도판 24] 작가미상, <얼스터 개신교도를 방어하라 Keep Ulster Protestant>, 1972, 메멜 스트리트(Memel Street), 벨파스트.
[도판 25] UVF, UDA, YCV 및 UFF 엠블렘(emblem).
[도판 26] 작가미상, <얼스터의 붉은 손 the Red Hand of Ulster>, 2007, 본드 플레이스(Bond Place), 데리.
[도판 27] 브렌단 엘리스(Brendan Ellis)와 제랄딘 조단(Geraldine Jordan), <정글 장면 Jungle scene>, 1977, 스프링힐 애비뉴(Springhill Avenue), 벨파스트.
[도판 28] 레이 맥크로우(Ray McCullough)와 어니 프란시스(Ernie

Francis), <지역 어린이들 Local youngsters>, 1977, 디스라엘리 스트리트(Disraeli Street), 벨파스트.

[도판 29] 데렉 세이모(derek Seymour)와 테리 머피(Terry Murphy), <권투선수들 Boxers>, 1978, 하이필드(High Field), 벨파스트.

[도판 30] 존 카슨(John Carson)과 마우린 다비스(Maureen Davis), <용접공들 Welders>, 1978, 에인스워스 애비뉴(Ainsworth Avenue), 벨파스트.

[도판 31] 레슬리 니콜(Leslie Nicholl)과 론다 브라운(Rhonda Brown) <스파이더맨 Spiderman>, 1979, 로드 스트리트(Lord Street), 벨파스트.

[도판 32] 작가미상, <헐링과 게일 축구를 하는 남성들 Men playing hurling and Gaelic football>, 1988, 어퍼 메도우 스트리트(Upper Meadow Street), 벨파스트.

[도판 33] 작가미상, <바비샌즈 Bobby Sands>, 1981, 크레간 하이츠(Creggan Hights), 데리.

[도판 34] 바비 샌즈(Bobby Sands) in BBC News(1981).

[도판 35] 단식투쟁 시위자들의 포스터를 든 시위대의 모습, 1981.

[도판 36] 작가미상, <바비 샌즈 Bobby Sands>, 1981, 쇼우스 로드(Shaws Road), 벨파스트.

[도판 37] 작가미상, <자유의 정신 Spirit Of Freedom>, 1981, 웨스트랜드 스트리트(Westland Street), 데리.

[도판 38] 제라드 켈리(Gerard Kelly), <바비 샌즈 Bobby Sands>, 1989, 세바스타폴 스트리트(Sebastapol Street), 벨파스트.

[도판 39]] 작가미상, <정의를 갈망하는 자들은 복되다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for justice>, 1981, 록마운트 스트리트(Rockmount Street), 벨파스트.

[도판 40] 작가미상, <정의를 갈망하는 자들은 복되다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for justice>, 1981, 화이트록 로드(Whiterock Road), 벨파스트.

[도판 41] <다섯 가지 요구 Five Demands>, 1981, 화이트록 로드

(Whiterock Road), 벨파스트.
[도판 42] 작가미상, <대처의 등을 쳐라 Break Thatcher's Back>, 1981, 록모어 로드(Rockmore Road), 벨파스트.
[도판 43] 작가미상, <탄압과 저항 Repression and Resistance>, 1984, 모이라 스트리트(Moira Street), 벨파스트.
[도판 44] 왼쪽: 작가미상, <IRA에게 승리를 Victory [to the] IRA>, 1981, 쇼 로드(Shaw Road), 벨파스트, 오른쪽: 1974 포스터.
[도판 45] 작가미상, <정의의 컨베이어 벨트 Conveyor belt of justice>, 1981, 비치마운트 애비뉴(Beechmount Avenue), 벨파스트.
[도판 46] 작가미상, <정의의 컨베이어 벨트 Conveyor belt of justice>, 1981, 크레간(Creggan), 데리.
[도판 47] 왼쪽: 작가미상, <영국인 철수 Sasenach Armach(Brits Out)>, 1981, 앤더슨스타운 로드(Andersonstown Road), 벨파스트, 오른쪽: <영국군 철수 Troops Out Now> 포스터.
[도판 48] 작가미상, <영국인을 내보내라 Get the Brits Out>, 1981, 로스빌 플랫(Rossvill Flats), 벨파스트.
[도판 49] <바비 샌즈를 죽게 하라 Let Bobby Sands Die>, 1981, 샌디로(Sandy Row), 벨파스트.
[도판 50] 작가미상, <새로운 아일랜드를 위해 For a New Ireland>, 1983, 비치마운트 애비뉴(Beechmount Avenue), 벨파스트.
[도판 51] 작가미상, <대처에게 반격하라 Strike Back at Thatcher>, 1983, 벨파스트.
[도판 52] <벨파스트는 No라고 말한다 Belfast Say No>, 1985, 벨파스트 시청, 벨파스트.
[도판 53] 알렌 스킬렌(Alan Skillen), <항복하지 말자 No Surrender>, 1984, 펄시 플레이스(Percy Place), 벨파스트.
[도판 54] 작가미상, <UFF 의용군 UFF volunteers >, 1988, 벨파스트.
[도판 55] 작가미상, <얼스터 의용군 UVF>, 1985, 오하이오 스트리트(Ohio Street), 벨파스트.

[도판 56] 작가미상, <얼스터 36사단 군인들 Soldiers of the 36th Ulster Division>, 1987(2000 재제작), 데르보크(Dervock), 앤트림.
[도판 57] 작가미상, <반역자와 살인범 A Traitor and A Murderess>, 1989, 발리콜만 에스테이트(Ballycolman estate), 스트라반(Strabane).
[도판 58] 작가미상, <우리의 날이 오리라 We will have our day(Beidh Ár Lá Linn)>, 1989, 사우스 링크(South Link), 벨파스트.
[도판 59] 제라드 켈리(Gerard Kelly), <누아다 왕 King Nuada>, 1987, 스프링힐 애비뉴(Springhill Avenue), 벨파스트.
[도판 60] 짐 피츠페트릭(Jim Fitzpatrick), ≪은 팔 the Silver Arm≫의 삽화, 1983.
[도판 61] 제라드 켈리(Gerard Kelly), <누아다 왕 King Nuada>, 2000년대 재제작(2019년 촬영), 화이트록 로드, 벨파스트.
[도판 62] <사도 요한 St John>, ≪켈스의 서 the Book of Kells≫, 8세기 제작.
[도판 63] 작가미상, <나는 아일랜드다 Mise Eire(I am Ireland)>, 1985, 챔버레인 스트리트(Chamberlain Street), 데리.
[도판 64] 제라드 켈리(Gerard Kelly), <1916년의 쿠훌렌 1916 Cuchulainn>, 1988, 모나흐 로드(MonaghRoad), 벨파스트.
[도판 65] 올리버 세퍼드(Oliver Sheppard), <쿠훌렌Cu Chulainn>, 1911-1912, 더블린 중앙우체국(General Post Office).
[도판 66] 작가미상, <UDA와 쿠훌렌 UDA with Cuchulainn>, 1992, 뉴타우너즈 로드(Newtownards Road), 벨파스트.
[도판 67] 왼쪽: 숀 맥베이(Sean McVeigh), 2011, 오른쪽: 루카스 퀴레이(Lucas Quigley), 2013, 국제 장벽(International Wall), 노스엄버랜드 스트리트(Northumberland Street), 벨파스트.
[도판 68] 죠셉 헤가티(Joseph Hegarty) <케이브힐 기슭의 백파이프 연주자 Uileannpiperon slopes of Cave Hill>, 1994, 플락스 스트리트(Flax Street), 벨파스트.
[도판 69] 작가미상, <대기근 150주년 150th anniversary of the Great

Famine>, 1995(2019 촬영), 뉴 로지 로드(New Lodge Road), 벨파스트.
[도판 70] 작가미상, <대기근 150주년 150th anniversary of the Great Famine>, 1995, 로즈나린 애비뉴(Rosnareen Avenue), 벨파스트.
[도판 71] 작가미상, <떠돌이 교사와 야외학교 Itinerant teacher and hedge row school >, 1996, 아도인 애비뉴(Ardoyne Avenue), 벨파스트.
[도판 72] 보그사이드 아티스트(Bogside Artists), <화염병 시위자 Petrol Bomber>, 1994(2019 촬영), 로스빌 스트리트(Rossville Street), 데리.
[도판 73] 클리브 림킨(Clive Limpkin), <화염병 시위자 Petrol Bomber>, 《보그사이드 전투 The Battle of Bogside》, 1969.
[도판 74] 보그사이드 아티스트(Bogside Artists), <블러디 선데이 Bloody Sunday>, 1997(2019 촬영), 로스빌 스트리트(Rossville Street), 데리.
[도판 75] 작가미상, <1912-1994 여전히 건재한 UVF 1912-1994 Still undefeated UVF>, 1994, 우드스톡 링크(Woodstock Link), 벨파스트.
[도판 76] 작가미상, <마스터, 우리는 순례자다 We are the pilgrims, master>, 1996(2019 촬영), 멀세이 스트리트(Mersey Street), 벨파스트.
[도판 77] 에티튜드 아트워크(Attitude Artwork), <우리가 죄를 결정하고 형벌을 정한다 We Determine The Guilty, We Decide The Punishment>, 1997, 데리.
[도판 78] 작가미상, <협정: 종파적 괴롭힘에서 벗어나도록 하는가? The Agreement: free from sectarian harassment?>, 1998, 헐슨 파크(Hurson Park), 포르타다운(Portadown), 아마(Armagh).
[도판 79] 작가미상, <블랙 앤 화이트! It's Black And White!>, 2001, 아도인 로드(Ardoyne Road), 벨파스트.
[도판 80] 작가미상, <브라이언 스튜어트 Brian Stewart>, 2001, 놀그렌 로드(Norglen Road), 벨파스트.
[도판 81] 작가미상, <안전 가옥 Safe House>, 2001, 발리머피 드라이브(Ballymurphy Drive), 벨파스트.
[도판 82] 작가미상, <붉은 옷의 여성 Lady in Red>, 2002(2019

촬영), 발리머피 로드(Ballymurphy Road), 벨파스트.
[도판 83] 작가미상, <마이클 스톤 Michael Stone>, 2000, 템플모어 애비뉴(Templemore Avenue), 벨파스트.
[도판 84] 작가미상, <윌리엄 버키 멕크로우 William Bucky McCullough>, 2000, 호프웰 크레센트(Hopewell Crescent), 벨파스트.
[도판 85] 작가미상, <할랜드 앤 울프 Harland and Wolff>, 2006, 케닐워스 플레이스(Kenilworth Place), 벨파스트.
[도판 86] 작가미상, <아이들 Children>, 2005, 린필드 로드(Linfield Road), 벨파스트.
[도판 87] 작가미상, <내 얼스터 혈통은 가장 귀중한 유산이다 My Ulster Blood Is My Most Priceless Heritage>, 1999, 아인스워스 스트리트(Ainsworth Street), 벨파스트.
[도판 88] 작가미상, <조지 워싱턴 George Washington>, 2000, 에브링턴 스트리트(Ebrington Street), 데리.
[도판 89] 작가미상, <얼스터-스콧인들의 4000년 4000 Years Of Ulster-Scots>, 1999, 아보니엘 로드(Avoniel Road), 벨파스트.
[도판 90] 작가미상, <올리버 크롬웰 Oliver Cromwell>, 2002, 샨킬 퍼레이드(Shankill Parade), 벨파스트.
[도판 91] 에드 레이놀즈(Ed Reynolds), <보편적 인권 Universal Human Rights>, 2009(2019 촬영), 호프웰 크레센트(Hopewell Crescent), 벨파스트.
[도판 92] 작가미상, <샨킬 로드 A-Z 역사 A-Z History of the Shankill Road>, 2009(2019 촬영), 샨킬 로드(Shankill Road), 벨파스트.
[도판 93] 팀 멕카시(Tim McCarthy), <69 골드 러시 69 Gold Rush>, 2009(2019 촬영), 샨킬 로드(Shankill Road), 벨파스트.
[도판 94] <69 골드 러시 69 Gold Rush> 명판, 샨킬 로드(Shankill Road), 벨파스트.
[도판 95] 작가미상, <유럽 전승 기념일 1945년 5월 8일 VE Day - 8th May 1945>, 2009(2019 촬영), 도버 플레이스(Dover Place), 벨파스트.

[도판 96] 조 대런 서톤(John Darren Sutton), <보인 강을 건너는 빌리 왕 King Billy crossing the Boyne>, 2008, 타바나흐 스트리트(Tavanagh Street), 벨파스트.
[도판 97] 대니 데베니(Danny Devenny), <1607년 백작의 탈출 Flight of the Earls>, 2008, 아도인 애비뉴(Ardoyne Avenue), 벨파스트.
[도판 98] 작가미상, <마틴 루터 Martin Luther>, 2009, 노스 바운더리스 트리트(North Boundary Street), 벨파스트.
[도판 99] 작가미상, <윌리엄 3세 King William Ⅲ>, 2010(2019 촬영), 샌디로(Sandy Row), 벨파스트.
[도판 100] 작가미상, <벨파스트 호수 전사들 Laochra Loch Lao(Belfast Lough Warriors)>, 2010, 다비스 스트리트(Davis Street), 벨파스트.
[도판 101] <스스로 방어할 권리 The Right To Defend Yourself>, 2011(2019 촬영), 뉴타운너즈 스트리트(Newtownards Street), 벨파스트.
[도판 102] 대니 데베니(Danny Devenny)와 마티 리온즈(Marty Lyons), <바비 샌즈 Bobby Sand>, 2015(2019 촬영), 세바스타폴 스트리트, 벨파스트.
[도판 103] 코너 해링턴(Conor Harrington), <벨파스트의 결투 The Duel of Belfast>, 2012(2019 촬영), 힐 스트리트(Hill Street), 벨파스트.
[도판 104] MTO, <프로타고라스의 아들 Son of Protagoras>, 2014(2019 촬영), 탈봇 스트리트(Talbot Street), 벨파스트.
[도판 105] 노만 클란(Noman Clan), <할랜드 앤 울프 Harland & Wolf>, 2016(2019 촬영), 힐 스트리트(Hill Street), 벨파스트.
[도판 106] 작가미상 <1969년의 재로부터 Out of the ashes of 1969>, 2012(2019 촬영), 뉴 로지 로드(New Lodge Road), 벨파스트.
[도판 107] 짐 윌슨(Jim Wilson), <이제 그만 No More>, 2016(2019 촬영), 케닐워스 플레이스(Kenilworth Place), 벨파스트.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본 논문은 1908년 아일랜드 북부 지역에 처음 등장한 벽화부터 북아일랜드 트러블(the Troubles, 1968-1998)로 불리는 분쟁 시기와 그 이후에 제작된 벽화까지 한 세기 동안 동시대 정치적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서 제작된 벽화에 관한 연구다. 그리고 벽화의 사회적 역할과 정치적 사건에 따라 벽화의 주제와 형식이 변화되는 과정을 고찰하는 연구다. 북아일랜드 벽화는 1980년대 집중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하면서 벽화를 그린 주체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리고 북아일랜드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서구사회의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북아일랜드에서 벽화는 종교, 언어와 민족이 다른 두 집단 사이에 생존권을 둘러싼 갈등이 근본적인 제작 배경이었다.[1] 북아일랜드 벽화에는 17세기 아일랜드 북부 얼스터(Ulster) 지역에 잉글랜드인과 스코틀랜드인이 이주하여 아일랜드인의 주권과 영토를 찬탈하는 가운데 형성된 종교, 민족 및 문화적 이념이 포함되어 있다.

북아일랜드는 웨일스(Wales)와 스코틀랜드(Scotland)처럼 영국 국가의 한 부분을 가리키는 명칭이다. 영국 정부는 아일랜드 독립전쟁 직후인 1921년 앵글로-아이리시 조약(Anglo-Irish Treaty)으로 아일랜드를 남북으로 나누고, 1927년 의회법에 따라 영국의 공식 명칭을 현재의 대영제국(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약칭 UK)으로 바꾸었다.[2] 아일랜드 분할 이후 영연방(Commonwealth)이

1) 아일랜드 '민족'에 관해서는 한-민족(one-nation) 이론과 두-민족(two-nations) 이론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관점들이 있다. 한-민족 이론은 공통의 역사와 문화를 지닌 영토 안의 아일랜드 거주민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본다. 반면 두-민족 이론은 민족 정서가 반드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19세기 이전까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민족 정서 없이 지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다룬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아일랜드의 개신교 커뮤니티는 가톨릭 아일랜드 민족과 별개인 하나의 민족 또는 민족의 일부로 여겨져 왔다. David W. Miller, *Queen's Rebels: Ulster Loyalism in Historical Perspective*, (Dublin: Gill and Macmillan, 1978) pp. 45-46.

되었던 남쪽의 아일랜드 자유국(the Irish Free State)은 1949년 영연방에서 탈퇴하고 아일랜드 공화국(the Republic of Ireland)으로 영국에서 완전히 독립하였다.

아일랜드는 영국의 침략과 이주로 이주민들과 원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이다. 영국이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강력한 개신교 왕권으로 가톨릭 영토인 아일랜드를 통치한 이래로, 아일랜드는 영국의 법률에 따라 아일랜드 영토 주인을 정하고 정치적·경제적 계급을 나누는 과정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종교는 교리적 차이를 구분 짓는 지표라기보다 '아일랜드 원주민 후손'과 '영국 이주민 후손'을 식별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클레어 미첼(Claire Michell)은 북아일랜드 건립 후 종교는 종교적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개신교도와 가톨릭교도로 분류하는 "민족 표시(ethnic marker)"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3)]

북아일랜드 벽화는 1921년 이후의 북아일랜드와 그 이전 아일랜드 북부지역에 그려진 벽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첫 벽화가 1908년에 제작된 이후 2010년대까지 2천여 점이 제작되었다. 이 벽화들의 제작 주체와 주제는 크게 두 개의 축으로 나뉘는데, 한 축은 400여 년 전 아일랜드 북부의 얼스터 지방에 정착한 영국 개신교 후손들이 북아일랜드 영토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다루고 있다. 다른 한 축은 1921년 아일랜드 분할 이후 개신교 정부가 지배하는 북아일랜드에 남겨진 가톨릭교도들이 종파적 차별에 대한 저항과 아일랜드 통일을 위한 투쟁의 하나로 제작한 것이다. 북아일랜드 벽화의 대부분은 북아일랜드 분쟁 기간(1968-1998)과 2010년 전후 평화 정착기 사이 40여 년간 제작되었다. 벽화는 당시 공식 언론보다 더 역동적으로 북아일랜드를 둘러싼 정치적 갈

---

2) 잉글랜드 의회는 1535년 웨일스를, 1707년 스코틀랜드를, 1800년 아일랜드를 합병법(the Act of Union)에 따라 정치적으로 합병하였고, 1801년부터 영국은 대영제국(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Ireland)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1921년 아일랜드 분할 결정으로 영국은 120년 만에 국경을 변경했다. 반면 영국 왕실 통합은 의회 통합보다 앞섰다. 잉글랜드 왕실은 1485년 웨일스를, 1541년 아일랜드를, 1603년 스코틀랜드를 통합했다. 따라서 1603년 이후 영국은 지역명을 구분하여 부르기보다 '영국'으로 통칭하여 부른다. 다만 의회 활동을 강조할 때는 합병 연도에 따라 '잉글랜드', '스코틀랜드'를 따로 부른다.

3) Claire Mitchell, "Behind the ethnic marker: Religion and social identification in Northern Ireland. *Sociology of Religion,* 66:1(2005), p. 8.

등을 즉각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대중적 매체였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인들이 아일랜드에 본격적으로 이주한 1607년부터 가톨릭 아일랜드인들은 영국의 주권 찬탈과 경제적 착취에 저항해 왔다. 1641년에 일어났던 가톨릭 원주민 봉기를 시작으로 1798년의 공화주의 봉기, 1848년의 청년 아일랜드(Young Ireland) 봉기, 1916년의 부활절 봉기(Easter Rising) 등 가톨릭 아일랜드인들은 영국 정부와 개신교도들을 아일랜드에서 몰아내고자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그 후로도 계속된 아일랜드 독립전쟁 결과 아일랜드는 1922년에 아일랜드 자유국으로 독립했지만, 아일랜드 전체 32개 카운티(County) 중에서 북부 얼스터 지역의 6개 카운티를 영국과 개신교 거주민들에게 빼앗겨야 했다. 이러한 분쟁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북아일랜드 벽화에는 각 역사적 사건에 관한 개신교도와 가톨릭교도 양측의 정치적 입장이 표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926년에 실시된 북아일랜드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인구 약 125만 명 중 개신교도는 62.2%(781,652명), 가톨릭교도는 33.5%(420,428명)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해 1981년에는 각각 53%와 28%로, 2011년에는 각각 41%와 41%(18%는 기타종교나 무응답)가 되었다.[4] 북아일랜드는 건립 초부터 개신교 정당이 지배했고 가톨릭교도는 소수민족 취급을 받았지만 한 세기 동안 가톨릭교도의 출산율이 개신교도를 앞선 데다가 트러블 시기에 유혈 분쟁을 피해 개신교 중산층의 해외 이주가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인구 구성이 바뀌었다. 이러한 인구 변화는 북아일랜드 벽화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북아일랜드의 두 민족 집단인 개신교도와 가톨릭교도를 지칭하는 용어를 필요에 따라 여러 용어로 사용했다. 먼저 1800년에

---

4) 북아일랜드 성립 초기인 1926년 각각 약 62.2%와 33.5%였던 개신교와 가톨릭 인구비율은 1981년 53%와 28%로 낮아졌고 무응답이 약 19%를 차지했다. 1926년 무응답/기타는 4.3%였다. 201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개신교(41%)와 가톨릭(41%) 비율이 거의 같아졌고 무교(10%), 무응답(7.5%) 및 기타종교(0.5%)가 뒤를 이었다. 북아일랜드 인구는 1926년 약 125만 명, 1981년 161만 명, 2011년 181만 명이다. 참고로 1926년 개신교 내 교파별 비율은 장로교 50%, 성공회 43.3%, 침례교 6.3%였다. https://cain.ulster.ac.uk/ni/religion.htm, 2020.9.17.

제정된 합병법(the Act of Union)으로 영국이 아일랜드를 통합한 이후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개신교도는 교파(장로교와 성공회)와 계층에 상관없이 모두 연합주의자(Unionist)로 불렸다. 연합주의자 중에서 로열리스트(Loyalist)는 가톨릭교도에게 강한 적대감을 지닌 이들을 지칭한다.[5] 이들은 주로 노동자 계층으로서 아일랜드 통일을 막기 위해 폭력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 반면, 가톨릭교도는 아일랜드 민족주의자(Nationalist)로 분류되는데 중산층으로 갈수록 영국 국적 유지와 아일랜드 통일 사이에서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민족주의자 중에서 노동자 계층에 속하는 공화주의자(Republican)들은 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아일랜드 통일을 추구해 왔다. 가장 대표적인 공화주의 단체는 아일랜드 독립전쟁(1919-1921)을 일으켰던 아일랜드 공화국군(Ireland Republic Army, IRA)이다.[6]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톨릭교도와 개신교도라는 용어가 두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용어로 사용되지만, 두 커뮤니티의 정치적 입장을 다루기 위해서는 연합주의자와 민족주의자를 사용하고, 분쟁의 군사적 측면을 강조할 때는 로열리스트와 공화주의자를 사용한다.

북아일랜드 분쟁의 근본적 원인은 종교적 교리 논쟁이 아닌 영토를 둘러싼 정치적·경제적 세력 다툼이었다. 이러한 영토를 둘러싼 분쟁을 다룬 북아일랜드 벽화는 개신교 로열리스트와 가톨릭 공화주의자가 그렸는데, 이들은 대부분 정규 미술교육을 받지 않았던 노동자 출신이었다. 이들은 벽화의 이미지로 자신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주는 역사적 인물이

5) 연합주의자는 영국과의 합병을 지지하는 아일랜드 개신교도를 지칭한다. 얼스터 지역의 개신교 인구가 소수였던 1640년대에 처음 등장한 용어인 로열리스트는 개신교도가 전체 아일랜드 인구의 약 27%를 차지하게 된 18세기 이후 주로 노동자 계층 개신교도를 지칭하게 되었다. 로열리스트는 '충성파'로 번역되기도 한다. 로열리스트는 이후 미국 독립 전쟁 시기인 1770년대 말에 영국 왕실에 충성했던 미국 식민지 개척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했다. 본 논문에서는 다른 용어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연합주의자, 민족주의자, 공화주의자와 같이 번역된 용어를 사용했으나, 로열리스트는 영국 왕실과 관련된 고유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번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6) 아일랜드 민족주의(Irish Nationalism) 이념은 19세기 초 형성되었다. 민족주의자(Nationalist) 중에서 1798년 봉기의 영향을 받고 성장한 공화주의자(Republican)들은 아일랜드 독립과 공화국 건립을 위해 19세기 중반부터 군사 활동을 하며 영국 정부에 저항해 왔다.

나 사건을 주로 그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북아일랜드에서 정치적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그려진 중요 인물과 상징물을 선택하여 그 의미를 분석했다. 벽화의 범위는 그림뿐만 아니라 그라피티 형태도 포함하여 벽화의 정치적 의미를 파악하는 자료로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미지로 표현되는 벽화는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그라피티는 반체제적이고 전복적이며 공공기물 파손으로 여겨진다.[7] 실제로 그라피티는 폭력단이 자신들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글자 형식을 양식화하여 쓴 "폭력단 그라피티(Gang Graffiti)"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다.[8] 본 연구는 가톨릭 편의 초기 공화주의 벽화가 글자 형식을 양식화한 그라피티는 아니지만, 정치적 의사 표명을 위해 텍스트를 사용한 점을 고려하여 그라피티 형태도 벽화 분석에 포함하였다. 지금까지 알려진 2,000여 점(그라피티를 포함하면 그 이상)의 북아일랜드 벽화 중에서 본 연구에 선택된 벽화 100여 점은 북아일랜드 벽화의 정치적 의미를 고찰하고 벽화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석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후반 들어서는 영국 정부에 저항하고 조직의 내부 결속력을 키우는 시도의 하나로 공화주의자와 로열리스트 모두 민족의 기원과 신화 및 역사적 상징물을 그리는 빈도가 증가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레고리 골윈(Gregory Goalwin)은 "민족적 신화는 양쪽 모두 집단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정치적 활동에 대한 집단적 지지를 동원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서사를 만들면서, 두 이념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했다.[9] 이처럼 북아일랜드에 수 세기에 걸쳐 경쟁적으로 형성

---

7) Jonathan Skinner and Lee Jolliffe, "'Wall-to-wall coverage': An introduction to murals tourism", in Jonathan Skinner and Lee Jolliffe, eds., *Murals and Tourism: Heritage, Politics and Identity,* New York: Routledge, 2017, p. 6.

8) 19세기 말에 등장한 폭력단 그라피티는 20세기에 로스앤젤레스와 필라델피아를 포함한 미국의 주요 도시들에서 나타났다. Roger Gastman and Caleb Moelon, "Gang & Graffiti", *the History of American Graffiti*, Harper Collins Publishers: New York, 2010, p. 42, 김지연, 「필라델리아 벽화 프로젝트」,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4), pp. 15-16에서 재인용.

9) Gregory Goalwin, "The Art of War: Instability, Insecurity, and Ideological Imagery in Northern Ireland's Political Murals, 1979 - 1998,"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tics, culture and society,* 26:3(2013), p. 193.

된 두 개의 민족적 전통은 20세기에 와서 벽화를 통해 각 민족의 이념적 목표를 보호하고 장려할 시각적 상징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로열리스트와 공화주의자가 각각 상징적 이미지들을 활용하거나 변용하여 동시대의 정치적 상황에 대응한 방식과 그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2. 선행 연구

북아일랜드 벽화 연구는 주로 사회학, 문화인류학, 정치학 등의 분야에서 진행되어왔다. 이 연구는 두 벽화 전통을 연구해 온 얼스터 대학(Ulster University)의 사회학자인 빌 롤스톤(Bill Rolston)의 연구와 그 외 정치·사회학자들의 연구를 기초 자료로 사용했다. 롤스톤은 1987년부터 30년 가까이 현장에서 벽화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20편이 넘는 책과 논문을 발표하는 등 벽화 제작 배경과 벽화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왔다.[10] 실제로 북아일랜드 인구의 약 80%가 종파에 따라 거주지가 분리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분리된 지역에 그려진 북아일랜드 벽화에는 가톨릭교도와 개신교도의 이념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11] 북아일랜드 벽화의 사회학적 연구는 북아일랜드 가톨릭과 개신교 양쪽 커뮤니티가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 어떤 이념적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벽화 이미지와 설명에 대한 기초자료는 얼스터 대학의

10) 빌 롤스턴은 1977년부터 2014년까지 얼스터대(University of Ulster at Jordanstown, Northern Ireland) 사회학과 교수를 지냈다. 그의 대표 저서와 논문으로『정치와 그림: 북아일랜드의 벽화와 분쟁 Politics and Paintings: Murals and Conflict in Northern Ireland』(1991)과 「리-이미징: 북아일랜드의 벽화와 국가 Re-imaging: Mural painting and the state in Northern Ireland」(2012)가 있다.

11) 2004년의 인구 주거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아일랜드 인구의 80%가 종파적으로 나뉜 지역 즉 가톨릭 지역이나 개신교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David Herbert, “Legacies of 1998: What Kind of Social Peace Has Developed in Norther Ireland? Social Attitudes, Inequalities, and Territorialities,” in Charles I Armstrong, David Herbert and Jan Erik Mustad, eds., *The Legacy of the Good Friday Agreement.* (Cham: Palgrave Macmillan, 2018), p. 252.

CAIN(Conflict Archive on the INternet)과 피터 몰리니 파트너십(Peter Moloney Partnership)의 아카이브에서 수집하였다. 본 논문에서 다룰 벽화는 위의 아카이브 자료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현장 방문을 통해 선택하였다. CAIN에는 1968년부터 현재까지의 북아일랜드 분쟁에 관련된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다. 피터 몰리니 파트너십은 1966년부터 벽화 사진을 찍고 자료를 수집해 온 피터 몰로니(Peter Moloney)의 기증품을 토대로 북아일랜드 도서관(LibrariesNI), 프리 데리 박물관(Free Derry Museum), 타워 박물관(Tower Museum)과 함께 디지털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다.[12] 벽화의 제목, 제작년도와 벽화가들(대부분 무명)에 대한 자료는 위의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가져왔는데, 간혹 다른 사이트나 관련 논문의 표기와 다른 예도 있다. 이 경우 위의 두 사이트의 표기를 우선으로 사용했다.

본 연구는 북아일랜드 벽화에 대한 아일랜드 미술계의 시각을 다루지 못했다. 아일랜드 미술계나 아일랜드 분할 후의 북아일랜드 미술계는 분쟁 시기 벽화 제작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실제로 북아일랜드 벽화는 노동자 계층과 무장단체의 저항 문화를 토대로 성장했다. 무엇보다 북아일랜드 트러블 시기의 미술계는 가톨릭 편의 IRA나 개신교 편의 UVF와 같은 무장단체 중 한편에 편승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여겨 벽화를 예술작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벽화의 미술사적 연구는 이름을 알린 소수의 벽화가와 그의 작품에 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술평론가 브라이언 맥아베라(Brian McAvera)는 1990년에 『미술, 정치와 아일랜드 Art, politics, and Ireland』를 발표하면서 벽화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다.[13] 북아일랜드 예술위원회 역시 2015년 트러블 시기의 예술을 소개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공개하면서 벽화를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14] 다만 벽화로 옮겨 그려진 로버트 발라흐(Robert Ballagh)의 회

---

12)https://cain.ulster.ac.uk/index.html; ; https://petermoloneycollection.wordpress.com/about/, 2020.12.30.

13) Bill Rolston, “Re-imaging: Mural painting and the state in Northern Ire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Studies*, 15:5(2012), p. 449.

14) 100여 명의 예술가가 1969년부터 1999년 사이에 제작한 500점을 포함한 디지털 아카이브는 건축과 시각 미술부터 문학, 연극, 음악, TV와 영화까지 다양한 장르의 예술

화 몇 점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동시대 미술계의 벽화에 대한 시각을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

벽화에 주로 사용된 깃발과 엠블렘 도안의 기원과 의미는 G.A. 하예즈-멕코이(G.A. Hayes-McCoy)의 『초기 아일랜드 깃발의 역사 A History of Irish Flags from Earliest Times』(1979)를 참고로 했다. 아예즈-멕코이는 12세기 문장학(heraldry)에서 출발하여 20세기 초 봉기와 독립전쟁에 사용된 깃발의 의미를 정리해 놓았다.

본 연구자는 아일랜드 역사학자 R.F. 포스터(R.F. Foster)의 『모던 아일랜드 1600-1972 Modern Ireland 1600-1972』(1988)를 아일랜드 역사를 이해하는 주된 출처로 사용했다.[15] 트러블 시기 북아일랜드 역사는 『1968년 이후의 북아일랜드 Northern Ireland since 1968』(1988)와 『북아일랜드의 현재 트러블의 기원 The Origin of the Present Troubles in Northern Ireland』(1997)을 참고했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의 북아일랜드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은『성 금요일 협정의 유산 The Legacy of the Good Friday Agreement』(2018)을 참고했다. 1998년의 성 금요일 협정(Good Friday Agreement) 이후 설립된 북아일랜드 자치정부는 1921년부터 1972년까지의 개신교 자치정부와 1972년부터 1998년까지 북아일랜드를 직접 통치한 영국 정부와 달리, 정치·사회 제도적 측면에서 북아일랜드 사회의 불평등을 대부분 제거했다. 1997년에 집권한 토니 블레어 신노동당 정부는 북아일랜드에 새 자치정부를 건립하면서 '평화 정착을 위한 전략'과 '개신교도와 가톨릭교도의 공존'을 위한 사회 변혁에 집중하도록 지원했다.

이처럼 북아일랜드 벽화는 동시대의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았고 주제와 형식이 다양해졌다는 점에서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Nevin Farrel, , "Northern Ireland Troubles art archive of 500 works is now online", *Belfast Telegraph*, February 10 2015, https://www.belfasttelegraph.co.uk/news/northern-ireland/northern-ireland-troubles-art-archive-of-500-works-is-now-online-30982140.html; http://www.troublesarchive.com/artforms 2020.12.30.

15) 1949년 아일랜드의 워터포드(Waterford)에서 태어난 R.F. 포스터(R.F. Foster)는 더블린의 트리니티 컬리지(Trinity College, Dublin)와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는 1991년부터 2016년까지 옥스퍼드에서 아일랜드 역사학 교수를 지냈다.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자는 북아일랜드의 개신교 이주민들과 가톨릭 아일랜드인들의 이념 형성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아일랜드 민족주의'와 '얼스터 연합주의'를 연구한 주요 논문들과 책을 참고했다. 먼저 공화주의 이념을 이해하기 위해 션 크로닌(Sean Cronin)의『아일랜드 민족주의: 그 기원과 이념의 역사 Irish Nationalism: A History of Its Roots and Ideology』(1980)를 주요 출처로 사용했다. 그는 아일랜드 민족주의 출현을 아일랜드 무장 독립운동의 근간으로 해석하고 있다.[16] 그는 아일랜드 민족주의를 다섯 종류로 나누고 18세기 말부터 계보를 이어온 독립운동 단체들을 민족주의라는 큰 범주 안에서 이념적 차이에 따라 분류했다. 이러한 그의 해석은 아일랜드 민족주의 내부의 상반되어 보이는 특성들이 어떻게 한 이념 안에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17] 크로닌에 따르면 트러블 시기의 IRA는 아일랜드 통일을 위해 무력을 정당화했던 무력 공화주의자(physical-force nationalist)로 볼 수 있다.

한편 얼스터 연합주의는 콜린 코틀러(Colin Coutler)의 「연합주의의 특성 The character of Unionism」(1994)과 그 외 관련 논문들을 참고했다. 코틀러는 로열리즘 이념을 구시대적이라고 해석하기보다 얼스터 개신교도가 집단의 이익을 위해 영국과 계약적 관계를 맺었다고 보았고 이를 근대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보편적 개념으로 해석했다.[18] 이러한 계약적 관계에 기반하여 1921년 아일랜드 분할부터 1972년까지 북아일랜드를 통치한 개신교 자치정부는 개신교 승리주의 문화를 국가의 비호 아래 지속할 수 있었다. 스티브 브루스(Steve Bruce)의 『붉은 손:

---

16) 1957년부터 3년간 IRA 지도부에서 활동한 션 크로닌은 이후 IRA를 떠나 미국에서 아일랜드 민족주의에 관한 연구와 집필을 했다.

17) 션 크로닌은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를 다섯 종류로 분류했는데, 첫째 전통주의자는 게일인이나 가톨릭교도를 말한다. 헌법적 민족주의자(constitutional nationalist)는 가톨릭교회의 영향을 받으나 통제는 받지 않고 폭력에 반대하는 이들을 의미한다. 목적을 위해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들은 무력 공화주의자(physical-force republican)로 불리고, 사회주의 사상을 지닌 이들은 급진적 공화주의자(radical republican)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민족주의자(cultural nationalist)는 국가보다 아일랜드 민족, 언어와 문화를 중시하는 이들을 지칭한다. Sean Cronin, *Irish Nationalism: A History of Its Roots and Ideology*, (Dublin: The Academy Press, 1980), p. 3.

18) Colin Coulter, "The character of unionism", *Irish Political Studies*, 9:1(1994), p. 3.

북아일랜드의 개신교 준군사조직들 The Red Hand: Protestant Paramilitaries in Northern Ireland』(1992)은 UVF와 UDA 등의 개신교 준군사조직들이 트러블 시기에 IRA와 가톨릭교도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정치적·경제적 배경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2,000여 점의 벽화 이미지와 벽화가 그려진 장소는 앞서 소개한 CAIN과 피터 몰리니 파트너십의 디지털 아카이브에 기록되어 있지만 시기에 따른 분류가 대부분이며 각 벽화 이미지와 동시대 정치적 사건과의 관계는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 그 인과 관계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 트러블 시기에 벽화를 주로 제작했던 IRA 무장세력과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들이 폭력단체였다는 사실 역시 벽화에 관한 연구가 미술계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2,000여 점의 벽화 중에서 100여 점을 시기와 주제에 따라 선정하여 그 시각적 상징들의 의미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정치적 사건은 벽화를 이해하기 위한 단서로 기술되었다. 본 연구는 북아일랜드 벽화의 제작 주체가 시대에 따라 어떤 사건의 영향을 받고 벽화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3.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본론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Ⅱ장에서는 벽화의 등장과 초기 벽화의 전개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20세기 초에 개신교 노동자 계층인 로열리스트들이 아일랜드 북부 얼스터에서 벽화를 그리게 된 정치적 배경과 이 과정에서 17세기 왕인 윌리엄 3세의 도상이 로열리스트 벽화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된 이유를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1968년의 가톨릭 시민권 운동 이후 가톨릭 노동자 계층이 영국 정부의 탄압에 저항하는 매체로 그라피티 형식의 벽화를 활용하기 시작한 배경을 다루고자 한다. 북아일랜드 30년 분쟁인 트러블 초기에 가톨릭 편의 IRA와 개신교 편의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들이 벽화를 통해 표현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Ⅲ장에서는 1981년부터 20여 년간 벽화의 주제와 형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고찰해 볼 것이다. 1981년 IRA 수감자들의 단식투쟁을 계기로 공화주의 벽화가 급증하던 시기에 벽화가 가톨릭 민족주의자들이 결속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규명할 것이다. 그리고 1980년대 공화주의 벽화에 사용된 이미지와 슬로건의 기원을 살펴보고 그것이 벽화에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다룰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1985년의 앵글로-아이리시 협정(Anglo-Irish Agreement) 시기에 로열리스트 벽화에 등장한 이미지가 북아일랜드 개신교도와 가톨릭교도, 영국 정부 사이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1998년의 성 금요일 협정으로 분쟁이 종식되고 북아일랜드에 새로운 자치정부가 건립되던 시기에 정치적 상황이 벽화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다룰 것이다.

Ⅳ장에서는 2004년부터 시행된 북아일랜드 자치정부의 벽화 제거 및 교체 프로젝트 결과로 제작된 벽화를 보고 이러한 벽화의 제도화과정에서 벽화의 역할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는가를 고찰할 것이다. 벽화 제작 주체가 예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협력단과 이들이 고용한 예술가들로 바뀌면서 새로운 주제의 벽화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방식이 적용된 벽화에 대해 양분된 시각이 있었다. 따라서 마지막 장에서는 정부가 후원한 벽화가 북아일랜드 사회에 미친 영향과 그 결과물을 비판적 시각으로 고찰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한 벽화에 정치적 시각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아일랜드 통일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커지는 계기가 된 2016년의 브렉시트 결정과 2021년 영국의 EU 탈퇴는 북아일랜드 벽화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Ⅱ. 아일랜드 자치법안 통과(1914) 및 아일랜드 분할 이후의 벽화(1922-1980)

헨리 8세((Henry Ⅷ, 재위 1509-1547)가 1541년에 자신을 아일랜드의 왕으로 칭한 후 영국은 아일랜드를 4세기 가까이 정치·경제·종교적으로 지배해왔다.[19] 영국 정치계에서 아일랜드 독립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1886년 첫 번째 자치법안(Home Rule Bill)이 상정되면서 시작됐는데, 20세기 초에 이르러 아일랜드 자치정부의 설립 가능성이 상당히 커져 있었다. 아일랜드에서 자치(Home Rule)는 아일랜드 입법부의 독립을 허용하고 내정을 아일랜드 의회가 맡는 대신 외정을 웨스트민스터가 결정하는 체제를 의미했다.[20] 그러나 아일랜드 북부인 얼스터 지방 전체 인구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던 개신교도들은 영국 정부가 아일랜드의 독립이나 마찬가지인 결정을 내리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아일랜드의 정치적 상황에서 벽화는 예술작품이라기보다는 제작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명의 결과물로 얼스터 지방에 등장했다. 로열리스트 벽화는 세 번째 자치법안 상정이 임박하던 1908년에 개신교 로열리스트들이 자신의 '영국 정체성'을 표명하는 벽화를 개신교 연례행진이 진행되는 경로에 그리면서 시작되었다. 결과적으로, 얼스터 개신교도들은 1914년 아일랜드 자치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얼스터의 6개 카운티가 자치법에서 제외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얼스터의 6개 카운티는 1921년의 앵글로-아이리시 조약(Anglo-Irish Treaty)으로 아일랜드 분할이 결정된 후 북아일랜드라는 이름으로 영국의 한 부분

---

19) 헨리 2세(Henry Ⅱ, 재위 1154-1189)가 1169년부터 아일랜드를 침략한 후 1172년 교황의 재가로 잉글랜드 왕은 아일랜드 대주군(Lord of Ireland)의 지위를 지녔다. 이 당시 아일랜드는 정치적 단일체가 아니었고 수십 명 이상의 영주들이 통치하고 있었다.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의 관계는 헨리 8세가 1534년 성공회(the Church of England)를 창립하여 국교로 삼고 로마 가톨릭 교황과 관계를 끊으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헨리 8세는 1541년 스스로 아일랜드 왕국의 왕(King of Ireland, 재위 1541-1547)이라고 선포하면서 아일랜드에 잉글랜드식의 국교회(Church of Ireland)를 설립하고 수도원을 해산하는 등의 종교개혁을 단행했다. 박지향, 『슬픈 아일랜드』, (기파랑, 2008), pp. 28-29.

20) Miller(주 1), p. 100.

으로 통합되었다(도 1).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북아일랜드는 얼스터의 9개 카운티(County) 중에서 6개 카운티, 즉 앤트림(Antrim), 다운(Down), 데리(Derry), 티론(Tyrone), 아마(Armagh)와 퍼매너(Fermanagh)로 이루어져 있다. 나머지 카운티인 모나한(Monaghan), 도네갈(Donegal)과 카반(Cavan)은 아일랜드의 다른 세 지방인 렌스터(Leinster), 먼스터(Munster) 및 코나흐트(Connaught)와 함께 아일랜드 자유국(1922-1949)으로 분리된 후 1949년에 아일랜드 공화국으로 영국에서 완전히 독립하였다.[21]

한편 공화주의 벽화는 아일랜드 분할로 북아일랜드에 남겨진 가톨릭 아일랜드인들이 1969년에 북아일랜드 개신교 정부의 차별 정책과 영국 정부의 탄압에 저항하여 '가톨릭 자치 구역'을 선포하는 그라피티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공화주의 벽화는 로열리스트 벽화보다 60여 년 뒤늦게 등장했지만, 북아일랜드에서 공화주의자들이 영국 정부에 대한 저항 의지와 아일랜드 통일을 향한 의지를 공공 공간에 표명한 첫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북아일랜드에서 벽화는 각 집단과 국가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였다.

첫 등장부터 벽화는 개신교 커뮤니티와 가톨릭 커뮤니티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거주지역을 종파별로 분리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닐 자만(Neil Jarman)은 로열리스트들이 벽화를 처음 그린 1908년부터 개신교 지역을 가톨릭 지역과 분리하는 "장소의 종파화(sectarianisation of place)"가 시각적으로 확실히 드러나게 되었다고 보았다.[22] 가톨릭 커뮤니티와 개신교 커뮤니티 모두 "상상의 커뮤니티(imagined

---

21) 자유당의 허버트 헨리 애스퀴스(Herbert Henry Asquith) 총리는 1914년 5월 아일랜드 자치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얼스터 연합당의 요구대로 얼스터의 6개 카운티를 자치 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1911년의 인구조사를 보면, 얼스터 9개 카운티의 개신교도 비율은 각각 앤트림(79.5%), 다운(68.4%), 아마(54.7%), 데리(54.2%), 티론(44.6%), 퍼매너(43.8%), 모나한(25.3%), 도네갈(21.1%)과 카반(18.5%)을 차지했다. 개신교도가 30% 미만인 모나한, 도네갈과 카반은 아일랜드 자유국에 포함되었다. Miller(주 1), p. 103 and p. 107; Martin Wallace, *Northern Ireland: 50 Years of Self-Government,* (Newton Abbot: David & Charles, 1971), p. 67.

22) Neil Jarman, "Painting Landscapes: The Place of Murals in the Symbolic Construction of Urban Space", (1997), in Michael E. Geisler, ed., *National Symbols, Fractured Identities,* (New England: Middlebury College Press, 2005), p. 176.

community)"로 불리던 민족 거주지를 실제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벽화를 그려놓음으로써 자신이 그 커뮤니티의 일부임을 재확인하고 그것을 자신의 "문화적 뿌리(cultural roots)"로 여기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23] 이에 따라 벽화의 상징적 내용은 북아일랜드 사회가 양분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벽화를 통한 영역 표시는 거주민에게 강한 보호막을 제공하는 한편, 더 쉽게 자신의 민족·종파적 정체성을 드러내도록 했기 때문에 상대편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24]

이 장에서는 20세기 초 영국과 아일랜드가 아일랜드 자치정부 건립을 두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상황에서 왜 17세기 영국 왕이었던 윌리엄 3세(William Ⅲ, 재위 1689-1702)가 첫 아일랜드 벽화에 등장했는지와 영국 정체성을 드러낸 벽화가 얼스터 지역에 미친 영향을 고찰할 것이다. 또한, 1922년 아일랜드 분할 후 북아일랜드에서 행해진 가톨릭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차별 정책이 어떻게 1968년 북아일랜드 분쟁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고 공화주의 벽화의 출현으로 이어졌는지 분석할 것이다.

1. 아일랜드 북부 지역의 벽화의 등장

벽화 문화는 아일랜드의 네 지방(얼스터, 렌스터, 먼스터와 코나흐트) 중에서 유독 북부의 얼스터 지방만 보유하고 있는 문화다. 얼스터에서 벽화가 시작된 역사적 배경은 가톨릭교도와 개신교도 사이의 대립이 다른 지역보다 얼스터에서 더 심했던 이유와 벽화 속 이미지가 지닌 정치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얼스터의 벽화 문화는 오렌지회(Orange Order)의 승리주의 문화의

---

23)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Verso, 1983), p. 50.

24) 1969년부터 2001년 사이 북아일랜드에서는 분쟁으로 약 3,500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 중 1,523명이 가톨릭교도였고, 1,287명이 개신교도였으며, 약 500명이 영국군이었다. http://cain.ulst.ac.uk/sutton/, 2020.9.17.

하위개념으로 시작됐다. 오렌지회는 1795년 얼스터의 성공회 지주들이 설립한 비밀 협회(Secret Society)로, 현재까지 그 전통이 북아일랜드 개신교도들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들이 시작한 개신교 승리주의 문화는 얼스터 뿐만 아니라 다른 세 지방의 개신교도들에게도 전파되었지만, 벽화는 다른 세 지방에서는 그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벽화가 아일랜드 북부에서만 하나의 문화가 된 배경과 벽화가 얼스터 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초기 로열리스트 벽화에서 17세기 왕이었던 윌리엄 3세의 도상이 중요하게 다루어진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1) 얼스터 개신교 사회의 특징과 벽화의 등장

얼스터는 1607년부터 스코틀랜드인과 잉글랜드인이 대규모로 이주하여 가톨릭 원주민과 대립했던 지역이다. 얼스터에 영국인들의 이주가 본격화된 17세기 초의 역사는 이후 3세기 내내 아일랜드의 인구 구성과 분포에 큰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어 20세기 초의 아일랜드 인구 구성을 보면 아일랜드 네 지방(얼스터, 렌스터, 먼스터와 코나흐트) 중에서 얼스터에 가장 많은 개신교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특히 얼스터 6개 카운티의 개신교 인구는 약 62.2%를 차지했다.[25] 반면 1922년 아일랜드 분할 시기 아일랜드 자유국에 남아 있던 개신교 인구는 10.4%에 불과했다. 인구수로 비교해 본다면, 분할 당시 북아일랜드가 된 얼스터 6개 카운티의 개신교 인구는 약 78만 명이었고 아일랜드 자유국이 된 26개 카운티의 개신교 인구는 약 30만 명이었다.[26]

17세기 초부터 얼스터에 영국인들이 대규모로 이주하게 된 이유는 이 지역이 영국 왕실의 지배 아래 두기에 적합했기 때문이었다. 잉글랜드의 아일랜드 침략은 12세기 헨리 2세(Henry Ⅱ, 재위 1154-1189) 시대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그 당시 잉글랜드 이주민 수는 소수였고 그들의

25) Wallace(주 21), p. 67.
26) R.F. Foster, *Modern Ireland, 1600-1972*, (London:Penguin, 1988), p. 533.

거주지역은 주로 아일랜드의 중부와 남부에 국한되어 있었다.[27] 얼스터는 아일랜드의 네 지방(얼스터, 렌스터, 먼스터와 코나흐트) 중에서 가장 잉글랜드화(Anglicization) 되지 않은 지역이었다. 그러나 아일랜드 원주민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므로 영국이 새로운 인구를 이주시켜 잉글랜드화와 식민지화(colonization)를 진행하기 적합한 곳이기도 했다.[28] 이러한 이유로 영국의 아일랜드 식민지화는 1607년 얼스터에서 대규모 농장(Plantation)의 형태로 본격화되었다. 아니아 룸바(Ania Loomba)는 식민지 건설로 인해 원주민들과 이주민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충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보았다.[29] 아일랜드 역시 이주민과 원주민 사이에 충돌이 끊이지 않았던 대표적인 지역이었다. 이 시기부터 영국인들은 아일랜드 원주민들을 게으르고 정직하지 못하며 폭력적인 종족으로 묘사했다고 알려져 있다.[30] 이에 대해 아니아 룸바는 식민지 원주민들에 대한 인종적 해석은 특정 상황에서 관찰된 오해와 선입견에서 출발할 수 있으며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역학관계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어떤 종족도 시대를 초월한 고정된 개념으로 설명되지 않아야 하며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31] 그러나 이러한 아일랜드인에 대한 고정관념은 20세기까지도 북아일랜드에서 개신교도들이 가톨릭교도들을 공격하는 이유가 되었다.

---

27) 잉글랜드에서 아일랜드로의 첫 이주는 헨리 2세가 1169년부터 아일랜드를 침략하면서 시작되었다. 12세기 실질적인 잉글랜드의 통치권은 아일랜드 동부와 남부에 국한되었다. 헨리 2세는 주로 잉글랜드 귀족인 앵글로-노르만(Anglo-Norman)을 아일랜드로 이주시켜 잉글랜드 왕실과 아일랜드인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했다. 여전히 다수의 게일 영주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아일랜드에서 게일 영주들과 전쟁을 벌였던 앵글로-노르만 귀족들은 점차 아일랜드 원주민에게 동화되었다. 박지향, 『클래식 영국사』, (김영사, 2012), pp. 47-49.

28) 잉글랜드화가 아일랜드에 잉글랜드 법과 거주권 및 사회관계망을 도입하여 게일 관행을 흔들기 위한 느린 과정이라면, 식민지화는 게일주의(Gaelicism)를 뿌리 뽑기 위한 빠른 과정이었다. Foster(주 26), p. 7 and p. 59.

29) 식민지주의(colonialism)의 사전적 의미는 '농장(farm)' 또는 '정착(settlement)'을 뜻하는 로마 '콜로니아(colonia)'에서 유래했으며, 다른 땅에 정착했지만 여전히 시민권을 유지하고 있는 로마인들을 지칭했다. Ania Loomba, *Colonialism/Postcolonialism*, (London: Penguin, 1988), pp. 7-8.

30) Foster(주 26), p. 25.

31) 아니아 룸바는 19세기 초 영국 소설가 찰스 킹슬리(Charles Kingsley)가 아일랜드를 처음 여행한 후 그들을 인간 침팬지로 묘사했다는 기록을 예로 들었다. Loomba(주 29), p. 96.

얼스터 지방에 영국식의 농장이 건립된 것은 전쟁의 결과였다. 헨리 8세가 아일랜드에 잉글랜드식의 국교회(Church of Ireland)를 설립한 1534년 이후 엘리자베스 1세(Elizabeth I, 재위 1558-1603)가 아일랜드에 잉글랜드 법과 행정제도를 도입하자 얼스터를 통치하던 오닐 가문(O'Neills)은 잉글랜드 왕실의 개혁정책에 저항하여 티론의 반란(Tyrone's Rebellion)으로 불리는 9년 전쟁(1593-1603)을 일으켰다. 그러나 얼스터 영주들이 전쟁에서 패하면서 이들의 영토는 몰수되었고 얼스터의 거의 전 지역이 영국 왕실의 재산으로 귀속되었다.[32] 엘리자베스의 뒤를 이어 스코틀랜드 왕인 제임스 1세(James Ⅰ, 스코틀랜드 재위 1567-1625, 잉글랜드 재위 1603-1625)가 잉글랜드 왕이 되면서 영국 왕실은 하나로 통합되었다. 제임스 1세는 1607년부터 얼스터 지역에 대규모 이주 정책을 시작하면서, 얼스터 영주들로부터 몰수한 영토를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중소 젠트리에게 할당하고 이 지역에 본토인의 이주를 장려했다. 젠트리는 작위가 없는 지주층을 말한다.[33] 이로써 영국 개신교 이주민과 아일랜드 원주민 간에 경제적 착취 관계가 시작되었다.

17세기 이후 아일랜드는 잉글랜드 지주와 귀족 출신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 16세기 중반부터 헨리 8세와 그 이후 왕들은 아일랜드 성공회를 감독하고 식민지 농장을 운영할 지주 엘리트계급을 이주시켰는데, 이들은 신 잉글랜드인(New English)으로 불리는 아일랜드의 핵심 지배층이 되었다.[34] 식민지 농장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1613년에 아일랜드 의회는 신 잉글랜드인들이 다수인 의회를 구성하고 영국 재산법을 도입하면서 정치·경제적으로 개신교 이주민들에게 유리한 통치

32) 더블린의 아일랜드 의회(1297-1800)는 1536년 교황이 아닌 헨리 8세를 아일랜드 교회의 수장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1541년 헨리 8세가 아일랜드의 왕이 되면서 아일랜드는 개신교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잉글랜드의 지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얼스터 영주들과 추종자 100여 명은 9년 전쟁이 패한 후인 1607년 스페인으로 망명했고 남겨진 일부 영주들은 잉글랜드 법을 따르는 조건으로 영주 지위를 유지했다. Foster (주 26), pp. 42-43.

33) 헨리 8세의 종교개혁 이후 옛 수도원 땅이나 식민지 영토를 매입한 성공한 중간 계층이 젠트리가 되기도 했다. 박흥식, 「헨리 8세의 개혁과 수도원 해산」, 『역사학보』, 제214집(2012), 역사학회, p. 286.

34) 12세기에 헨리 2세가 이주시킨 잉글랜드 귀족(Anglo-Norman) 중 성공회로의 개종을 거부한 이들은 구 잉글랜드인으로 불리게 되었다. 박지향(주 27), pp. 47-49.

제도를 확립했다. 이러한 제도 아래서 구 잉글랜드인들을 포함한 가톨릭 아일랜드인들은 제도적으로 정치 참여가 금지되었다.[35]

신 잉글랜드인 지배계급 아래 얼스터 이주민들은 스코틀랜드 장로교(Presbyterian Church)와 잉글랜드 성공회 국교(Church of England) 출신으로 구성되었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얼스터로 온 초기 정착민들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 정부에 투자했던 채권자들과 돈을 벌려는 투자자들이었다.[36] 한편 전쟁에서 패한 얼스터 원주민들은 아일랜드 정치·경제 지배구조에서 최하위에 위치하게 되었다. 영국 왕실은 얼스터에 대규모 농장을 시작하면서 개신교 지주들에게 원주민 소작농들을 그 땅에서 추방하라고 경고했으나 노동력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원주민 추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자신들의 열악한 상황을 인지한 얼스터 원주민들은 짧은 임대 기간을 감당하고 높은 임대료를 기꺼이 지불했다. 그러나 점차 자신의 지위에 불만을 느끼게 되었던 원주민들은 1641년의 가톨릭 원주민 봉기에서 그 불만을 표출하게 되었다. 봉기를 진압한 영국은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로부터 대규모 이주를 더욱 장려해 나갔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18세기에 오면 얼스터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들의 개신교 인구 역시 증가하게 되었다.[37] 특히 개신교 인구의 증가율이 높았던 얼스터의 경우,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소작농들이 아일랜드 가톨릭 원주민들과 3세기 이상 충돌하게 되었다. 이 두 집단은 각각 20세기에 북아일랜드 벽화를 그린 로열리스트와 공화주의자의 선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일랜드 사회가 항상 종파를 기준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뉘었던 것은 아니었다. 18세기 초부터 아일랜드는 성공회 중심의 사회가 되면서 성공회교도와 장로교도 사이에 분열의 조짐이 있었다. 개신교도 사

---

35) Foster(주 26), pp. 50-53.
36) 위의 책, p. 66 and p. 77.
37) 1607년에 이미 얼스터 영토는 대부분 개신교 젠트리 소유였다. 1641년의 가톨릭 원주민 봉기 이후 아일랜드 전 영토의 59%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지주 소유가 되었다. 가톨릭 아일랜드인의 영토 소유율은 1776년에 5%로 떨어졌다. 반면 1660년 이후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로부터 아일랜드로의 이주가 더욱 장려되면서, 1600년 2%였던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출신의 아일랜드 인구비율은 1733년에 27%에 이르게 되었다. 앞의 책, p. 130; Miller(주 1), p. 26.

이의 분열은 아일랜드에서 지배계층으로 올라갈 수 없게 된 장로교도들의 불만에서 시작되었다. 성공회의주의(Anglicanism)로 불리는 이 지배원칙은 1707년 스코틀랜드 의회가 잉글랜드 의회에 합병되면서 장로교도가 공직에서 배제됨에 따라 생겨난 성공회 지배 방식을 의미한다.[38]

얼스터 지역에서 상공업 중산층을 형성했던 장로교도들은 영국과 성공회 지배계층에 대항하기 위해 통일 아일랜드인 협회(the Society of United Irishmen)를 설립하고 가톨릭 농민 비밀 협회인 디펜더(Defender)와 동맹하여 1798년에 공화주의 봉기를 일으켰다.[39] 이것은 피지배계층이었던 장로교도와 가톨릭교도가 종교의 자유를 원칙으로 영국의회로부터 독립된 아일랜드 의회 설립을 목표로 일으킨 최초의 아일랜드 독립운동으로 일컬어진다. 그러나 1795년에 얼스터 지역의 성공회 지주들이 설립한 오렌지회는 성공회 소작민들을 용병으로 고용하여 통일 아일랜드인 협회와 디펜더가 결성한 동맹군을 공격했는데, 이는 1798년의 공화주의 봉기가 실패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오렌지회는 장로교도의 정서에 남아 있던 반-가톨릭 감정을 자극하면서 다시 성공회교도와 장로교도가 개신교도로 연합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40] 얼스터의

38) 스코틀랜드는 의회를 잃음으로써 독립을 상실했으나, 사법 및 종교기관들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Kenneth O. Morgan, eds.,『옥스퍼드 영국사 The Oxford History of Britain』(1993), 영국사연구회 옮김(한울 아카데미, 1997), p. 420.

39) 장로교도의 공직 진출 금지법은 1780년에 폐지됐지만 이들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통일 아일랜드인 협회는 1791년 얼스터에서 장로교도들의 주도로 설립되었다. 창립자 28명 중 26명이 장로교도였고 테오발드 울프 톤(Theobald Wolfe Tone)과 다른 한 명은 성공회 엘리트 개혁가였다. 장로교도들은 아마 생산과 린넨 제조업으로 성공한 농민과 상공인이었는데, 아일랜드 경제를 통제하는 영국의 중상주의 정책에 반대하고 있었다. 프랑스 혁명과 계몽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자유 공화주의 사상을 지녔던 통일 아일랜드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원칙으로 영국 의회로부터 독립된 아일랜드 의회 설립을 목표로 혁명을 도모했다. 또 하나의 동맹조직인 디펜더는 1780년대 중반 얼스터에서 농민 시위 형태로 시작한 가톨릭 농민 비밀 협회였다. 프랑스 혁명 이념을 받아들이고 있던 가톨릭 농민들은 통일 아일랜드인들의 사상을 접하면서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그들의 빈곤이 끝날 것으로 확신하게 되었다. 1796년 디펜더와 통일 아일랜드인 협회는 동맹을 맺었다. Cronin(주 17), p. 22 and pp. 47-48; Foster(주 26), p. 265.

40) 통일 아일랜드인 협회와 디펜더는 1798년의 봉기가 성공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 배경에는 1760년대 이후 결성된 초-종파적 농민 비밀 협회들이 있었다.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 노동계급은 지주계급의 지나친 과세와 성공회 십일조, 높은 임대료 등의 경제적 착취에 저항하며 같이 농민 소요를 일으켰다. 그러나 1778년 이후의 가톨릭 차별 완화 정책(Catholic Relief, 1778-1793)은 성공회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의

장로교도와 가톨릭교도가 동맹했던 1798년의 공화주의 봉기는 종파를 초월하여 아일랜드 거주민들이 하나의 아일랜드 민족을 형성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봉기 실패로 인해 아일랜드는 종교를 기준으로 민족을 나누는 현상이 더욱 강해지게 되었다.

1798년의 공화주의 봉기를 진압한 영국은 1800년 합병법(the Acts of Union)을 제정하여 아일랜드를 합병하는 절차를 밟았다. 영국은 합병법을 통해 1801년 1월 1일 기존의 세 지역(잉글랜드,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에 아일랜드를 추가해 대영제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Ireland)이 되었다. 합병법은 봉기에 가담한 장로교도를 응징하는 한편 반체제적인 장로교 정체성을 바꾸도록 유인했다. 이때부터 성공회와 장로교는 하나로 묶여 개신교 연합주의(Protestant Unionism) 이념을 형성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1829년의 가톨릭 해방령(Catholic Emancipation Act)으로 가톨릭 아일랜드인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 대부분 철폐되면서 얼스터 지역은 가톨릭 민족주의자와 개신교 연합주의자로 더욱 양분된 사회가 되었다.[41] 이것은 개신교도들이 가톨릭 해방령으로 인해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되었다고 여겼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19세기 얼스터 개신교 사회는 더 이상 장로교와 성공회로 분열되지 않았고 오렌지회의 승리주의 문화를 통해 단단히 결속하여 얼스터 지역의 정치과 경제를 지배하게 되었다.

개신교 인구 다수가 얼스터에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배경으로 얼스터와 다른 세 지방의 산업 구조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아

갈등 구도를 피지배계급 간의 종파적 갈등 구도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어난 1798년의 공화주의 봉기는 오렌지회가 장로교 피지배계급을 포섭하면서 6주 만에 무너졌다. Foster(주 26), pp. 222-25.; Peter Gibbon, *The origins of Ulster Unionism: the formation of popular protestant politics and ideology in nineteenth-century Ireland*,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75), pp. 39-40.

41) 가톨릭 해방령으로 가톨릭교도의 의회 입당, 공직·판사직 수행과 육군과 해군 장교 임관이 허용되었고, 가톨릭교도에 대한 정치적 차별이 대부분 철폐되었다. 가톨릭 해방령은 다니엘 오코넬(Daniel O'Connell)과 그가 1823년 창설한 가톨릭 협회(Catholic Association)의 성과였다. 디펜더를 계승한 여러 비밀 협회들이 가톨릭 탄압에 저항한 농민 봉기를 계속 일으켰고 조직적으로 오코넬을 지원했다. Miller(주 1), p.67; Foster(주 18), p. 298 and pp. 300-301.

일랜드 남부 먼스터나 중부 렌스터의 개신교 지주계급 상당수는 1870년대 가톨릭 농민과의 토지 전쟁 과정에서 아일랜드를 떠났다. 또한, 1881년 아일랜드에 도입된 자유당의 토지법은 가톨릭 소작농 편에 서서 임대료 인상 중재 혜택과 법적 거주권 등 다양한 권리를 보장해 주었다. 그 결과, 가톨릭 소작농들은 임대료보다 낮은 이자로 토지를 매입할 기회를 얻은 반면 분쟁에 휘말린 개신교 지주계급은 경제적·정치적 이유로 아일랜드를 떠나는 선택을 했다.[42] 반면 남부지역보다 일찍 산업화가 진행된 얼스터에서 상공업에 종사하던 개신교도 대다수는 다른 지역 개신교도들과 달리 경제적 타격이 크지 않았다. 벨파스트와 얼스터 동부 지역은 대규모 산업화가 진행된 지역으로, 개신교도가 이 지역 산업재산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는 직업은 모두 개신교도가 차지했다.[43] 얼스터 개신교도들은 오히려 가톨릭교도들을 얼스터에서 내쫓기 위해 개신교 승리주의 문화를 강화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1908년에 등장한 로열리스트 벽화는 개신교도들이 가톨릭교도를 사회적으로 소외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얼스터 지방의 인구 구조는 20세기 초 웨스트민스터 의회가 아일랜드 자치법안을 상정하던 시기에 얼스터 개신교도들이 영국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큰 세력으로 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결국, 얼스터 개신교도들은 가톨릭 인구가 많은 3개 카운티를 제외한 후 얼스터 6개 카운티에서 북아일랜드를 건립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북아일랜드에 남겨진 가톨릭교도에 대한 차별과 탄압을 더욱더 합법화해 나갔다.

2) 얼스터 개신교 로열리스트의 벽화 제작 목적과 선택된 이미지

로열리스트의 첫 벽화는 얼스터 개신교 승리주의 행진의 직접적인 결과물이었다. 로열리스트 승리주의 문화는 개신교도였던 윌리엄 3세가

42) Foster(주 26), pp. 409-10 and pp. 412-15.
43) 예를 들어 1820년 개신교도와 가톨릭교도의 자산 비율은 40 대 1로, 개신교도가 산업 자본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위의 책, p. 342 and p. 533.

가톨릭교도였던 제임스 2세(James Ⅱ, 재위 1685-1688)를 물리친 1690년의 보인 전투(the Battle of Boyne)를 기념하는 '행진'에서 시작됐다. 승리주의 행진의 기원은 1740년대 보인 클럽(the Boyne Club)과 프로테스탄트 협회(the Protestant Society)가 더블린에서 열었던 행진으로, 그 관례를 1796년부터 오렌지회가 이어받았다.[44]

오렌지회는 1795년 얼스터의 아마 카운티에서 성공회 지주들이 개신교 농민들을 규합하여 결성한 비밀 협회로 오렌지 공 윌리엄 3세를 추종한다는 의미에서 "오렌지 보이"로도 불렸다.[45] 오렌지회는 개신교 민병대이고 오렌지 행진은 개신교 군악대 행진으로 볼 수 있다. 윌리엄 3세가 그려진 깃발을 들고 오렌지색 띠를 두른 "오렌지맨(Orangemen)"이 람베그 드럼(Lambeg drums)을 연주하며 배너와 아치로 장식된 길을 행진하는 행위는 개신교도의 우월함과 이를 막지 못하는 가톨릭교도의 열등함을 증명하는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도 2).[46] 오렌지회는 매년 보인 전투 기념일인 7월 12일에 전국에 있는 오렌지 로지(Orange Lodge) 18곳이 주관하여 "십이일(the Twelfth)" 행진을 개최해 왔다.[47] 북아일랜드 건립 후에는 오렌지 행진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크고 작은 행진이 북아일랜드 전역에서 진행되었는데, "행진 시즌(marching season)"으로 알려진 부활절부터 8월 말까지 최대 3,000여 번의 행진이 개최되었다고 알려져 있다.[48]

---

44) Ian McBride, *History and Memory in Modern Ire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 18.

45) 1795년 창립된 오렌지회의 전신은 1780년대 아마 카운티에서 활동하던 핍오데이 보이즈(Peep O' Day Boys)로서 주로 가톨릭교도들의 집을 급습하여 무기를 몰수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Cronin(주 17), p. 22.

46) Miller(주 1), p. 68.

47) 보인 전투는 본래 7월 1일에 일어났는데, 이후 영국이 그레고리력(Gregorian calendar)을 채택하면서 날짜가 변경되었다. 교황 그레고리 13세의 1582년 역법을 영국은 종교적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다가 1752년에야 받아들였다.

48) 아치는 르네상스 시대에 잉글랜드에 소개된 후 왕실 방문을 기념하거나 군주에게 경의를 표하는 행사에 사용되었다. 19세기에 오면 아치를 세우고 행진하는 것은 통합을 통한 결속과 강인함의 의미로 확장되었다. Neil Jarman, "The Orange Arch: Creating Tradition in Ulster," *Folklore*, 112:1(Aprch 2001), pp. 1-3; http://www.highlandradio.com/2015/07/13/orange-parades-taking-place-across-northern-ireland/ 2020.11.1.

가톨릭 아일랜드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17세기 영국 왕이었던 윌리엄 3세는 영국의 정치적·경제적 착취에서 벗어날 기회를 박탈하고 가톨릭교도에 대한 더 강력한 형법(Penal Law)을 시행한 왕이었다. 반면 얼스터 개신교도들에게 윌리엄 3세는 개신교 지주 엘리트계급이 지배하는 아일랜드에서 그들이 영국 왕의 국민이라는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구세주'였다. 실제로 가톨릭 아일랜드인들은 윌리엄 3세의 보인 전투 이후 1698년의 천주교 법(Popery Act)에 따라 개신교도와의 결혼이 금지되었고, 1728년부터 선거권도 박탈당했다.[49]

영국은 17세기에 두 차례나 가톨릭교도가 왕위에 오르면서 잉글랜드 내전(1642-1651)을 겪었고, 웨스트민스터 의회는 그때마다 전쟁을 통해 가톨릭교도였던 왕을 죽이거나(1649) 퇴위(1688)시켰다.[50] 이러한 영국 왕실과 의회 사이의 종교 갈등은 영국의 통치를 받고 있던 아일랜드에도 큰 혼란을 일으켰는데, 아일랜드 북부 얼스터에 정착한 개신교도들은 그로 인해 항상 가톨릭 원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다고 알려져 있다.[51] 이러한 상황에서 얼스터 개신교도들은 이후 4세기 이상 유지하게 되는 '얼스터 로열리즘(Ulster Loyalism) 이념'을 처음 형성하게 된다.

얼스터 로열리즘이란 영국 왕과 개신교도와의 관계를 계약적 관계로 보는 개념으로서 '절대 권위에 대한 조건부 충성'을 내포하는 이념이다. 이러한 로열리즘 이념은 1643년 웨스트민스터 의회가 스코틀랜드 교회와 맺은 엄숙동맹규약(the Solemn League and Covenant)에 기초하고 있

---

49) Foster(주 26), p. 205, and pp. 210-11.

50) 신·구 종교 갈등은 3차까지 진행된 잉글랜드 내전(1642-1651)의 원인이 되었다. 가톨릭교도였던 찰스 1세(Charles Ⅰ, 재위 1625-1649)는 국교인 성공회의 예배 기도서 형식 개정을 명령하였고 스코틀랜드 장로교에도 같은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개정된 기도서 내용이 로마 가톨릭교회 기도서와 유사하다고 느꼈던 개신교도들은 곧 반발했다. 찰스 1세에 반대하는 의회파(Parliamentarian)는 왕당파(Royalist)와 대립했고 1642년 1차 잉글랜드 내전인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다.

51) 일례로 잉글랜드 내전이 일어나기 직전인 1641년에 아일랜드 게일 영주들, 스페인에 망명했던 옛 영주들과 원주민 소작농들을 포함한 원주민들은 영국에 반기를 들고 수천에서 수만 명의 개신교도를 학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잉글랜드에서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은 1643년에 잉글랜드 왕권을 제압하고 1649년 아일랜드 원주민 대학살로 전쟁을 끝냈다. Foster(주 26), pp. 86-88.

다.[52] 얼스터에 이주해 있던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개신교도들은 1640년대 전쟁 시기에 가톨릭 원주민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본토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스코틀랜드 이주민들은 그들이 아일랜드에서 누리는 정책적·경제적 호혜에도 불구하고 가톨릭교도였던 영국 왕을 신뢰할 수 없게 되자 스코틀랜드의 사회 계약(social contract) 전통을 받아들여 얼스터 로열리즘 이념을 확립하게 되었다.[53]

이때부터 로열리즘 이념을 따르는 얼스터 개신교도들은 로열리스트로 불리게 된다. 로열리스트들은 '왕이 스스로 개신교 서약서에 서명하기 전까지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원칙을 엄숙동맹규약으로부터 만들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이들은 가톨릭교도인 찰스 1세(Charles Ⅰ, 재위 1625-1649)의 왕위 유지를 지지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로열리즘 이념은 조건부 충성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었다.[54] 무엇보다 1643년의 엄숙동맹규약은 1912년 영국 정부가 제3차 자치법안을 상정했을 때 얼스터 개신교도들이 그것을 기초로 작성한 '얼스터 규약'에 서명하고 자치법안을 저지하는 근거가 되었다.

얼스터 규약의 근거가 된 로열리즘 이념 외에도 17세기에 얼스터에서 시작된 개신교 민병대는 20세기 북아일랜드의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으로 이어질 만큼 얼스터 개신교 커뮤니티의 오랜 전통이 되었다. 1641년의 가톨릭 원주민 봉기는 1649년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이 가톨릭교도였던 찰스 1세를 처형하면서 개신교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

52) 엄숙동맹규약(the Solemn League and Covenant)은 1643년 제1차 영국 내전(the First English Civil War, 1642-1646) 당시 스코틀랜드 교회와 영국 웨스트민스터 의회 사이에 맺은 협정이다. 장로회 서약자들(Covenanters)은 스코틀랜드의 교회 통치 체제를 영국이 채택한다는 조건으로 스코틀랜드에 원조를 약속했다. 엄숙동맹규약은 스코틀랜드 지주들이 찰스 1세와 대립하는 영국의회를 도와 파병하는 조건으로 세 왕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 장로교회를 세우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기술한 문서다. 1643년 장로회 목사들이 얼스터에 이 서약을 집행하기 위해 들어왔고 로열리스트들은 엄숙동맹규약을 받아들였다. Miller(주 1), pp. 11-12.

53) Jeniffer Todd, "Two traditions in unionist political culture", *Irish Political Studies*, 2:1(1987), p. 4.

54) 엄숙동맹규약은 찰스 1세가 1638년 스코틀랜드 장로회에 새로운 천주교식 기도서를 강요했을 때, 스코틀랜드 장로회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지만 찰스 1세의 왕위 유지는 지지하겠다고 맹세를 한 것과 많은 면에서 비슷했다. Miller(주 1), p. 14 and p. 16.

개신교 이주민들과 가톨릭 원주민들 사이에 벌어진 전쟁은 얼스터 개신교도들이 새로운 공공밴드(public band) 문화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밴드는 스코틀랜드에서 귀족과 젠트리들이 상호 보호를 위해 결성했던 군대 문화였는데, 장로교 이주민들을 통해 얼스터로 들어와 가톨릭 원주민들의 공격으로부터 개신교 지역을 방위하는 민병대 성격으로 바뀌었다.[55] 앞에서 설명한 오렌지회 역시 17세기 공공밴드의 전통을 이어 가톨릭 아일랜드인들을 공격하고 공동 점유지에서 쫓아내기 위해 창설된 개신교 민병대였다고 볼 수 있다.

1685년부터 얼스터에 공공밴드 문화가 급부상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가톨릭교도였던 제임스 2세가 영국 왕위에 올라 신·구 종교 갈등이 재개되었기 때문이었다. 주로 장로교 거주지역에 형성되었던 공공밴드는 1688년 즈음 성공회교도들도 포용하는 활동으로 확대되었고 곧 개신교도의 안전과 방위를 위한 민병대로 얼스터 전 지역에 정착되었다. 공공밴드는 개신교도들 간의 내부 결속력을 키우고 지역을 방위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였다고 볼 수 있다.[56] 1688년 잉글랜드 의회는 명예혁명(Glorious Revolution)으로 제임스 2세를 퇴위시키고 1689년 네덜란드의 윌리엄 오렌지 공(William, Prince of Orange)을 윌리엄 3세로 즉위시켰다.[57] 그러나 왕위에서 물러난 제임스 2세가 아일랜드로 도피하여 가톨릭 군대를 모으자 윌리엄 3세의 군대가 아일랜드에 들어오기까지 공공밴드는 개신교 거주지를 방어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다.

---

55) 르네상스 시대부터 하나의 목적을 위해 결성된 남성들을 의미했던 '밴드'는 '비어있는 영토의 점령'을 지칭하기도 한다. 영국의 경우, 찰스 2세(Charles Ⅱ) 왕정복고 시기에 밴드라는 용어가 합주단이나 군악대의 의미로 처음 사용되었다. Trevor Herbert, "Brass and Military Bands in Britain - Performance Domains, the Factors that Construct them and their Influence," in Suzel Ana Reily, and Katherine Brucher, eds., *Brass Bands of the World: Militarism, Colonial Legacies, and Local Music Making*, (New York : Routledge, 2013), p. 37 and p. 39.

56) Miller(주 1), pp. 22-25.

57) 잉글랜드 의회가 오렌지 공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1660년 왕정복고(Restoration) 이후 다시 왕실에 형성된 친-가톨릭 분위기를 끊기 위함이었다. 가톨릭교도였던 제임스 2세가 1688년 6월 아들을 낳자 잉글랜드 의회는 같은 해 11월 네덜란드의 캘빈주의자였던 윌리엄 오렌지 공을 왕위 계승자로 선정했다. 윌리엄 오렌지 공은 제임스 2세의 딸 메리 공주의 남편이었고, 어머니 메리가 찰스 1세의 장녀이자 제임스 2세의 누이였기 때문에, 왕위 서열이 높았다. Foster(주 26), pp. 139-41.

1689년부터 1691년까지 윌리엄 3세의 군대와 제임스 2세의 자코바이트(Jacobite) 군대가 아일랜드에서 전쟁을 벌였다. 이 전투 기간에 윌리엄 3세가 직접 지휘한 1690년의 보인 전투는 영국 왕실이 개신교 통치권을 되찾고 아일랜드에 개신교 지배를 확립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얼스터 개신교도들이 오렌지 행진의 현수막과 벽화의 도상으로 17세기 윌리엄 3세의 이미지와 사건을 가장 먼저 선택한 이유는 윌리엄 3세가 지닌 상징성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은 1688년의 명예혁명으로 의원내각제를 시작했기 때문에 1689년에 의회가 왕으로 세운 윌리엄 3세의 왕권은 예전보다 축소되어 있었다.[58] 이때부터 아일랜드는 영국 왕실보다는 오히려 잉글랜드 의회의 결정에 따라 통치되었기 때문에 아일랜드에서의 윌리엄 3세의 역할은 1690년의 보인 전투와 그 후의 몇몇 전투 이외에 크지 않았다. 그러나 얼스터에서 윌리엄 3세는 신적인 존재로 숭배되었는데, 이는 얼스터 개신교도에게 '가톨릭교도였던 제임스 2세를 물리친 왕'이라는 정치적 의미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윌리엄 3세를 그린 벽화는 오렌지회 소속의 노동자 계층인 로열리스트로부터 시작되었다. 1908년 로열리스트들은 십이일 오렌지 행진 경로의 주요 집회 장소마다 윌리엄 3세가 지휘한 1690년의 보인 전투장면을 그리기 시작했다. 조선소 노동자인 존 맥클린(John McClean)이 벨파스트 비어스브릿지 로드(Beersbridge Road)에 그린 것이 첫 번째 벽화로 알려져 있다. 이 시기 벨파스트 조선소에는 대량 생산된 페인트가 공급되고 있었다.[59] 조선소 노동자들이 대부분 개신교도였기 때문에 개신교도에 의해 벽화가 시작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58) 잉글랜드 의회는 1688년의 명예혁명으로 의원내각제를 시작했다. 1689년 영국 왕에 공동으로 즉위한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는 권리장전(the Bill of Rights)에 서명했다. 권리장전은 왕의 여러 특권을 포기하도록 한 의회제정법으로서, 왕이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법률의 적용, 면제, 집행, 정지를 금지하는 등 왕권 축소를 의미했다.

59) Belinda Loftus, "Wall-Painting in Northern Ireland: An Occasion for Celebration?" (Belfast: Unpublished paper, 1980a), p. 1, quoted in Bill Rolston, *Politics and Painting: Murals and Conflict in Northern Ireland*, Cranbury, (NJ: Associated University Presses, 1991), p. 20.

1908년은 1886년과 1893년 두 차례나 자치법안을 상정했던 자유당이 재집권한 해였다. 자유당은 아일랜드 자치정부를 설립해 아일랜드 입법부의 독립을 허용하고 내정을 아일랜드 의회가 맡는 대신 외정을 웨스트민스터가 결정하는 체제를 주장해 왔다.[60] 따라서 1908년의 자유당 집권은 얼스터 개신교도들에게 큰 위기였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제3차 자치법안 상정 가능성이 커지자 다시 정치적 불안감을 느끼고 자신들의 영국 정체성을 더 확실히 드러낼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첫 벽화의 자료는 현재 남아 있지 않고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벽화인 <빌리 왕 King Billy>에서 그 형식을 유추해 볼 수 있다(도 3).[61] 빌리 왕으로 불렸던 윌리엄 3세는 이 벽화에서 도약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백마 위에서 오른손을 높이 들고 있다. 1920년에 촬영된 윌리엄 3세를 그린 또 다른 벽화에는 윌리엄 3세가 자신의 부하를 이끌고 강을 건너는 장면이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도 4).[62] 이 시기 벽화는 건물의 양쪽 끝 '박공벽(gable wall)'으로 불리는 벽 전체에 그려졌기 때문에 실제 인물 크기보다 두 배가 넘는 크기로 윌리엄 3세가 그려진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초기 로열리스트 벽화에 등장한 가장 전형적인 도상은 보인강에 도착해서 백마 위에 앉아 강을 건너는 윌리엄 3세의 모습이다. 윌리엄 왕의 표준화된 이미지는 1778년에 제작된 영국계 미국 화가 벤자민 웨스트(Benjamin West)의 회화에서 유래되었다(도 5).[63] 그의 작품은 아

60) 글래드스톤(William Ewart Gladstone)의 자유당이 자치법안을 상정한 배경에는 1874년 최초의 민족주의 정당으로 설립된 아일랜드 의회당의 영향이 있었다. 의회당 당수였던 찰스 스튜어트 파넬(Charles Stewart Parnell)은 웨스트민스터 의회에서 글래드스톤의 자유당과 솔즈베리 경(Lord Salisbury)의 보수당이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던 1885년, 자유당 편에 힘을 실어주면서 자유당이 자치법안을 채택하도록 했다. Foster (주 26), p. 419 and pp. 422-23.

61)https://petermoloneycollection.wordpress.com/visual-history-1-the-protestant-ascendancy/ 2020.12.18.

62) https://player.bfi.org.uk/free/film/watch-the-agony-of-belfast-1920-online?play-film 2020.12.18.

63) 신고전주의 영향을 받은 벤자민 웨스트는 역사화가로서 역사적 정확성보다는 서사적 연출에 더 신경을 썼다. 웨스트는 오른쪽 하단에 윌리엄왕보다 먼저 보인강을 건너다 자코바이트 기병에게 살해당한 숌버그 육군 원수(Marshal Schomberg)의 죽음을 그

일랜드에서 전시된 적이 없었지만 여러 형태의 복제품으로 얼스터에 들어와 로열리스트 노래 모음집, 실크 손수건, 판화, 엽서 등의 초안이 되었다.[64] 판화나 엽서의 윌리엄 3세 이미지는 벽화로 옮겨지기도 했다. 닐 자만은 로열리스트 벽화가 오렌지 행진을 위한 거리 장식의 한 방식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전부터 행진에서 사용하던 현수막과 깃발의 윌리엄 3세 이미지가 벽화로 옮겨진 것으로 보았다. 현수막과 깃발 역시 벤자민 웨스트의 작품을 원작으로 했고 그 외에 1690년대 네덜란드 화가였던 얀 윅(Jan Wyck)의 작품을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65]

보인 강을 건너는 장면 외에도, 1916년에는 얼스터의 동부 해안에 있는 키릭퍼거스(Carrickfergus)에 도착한 윌리엄 3세를 그린 벽화가 제작되었다(도 6).[66] 이 벽화는 1690년 6월 14일, 윌리엄 3세가 벨파스트 근처 키릭퍼거스에 도착하여 클라우데슬리 쇼벨(Cloudesley Shovell)로 추정되는 군 지휘관과 악수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윌리엄 3세의 상륙은 개신교도들의 사기를 높여 7월의 보인 전투에서 제임스 2세의 가톨릭 군대를 물리쳤다는 점에서 개신교도들에게 중요한 순간으로 다루어졌다.[67] 벽화를 둘러싸도록 그려진 두 기둥에는 잉글랜드 의회가 제임스 2세를 퇴위시킨 1688년과 제임스 3세를 보인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시킨 1690년이 쓰여 있다. 벽화 상단의 두 기둥을 연결한 아치 이미지에는 “우리의 신뢰는 신에게 있다(IN GOD OUR TRUST)”라는 슬로건과 성경책이 그려져 있고 아치 위로 영국 왕실의 상징인 왕관이 그려져 있다. 19세기에 미국의 시인이 작성한 글에서 가져온 이 문구는 이후 미국 국가(national anthem)에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전에도 새겨졌다.[68] 따

리면서 영웅적인 죽음도 서사에 포함시켰다. Loftus(주 59), p. 3.

64) Rex Cathcart, Ireland and King Billy: Triumphalism Usage and Abusage. *History Today,* (July 1988), pp. 41 - 45. Online edition 2001.

65) Neil Jarman, "Troubled Images." *Critique of Anthropology* 12:2(1992), p. 153.

66) https://petermoloneycollection.wordpress.com/1975/01/03/the-landing-of-william-iii-at-carrickfergus-june-1690/ 2020.12.18.

67) Bill Rolston, *Politics and Painting: Murals and Conflict in Northern Ireland*, Cranbury, (NJ: Associated University Press, 1991), p. 21.

68) 미국의 변호사이자 시인이었던 프란시스 스콧 키(Francis Scott Key)가 1814년에 출판한 시에 "우리의 신뢰는 신에게 있다!(In God is our trust!)"라는 슬로건이 처음 사

라서 이 문구는 개신교 국가의 상징적 의미로 벽화에 쓰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벽화를 그린 바비 잭슨(Bobby Jackson)은 데리에서 1910년대부터 로열리스트 벽화가로 활동했고 그 아들과 손자가 대를 이어 현재까지 오렌지 행진 시기에 맞춰 윌리엄 왕의 이미지를 벽화로 제작해 오고 있다.

제3차 자치법안이 상정된 1912년부터 오렌지회가 주도하여 결성한 얼스터 의용군(Ulster Volunteer Force, UVF)은 영국 정부가 자치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반대하며 군사 활동을 벌였다. 1912년 9월 거의 50만 명의 개신교 연합주의자들이 가톨릭 자치정부 건립을 거부하는 얼스터 규약(Ulster Covenant), 즉 1643년 로열리즘 이념의 기초가 된 엄숙 동맹규약에 서명했다. 그리고 5만여 명의 오렌지맨과 연합주의 클럽(Unionist Clubs)이 자치 반대 시위대를 조직했다.[69] 1914년 4월 얼스터 연합주의 위원회(Ulster Unionist Council)는 영국 정부의 무기 수입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대량의 군비를 얼스터에 들여와 UVF가 실제 무기로 훈련을 하도록 도우면서 영국 정부에 공개적으로 도전했다.[70] 연합주의자들은 영국 시민으로서 모든 법을 따라야 하지만 그들의 영국시민권을 박탈할 것이 명백한 자치법안을 법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뜻과 영국 의회가 이 자치법을 최종 통과시키는 즉시 불복할 것을 발표했다.[71] 결국, 영국 정부는 1914년 5월 재상정된 자치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얼스터 6개 카운티를 자치법 적용 지역에서 제외하고 아일랜드 26개 카운티에서만 가톨릭 자치정부를 건립하기로 얼스터 연합당과 합의했다.[72]

UVF를 창설해 영국 정부를 위협하던 개신교 연합주의자들은 아일랜드 자치법안이 통과된 직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영국 제국에

용되었다. 이 표어는 미국의 국가(national anthem) 4절에 포함되었고, 1864년 미국 동전에 "In God We Trust"로 새겨졌다.
https://nationallegalfoundation.org/briefings/defending-in-god-we-trust/ 2020.12.18.

69) 얼스터 연합주의자들의 자치법안 반대 시위를 지지하며 영국에서는 120명의 토리당원과 100명의 귀족이 영국 연맹(British League)을 설립하고 아일랜드 자치정부 설립에 반대했다. Wallace(주 21), p. 66.

70) Foster(주 26), pp. 466-67.

71) Miller(주 1), p. 98 and p. 101.

72) 위의 책, p.94.

대한 헌신의 의미로 영국군으로 참전했는데, 그 수는 1916년 4월까지 약 20만 명에 달했다.[73] 이러한 얼스터 개신교도들의 영국 시민으로서의 활동은 전쟁이 끝난 후 아일랜드 분할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었을 때 북아일랜드에 개신교 자치정부를 건립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북아일랜드 건립 이후 로열리스트 벽화는 전성기를 맞았고 심지어 양차 세계대전 사이에도 꾸준히 벽화가 제작되었다. 예를 들어 벨파스트 조선소에서 제작된 선박인 타이타닉호(Titanic)(1912년 침몰), UVF가 참전한 제1차 세계대전(1914-1918)과 1916년의 솜므 전투(the Battle of Somme), 1937년의 조지 6세(George Ⅵ) 대관식 등 윌리엄 3세 이외에도 얼스터를 대표하는 이미지와 영국 왕실을 소재로 한 벽화가 제작되었다. 특히 1937년 5월 12일,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된 조지 6세와 엘리자베스 왕비의 대관식 장면은 벨파스트에서 큰 벽화로 재현되었다(도 7). 왕관을 쓰고 망토를 두른 조지 6세 부부 뒤로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내부가 묘사되어 있고 박공벽의 상단 중앙에는 영국 왕실의 왕관이, 그것의 양쪽 옆으로는 왕관을 쓴 사자 두 마리가 그려져 있다. 개신교도들은 윌리엄 3세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영국 정체성을 드러내기에 적합한 영국 왕실과 그 상징물들을 벽화로 제작했다고 볼 수 있다.

1912년의 엄숙동맹규약은 북아일랜드 분쟁 기간과 그 이후에도 개신교도들이 정치적 위기를 느낄 때마다 로열리스트 벽화로 여러 차례 제작되어 '개신교 국가의 국민으로 남겠다'라는 개신교도들의 의지를 되살리는 역할을 했다(주 8). 이러한 내용은 2005년 동벨파스트 역사와 문화협회(the East Belfast Historical and Cultural Society)가 제작한 <얼스터 엄숙동맹규약 Ulster's Solemn League and Covenant> 벽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벽화는 1912년 자치법안이 상정되던 시기 50만 명에 가까운 얼스터 개신교도들이 서명했던 "왕에게 충성하지만, 왕이 아일랜드에 새로 설치되는 자치 의회를 자신들에게 강요할 경우 그 자치 의회

73) UVF 대다수가 영국군 36사단(36th Ulster Division)에 입대함으로써 전쟁 후 이 사단은 얼스터 개신교의 영국 정부에 대한 충성과 얼스터 로열리즘의 상징이 되었다. 얼스터 연합주의자들에게 국가는 순교의 대상이 아닌 '계약'에 의해 충성을 바칠 대상이었다. Foster(주 26), p. 471.

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규약을 그대로 적어놓았다.[74] 이처럼 벽화는 얼스터 개신교도들이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을 드러내도록 했고 개신교도들의 결속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초기 로열리스트 벽화는 벽화가에 따라 결과물의 기술적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컸다. 로열리스트 벽화가들은 전문 기술이 있는 이들부터 벽화 제작 기술은 없지만 정치적 헌신을 위해 참여한 이들까지 다양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개신교 커뮤니티와 오렌지회가 벽화가들이 초보적인 기술도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격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현수막 화가와 간판제작자도 종종 벽화가로 활동했다. 로열리스트 벽화가였던 바비 잭슨이나 조지 윌가우스(George Wilgaus)는 벽화 옆에 자신의 회화 작품을 같이 전시하기도 했다. 벽화 제막식은 개신교 연합주의자들에게 중요한 연례행사였기 때문에 벽화가들은 권위를 인정받았고 벽화 결과물에 대해 간섭을 받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다. 벽화가들은 원하는 장소의 벽을 골라서 벽화를 제작할 수 있었고 매년 벽화를 수정하거나 새로 제작할 때마다 도안을 변형하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다.[75]

보인 전투 외에 얼스터 개신교도에게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1689년 4월부터 7월까지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데리 성안에서 가톨릭 군대의 공격을 받고도 항복하지 않았던 "데리 포위(the Siege of Derry)"와 윌리

---

74) 벽화에 쓰인 '얼스터 규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치는 아일랜드 전체뿐 아니라 얼스터의 물질적 복지에 재앙이 되고, 우리의 시민적 종교적 자유를 전복하고, 우리의 시민권을 파괴하며 제국의 단합에 위험하다는 것을 양심에 새기면서, 우리는 조지 5세에게 충성된 얼스터인의 이름으로, 압박과 시련에서 우리의 조상이 자신 있게 신뢰했던 하나님께 겸손하게 의지하며, 여기에 우리 스스로 엄숙규약에 서약하고, 이 위협받는 재앙의 시간 내내, 우리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영국에서의 평등한 시민권이라는 우리의 소중한 위치를 서로 지키며, 서약한다. 아일랜드에 자치 의회를 설치하려는 현재의 음모를 물리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다. 그리고 그러한 의회가 우리에게 강요될 경우, 우리는 더욱 엄숙하게 그리고 상호 간에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권리를 옹호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등록하려고 한다. 위 내용은 1912년 9월 28일 토요일 "얼스터 데이"에 ___에 의해 서명되었다."
https://petermoloneycollection.wordpress.com/2005/01/16/ulsters-solemn-league-and-covenant/ 2020.12.18.

75) Rolston(주 67), p. 24.

엄 3세의 지원군이 가톨릭 군대를 무너뜨림으로써 데리 포위를 끝냈던 “데리 구출(the Relief of Derry)”을 들 수 있다.[76] 바비 잭슨과 그의 아들이 그린 윌리엄 3세 벽화의 오른편에는 <데리 구출 The Relief of Derry>이 그려져 있다(도판 9). 이 장면은 가톨릭 자코바이트 군대에 포위된 채, 데리 성에서 굶주렸던 개신교도들이 멀리서 개신교 지원군이자 식량 보급선인 마운트조이(Mountjoy)(선박이 벽화에 그려지지는 않았다)가 오는 것을 보고 손을 흔들거나 기도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이 당시 데리 성벽 안에 포위되어 있던 개신교도들은 절반이 굶어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면 중앙의 대포 앞에는 지휘관으로 보이는 지배계급이 한 손으로 ‘신’을 의미하는 하늘을, 다른 한 손으로 강을 가리키고 있다. 그의 발 앞에는 해골로 보이는 둥근 물체가 놓여 있다. 굶어 죽더라도 끝까지 가톨릭 왕에게 굴복하지 않았던 이 상황은 <항복하지 말자 No Surrender>라는 슬로건이 되어 20세기 북아일랜드 분쟁의 주요 현장마다 등장했다(도 10).

바비 잭슨의 벽화에서 볼 수 있듯이 1688년부터 1690년까지의 역사적 장면을 다룬 벽화에는 잉글랜드를 상징하는 사자와 스코틀랜드를 상징하는 유니콘이 같이 그려지기도 하는데, 이것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후손들의 연대감을 키우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매년 7월에 행해지는 벽화 제막식은 북아일랜드 개신교 정부가 윌리엄 왕의 승리를 바탕으로 건설되었다는 것을 공표하는 비공식적인 국가 행사가 되었다. 제막식은 하원 의원과 판사, 장교, 지주 등 연합주의로 동맹한 지배계층의 연설로 벽화 앞에서 시작되었다. 제프리 슬루카(Jeffrey A. Sluka)는 개신교 승리주의를 기념하는 로열리스트 벽화가 시작할 때부터 지배계층과 개신교 정부의 비호를 받았기 때문에 얼스터의 개신교 문화로 정착될 수 있었다고 보았다.[77]

3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얼스터를 점유해 온 개신교 이주민 후손인

---

76) Caroline Kennedy-Pipe, *The Origins of the Present Troubles in Northern Ireland*, (London and New York: Addison Wesley Longman, 1997), p. 9.

77) Jeffrey A. Sluka, “The Politics of Painting: Political Murals in Northern Ireland,” in Carolyn Nordstrom and JoAnn Martin, eds., *The Paths to Domination, Resistance, and Terro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 pp. 192.

로열리스트가 1908년부터 윌리엄 3세를 벽화로 그린 이유는 자신들이 윌리엄 3세의 개신교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로열리스트들이 윌리엄 3세의 도상을 빌려온 것은 스탈린(Joseph Stalin)이 마르크스(Karl Marx)의 후계자라는 자신의 위상에 정당성을 주기 위해 포스터를 이용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33년의 포스터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과 스탈린의 깃발을 더 높이 들어라!>에서 스탈린은 공산주의의 계보를 잇는 존재로 묘사되어 있다.[78] 레닌 사후에 스탈린은 자신이 공산주의의 정통성을 지닌 후계자라는 것을 표명할 필요가 있었다. 얼스터 로열리스트들 역시 자신들이 아일랜드에서 개신교 지배를 확립한 윌리엄 3세의 후계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했고, 이를 통해 아일랜드에 가톨릭 자치정부가 건립되는 것에 반대를 표명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로열리스트들이 벽화를 그린 이유는 가톨릭교도들이 얼스터 영토에 대한 권리 주장을 못 하게 하고 얼스터 영토의 소유권이 영국 정체성을 지닌 얼스터 개신교도에게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닐 자만은 매년 일시적으로 설치·제거되던 오렌지 아치와 배너와 달리, 행사 이후에도 지속적인 전시 효과를 지닌 벽화가 개신교 거주지역에 그려지면서 개신교 승리주의를 일 년 내내 선포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벽화는 개신교도가 사는 지역을 “개신교 지역”으로 확고히 만들었고, 인근 가톨릭 지역과 구분 짓는 이정표 역할을 했다.[79] 우나 우즈(Oona Woods)는 영토 소유권과 외국인 점령이 오랫동안 분쟁의 원인이 되어 온 사회에서 특정 장소마다 페인트를 칠하는 행위는 그것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토지에 특별한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벽화뿐만 아니라 연석 칠(kerbstone painting)과 깃발 게시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80] 따라서 벽화 제작은 개신교 거주민들이 자신들의 영토 소유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오렌

78) 김정희, 「포스터속의 레닌이미지에 나타난 레닌과 스탈린 시대 권력의 도상학」,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제15집(2001. 6), p. 97.
79) Wallace(주 21), p. 176.
80) Oona Woods, *Seeing is Believing: Murals in Derry,* (Derry: Guildhall Press, 1995), p. 2.

지회의 활동에 참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징표였다고 볼 수 있다.

로열리스트 벽화는 아일랜드 독립이나 통일이 영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영국이 얼스터를 가톨릭교도에게 넘기는 배신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분명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2. 북아일랜드 “트러블(1968-1998)”의 시작과 벽화

북아일랜드 트러블은 1968년 가톨릭 시민권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비폭력적으로 진행되었던 가톨릭 시민권 운동은 1969년 8월 가톨릭 노동자 계층 지역인 보그사이드(Bogside)에서 개신교도와 가톨릭교도가 충돌한 후 양측의 준군사조직들이 개입하면서 유혈 폭력사태로 커지게 되었다. 이것은 영국 정부가 ‘폭동’을 막는다는 이유로 영국군을 투입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30여 년간 북아일랜드는 전쟁터가 되었다.

북아일랜드 트러블 기간은 아일랜드 분할 이후 처음으로 아일랜드의 미래를 놓고 영국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이 진지하게 논의를 이어갔던 시기다. 그 정도로 1960년대 말부터 북아일랜드에서 벌어진 여러 무장단체의 테러는 전쟁을 방불케 했다. 아일랜드 분할에 가장 큰 책임이 있었던 영국 정부와 분할 이후 북아일랜드 가톨릭교도들의 상황에 관여하지 않았던 아일랜드 공화국 정부는 트러블 기간 동안 분쟁 종식을 위해 아일랜드 통일 가능성도 열어 놓고 여러 차례 협정을 맺었다. 무엇보다 아일랜드 공화국은 북아일랜드에서 무장활동을 하던 IRA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지만, IRA의 테러 활동이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자 영국 정부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실제로 북아일랜드의 내부 상황은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심각했다. 1969년 영국군이 북아일랜드에 투입된 이래로 폭력사태는 점차 증가했는데, 1972년 한 해 동안 북아일랜드에서 1만 건 이상의 총격과 천 건 이상의 폭발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81]

이러한 상황에서 1968년의 가톨릭 시민권 운동이 시작된 직후부터 북아일랜드에는 이 전과는 다른 성격의 벽화가 등장했다. 1970년대 북아일랜드의 가톨릭 노동자 계층 지역은 그라피티 형식의 벽화가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 이러한 공화주의 벽화는 1922년에 건립된 북아일랜드 개신교 정부가 가톨릭교도들에게 적용한 제도적 불평등에 대한 저항으로 출현했고, 북아일랜드에서 가톨릭교도의 보호자로서 군사조직을 재정비한 IRA가 활동을 재개한 결과이기도 했다.

반면 개신교 지역의 상황을 보면, 1960년대 중반 이후 오렌지 행진과 로열리스트 벽화 문화는 쇠퇴하고 있었다. 벽화를 주로 그리던 로열리스트 노동자 계층은 가톨릭 시민권 운동이 벌어진 1968년 전후로 준군사조직들을 창설하여 IRA와 가톨릭 민간인에 대한 공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제1, 2차 세계대전 이후 북아일랜드의 산업 붕괴에 영국의 경기 침체가 겹쳤던 1970년대에 실업자가 되거나 경제 기반이 흔들리던 로열리스트 노동자 계층은 아일랜드 통일을 추구하는 IRA와 그들을 지원하고 있던 공화주의자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82]

한편 영국 정부는 북아일랜드 유혈 분쟁을 막기 위해 더 강력한 치안 정책을 도입하는 한편 침체된 경제를 살리려는 방편으로 벽화 제작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이것은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 분쟁으로 파괴된 도시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영국 정부의 시도였으나, 현재 보존된 것은 없으며 그 일부만이 사진 자료로 남아 있다. 이처럼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제작된 벽화는 북아일랜드 분쟁의 정치적·경제적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1960년대 말부터 1980년까지 제작된 그라피티를 포함한 벽화의 주제를 고찰해 보고 그 벽화들이 지닌 정치적 의미와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

81) Kennedy-Pipe(주 76), p. 65.

82) 제1, 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의 냉전으로 인해 북아일랜드 자치정부는 동유럽과 중국 시장을 잃었다. 북아일랜드는 면 소재가 린넨을 대체하면서 경제 불황을 맞았고 전쟁 기간 잠시 호황을 맞았던 조선업도 곧 쇠퇴했다. Foster(주 26), p. 584.

1) 가톨릭 시민권 운동과 공화주의 벽화의 등장

북아일랜드 벽화 중 전설적인 <당신은 지금 자유로운 데리로 들어가고 있다 You are now entering Free Derry>는 1969년 1월 데리의 보그사이드 지역에 제작되었다(도 11). 이것은 제3차 가톨릭 시민권 운동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보그사이드는 가톨릭 시민권 운동이 시작되자마자 IRA가 '자치 구역'으로 선포하고 바리케이드를 쳤던 가톨릭 빈민 지역이다.[83] 이 슬로건은 국가 공권력 출입을 금하겠다는 하나의 경고문으로 볼 수 있다. 처음에 손글씨로 쓰였던 이 슬로건은 같은 해 8월 제임스 캘러헌(James Callaghan) 내무장관이 데리를 방문했을 때 두꺼운 인쇄체로 다시 쓰였고 가톨릭 자치 구역에 개신교도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주장을 더 분명히 했다.

이러한 그라피티 형식의 첫 벽화는 이 당시 북아일랜드 사회의 가톨릭 민심을 반영하는 하나의 역사적 기록물로 볼 수 있다. 국가의 비호 아래 오렌지 행진을 하고 윌리엄 3세의 도상을 그렸던 로열리스트들과 달리, 가톨릭 민족주의자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가톨릭 전통 행사를 하지 못했고 벽화를 그리는 문화도 없었다. 따라서 공화주의자들이 공공 공간에 그라피티로 저항의식을 표출했던 것은 반체제적 시위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그라피티로 표현된 텍스트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가톨릭 교도들의 의사 표명으로 볼 수 있다. 이곳은 이후 '자유로운 데리 코너(Free Derry Corner)'로 불리며 보그사이드의 중심부가 되었고 북아일랜드 가톨릭 문화의 중요한 아이콘이 되었다. 자유로운 데리 코너는 현재까지도 가톨릭 시민권 운동 기념 행진이 종결되는 장소로 초기의 슬로건이 흰 배경에 굵은 활자체로 제작되어 있다(도 12).

실제로 북아일랜드에서 가톨릭교도들의 불만에서 촉발된 시민권 운동은 예견된 것이었다. 1921년 6월의 첫 선거로 개신교 연합당 의회를 시작한 북아일랜드 스토먼트(Stormont) 의회는 1929년 비례대표제 폐지를 시작으로 선거구를 개신교 정당에게 유리하게 조정하는 등 가톨릭 정

83) Helaine Silverman, ed. *Contested Cultural Heritage: Religion, Nationalism, Erasure, and Exclusion in a Global World*. (NY: Springer New York, 2010), p. 79.

당이 성장할 기회를 박탈했다.[84] 52석의 하원 의석 중 40석을 개신교 연합당(the Unionist Party)이 독식했던 스토먼트 의회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개신교도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쳤는데, 대표적 사례가 공공주택 배분에 관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티론 카운티의 던가논(Dungannon) 지역은 가톨릭 인구가 60% 이상이었지만 지방 연합주의 협의회(the local Unionist Council)는 1945년부터 1968년까지 공공주택의 약 75%를 개신교도에게 할당했다.[85] 왕립 얼스터 경찰대(Royal Ulster Constabulary)인 RUC는 약 90%가 개신교도였기 때문에 치안 정책에서도 가톨릭교도에 대한 차별이 극명했다. 아일랜드 독립전쟁(1919-1921) 중이었던 1920년 즈음 얼스터 지역에서 모집된 왕립 아일랜드 경찰대(Royal Irish Constabulary) 소속의 B-특공대(B-Specials) 역시 전원이 개신교도로 구성되어 1960년대까지도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86]

차별적인 주택 배분은 특히 가톨릭 시민권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가톨릭교도들은 1968년 8월 24일 주택 배분율이 논란이 되었던 던가논에서 가톨릭 시민권 운동으로 불리는 행진을 시작했다.[87] 미국 흑인 인권 운동의 영향을 받은 이 행진은 10월에 데리에서 진행된 제2차 행진에서 개신교 로열리스트들과 충돌했다.[88] 충돌 이후에도 이어진 1969년 1월 1

---

84) 북아일랜드의 스토먼트(Stormont) 의회는 북아일랜드 영토 내의 문제에 한해 법률을 제정할 수 있었다. 북아일랜드 의회 입법부는 왕실, 하원(52석), 상원(26석)으로 구성되었다. 1921년 선거에서 가톨릭 민족당(6석)과 공화당(6석)은 개신교 의회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의석을 거부했다. 스토먼트 의회 외에도 북아일랜드는 런던 웨스트민스터 하원 12석으로 북아일랜드 유권자를 대표했는데, 개신교 연합당이 항상 최소 8석을 차지했다. Wallace(주 21), p. 31, p. 43 and p. 77.

85) Paul Arthur and Keith Jeffery, *Northern Ireland since 1968*, (USA: Blackwell Publishers Ltd, 1988, Second edition 1996), p. 5.

86) RIC는 그 역할에 따라 A, B, C로 나누어 모집되었다. 상근 경찰 A-특공대, 무급으로 주 1회 야간 순찰 근무를 서는 B-특공대와 비상시에만 근무하는 C-특공대를 편성하여 지원자를 받았다. B-특공대의 지원자가 가장 많았다고 알려져 있다. Miller(주 1), p. 127.

87) 이미 1967년 1월에 조직된 북아일랜드 시민권 협회(NICRA, the Northern Ireland Civil Rights Association)는 지방 선거에서의 보편적 선거권, 주택의 의무점수제, 특수권력법와 B-특공대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민권 협회 활동은 일 년 후 가톨릭 시민권 운동이 시작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Cronin(주 17), p. 188.

88) 북아일랜드 시민권운동은 미국의 아프리카계 미국인(African-American)을 위한 1964년의 시민권법(the Civil Rights Act), 1965년의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 1968년의 4주택법(Four Housing Act)으로 이어진 시위에 영향을 받았다.

일 제3차 행진은 민중의 민주주의(People's Democracy)로 알려진 퀸즈 대학(Queen's University, Belfast)의 좌파 단체가 참여하면서 규모가 커졌다.[89] 션 크로닌은 북아일랜드 개신교도 중에서 가톨릭교도가 받는 차별을 인지하거나 인정하는 이들이 적었기 때문에 가톨릭 시민권 운동이 실패했다고 보았다.[90]

가톨릭 시민권 운동은 1969년 8월 12일 데리의 '보그사이드 전투(the Battle of the Bogside)'에서부터 유혈 분쟁으로 전환되었다. 이 유혈사태는 개신교 연례행진 중 하나인 '수습소년단(Apprentice Boys)'의 행진에서 개신교도들이 가톨릭 거주 지역인 보그사이드를 통과할 때 가톨릭교도가 행진 참가자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시작되었다. 수습소년단은 1689년 개신교도가 모여 살던 데리 성이 가톨릭 자코바이트 군대의 공격을 받자 데리 성문을 닫아 '데리 포위(Siege of Derry)'의 시작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단체의 이름을 지칭한다. 이 과정에서 경찰봉 외에 총기 사용이 금지되었던 B-특공대가 규정을 어기고 가톨릭교도에게 발포하면서 북아일랜드 경찰대가 진압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다. 후에 이 사건은 보그사이드 전투로 불리게 된다. 보그사이드 전투의 영향으로 곧 주변 가톨릭 지역과 벨파스트에서도 폭력사태가 일어났다.[91]

스토먼트 의회는 웨스트민스터 의회에게 영국군 파병을 긴급히 요청했고, 영국군이 8월 14일 현장에 진입하고 나서야 시민소요가 진압되었다. 개신교 공격으로부터 가톨릭 지역을 보호하고 두 지역 사이를 분리하는 임무를 맡은 영국군은 벨파스트(Belfast) 서부의 개신교 지역인 샨킬 로드(Shankill Road)와 가톨릭 지역인 폴스 로드(Falls Road) 사이에 평화선을 구축하고 그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평화의 벽(Peace Wall)'을 만들었다.[92] 1969년에 세워진 평화의 벽은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어

Kennedy-Pipe(주 76), p. 44.

89) 민중의 민주주의 일원들은 트로츠키 추종자(Trotskyite)로서 공산주의자였다.

90) 제3차 시민권 행진은 이안 페이즐리(Ian Paisley) 목사 추종자들과 경찰에 의해 매복 공격을 받았다. 1969년 4월 비-종파적 개혁정책을 추진했던 테렌스 오닐 총리의 사임 후 총리가 된 제임스 치체스터 클라크(Names Chichester Clark)는 '1인 1표' 선거권 원칙을 발표하며 가톨릭 시민권 시위자와 개신교 단체 사이의 갈등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사태는 진정되지 않았다. Cronin(주 17, pp. 188-90.

91) Kennedy-Pipe(주 76), p. 49.

국내외 관광객들의 방문 장소가 되었고 평화를 염원하는 방문객들의 손글씨가 벽을 채우고 있다(도 13). 그러나 1969년의 평화의 벽은 충돌이 가장 심했던 접점 지역에 높은 담을 쌓은 것 외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고 소요사태는 계속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보그사이드 전투의 문제점을 규명한 영국 정부의 각종 보고서는 개신교도와 가톨릭교도 사이의 반감을 더 키웠으며 종파 간의 폭력사태를 막는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93]

1969년 1월의 3차 가톨릭 시민권 행진에 참여했던 퀸즈 대학의 민중의 민주주의는 당해 8월에 이 상황을 표현하는 7장의 포스터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도 14). 도판 왼편의 "바리케이드를 치고든 아니든 투쟁은 계속된다(The struggle continues with and without barricades)"라고 쓴 포스터는 1969년의 벨파스트 유혈사태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영국군이 바리케이드를 해체한 것에 대한 항의였다. 도판 오른편의 "스토먼트를 때려 부숴라(Smash Stormont)"라는 슬로건은 개신교 연합당이 지배하는 북아일랜드 스토먼트 의회를 끝내라는 주장을 표현했다.[94] 이 포스터들은 1968년 여름에 런던에서 시작된 포스터 워크샵(Poster Workshop) 일원들을 1969년 8월에 벨파스트로 불러서 작업한 결과물이었다.[95] 그러나

---

92) Silverman(주 83), p. 75.

93) 1969년에 북아일랜드의 치안 상황을 조사했던 헌트 위원회(the Hunt Committee)는 구식으로 운영된 RUC와 B-특공대 모두 거의 개신교도로만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후속 조사를 맡았던 카메론 위원회(Cameron Committee)는 '대규모 폭동'을 통제할 인력이 없었던 RUC가 경찰봉 외에 물대포, 최루탄 및 총기 발사로 사상자를 키웠다고 결론지었다. 스카먼 조사위원회(Scarman Tribunal)는 북아일랜드 경찰대가 가톨릭 시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상황에서 IRA와 같은 선동 조직이 주도한 도시게릴라전으로 인해 벨파스트 '폭동'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Kennedy-Pipe(주 76), pp. 80-81; https://alphahistory.com/northernireland/cameron-report-unrest-northern-ireland-1969/, 2020.5.18; https://cain.ulster.ac.uk/hmso/scarman.htm, 2020.6.10.

94) 1921년 6월의 첫 선거로 시작된 스토먼트 의회(1931년 완공된 국회의사당 부지 이름을 따서 1931년 이후 의회의 공식 명칭이 되었다)는 1972년 3월 폐지될 때까지 북아일랜드를 지배한 개신교 연합당 정권이었다. 스토먼트 의회 폐지 후 북아일랜드의 가톨릭교도에 대한 차별 정책은 단계별로 수정되었다. https://cain.ulster.ac.uk/images/posters/nationalist/index.html 2020.12.20.

95)포스터 워크샵 모임은 1968년 5월 파리의 에꼴드보자르(Ecole des Baux Arts)를 점령했던 맑시스트와 예술대생의 아틀리에 포퓰라(the Atelier Populaire)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http://www.posterworkshop.co.uk/aboutus.html 2020.12.21.

정부의 탄압을 비판하는 이러한 포스터 작업 이후 민중의 민주주의 단체는 공화주의자들을 지지하는 정치 활동을 계속했으나, 벽화 제작에 합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시기 공화주의 벽화는 노동자 계층의 저항 매체였다.

'가톨릭 자치 지역'을 선언하는 1969년 1월의 벽화 이후로도 가톨릭 아일랜드인을 대표하는 슬로건과 가톨릭교도들의 요구사항이 간간이 벽화로 제작되었다. 대표적으로 가톨릭교도의 상징인 샘록(shamrock) 안에 대문자로 "IRA"를 쓴 벽화가 1969년에 그려졌다(도 15).[96]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샘록은 성 패트릭(St Patrick) 십자가처럼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어왔다. 성 패트릭은 5세기에 아일랜드 원주민들이 민간신앙에서 벗어나 가톨릭(종교개혁 이전의 기독교)으로 개종하도록 한 인물로 아일랜드에서 성인으로 추앙받아 왔다. 17세기 아일랜드에 대한 스케치와 일기를 남긴 토마스 디넬리(Thomas Dineley)는 성 패트릭 기념일인 3월 17일에 가난한 사람들이 십자가를 거는 대신 샘록이 그려진 리본이나 배지를 착용했다는 기록을 남겼는데, 그 후 샘록은 가톨릭 아일랜드인들의 상징으로 통용되어왔다.[97] 이 외에도 같은 해 "B-특공대를 해산하라(Disarm all B-Specials)"와 같은 그라피티 형태의 벽화가 제작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사진으로 남아 있지 않다.

1970년부터 북아일랜드 전 지역은 더 잦은 유혈폭력사태가 벌어지는 장소가 되었고 특히 가톨릭과 개신교 노동자 계층의 접점 지역에서 소요가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접점 지역에 등장한 1970년대 초기 벽화에는 특히 IRA와 1916년의 부활절 봉기에 대한 슬로건이 주요 주제가 되었다. 1972년에 제작된 <자유를 위한 임시파 대원들 Provisionals For Freedom>은 1916년의 부활절 봉기 기념일을 맞아 아일랜드 삼색기와 함께 IRA를 지지하는 문구를 적은 대표적인 벽화로 볼 수 있다(도 16). 이 벽화의 "임시파 대원들(Provisionals)"은 1970년 이후 활동하던 IRA의 명칭이다.

---

96) https://www.maryevans.com/search.php 2020.12.20.

97) G.A. Hayes-McCoy, *A History of Irish Flags from Earliest Times,* (Dublin: Academy Press, 1979), p. 110.

가톨릭 시민권 운동 이후인 1970년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은 북아일랜드 분쟁의 본질을 변화시켰다. 첫째는 1970년 1월부터 기존의 공식파 IRA(Official IRA)에서 임시파 IRA(Provisional IRA)가 분리된 사건이다. 임시파 IRA는 가톨릭 시민권 운동으로부터 촉발된 폭력사태에서 공식파 IRA가 가톨릭 민간인들을 보호하지 않자 공식파 IRA에서 분리되어 나왔다. 임시파 IRA는 32개 카운티의 아일랜드 공화국 통일이 최종 수립될 때까지 '임시파'로 남을 것을 선언하고 출범 즉시 북아일랜드 개신교도와 영국 정부에 대항하여 게릴라전을 진행했다.[98]

두 번째는 1970년 6월의 웨스트민스터 선거에서 노동당 정부가 패배하고 보수당 정부가 출범하면서 북아일랜드 치안 정책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보수당 정부는 북아일랜드 갈등의 원인이 임시파 IRA와 이들을 지원하는 가톨릭교도에게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영국군에게 주었던 가톨릭 지역 보호 임무를 철회하고 임시파 IRA와 그의 동조자들을 색출하는 강경 진압 작전을 펼쳤다.[99] 이러한 상황에서 1972년 1월 30일 데리에서 발생한 '블러디 선데이(Bloody Sunday)'는 영국 정부와 가톨릭교도의 갈등을 악화시켰다. 블러디 선데이는 가톨릭 시위대에게 영국의 낙하산 부대 소속 군인들이 총기를 난사해 13명이 현장에서 사살되고 이후 부상자 1명이 추가로 사망하여 총 14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블러디 선데이로 인해 IRA가 총공격에 나서자 영국 정부는 1972년 3월 30일 스토먼트 의회 폐지를 선언하고 영국 국무장관 지휘 아래 북아일랜드를 웨스트민스터가 직접 통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100] 1972년 3월에 제작된 슬로건 <SAS

98) 1962년부터 캐헐 굴딩이 이끌던 공식파 IRA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개신교 노동자 계층과의 동맹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가톨릭교도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개신교도와의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 공식파 IRA는 1972년 5월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언하고 북아일랜드 분쟁에 더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강력한 반-영국·반-개신교 정서를 지닌 마르크스주의자들이 1974년 12월 아일랜드 민족해방군(INLA)을 창설하여 무장투쟁을 이어나갔다. Arthur and Jeffery(주 85), p. 56 and p. 67.

99) Kennedy-Pipe(주 76), pp. 52-53.

100) 블러디 선데이를 조사한 위저리 조사위원회(Widgery Tribunal)는 3개월 후인 4월 18일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저리 경(Lord Widgery)은 낙하산부대원들이 먼저 공격을 받아서 발포한 것이며, 불법 행진이 없었다면 사망자도 없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기 때문에 북아일랜드 가톨릭교도들의 공분을 샀다. 위의 책, pp. 60-63.

(영국특수부대) 살인자들 SAS Murderers>은 블러디 선데이에 대한 가톨릭교도들의 분노를 표현한 슬로건으로 볼 수 있다(도 17).[101] 이 벽화에서도 “기억하라 1916(REM 1916)”이라는 문구가 등장하고 있다.

1970년대 공화주의 벽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1916년의 부활절 봉기는 ‘가톨릭 아일랜드인에 의한 아일랜드 공화국’을 건설하겠다는 가톨릭 민족주의자들의 의지를 서구사회에 선포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1914년 5월에 웨스트민스터 의회를 통과한 아일랜드 자치법이 제1차 세계대전 발발로 실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1916년 더블린에서 부활절에 봉기가 일어났다. 부활절 봉기는 아일랜드 공화주의 형제단(Ireland Republican Brotherhood)인 IRB, 패트릭 피어스(Patrick H. Pearse)와 제임스 코놀리(James Connolly)가 기획했다. IRB는 IRA의 전신으로 미국에서 출범한 무장독립단체인 페니어니즘(Fenianism)의 한 분파였다.[102] 이들은 부활절 봉기가 승산이 없어 보일지라도 아일랜드 공화국의 독립을 앞당길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1916년 부활절 월요일에 IRB의 병력 1,600여 명과 코놀리 산하 아일랜드 시민군(Irish Citizen Army) 300여 명은 더블린 중앙우체국(GPO)과 주변 건물을 점령했다. 패트릭 피어스는 아일랜드 공화국 임시정부를 대표하여 선언문을 발표했다.[103] 3,0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일주일간의 전투에서 도시 중심부의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고 아일랜드 전역에 계엄령이 내려졌으며 봉기 주동자들

---

101) https://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republican-graffiti-adorns-a-wall-surrounding-the-royal-news-photo/93525153?irgwc=1&esource=AFF_GI_IR_Skimbit+Ltd._10078&asid=Skimbit+Ltd.&cid=GI&utm_medium=affiliate&utm_source=Skimbit+Ltd.&utm_content=10078 2020.12.20.

102) 페니어니즘(Fenianism)은 1855년 미국 뉴욕에서 존 데보이(John Devoy)가 시작한 아일랜드 독립운동이다. 1840년대 아일랜드에서 활동하던 청년 아일랜드였던 제임스 핀탄 레러(James Pintan Larlor)의 이념에 따라 1858년 3월 존 오마호니(John O’Mahony)는 뉴욕에서 페니언(Fenian)을, 제임스 스티븐스(James Stephens)는 더블린에서 아일랜드 공화주의 형제단(IRB, Ireland Republican Brotherhood)을 출범했다. 이들은 자유 민주주의와 평등 이념을 지닌 아일랜드 공화국을 세우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1860년대와 1870년대 미국과 아일랜드에서 무력투쟁을 이끌었다. Cronin(주 17), p. 86 and p. 257.

103) 선언문에서 패트릭 피어스는 IRB의 책임, 외국의 동조와 원조, 그리고 무장 저항 전통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Foster(주 26), p. 481.

은 체포되어 재판에 부쳐졌다. 피어스와 코놀리를 포함한 15명은 '반란 주동자'라는 명목으로 처형되었다.[104]

1972년 즈음 벨파스트에 그려진 부활절 봉기의 지도자 제임스 코놀리의 초상은 영국 정부에 저항해 1916년의 봉기에서와 같이 IRA로 결집하여 투쟁하자는 무력 공화주의자들의 강력한 의지로 볼 수 있다(도 18). 공화주의 벽화에는 여러 종류의 깃발이 등장하는데, 이 벽화의 제임스 코놀리 왼편에는 아일랜드 삼색기(Tricolor)가, 그리고 오른편에는 북두칠성기(Starry Plough)가 꽂혀 있다. 북두칠성기는 1914년 4월에 열린 아일랜드 시민군 회의에서 이 단체를 이끌던 코놀리가 처음 사용하면서 아일랜드 시민군을 상징하게 되었다. 이 깃발은 원래 녹색 들판 위에 큰곰자리(Ursa Major) 혹은 쟁기 형상의 북두칠성을 표현한 도안이었다(도 19). 아일랜드 시민군 깃발은 1934년에 쟁기가 생략되고 일곱 개의 별을 파란 바탕에 배치한 새 도안으로 재제작되었다.[105] 코놀리는 노동자 계급이 아일랜드에 사회주의 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회주의자였지만, 아일랜드 독립을 최우선의 가치로 보고 이념이 다른 패트릭 피어스와 같은 가톨릭 전통주의자들과 동맹하여 부활절 봉기를 주도했다.[106]

공화주의 벽화에 가장 많이 그려지는 삼색기는 1848년의 청년 아일랜드 봉기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1916년의 부활절 봉기에서 가톨릭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삼색기는 현재 아일랜드 공화국의 공식 국기다.[107] 그러나 처음 삼색기를 제안했던 청년 아일랜드의 토마

---

104) 부활절 봉기 주동자로 90명이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75명이 감형되어 최종적으로 15명이 처형되었다. 5월 3일부터 열흘간 패트릭 피어스(Patrick Pearse), 토마스 맥도나(Thomas MacDonagh), 톰 클라크(Thomas Clarke), 조셉 플런켓(Joseph Plunkett), 윌리엄 피어스(William Pearse), 에드워드 달리(Edward Daly), 마이클 오한라한(Michael O'Hanrahan), 존 맥브라이드(John MacBride), 에이먼 칸트(Éamonn Ceannt), 마이클 말린(Michael Mallin), 션 휴스턴(Seán Heuston), 콘 콜버트(Con Colbert), 제임스 코놀리(James Connolly), 산 막 디어르마다(Seán Mac Diarmada), 그리고 8월 3일 로저 케이스먼트(Sir Roger Casement)가 처형되었다. 케이스먼트는 독일에서 군사 원조를 받으려 했다는 사실이 사형선고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위의 책, pp. 485-86.

105) 쟁기 앞머리의 칼날은 노동자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상징한다. Hayes-McCoy(주 97), pp. 215-16 and p. 218.

106) Cronin(주 17), p. 113.

스 프란시스 미허(Thomas Francis Meagher)는 1798년의 공화주의 봉기를 일으킨 울프 톤(Wolfe Tone)의 비-종파적 공화주의 정신과 프랑스 삼색기에서 영감을 받은 후, 개신교를 위한 오렌지색, 가톨릭을 위한 녹색과 아일랜드인 화합을 위한 흰색으로 아일랜드 삼색기를 제안했다고 알려져 있다. 1848년의 청년 아일랜드 봉기 실패 후 거의 잊혔던 삼색기는 1916년의 부활절 봉기에서 저항군의 중심 깃발로 의미가 변용되어 사용되었다.[108] 1916년에 등장한 삼색기는 비-종파적인 화합의 의미를 상실했고 개신교도를 제외한 가톨릭 아일랜드인을 위한 깃발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코놀리의 초상화와 같이 그려진 아일랜드 삼색기와 북두칠성기는 가톨릭교도 사이의 이념적 견해 차이를 떠나 아일랜드 통일을 위해 단결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1916년의 부활절 봉기는 1970년에 재출범한 임시파 IRA에게 정통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부활절 봉기에서 패트릭 피어스가 '공화국'을 선포한 이후 IRB라는 명칭은 아일랜드 공화국군을 지칭하는 IRA로 변경되었다. 부활절 봉기 실패 후 IRA는 1919년부터 1921년까지 아일랜드 독립전쟁을 일으켰고 비록 아일랜드가 분할되긴 했지만 그 결과로 아일랜드 26개 카운티가 독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일랜드 분할 결정에 분노한 IRA는 32개 카운티가 아닌 26개 카운티의 독립을 승인한 영국 정부와 이를 받아들인 온건파 민족주의자들에게 저항하며 내전(1922-1923)을 벌였다. 이후 IRA는 1949년에 아일랜드 공화국에서 간신히 재기하며 1951년부터 북아일랜드에서 통일을 위한 무장활동을 재개했다. 그러나 아일랜드 공화국 역시 북아일랜드에서 테러 활동을 하는 IRA를 잡아들였기 때문에 IRA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109] 따라서 트러블은 북아일랜드 가톨릭 시민권 운동으로 촉발됐지만,

---

107) 아일랜드 삼색기는 1937년 아일랜드 자유국 헌법 7조에 따라 아일랜드 국기로 지정되었고 1949년 아일랜드 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아일랜드 공화국 국기 지위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Hayes-McCoy(주 97), p. 197, p. 205 and p. 231.

108) 위의 책, p. 140 and pp. 145-47.

109) 아일랜드 자유국 수상이었던 에몬 드 벌레라(Eamon de Valera)는 1936년 정부 각료를 암살하며 게릴라 전을 펼치던 IRA를 불법 단체로 금지했고 IRA 지도부를 처형했다. 1948년 실각 후 1957년 5월 총선에서 재집권한 드 벌레라는 아일랜드 국경에서 벌어진 게릴라전으로 북아일랜드 경찰대인 RUC가 살해되자 IRA 용의자를 잡기 위

궁지에 몰린 임시파 IRA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무장활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부활절 봉기를 기억하고 IRA 활동을 지지하라'라는 슬로건이 적힌 초기의 공화주의 벽화는 아일랜드 공화국뿐만 아니라 북아일랜드에서도 가톨릭 민족주의자들의 큰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던 IRA가 취했던 하나의 홍보 활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공화주의 벽화에는 삼색기와 몇몇 깃발이 그려지기는 했지만 그라피티 형식의 벽화가 곧바로 이미지 중심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이 시기 벽화가 그라피티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가톨릭교도의 정치적 의사 표시를 무질서와 저항으로 간주했던 영국 정부의 치안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1970년에 아일랜드 삼색기를 벽에 그린 두 남성은 1954년 도입된 깃발과 엠블렘 법(Flags and Emblems (Display) Act)에 따라 6개월 형을 받았고 1980년 한 16세 소년은 벽에 IRA를 지지하는 낙서를 하다가 총에 맞아 사망했다.[110] 공권력의 비호 아래 보존되던 개신교 노동자 계층 지역의 로열리스트 벽화와 유니언잭(Union Jack)과 달리, 북아일랜드 경찰은 가톨릭 지역의 벽화와 삼색기를 불법 행위로 간주했다.

이러한 불평등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그라피티 형식의 벽화는 1979년 즈음에 와서 가톨릭 노동자 계층 지역에 눈에 띄게 증가했다. 브렛 벤자민(Bret Benjamin)은 그라피티의 증가 이유를 보수당 정부의 위생 정책에 대한 저항으로 보았다. 대처 총리는 특히 그라피티를 문화적 불결함과 "일상의 무례함(everyday surliness)"으로 보았기 때문에 북아일랜드에 파병된 영국군 위생팀에게 가톨릭 지역의 벽을 하얗게 덮도록 했다.[111]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화주의자들은 벽에 선동적인 슬로건

해 아일랜드 공화국에 재판 없는 구금을 시행했다. 그 결과, 1958년 말까지 IRA의 거의 모든 지도부가 감옥에 있었고 지도부 부재로 IRA는 제 기능을 할 수 없었다. Kennedy-Pipe(주 76), p. 29.

110) 1954년 제정된 깃발과 엠블럼 법은 얼스터 경찰대에게 공공재산 및 사유재산에서 국기나 상징물을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던 법으로 1987년까지 유지되었다. 이 법의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500파운드 벌금 또는 최고 5년 형의 처벌을 받았다. Miller(주 1), pp. 138-39; Silverman(주 83), p. 80.

111) Bret Benjamin,"Dirty Politics and Dirty Protest: Resistance and the Trope of Sanitation in Northern Ireland," *Literature Interpretation Theory*, 10:1(1999), pp. 77-78.

을 쓰고 삼색기를 그리는 행위를 지속했다. 1979년과 1980년에는 “아일랜드 공화국군의 지역 부대에 합류하라(Join your local unit of the Irish Republican Army)”와 같은 IRA 가입을 권유하는 메시지나 “난롯가에 있는 공화주의자가 되지 말고 싸우는 공화주의자가 되라(Don’t be a fireside republican, be a fighting one)”는 메시지가 발견되었다.[112]

이처럼 초기 공화주의 벽화는 북아일랜드 가톨릭교도들을 제도적으로 차별하고 공권력으로 탄압하던 개신교 자치정부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1969년에 ‘가톨릭 자치 구역’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처음 등장한 벽화는 영국 정부의 군사적 개입이 본격화된 1970년 이후 새롭게 재정비된 임시파 IRA와 이들을 지지하는 가톨릭교도들의 세력 규합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 영국 정부의 직접 통치가 시작된 1972년부터 IRA를 포함한 북아일랜드 공화주의자들은 영국 정부와 전쟁을 시작했다. 이 시기의 공화주의 벽화는 1916년의 부활절 봉기 정신을 잇는 IRA의 정통성을 표명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2) 개신교 준군사조직들의 창설과 로열리스트 벽화 전통의 쇠퇴

북아일랜드의 산업 기반이 붕괴되고 있던 1960년대 중반 이후 로열리스트 벽화는 쇠퇴하고 있었다.[113] 새롭게 그려진 벽화는 소수였고 평판이 좋은 벽화는 더 적었다. 1966년부터 1982년까지 새롭게 추가된 로열리스트 벽화는 총 20여 점에 불과했다.[114] 매년 열리는 기념행사에 맞춰 벽화를 수정하는 전통도 쇠퇴했을 뿐만 아니라 수정되는 벽화의 품질

---

112) Rolston(주 67), p. 73.

113) 제1, 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의 냉전으로 인해 북아일랜드 자치정부는 동유럽과 중국 시장을 잃었다. 북아일랜드는 면 소재가 린넨을 대체하면서 경제 불황을 맞았고 전쟁 기간 잠시 호황을 맞았던 조선업도 곧 쇠퇴했다. 따라서 북아일랜드 자치정부는 1960년대에 영국 재무부에 연간 4,500만 파운드의 원조를 받아야 했다. Foster(주 26), p. 584.

114) https://petermoloneycollection.wordpress.com/visual-history-1-the-protestant-ascendancy/ 2020.6.14.

역시 높지 못했다. 예를 들어 벨파스트 록랜드 스트리트(Rockland Street)의 윌리엄 3세를 그린 벽화는 39년 만인 1968년에 도위에 형제(Dowie Brothers)에 의해 새로운 도안으로 재제작되었는데, 그 결과물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도 20).[115] 이 벽화에서 윌리엄 3세는 홀로 보인 강을 건너고 있으며, 칼을 들고 앞으로 뻗은 그의 오른팔이 상당히 짧게 그려진 데다가 백마를 탄 자세도 부자연스럽게 묘사되어 있다.

1969년에 제작된 벽화 <믿음, 희망과 관용 Faith, Hope and Charity>은 윌리엄 3세의 이미지가 유니언잭, 야곱의 사다리(Jacob's ladder), 염소, 수탉 및 '마운트조이(Mountjoy)'로 보이는 선박과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도 21). 마운트조이는 1689년 데리 성안에 포위되어 있던 개신교도도들을 구출한 구조선이다. 이 벽화에는 영국과 성서의 상징들이 나열되어 있다. 그러나 윌리엄 3세가 벽화의 중심에 위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로열리스트 벽화는 오렌지 행진을 기념하는 역할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윌리엄 3세와 선박 사이에 쓰인 슬로건 "여기에 천주교도는 없다!(No Popery Here!)"와 '붉은색 파란색 흰색'을 칠한 연석은 이곳이 '개신교 지역'이라는 점을 표시하는 용도였다고 할 수 있다.

트러블 기간에 로열리스트 벽화를 그린 주역은 1965년부터 1974년 사이에 벨파스트를 중심으로 창설된 노동자 계층으로 이루어진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들이다. 얼스터 의용군(Ulster Volunteer Force, UVF)과 얼스터 방위 협회(Ulster Defence Association, UDA)는 가장 규모가 큰 준군사조직이었고, 이 외에 UFF, RHC, UPV, YCV 등 여러 준군사조직이 설립되었다.[116]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들의 설립 목적은 북아일랜드의 개신교 정통성을 침해하려는 가톨릭교도와 IRA를 공격하여 개신교

---

115) https://www.alamy.com/stock-photo-belfast-wall-painting-of-king-william-of-orange-14866255.html?irclickid=1Y3x9OwWjxyLRM%3A0ElylqXhuUkE3lR1B9TyNTw0&irgwc=1&utm_source=10078&utm_campaign=Online%20Tracking%20Link&utm_medium=impact 2020.12.20.

116) UFF(Ulster Freedom Fighter)는 UDA의 계파로서 IRA 살인 활동을 위해 조직되었다. 그 외 조직명칭과 설립연도는 다음과 같다: UPV(Ulster Protestant Volunteers, 1966), RHC(Red Hand Commandos, 1972), YCV(Young Citizen Volunteers, 1972)와 UYM(Ulster Young Militants, 1974).

지역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얼스터 로열리즘 이념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을 '친-정부' 민병대로 여겼기 때문에 '반-정부' 테러조직인 임시파 IRA나 공식파 IRA의 계파인 INLA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이들을 정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민병대나 불법조직으로 보았다.

이들 가운데 가장 먼저 조직된 UVF는 테렌스 오닐(Terrence O'Neill) 총리가 아일랜드 공화국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던 1965년에 창설되었다.[117] 이 조직을 설립한 로열리스트들은 1912년에 상정된 제3차 자치법안에 대한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UVF에서 그 이름을 가져왔다.[118] 그러나 1912년의 UVF는 연합당 지도자들과 영국 보수당의 지지를 얻고 모든 계층이 가입한 개신교 민병대였던 반면, 1965년에 창설된 UVF는 노동자 계층 로열리스트와 이안 페이즐리(Ian Paisley) 목사를 추종하는 근본주의 개신교도로 구성된 다소 폐쇄적인 집단이었다.[119]

UVF의 활동 목표는 IRA와 가톨릭교도를 공격하겠다는 것으로 설립 시기부터 명확했다. 부활절 봉기 50주년을 기념하는 공화주의자들을 공격하기 위해 UVF는 1966년 5월 IRA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벨파스트 샨킬 지역 술집에서 가톨릭교도들에게 총격을 가했다. 이로 인해 UVF 설립자 구스티 스펜스(Gusty Spence)를 포함한 3명이 살인혐의로 기소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984년까지 복역했다.[120] 스펜스는 오렌지회

117) 1963년 북아일랜드 총리가 된 테렌스 오닐은 오렌지회 소속이 아니었고 연합당 내부에서도 온건파였다. 그는 북아일랜드 경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북아일랜드 종파주의를 끝내겠다는 포부를 가졌다. 1964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의 지지를 받은 오닐 총리는 1965년 아일랜드 공화국 수상을 방문하며 남북 협력 정책을 실행에 옮기고자 했다. 아일랜드 공화국은 1950년대 초반부터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한 통합 개발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만성적 재정 적자에서 벗어나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오닐 총리가 추진한 아일랜드 공화국과의 경제협력 정책은 로열리스트들의 큰 반대에 부딪혔다. Foster(주 26), pp. 578-79.

118) 1912년 얼스터 연합당을 대표했던 에드워드 카슨(Edward Carson)과 제임스 크레이그(James Craig)는 지역 민병대들을 규합한 얼스터 의용군 즉 UVF를 창설했다. Cronin(주 17), p. 104.

119) 이들은 가톨릭교도에 대한 범죄 활동을 명예롭게 여기고 부추기는 불문율을 지녔다. UVF는"죽일 준비가 되었는가? 감옥에 갈 준비가 되었는가? 아일랜드 통일로부터 얼스터를 보호하기 위해 살해될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신병을 모집했다고 알려져 있다. Steve Bruce, *The Red Hand: Protestant Paramilitaries in Northern Irel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p. 11 and p. 32.

출신이자 할랜드 앤 울프(Harlend and Wolfe) 조선소의 숙련공 출신이었는데, 자신과 같은 노동자 귀족이 개신교 노동자 계층을 위해 앞장설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121] UVF는 이 사건 직후 불법 단체로 지정되어 활동이 금지되었다가 1974년에 금지가 풀렸다.[122]

또 다른 대표적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인 UDA는 벨파스트의 여러 자경단 단체가 모여 1971년 9월에 결성되었다. UDA는 노동자 계층 로열리스트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운동가부터 커뮤니티 지도자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초기에 합법적 단체로 출발한 UDA는 지도자들의 적극적 홍보로 로열리스트들에게 높은 인기를 지니고 있었고 최대 약 4만 명에 이르는 로열리스트들이 가입했다고 알려져 있다.[123] 노동 운동가의 참여는 노동자 계층 로열리스트의 권리 보호와 로열리스트 비전을 발전시키려는 UDA 내부의 정치적 시도로 이어졌다. 특히 UDA 지도부는 연합진보당(VUPP, Vanguard Unionist Progressive Party)과 교류하며 힘을 과시하기도 했다.[124] 이러한 배경의 UDA는 영국 정부에 의해 '반정부군'으로 규정된 IRA와 공화주의자들을 공격하며 이를 자신들의 당연한 임무로 여겼다고 할 수 있다.

UDA 설립 시기는 1969년의 보그사이드 전투와 1970년 시작된 임시파 IRA 활동으로 개신교도들의 정치적 불안감이 커지던 때였다. 검은 복면에 위장 재킷을 입고 활동한 UDA는 영국군에게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친-정부 활동부터 범죄 활동까지 활동 범위가 넓었다.[125] 스티브

---

120) Rolston(주 67), p. 29.

121) Bruce(주 119), p. 19 and p. 24.

122) Kennedy-Pipe(주 76), p. 38; Bruce(주 119), p. 119.

123) 벨파스트 개신교 지역별로 지역 방위를 위한 다양한 자경단(Vigilante) 그룹이 있었고 한 그룹당 10여 명이 순찰에 참여했다. Bruce(주 119), p. 226; 혁명가는 확립된 질서를 타도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위해 무력을 쓰는 반면, 자경단은 질서를 회복하고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다. 자경단은 무법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들의 목적이 그들의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신성한 전통을 지키고, 관습적인 도덕 규범을 집행하고, 때때로 보복 정의(retaliatory justice)를 강요하기도 한다. https://law.jrank.org/pages/2287/Vigilantism-Ideologies-vigilante-groups.html, 2020.7.22.

124) 1973년 특수권력법과 긴급조치법이 로열리스트 테러용의자에게도 적용되어 이들의 구금과 체포가 늘어나자 UDA 지도부는 얼스터 시민자유연합(UCCL, Ulster Citizens' Civil Liberties)을 결성해 이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했다. Bruce(주 119), p. 72.

브루스(Steve Bruce)에 따르면 북아일랜드의 거주민들 상당수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이들 중에 연합당 정치인이 있다고 확신했지만 어떤 증거도 밝혀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126] UDA가 복면을 쓴 이유가 신분 노출을 피하려는 의도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감정 노출을 피하고 더 과감히 폭력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UVF와 UDA 같은 준군사조직들의 폭력행위는 실제로 큰 위력이 있었고, 트러블 기간에 북아일랜드 사회가 개신교와 가톨릭으로 더 확실히 나뉘도록 했다. 이들은 가톨릭 민족주의자들을 잠재적 IRA로 보았기 때문에, IRA에 대한 공격을 민간인에게까지 확대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UVF와 UDA는 1969년부터 1983년까지 613명의 가톨릭 민간인 사망에 책임이 있다.[127]

1970년대 들어 로열리스트 벽화는 주로 오렌지 행진을 하는 로열리스트보다 무장투쟁에 앞장섰던 젊은 로열리스트들에 의해 제작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창립 초기부터 벽화 전통에 관한 관심이 부족했고 아직 벽화를 통해 그들의 활동을 드러낼 필요성을 갖지 못했다.[128] 1970년대 로열리스트 벽화에는 영국 정체성을 상징하는 윌리엄 왕, 유니언잭과 왕관 외에도 '얼스터 정체성'을 상징하는 얼스터 깃발과 얼스터 방패가 새롭게 그려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이가 있었다.

1972년에 제작된 <신과 얼스터를 위해 For God and Ulster>는 윌리엄 3세가 등장하지 않는 벽화로 가장 먼저 제작된 것 중 하나다(도 22). 이 벽화에는 두 개의 작은 유니언잭 사이에 '얼스터 깃발'이 크게 그려져 있다. 얼스터 깃발 상단에 쓰여진 "신과 얼스터를 위하여(For God and Ulster)"는 UVF의 공식 슬로건이다. 이 얼스터 깃발은 스토먼트 의회가 1953년에 얼스터 6개 카운티를 대표하는 북아일랜드 국기로 채택하면서 공식적인 권위를 얻었다. 이 도안은 잉글랜드를 상징하는 세

125) Kennedy-Pipe(주 76), p. 60.
126) Bruce(주 119), p. 19 and p. 25.
127) Arthur and Jeffery(주 85), p. 58 and p. 61.
128) Rolston(주 67), p. 27.

인트 조지의 십자가(St. George's Cross) 위에 다윗의 별이 중앙에 배치되어 있고, 그 가운데 '얼스터의 붉은 손(Red Hand)'이 그려져 있다. 다윗의 별 상단에는 잉글랜드를 상징하는 왕관이 놓여 있다. 이 도안은 다윗의 별과 왕관을 제외하면 중세 얼스터 지방의 깃발 도안과 유사해 보인다(도 23). 얼스터의 붉은 손은 14세기 즈음 얼스터 영주가 받아들인 문장 디자인에서 유래된 도안이기 때문에 개신교 이주민이 얼스터에 정착하기 이전부터 쓰이던 얼스터의 상징이었다.[129]

1972년의 또 다른 변화를 보면, "1690년을 기억하라(Remember 1690)"와 "얼스터 개신교도를 방어하라(Keep ULster Protestant)"라는 슬로건 사이에 얼스터의 붉은 손이 단독으로 그려져 있다(도 24). 새로운 얼스터 깃발은 스토먼트 의회가 1972년에 폐지되면서 1973년의 북아일랜드 헌법에 따라 공식적인 국기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얼스터의 붉은 손은 벽화로 계속 제작되면서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을 상징하는 것으로 의미가 변화되었다.[130]

실제로 얼스터 깃발 도안의 '붉은 손'은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들의 엠블럼이 되어 벽화의 중심을 차지했다. UVF, UDA, YCV와 UFF 등 준군사조직들은 얼스터의 붉은 손을 엠블렘의 중앙에 배치하여 얼스터 민병대의 정체성을 강조하고자 했다(도 25). UVF의 엠블럼에는 금색 타원형 중앙에 붉은 손이 배치되어 있고 그 주위로 "신과 얼스터를 위하여(For God and Ulster)"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UDA는 붉은 손을 왕관 아래 파란색 방패 위에 그려놓았다. 붉은 손 아래에는 "누가 [우리를] 갈라놓을 것인가(Who will separate [us], Quis separabit)"라는 문구가 라틴어로 적혀 있다. 이 라틴어 슬로건은 성경의 로마서 8장 35절을 인용한 것으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 놓을 수 있겠는가?(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에서 유래했다. 그 기원은 성서에 있지만 이 표현은 과거 아일랜드 영국군의 상징으로 사용된 문구이기도 했다. 대표적 예로 19세기 왕립 아일랜드 소총부대(Royal Irish Rifles)의 문장에는 동일한 라틴어가 새겨져 있다.

129) Hayes-McCoy(주 97), p. 60.
130) https://cain.ulster.ac.uk/images/symbols/flags.htm 2020.12.20.

YCV(Young Citizen Volunteers)는 녹색의 샘록 중앙에 붉은 손을 배치한 엠블렘을 사용하고 있다. 본래 아일랜드 전통적 상징물인 샘록은 빅토리아 여왕 시기 영국 병사 제복에 사용되면서 그 의미가 훼손되었다.[131] YCV 역시 그 기원에 상관없이 샘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UFF 엠블럼은 월계수 사이에 있는 하얀 별에 주먹을 쥔 붉은 손을 사용하고 있다.[132] UDA는 1973년에 내부적으로 UFF(Ulster Freedom Fighter)를 조직하여 IRA와 공화주의자들에게 폭력과 살인을 가하는 임무를 전담하도록 했다.[133] UFF의 엠블렘은 일반적으로 사용된 붉은 손의 도안이 아닌 주먹을 쥔 손을 사용하여 더 강한 투쟁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붉은 손이 14세기 즈음부터 중세 얼스터 지방의 문장과 깃발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은 있으나 그것의 실제 기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2007년에 개신교 지역에서 제작된 한 벽화는 그 기원 중 하나를 다루고 있다(도 26). 이 벽화는 전사들 사이에 가장 먼저 얼스터에 도착하는 이가 얼스터를 차지하기로 하면서 벌어진 전설에 기반하여 제작되었다. 전설에 따르면, 배로 얼스터에 접근하던 중에 한 전사가 자신의 오른손을 잘라서 얼스터 해안가에 던졌고 그는 얼스터의 주인이 되었다고 전해진다.[134] 이 벽화의 상단에 그려진 얼스터 깃발에는 다윗의 별 위쪽으로 영국 왕실의 상징인 왕관이 제거되어 있다.

하지만 붉은 손과 같은 로열리스트 벽화의 새로운 도안은 1970년대에 아직 로열리스트 내부에서 윌리엄 3세의 승리주의 벽화를 대체하지 못했다. 빌 롤스톤은 오렌지회 전통과 붉은 손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붉은 손은 개신교도들 사이에 인기 벽화 소재가 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135]

트러블이 시작된 후 오렌지회 문화는 쇠퇴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로

---

131) Hayes-McCoy(주 97), p. 110.
132) https://petermoloneycollection.wordpress.com/visual-history-5-1983-1987/, 2020.9.9.
133) Bruce(주 119), p. 55.
134) https://petermoloneycollection.wordpress.com/2007/08/31/the-red-hand-of-ulster/ 2020.12.21.
135) Rolston(주 67), p. 32.

열리스트 벽화가 감소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빌 롤스톤은 행사 비용에 대한 부담감 같은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이념적 혼란”이 오렌지 행진 문화의 쇠퇴에 영향을 주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1972년에 스토먼트 개신교 의회가 영국 정부에 의해 폐지된 후 개신교도들 사이에 전통적인 영국의 상징들로 장식하고 행진하는 오렌지 행진에 대하여 회의적인 기류가 조성되었다고 보았다.[136] 윌리엄 3세를 그린 벽화가 이전보다 적게 그려지고 얼스터의 붉은 손 이미지가 더 많이 등장한 배경에는 영국 정부에 대한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의 불신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오렌지회의 행진 문화가 쇠퇴하자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들은 전통적인 행진 문화를 자신들의 조직 활동으로 일부 대체하기도 했다. 다양한 계층의 개신교 연합주의자들이 동맹했던 오렌지회와 달리 UVF와 UDA는 지도부로 참여한 일부 중산층 외에 노동자 계층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는데, 구성원들의 차이는 행사를 진행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오렌지회의 십이일 행진이 현수막과 드럼, 말이 끄는 마차나 중산모자를 쓴 행렬 등 전통적 형식을 따랐던 반면,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의 행진은 훨씬 덜 의례적이고 그 시대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 예로 UDA는 수만 명의 조직원이 복면을 쓰고 전투장비를 착용한 채 무력시위 형식의 행진을 진행했다. 이들은 검은 복면을 쓴 채 전성기 오렌지회 십이일 행진에 비할 만큼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조직적인 행사를 개최했다.[137] 또 다른 예로 젊은 노동자 계층 로열리스트들은 ‘유혈과 폭력(blood-and-thunder)’ 밴드를 결성하여 정치적 시위행진을 했다. 펑크 록을 동원한 유혈과 폭력 밴드는 최대 연 60회까지 행진하며 젊은 층의 하위문화로 성장했다. 그러나 오렌지회의 전통적인 밴드 문화와 확연히 차이가 나는 젊은 층의 밴드 문화는 폭음과 소란스러운 행위로 인해 중산층 지역의 연합주의자들과 마찰을 일으켰고 점차 행진의 범위가 축소되었다.[138]

---

136) 위의 책, p. 27.
137) 앞의 책, p. 30.
138) Gordon Ramsey, “Playing Away: Liminality, Flow and Communitas in an Ulster

트러블 초기 오렌지 행진이 쇠퇴한 배경에는 영국 정부의 북아일랜드 정책에서도 찾을 수 있다. 실제로 UVF와 UDA의 폭력 활동은 영국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도 증가했다.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들의 폭력시위는 영국 정부와 아일랜드 공화국 정부가 1973년 12월에 맺은 서닝데일 협정(Sunningdale Agreement)이 폐지되는 데 큰 위력을 발휘했다. 1949년에 영연방에서 탈퇴하고 완전한 독립국이 된 아일랜드 공화국은 북아일랜드에서 유혈 분쟁이 심해지자 아일랜드의 통일 가능성을 놓고 영국 정부와 대등한 위치로 1973년 초부터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 결과로 두 정부는 북아일랜드에 6명의 개신교도와 5명의 가톨교도로 구성된 권력-분담(Power-sharing) 행정부, 즉 새로운 자치정부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139] 서닝데일 협정은 북아일랜드 국민 다수가 아일랜드 통일을 원한다면 영국 정부가 그 결정을 지지할 것이라고 명시하는 한편, 아일랜드 공화국 대표가 자문 역할로 북아일랜드 입법기관에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영국 정부는 북아일랜드 유혈사태가 자국에서 벌어지는 전쟁처럼 보이는 것에 부담을 느껴 분쟁 종식에 목적을 두고 서닝데일 협정을 진행했고, 이 협정에 따라 1974년 1월 권력-분담 행정부를 출범했다.[140]

대부분의 가톨릭 민족주의자들은 협정에 찬성한 반면 개신교 연합주의자들은 협정에 대해 찬반으로 나뉘었다. 서닝데일 협정의 협의 과정에 참여하고 권력-분담 행정부 요직을 차지한 UUP(Ulster Unionist Party)와 동맹당인 APNI(Alliance Party of Northern Ireland) 측은 서닝데일 협정에 찬성한 반면 자유 장로교회(Free Presbyterian church) 목사인 이안 페이즐리가 세운 DUP(Democratic Unionist Party), 그 외 소수파 연합당들과 노동자 계층 로열리스트들이 반대했다. 이미 1969년 4월 테

Flute Band's Visit to a Scottish Orange Parade," in Suzel Ana Reily and Katherine Brucher, eds., *Brass Bands of the World: Militarism, Colonial Legacies, and Local Music Making*, (NY: Taylor & Francis Group, 2013), p. 180.

139) 영국 정부는 1973년 3월 20일, 『북아일랜드 헌법안 Northern Ireland Constitutional Proposals』 백서를 발간했다. 이 백서는 영국 정부에 의해 폐지된 북아일랜드 스토먼트 의회를 대체하기 위해 아일랜드 평의회(Council of Ireland)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C.J. Greenwood, *International Law Repor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p. 227.

140) Kennedy-Pipe(주 76), p. 71.

렌스 오닐 총리가 사임한 이후에 집권당인 UUP는 정치적 이념 차이로 분열했고 북아일랜드 정치는 혼란에 빠져 있었다. 이때부터 북아일랜드는 주요 다섯 정당(개신교 측의 UUP, DUP, APNI와 가톨릭 측의 SDLP와 신페인)이 영국 정부가 새 정책과 협정을 발표할 때마다 때로는 영국에 협조하고 때로는 대항하며 30년 넘게 혼란의 시간을 보냈다.[141]

얼스터 노동자협의회(UWC, Ulster Workers' Council)를 중심으로 한 로열리스트 노동자 계층은 아일랜드 통일 가능성이 제기된 사실에 분노하여 협정에 반대하는 정당과 함께 1974년 5월 14일부터 노동자 총파업을 시작했다. 3만여 명의 출근 거부, 우편 서비스와 전기 공급이 중단 등으로 이어진 대규모 파업은 북아일랜드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입혔다. 파업은 영국 정부가 서닝데일 협정 취소와 영국 정부의 북아일랜드 직접 통치 재개를 발표한 다음 날인 5월 28일에 끝이 났다.[142] 서닝데일 협상을 주도한 보수당 정부는 협정 실패의 여파로 1974년 10월 총선거에서 노동당에게 패배했다.[143]

스티브 브루스는 트러블 시기 중산층 연합주의자들이 UVF나 UDA에 거의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 그들이 실생활에서 가톨릭교도와 경쟁하는 빈도수가 낮았고 IRA와의 유혈 분쟁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또한, 1970년대 중산층 연합주의자들은 보강된 영국의 치안 정책에 더 의지했고, UVF나 UDA에게 지역 방어를 맡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보았다. 영국 정부의 치안 정책으로 1972년 북아일랜드 내 발생했던 1만 건 이상의 총격과 천 건 이상의 폭발이 1977년 각각 천여 건과 300여 건으로 감소했다.[144] 폭력이 표면화될수록 사회·경제적으로 더 안정된 이들이 준군사조직 일원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

141) 1970년 4월 UUP로부터 분리되어 출범한 동맹당인 APNI는 종파를 초월하여 중산층을 대변하는 당이 되었다. 1964년부터 개신교 연합당(PUP, Protestant Unionist Party)을 이끌던 페이즐리 목사는 1971년 9월 민주연합당인 DUP을 창당하며 강경파 연합당의 역할을 했다. 비슷한 시기인 1970년 8월 가톨릭 민족주의자들은 IRA 정치조직인 신페인을 경계하여 사회민주노동당(SDLP, the Social Democratic and Labour Party)을 설립했다. 신페인은 1974년부터 북아일랜드에서 합법적인 정당으로 활동했다. Arthur and Jeffery(주 85), p. 42.

142) Bruce(주 119), p. 95; Kennedy-Pipe(주 76), p. 16 and p. 71.

143) Kennedy-Pipe(주 76), pp. 73-76.

144) 위의 책, p. 65, and p. 115.

에 없다.

영국과 아일랜드 공화국이 도모한 1973년의 서닝데일 협정을 무효로 만드는데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들이 큰 역할을 했지만, 그 여파는 개신교 내부의 분열과 영국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1970년대 오렌지회 활동 축소와 윌리엄 3세 벽화의 쇠퇴로 이어졌다. 반면 로열리스트 벽화에 '얼스터의 정체성'을 우위에 두는 붉은 손 이미지가 많아지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3) 노동당 정부 주도의 벽화 프로젝트(1977-1980)

북아일랜드 미술계는 트러블 시기 노동자 계층의 준군사조직들이 주도한 벽화 문화를 예술로 인정하지 않았고 벽화 제작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술계가 벽화 제작에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니었다. 벽화를 '예술의 한 종류로 볼 것인가'의 문제와 별개로 1977년부터 시작된 노동당 정부의 벽화 프로젝트에 벨파스트의 미술대학이 직접 관여했다.

영국 노동당 정부는 1977년 '스프루스 업 벨파스트(Spruce Up Belfast)'라는 벽화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정부가 이 커뮤니티 벽화 프로젝트에 자금을 댄 동기는 가톨릭 시민권 운동 이후 10년 가까이 폭력을 자주 직접 경험한 노동자 계층 거주민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벽화 프로젝트를 진행한 또 다른 배경에는 북아일랜드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침체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판단했던 노동당 정부의 국무장관 로이 메이슨(Roy Mason)의 의도가 있었다. 1970년대 중반 영국 정부는 경제 위기 상황에 있었다.[145] 1976년부터 1979년까지 북아일랜드 국무장관을 맡았던 로이 메이슨은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 먼저 벨파스트 도시 환경 개선을 시작했다. 그는 해상과 항

145) 김정희는 이 당시 영국이 "1971년 보수당 정부(1970-74) 시기에 이루어진 고정환율제도의 붕괴 후 시작된 경제 쇠퇴"와 "1973년 유류가격 폭등과 그에 따른 세계 경기의 후퇴, 1976년 12월에 시작된 영국의 IMF 체제와 함께 이를 가속화한 글로벌 경제의 확대" 등의 복합적 이유로 경제 위기를 맞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정희, 『문명화, 문화주의, 기업문화: 영국정부의 예술 정책』,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pp. 226-27.

공편으로 도착한 해외 투자자들에게 벨파스트에 대한 좋은 첫인상을 주기 위해 1976년 '스프루스-업 작전(Operation Spruce-Up)' 캠페인을 통해 공항과 항만 주변 조경을 바꾸고 두 점의 벽화를 설치했다. 그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환경부는 다음 해 이 캠페인을 커뮤니티 벽화 프로젝트로 확대하여 벨파스트 도심에 있는 가톨릭과 개신교 분쟁지역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146]

'스프루스 업 벨파스트' 계획에 따라 1977년부터 1980년까지 4년간 영국군,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들, IRA 사이의 분쟁으로 황폐해진 가톨릭과 개신교 노동자 계층 지역에 벽화 총 40여 점이 제작되었다. 북아일랜드 환경부(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예술위원회(the Arts Council)와 벨파스트의 미술대학이 이 프로젝트를 주관했다. 영국 정부는 벨파스트 시의회(Belfast City Council)의 커뮤니티 서비스부(Community Services Department)를 통해 벽화 프로젝트의 자금을 조달했다. 회화와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주당 40파운드로 고용되었고, 벽화 한 점에 약 1,000파운드의 비용이 소요되었다.[147]

벽화 선정과 제작 과정은 보통 커뮤니티 서비스부가 노동자 계층 커뮤니티를 설득하여 벽화를 그릴 장소를 선정하고, 미술대학 학생들이 커뮤니티 단체들과 협의하여 벽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후 예술위원회가 기획안을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커뮤니티 서비스부는 벽화가 그려질 지역이 준군사조직들이 활동하는 곳이라는 이유로 미술대학 학생들에게 정치적 내용을 그리지 말 것과 커뮤니티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고용된 학생들은 위원회의 지시대로 지역단체들과 협의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커뮤니티를 벽화 프로젝트에 참여시킨다'라는 의미가 모호하다고 보았다. 주제 선정부터 페인트 작업까지의 과정 중에서 어느 부분에 거주민들을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해 커뮤니티 서비스부의 지침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

146) Rolston(주 67), p. 55.

147) Maria T. Simone-Charteris, "State intervention in re-imaging Northern Ireland's political murals: Implications for tourism and the communities", in Jonathan Skinner and Lee Jolliffe, eds., *Murals and Tourism: Heritage, Politics and Identity*, (New York: Routledge, 2017), p. 219.

었다. 미술대학 학생들은 지역 청소년들이 벽화의 한 부분을 그리도록 하는 정도로 타협했다. 빌 롤스톤은 벽화에 커뮤니티 정체성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협의의 수준과 지역민들이 벽화를 받아들이는 정도 사이에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거주민들의 벽화에 대한 수용 여부는 벽화의 주제, 스타일, 커뮤니티 참여자에 대한 신뢰 정도, 예술가들의 성격 등 복합적이고 수량화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148]

스프루스 업 벨파스트 프로젝트로 완성된 벽화는 정글과 자연을 그린 목가적 풍경, 커뮤니티 실존 인물들과 유명 만화 캐릭터 등 주로 세 가지 주제로 나뉜다. 세 주제 모두 동시대의 정치성이 배제되었다는 점은 같지만, 완성된 벽화에 대한 거주민들의 반응과 벽화 수용 여부는 나뉘었고 일부는 논란이 되었다.

1977년 여름에 완성된 7점의 벽화 중 하나인 스프링힐(Springhill) 지역 벽화에는 정글을 배경으로 한 야생동물들이 묘사되었다(도 27). 벽화에는 옷을 거의 입지 않은 원시인의 모습을 한 남성이 한 손에 단도를 들고 숲속을 뛰어가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주변에는 꽃과 정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동물들이 그려져 있다. 벽화가 완성되자 원시인의 모습을 본 스프링힐 거주민들은 예술가들이 그 지역민들을 야만인으로 모욕했다고 생각해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그러나 이 벽화를 그린 브렌단 엘리스(Brendan Ellis)는 독일 표현주의에서 영감을 얻어 벽화를 그렸으며 지역민들을 그린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아인스워스 애비뉴(Ainsworth Avenue) 주민센터 외부에 그려진 추상적 풍경화는 완성 직후 거주민들에 의해 파괴되었다. 그 원인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는데, 추상적인 스타일에서 비롯된 거부감이거나 벽화 제작에 참여한 학생들과 커뮤니티 단체 사이의 문제로 추측되었다.[149]

반면, 다섯 명의 지역 아이들의 실제 모습을 재현한 우드베일

148) Rolston(주 67), pp. 55-58.
149) 위의 책, pp. 58-59.

(Woodvale) 벽화는 거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언론 보도를 통해 벽화 프로젝트가 홍보되기도 했다(도 28). 벽의 반 이상을 채운 아이들의 모습은 일률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벽화에는 아이들의 찡그린 얼굴이나 입을 벌려 소리치는 장면이 포착되어 그려져 있다. 이 벽화는 현지인들의 참여 때문이 아니라 현지 아이들을 묘사했기 때문에 인기가 높았다고 평가되었다.[150]

첫해 프로젝트 결과에 대해 벨파스트 시의회의 커뮤니티 서비스부는 커뮤니티 벽화가 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고, 미술대학 학생들은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커뮤니티 단체들은 벽화가 커뮤니티 결속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언론의 관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벽화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었다. 1978년 여름에 커뮤니티 벽화 프로젝트가 재개됐을 때 시의회 위원회는 같은 과정을 거쳐 18점의 벽화가 완성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151]

1977년에 제작된 벽화들 가운데 현지 아이들을 묘사한 벽화의 반응이 좋았던 것처럼, 1978년 벽화에서도 벤치에 앉아있는 커뮤니티 거주민들을 그린 세인트 제임스(St James) 지역 벽화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지역 축구선수나 권투 글러브를 낀 현지 아이들을 그린 벽화 역시 좋은 반응을 얻었다(도 29). 이 벽화에는 지역 권투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모인 네 명의 청소년들이 그려져 있다. 선수복을 갖춰 입고 권투 글로브를 낀 네 명의 아이들 뒤로 코치로 보이는 남성이 보인다. 이처럼 벽화의 주제로 지역 출신을 주인공으로 그리자는 생각은 계속 이어졌다. 그러나 할랜드 앤 울프 조선소 용접공을 그린 아인스워스 벽화는 지역민들이 외면했고 곧 훼손되었다(도 30). 이 벽화는 조선소 내부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5개의 작업대 중 네 곳은 비어있고 한 용접공이 작업복을 입고 용접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작업복을 입지 않은 세 명의 남성이 그 뒤에 서 있다. 이 벽화가 파괴된 이유는 그 당시 심각했던 실업 문제에 대한 지역민들의 항의 표시라고 해석되었다. 1978년에는 조선소에서 용접공을 하던 개신교 노동자 계층 대부분이 실직한 상태였다. 이

150) 앞의 책, p. 59.
151) 앞의 책, pp. 59-60.

사례는 현지인을 그린 벽화가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다.[152]

같은 방식으로 1979년과 1980년 여름에 각각 7점의 새로운 벽화가 제작되었는데, 이는 1979년 5월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한 이후 커뮤니티 벽화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벽화 주제는 이전과 달리 주로 스파이더맨과 백설 공주와 같은 동화나 만화 속 한 장면이 선택되었다(도 31). 이 벽화에는 스파이더맨이 거미줄을 펼치며 한 건물에서 다음 건물로 넘어가는 장면을 하늘 위에서 바라보는 역동적인 구도로 그려져 있다. 처음 2년 동안 벽화 제작에 참여한 지역민들은 주로 청소년층이었다. 롤스톤은 벽화 프로젝트에 고용된 학생들이 청소년들에게 미술 수업을 하고 미술대회를 조직하는 등의 활동을 병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벽화 주제에 동화나 아이들이 선호하는 이야기가 많아진 배경으로 설명했다.[153] 이처럼 벽화 프로젝트 첫해인 1977년의 벽화부터 1980년의 벽화까지 확실히 일관되게 정치적인 주제가 포함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후반으로 갈수록 커뮤니티 실존 인물들조차 더는 그려지지 않았다. 그 자리를 동화나 만화 캐릭터 같은 비현실적인 주제가 차지했는데, 이는 논란의 가능성 자체를 차단한 주제 선택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제프리 슬루카(Jeffrey A. Sluka)는 스프루스 업 벨파스트 프로젝트가 1981년 그라피티에서 탈피한 공화주의 벽화의 출현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다. 개신교 지역과 달리 가톨릭 지역은 벽화 그리기 전통이 없었지만, 가톨릭 노동자 계층은 벽화가 시 정부의 계획에 따라 그려지는 것을 목격했고 이런 형태의 예술에 대한 공동체적 경험을 갖게 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154] 그러나 빌 롤스톤은 슬루카의 견해에 대해, 벽화를 이전에 본 적이 없었던 벨파스트 이외 지역에서도 1981년부터 벽화가 제작되었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지원한 벽화 프로젝트와 공화주의 벽화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1977년부터 4년간 공공기관 주도로

152) 앞의 책, pp. 60-62.
153) 앞의 책, p. 65.
154) Sluka(주 77), p. 197.

그려진 40여 점의 커뮤니티 벽화는 1981년 공화주의 벽화가 급증하던 시기에 대부분 파괴되었다.[155]

1987년과 1988년에도 정부가 지원한 새로운 벽화 프로젝트인 브라이튼 업 벨파스트(Brighten Up Belfast)에 의해 십여 점의 벽화가 그려졌다. 새롭게 그려진 커뮤니티 벽화 역시 1970년대 말의 프로젝트와 같이 어린이들이 노는 장면, 만화 캐릭터, 스포츠 게임을 하는 사람들, 도시 한복판에서의 목가적 행복 등을 주제로 했다. 대표적인 예로 아일랜드 전통 운동인 헐링(huring)과 게일 축구를 하는 네 명의 남성을 그린 1988년의 벽화가 있다(도 32). 그러나 이러한 정부 지원 벽화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커뮤니티의 정서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보존의 가치가 없는 공공미술로 여겨져 쉽게 훼손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마리아 시모네-차테리스(Maria Simone-Charteris)는 1987년 벽화 프로젝트가 10년 전 스프루스 업 벨파스트 프로젝트의 실패를 보고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고 보았다.[156]

정치적·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영국 정부가 주도한 새로운 형식의 벽화 프로젝트는 분쟁으로 황폐해진 거리를 일부분 개선하려는 하나의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벽화 프로젝트는 거주민들의 실제 삶을 일부 반영하기도 했지만, 거주민들의 실제 생각과 의견이 표명되지 않았다. 정부가 제작한 벽화들은 분쟁으로 파괴된 벽을 보수하고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홍보물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대규모 거리시위와 총격전, 차량 폭탄테러가 일어나던 당시 상황에서 꽃이나 숲을 주제로 한 목가적 풍경, 스포츠 경기를 하는 거주민들이나 만화의 한 장면을 그린 벽화는 북아일랜드 상황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 있다. 아니면 환경 개선을 빌미로 정부가 노동자 계층에게 분쟁을 끝내고 목가적 삶과 스포츠를 즐기는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정부가 주도한 벽화 프로젝트는 북아일랜드 미술계 구성원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자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미술대학 학생들이 준

155) Rolston(주 67), p. 68.
156) Simone-Charteris(주 147), p. 219.

군사조직들의 소요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던 노동자 계층의 접점 지역에서 정부의 지시로 벽화를 제작한 이후로 이들이 노동자 계층의 벽화 운동에 참여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북아일랜드 분쟁을 다룬 여러 자료에서 일관되게 말해온 것처럼 미술대학 학생을 포함한 북아일랜드 미술계는 북아일랜드 벽화 문화의 형성과 전개 과정에서 외부인으로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공화주의 벽화가 그라피티 형식에서 시작하여 한동안 그러한 형태를 유지한 사실은 IRA를 포함한 공화주의자들이 비밀리에 활동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톨릭 시민권 운동에 미술계의 참여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얼스터에 벽화가 시작된 배경과 이후 벽화의 초기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다. 아일랜드에 가톨릭 자치정부가 건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일랜드 북부의 얼스터 개신교도들, 특히 노동자 계층 로열리스트들은 오렌지 행진 경로에 1908년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이들이 벽화를 그린 이유는 얼스터의 영토 소유권이 영국의 정통성을 지닌 개신교도에게 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한 행위였다. 로열리스트 벽화는 끝까지 개신교 국가의 국민으로 남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고 이를 위해 로열리스트가 선택한 17세기 윌리엄 3세의 도상은 '가톨릭 왕에게 승리한 개신교 왕'으로 개신교의 승리주의를 상징한다. 따라서 이후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윌리엄 3세를 그린 벽화는 영국 정체성을 지닌 개신교도가 얼스터 영토의 합법적 주인임을 나타내고 북아일랜드에 남겨진 가톨릭교도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행위는 1922년에 건립된 북아일랜드에서 가톨릭교도에 대한 제도적 차별로 이어졌고 1968년 가톨릭 시민권 운동이 일어나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1969년에 그라피티 형태로 처음 등장한 공화주의 벽화는 가톨릭 노동자 계층이 개신교 자치정부의 차별에 저항하는 매체였다고 볼 수 있다.

1972년 개신교 자치정부가 폐지되고 영국이 북아일랜드를 직접 통치하면서 북아일랜드에 유혈 분쟁이 본격화되었다. 트러블이 본격화되면서 가톨릭 편의 IRA와 개신교 편의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들은 벽화를 제

작하는 주체가 되었다. 이 시기에 제작된 공화주의 벽화에는 1916년의 부활절 봉기를 잇는 IRA의 정체성이 표현되어 있다. 반면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의 벽화가들은 윌리엄 3세의 승리주의를 선포하는 한편으로 얼스터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붉은 손'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영국 정부가 북아일랜드 개신교 자치정부를 폐지한 것에 대해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들이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부터 얼스터의 붉은 손 이미지가 단독으로 처음 사용되었다.

17세기부터 아일랜드 북부에서 시작된 개신교 지배자와 가톨릭 피지배자의 관계는 1921년의 앵글로-아이리시 조약으로 1922년에 북아일랜드가 건립된 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 자유로운 데리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공화주의 슬로건이 쓰인 벽화는 이러한 관계를 깨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단식투쟁 이후 정치적 격변기의 벽화(1981-2003)

북아일랜드 벽화는 1980년대에 집중적으로 제작되었다. 이때부터 북아일랜드에서 벽화는 본격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고 이념을 재생산하는 도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는 분쟁이 가장 심했던 시기이면서 동시에 분쟁이 큰 전환기를 맞은 시기였다. 그 중심에는 1981년 IRA 수감자들의 단식투쟁과 1985년 영국과 아일랜드 공화국이 맺은 앵글로-아이리시 협정이 있었다. 벽화의 주제와 형식 역시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북아일랜드에서 벽화가 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은 로열리스트 벽화가 공화주의 벽화처럼 영국 정부에 대한 저항과 반감을 벽화에 표현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닐 자만은 개신교 커뮤니티와 가톨릭 커뮤니티 모두 그 당시 처했던 공통의 사회·정치적 환경으로 인해 벽화 이미지에서 유사성이 발견된다고 보았다.[157] 이 부분은 특히 벽화의 도상으로 신화적 요소가 선택되면서 드러난 현상이다.

벽화의 주제와 형식은 1994년 IRA와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들이 휴전을 선언하면서 또다시 큰 변화를 보였다. 휴전 이후 벽화가 관광 상품으로 활용되고 전문 벽화 그룹들의 참여가 증가한 데다가 지역 민간단체의 벽화 후원이 뒤따르면서 벽화 주제와 형식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형식적인 면에서 정교한 화면 구성과 숙련된 기술 등으로 심미적 요소를 갖췄고 관광객의 흥미를 끌 만한 소재들이 선택되었다. 분쟁이 끝나감에 따라 분쟁의 기억을 다룬 벽화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나 언론에서 북아일랜드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표처럼 다뤄지게 되었다.

노동자 계층의 저항 문화라는 벽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벨파스트와 데리와 같은 북아일랜드 도시들을 유럽의 다른 도시들과 구분되는 개성 있는 장소로 만든 대중적 문화라는 견해로

157) Jarman(주 65), p. 155.

조금씩 바뀌었다. 여전히 북아일랜드 실생활에서 대다수 중산층은 벽화를 좋아하지 않았고 노동자 계층 내부에서도 벽화에 대한 논란이 존재했지만, 이때부터 북아일랜드 벽화는 북아일랜드를 대표하는 중요 문화 상품으로 포장하기 적합하도록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동시대의 정치적 사건과 벽화 주제 상의 변화

1981년부터 그라피티 형식에서 벗어난 이미지 중심의 공화주의 벽화를 제작한 주체는 IRA와 젊은 공화주의 노동자 계층이었다. IRA를 소탕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1970년대 중반부터 치안 부대의 '얼스터화(Ulsterization)'와 정치범의 '불법화(Criminalization)' 정책을 도입했는데, 그로 인해 공화주의 수감자들이 증가했다.[158] 그 결과로 볼 수 있는 1981년 IRA 수감자들의 단식투쟁은 영국 정부의 탄압을 비판하면서 IRA를 지지하는 공화주의 벽화가 급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1년의 단식투쟁으로 한 해에만 약 200점의 공화주의 벽화가 제작되었다. 이후 공화주의 벽화는 북아일랜드를 넘어 영국본토와 서구사회에 IRA와 가톨릭 교도에 대한 영국 정부의 탄압을 고발하는 매체로 기능했다.

1960년대 말 트러블 시기부터 많이 그려지지 않았던 로열리스트 벽화 역시 1980년대 중반 이후 주제와 형식에서 크게 변화되었다. 1973년에 도입되었다가 바로 폐지된 서닝데일 협정의 후속으로 영국 정부가 추진한 1985년의 앵글로-아이리시 협정은 로열리스트들이 윌리엄 3세의 승리주의 벽화를 더는 그리지 않고 패배주의적 분노를 벽화로 표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UVF와 UDA 등의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들은 아일랜드 통일 가능성을 높인 영국 정부의 결정에 배신감을 느끼고 통일의 대안으

158) 치안부대의 얼스터화(Ulsterization)는 1969년부터 북아일랜드에 상주해온 영국군의 임무를 얼스터 경찰인 RUC에게 인계하고 병력감축을 목표로 한 1974년의 정책이다. 그러나 약 90%가 개신교도로 구성된 RUC에게 북아일랜드 치안을 맡기는 것에 문제가 많다는 비판을 받았다. 1975년의 정치범에 대한 불법화(Criminalization) 정책은 IRA 수감자들의 정치범 지위 해제를 포함한 정책으로 이번 장에서 다룰 단식투쟁의 직접적 계기가 된다. Kennedy-Pipe(주 76), p. 5.

로 북아일랜드 독립 국가의 건립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벽화의 도상에서도 일부 발견된다.

이번 절에서는 단식투쟁으로 공화주의 벽화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와 가톨릭 민족주의자들과 공화주의자들이 결속하는 과정에서 벽화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어서 앵글로-아이리시 협정의 정치적 의미와 그것이 초래한 벽화 도상의 변화를 분석할 것이다.

1) 단식투쟁(1981)과 저항의 표명으로서의 벽화

그라피티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공화주의 벽화가 이미지 중심의 벽화로 변화된 직접적인 계기는 1981년에 있었던 단식투쟁이다. 이것은 롱 케시(Long Kesh)의 메이즈 교도소(the Maze Prison) 수감자 바비 샌즈(Bobby Sands)가 3월 1일 단식을 시작해 투쟁하다가 5월 5일 사망한 사건을 일컫는다. 그의 사망 후 8월 20일까지 아홉 명의 단식투쟁 시위자들이 더 사망했다.[159] 이들은 1976년 9월부터 영국 정부에 '정치범 지위 회복' 등 '다섯 가지 요구'를 걸고 "담요시위(blanket protest)"를 포함한 "H-블록(H-Block) 시위"를 주도했던 이들이었다. 단식투쟁은 그 교도소시위 중 하나였다.[160] 북아일랜드 국무장관은 추가 사망자 발

159) 바비 샌즈(Bobby Sands, 27세)에 이어 5월 12일 프란시스 휴즈(Frnacis Hughes, 25), 21일 레이몬드 멕크리쉬(Raymond McGreesh, 24)와 팻시 오하라(Patsy O'Hara, 23), 7월 8일 조 맥도넬(Joe McDonnell, 29), 7월 13일 마틴 헉손(Martin Hurson, 24), 8월 1일 케빈 린치(Kevin Lynch, 25), 8월 2일 키에란 도허티(Kieran Doherty, 25), 8월 8일 토마스 멕델위(Thomas McElwee, 23), 마지막으로 8월 20일 마이클 데빈(Michael Devine, 27)이 사망했다.

160) 5가지 요구사항은 "죄수복을 입지 않고 사복을 입을 권리, 교도소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다른 죄수와 자유로운 교제, 교육 및 취미 활동을 할 권리, 한 주당 1회 방문권·편지 1통·소포 1통을 받을 권리, 그리고 감형받을 권리의 회복"이다. "H-블록" 시위는 1976년 9월부터 1981년 10월까지 진행된 교도소시위 전체를 지칭한다. H-블록은 메이즈 교도소의 H 모양에서 유래했다. "담요시위"는 죄수복 입기를 거부하고 대신 담요를 사용해 그러한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들이 1978년 3월부터 병행한 "더러운 시위(dirty protest)"라는 용어 역시 죄수복을 입고 방을 벗어나는 것을 거부하면서 교도소 시위자들이 씻지도 않고 배설물을 벽에 뿌린 것에서 유래했다. 1978년 7월 30일 메이즈 교도소를 방문했던 아일랜드 가톨릭 대주교 토마스 오 피아이츠(Tomás Ó Fiaich)는 담요시위에 참여하는 300여 명의 재소자가 '비인간적인' 환경에

생을 막기 위해 10월 6일 단식투쟁 시위자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단식투쟁은 종료되었고 담요시위도 10월 26일에 종결되었다.[161] 그러나 메이즈 교도소 수감자들이 5년간 진행한 H-블록 시위는 영국을 포함한 서구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고 북아일랜드 분쟁이 가톨릭 민족주의자들에게 유리하게 전환되도록 한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스티브 맥퀸(Steve McQueen)이 감독한 영화 『헝거 Hunger』(2008)에는 이 당시의 교도소 상황이 거의 그대로 재현되어 공화주의자들에 대한 영국 정부의 비인간적 탄압이 절정에 달했던 1981년의 북아일랜드 상황을 가늠하게 한다.

바비 샌즈가 사망한 1981년 5월부터 이듬해 가을 사이 벨파스트에 적어도 100점, 데리에 50여 점, 그리고 아마, 루간(Lurgan), 뉴리, 스트라반(Strabane) 등 가톨릭 노동자 계층 지역에 공화주의 벽화가 급증했다.[162] 1981년에 제작된 공화주의 벽화는 주로 메이즈 교도소 수감자들의 시위와 북아일랜드의 정치적 상황을 즉각적으로 대중에게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영국 정부가 북아일랜드 언론을 통제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공화주의 벽화는 IRA 수감자들의 상황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하나의 매체로 사용됐다.

1981년 공화주의 벽화의 주제는 단식투쟁과 교도소 시위자에 대한 지지가 가장 많았다. 특히 단식투쟁의 첫 번째 희생자인 바비 샌즈는 벽화의 중심인물로 그려졌다(도 33). 벽화에 묘사된 바비 샌즈의 초상화는 BBC가 보유한 수감 이전의 사진을 모델로 한 것이다(도 34). 단식투쟁 시위자들의 초상을 그린 벽화는 그 당시 가톨릭 민족주의자들이 이들의 영국 정부에 대한 저항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이

서 생활하고 있다고 성명서를 냈을 정도로 교도소 시위자들에 대한 영국 정부의 탄압은 극에 달해 있었다. https://cain.ulster.ac.uk/events/hstrike/chronology.htm, 2020.7.27.

161) 제임스 프라이어(James Prior)는 10월 6일, 단식투쟁 시위자들이 요구했던 5가지 요구사항 중 재소자들이 사복을 입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일부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H-블록에 연습실 등에서의 자유로운 모임 허용, 각 수감자의 방문객 횟수 증가, 최대 50%까지 감형 허용이 결정되었다. 교도소 노역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담요시위는 10월 26일 끝났다. https://cain.ulster.ac.uk/events/hstrike/chronology.htm, 2020.7.27.

162) Rolston(주 67), p. 79.

었다. 단식투쟁이 진행되던 7개월의 기간 동안 교도소 시위자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결성한 아마 위원회(Armagh Committee) 등 여러 단체가 거리시위를 벌였다(도 35). 거리시위 장면을 찍은 이 사진은 시위대가 단식투쟁 시위자들의 얼굴, 이름, 나이와 단식투쟁 일수를 적은 큰 포스터를 들고 다니며 집회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다.[163] 이 포스터 역시 벽화로 동시에 제작되었다.

5월 7일에 거행된 바비 샌즈의 장례식에는 약 12만 명이 참석했다. 이때 마지막 경례를 하는 예포대의 사진이 공화당 주간지(Republican News) 『안 포블라크 An Phoblach』 5월 9일 자에 실렸는데 이 사진은 여러 차례 벽화로 제작되었다(도 36).[164] 이 벽화에는 삼색기로 덮인 바비 샌즈의 관 위로 그의 초상화가, 오른쪽 옆으로 예포대의 모습이 배치되어 있고, 왼쪽에는 그의 시 「종달새와 자유 싸움꾼 The Lark and the Freedom Fighter」이 쓰여 있다.[165] 이 시는 그가 'IRA의 자유 정신과 투쟁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작성한 글로서 갇혀 있는 종달새와 공화주의 정치범 사이의 유사점을 표현하고 있다. 이 당시 H-블록 시위자들은 독실에 갇혀 펜과 종이로 하는 의사소통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화장지나 담배 종이에 색연필로 그린 글과 그림을 밀반출했다. 샌즈의 글 역시 이 과정을 거쳐 감옥 밖으로 전달되어 『안 포블라크』와 벽화를 통해 공개되었다.[166] 이 시의 영향으로 '철조망 속의 종달새'는 바비 샌즈를

---

163) H-블록과 아마 위원회(H Block and Armagh Committees)는 단식투쟁자의 사진과 이름을 들고 간선도로에서 시위하는 백색선 시위(white line protest), 피켓 시위, 탄원서 서명, 대형 전광판에 단식투쟁 시위자들의 단식 일수를 공개하는 등의 활동을 하며 교도소 시위자들의 상황을 외부에 알렸다. 위의 책, p. 76.

164) https://www.anphoblacht.com/contents/25988, 2020.7.27.

165) 바비 샌즈는 1978년부터 누이 이름을 필명으로『안 포블라크』에 글을 싣었다. 1979년 2월 3일자로 실린 샌즈의 「종달새와 자유 싸움꾼 The Lark And The Freedom Fighter」의 인용구는 다음과 같다. "I refuse to change to suit people/ Who oppress, torture and imprison me./ Who wish to dehumanize me [⋯]/ I have the spirit of freedom that cannot be quenched/ By even the most horrendous treatment./ Of course I can be murdered, but [while I remain alive] I remain what I am/ A political prisoner of war." Bill Rolston, "Politics, Painting and Popular Culture: The Political Wall Murals of Northern Ireland," *Media, Culture & Society*, 9:1(1987), p. 18.

166) 샌즈를 포함한 교도소 시위자들은 H-항쟁의 사연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 몰래 적은 컴스(comms, 통신의 줄임말)를 외부에 밀반출했다. Rolston(주 67), p. 75.

상징하는 벽화 소재가 되었다(도 37). 새장에 갇히면 노래 부르기를 거부하는 종달새는 자유 정신과 저항을 상징하는 새로, 더 넓은 관점에서 바비 샌즈뿐 아니라 영국 정부에 순응하지 않았던 H-블록 시위자 모두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167]

"공화주의자이든지 아니든지, 모든 사람은 각자의 역할이 있다(Everyone republican or otherwise has his/her own part to paly)"라는 바비 샌즈의 글은 가톨릭 민족주의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죽음을 담보로 자신들의 신념을 지킨 청년 IRA들의 단식투쟁을 계기로 가톨릭 시민권 운동 이후 한 번도 행진한 적이 없거나 시위 자체에 참석한 적이 없던 가톨릭 민족주의자들까지도 단식투쟁 희생자들의 장례식과 항의 집회에 참석했다. 이후 교도소 시위자들과 단식투쟁 시위자들은 추모일마다 벽화로 제작되었다(도 38). 이 벽화에는 바비 샌즈의 머리 뒤로 후광이 그려져 그가 예수와 같은 성인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왼쪽 옆에는 "자유의 정신(the Spirit of Freedom)"이라고 쓰인 노란 리본 사이로 종달새가 묘사되어 있고 그 위로 앞서 설명한 그의 글이 쓰여 있다.[168] 이처럼 단식투쟁 이후 공화주의 벽화는 '혁명가'의 초상화, 그를 상징하는 상징적 이미지와 글이 같이 한 화면에 그려지는 것이 하나의 형식이 되었다.

위의 후광을 그린 벽화처럼 공화주의 벽화는 IRA 교도소 시위자들을 종종 종교적 순교자로 그렸다. 1981년에 제작된 몇 점의 벽화에는 수염을 기르고 담요를 두른 재소자들이 그리스도를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록마운트 스트리트(Rockmount Street) 벽화는 한 천사가 묵주(rosary)를 쥐고 죽어가는 한 단식투쟁 시위자의 주변에서 맴도는 장면을 묘사함으로써 단식투쟁을 종교적 행위로 표현하고 있다(도 39). 같은 제목의 벨파스트 화이트록 로드(Whiterock Road) 벽화에는 "정의를 갈망하는 자들은 복되다(Blessed are those who hunger for justice)"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있는 천사의 발치에 담요시위자와 제복을 입은 IRA 일원이 같이 묘사되어 있다(도 40). 그 위에 "그들의 굶주림·그들의

167) https://petermoloneycollection.wordpress.com/hawks-doves/, 2020.9.29.
168) Rolston(주 67), p. 89.

고통·우리의 투쟁(Their Hunger·Their Pain·Our Struggle)"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그들의 투쟁이 정의를 위한 행위라는 사실을 부각하고 있다. 이 벽화의 네 모서리에는 아일랜드의 네 지방(얼스터, 렌스터, 먼스터와 코나흐트) 문장(heraldry)이 각각 배치되어 그려져 있다.[169] 이것은 얼스터를 포함한 네 지방이 하나로 통일되어야 완전한 아일랜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공화주의 벽화가들은 1981년의 단식투쟁을 그리스도와 유사한 자기희생으로 묘사했다. IRA의 전신이자 페니어니즘의 한 분파였던 IRB는 1860년대 무장 독립운동을 벌였으나 아일랜드 가톨릭교회가 이들을 종교를 파괴하는 사회주의 집단으로 여겼기 때문에 가톨릭교도들의 큰 지지를 얻지 못했다.[170] 또한, IRA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주장하는 '공화주의 이념'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 색채를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IRB와 1916년의 부활절 봉기를 계획했던 패트릭 피어스는 '혁명가의 죽음'을 '순교'로 생각했고 종교적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1981년의 공화주의 벽화 역시 세속적 요소와 종교적 요소를 혼합시킴으로써 종교적 이미지가 세속적 용어로 재해석될 수 있도록 했다고 볼 수 있다.[171] 이러한 종교적 색채를 지닌 공화주의 벽화는 IRA의 무력 행위에 동참하지 않았던 가톨릭 민족주의자들이 그들의 실제 종교와 관계없이 '공화주의자들은 가톨릭 아일랜드인이다'라는 공식을 받아들이도록 했다. 이러한 점에서 1981년에 제작된 공화주의 벽화는 종교와 이념에 관

---

169) 네 지방 문장 속 이미지의 기원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다만 앵글로-노르만 침략자들이 12세기 말 잉글랜드에서 아일랜드로 문장 양식을 가져왔고, 14세기에 이르러 네 지방의 게일 영주들이 문장을 채택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Hayes-McCoy(주 97), p. 19.

170) 페니언과 IRB는 무력에 의해서만 영국의 아일랜드 식민화를 끝낼 수 있다고 믿었다. 이들은 1860년대 아일랜드, 미국과 영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며 군사 활동을 일으켰다. Cronin(주 17), pp. 86-89.

171) 빌 롤스톤은 "민족주의는 단일민족사상이 아니며, 종교적 양식이 지배하는 정도는 민족주의 진영 내 다른 세력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다. 종교적인 이미지가 로마 제국주의의 희생자로서의 그리스도처럼 세속적인 용어로 재해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도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페인은 아일랜드 국가 건립에 기독교 원칙에 입각한 사회정의 통치 개념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민족주의자의 일반적인 의식은 세속적인 요소와 종교적인 요소 둘 다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포함한다."라고 말했다. Rolston(주 67), p. 70.

한 관점이 서로 다른 민족주의자들과 공화주의자들을 가톨릭 아일랜드인의 이름 아래 하나로 결속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1981년에 급증한 공화주의 벽화는 주로 1970년대에 메이즈 교도소에 수용됐다가 출소한 공화주의자들에 의해 제작되었다. 이들은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H-블록 시위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섯 가지 요구'를 하며 교도소시위를 벌이는 이유와 그들의 상황을 벽화로 제작할 수 있었다(도 41). 이 벽화의 첫 줄에 쓰인 "죄수복 반대(No Prison Uniform)"는 교도소 시위자들이 범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죄수복 입기를 거부하고 담요시위를 하는 가장 큰 이유였다.

실제로 IRA 수감자들이 교도소시위를 시작한 배경에는 영국의 보수당 정부가 IRA를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1971년 8월부터 북아일랜드에 도입한 재판 없는 구금 정책이 있었다. 이후 IRA로 의심되는 가톨릭교도들은 재판 없이 구속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1970년대에 공화주의 수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화주의 수감자들은 감옥 안에서 문예부흥운동, 즉 아일랜드 역사·정치·언어·미술 등의 분야에 관한 집단 교육 방법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 중에서 미술품 제작이 인기가 많았는데, 수감자들은 목조 하프 조각, 고대 아일랜드 상징을 그린 손수건, 켈트족 도안을 넣은 가죽 지갑과 핸드백 등을 만들었다고 알려졌다.[172] 교도소 문예부흥운동은 영국 정부가 IRA 정치범들의 지위를 박탈하고 교도소 구내 시설을 폐지한 1976년 3월에 종결되었다. 교도소 내의 활동 금지 역시 공화주의 수감자들을 억압하기 위한 결정이었는데, 이것은 1974년 10월 총선에서 정권을 잡은 노동당의 새로운 치안 정책에 따른 것이다. 노동당은 1975년 북아일랜드 비상 입법을 검토한 가디너 위원회(the Gardiner Committee)의 권고에 따라 강제구금제도를 끝내고 1976년 3월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정치범들을 일반 범죄자로 취급하겠다"라고 발표했다.[173] 이때까지 정치범 지위를 인정받아 사복을 입고 교

172) Rolston(주 165), p. 14.

173) 가디너 위원회는 영국 정부가 공화주의 수감자들에게 정치범 특권을 주었기 때문에 공화주의 명분에 대한 공화주의자들의 헌신이 강해졌고, 이들의 범죄 행위가 일반 범죄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았다. Kennedy-Pipe(주 76), p. 86; Greenwood(주 139), pp. 228-29.

도소 내에서 모임과 활동을 할 수 있었던 IRA 수감자들은 사복뿐 아니라 모든 모임을 금지당했고, 명령을 따르지 않는 수감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다.[174] 이것은 앞서 설명한 H-블록 시위자들이 정치범 지위 회복 등 다섯 가지 요구를 걸고 담요시위와 단식투쟁을 벌이게 된 원인 중 하나다.

이처럼 공화주의자들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1976년의 '정치범 지위 박탈' 이전에 교도소 문예부흥운동을 경험한 공화주의 재소자들은 출소 후 벽화를 그리면서 저항 활동을 하는 주체가 될 수 있었다. 이들은 단식투쟁이 시작됐을 때 그라피티 형식에서 벗어나 한층 호소력 있는 이미지와 슬로건을 벽화로 제작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벽화를 저항의 무기로 사용하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었다. 이들이 그린 벽화 중에서 바비 샌즈의 초상과 함께 그의 글을 적어 놓은 벽화는 지금까지도 공화주의 벽화를 대표할 만큼 큰 파급력을 지녔다.

메이즈 교도소 출소자들 외에도, 많은 가톨릭 청년들이 공화주의 벽화 운동에 합류했다. 이들은 교도소에서 최대 5백 명이 담요시위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자극을 받아 교도소 시위자들의 투쟁을 지원하는 여러 독립 단체에 가입했다. 이들 대부분은 아직 10대 이거나 사회초년생들이었고 무장시위 이외의 방식으로 공화주의 시위에 도움이 되고자 했던 젊은이였다. 예를 들어, 빌 롤스톤이 인터뷰한 케스(Kes)는 공화주의 벽화가로 활동할 당시 17세였다. 정규 미술교육을 받지 않았던 그는 1981년 IRA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같은 뜻을 가진 친구들과 청소년 단체를 설립해 페인트를 사기 위한 기금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라피티로 가톨릭 빈민 지역을 어지럽히는 대신, 좀 더 예술적인 방법인 벽화를 선택했다. 북부 벨파스트와 서부 벨파스트에서 벽화를 그렸던 디거(Digger)는 수년간 다양한 정치 잡지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했는데, 벽화가로 합류하면서 1981년 벽화의 중심 모티브가 된 무릎 꿇은 담요시위자를 처음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175] 이처럼 IRA 출신 외

174) 롱 케시의 메이즈 교도소를 감찰했던 가디너 경이 당국의 교도소 내부 통제가 사실상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보았을 정도로 가톨릭 수감자들 사이의 지휘구조가 상당히 체계적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Rolston(주 67), p. 74.

에도 평범한 청년들이 공화주의 벽화 제작에 합류한 사실은 IRA의 무력 투쟁에 부정적이었던 가톨릭교도들조차도 단식투쟁 사건으로 인해 다양한 방식으로 IRA를 지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일 것이다.

공화주의 벽화가들은 원근법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하고 평면적인 형태로 벽화를 그렸다. 이들은 메시지를 즉각적으로 전달하고 저항의식을 표출하기 위해서 슬로건을 벽화에 포함시켰다. 이들은 경찰과 군 순찰대 눈을 피해 벽화를 빨리 그려야 했기 때문에 전체 벽이 아닌 벽 일부분에 벽화를 그렸다. "대처의 등을 쳐라(Break Thatcher's Back)"라는 선동적인 글과 함께 담요시위자를 그린 한 벽화는 이 당시 벽화 형식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도 42). 벽화의 왼편에는 아일랜드 극작가 션 오케이시(Sean O'Casey)의 "당신은 신념의 목에 밧줄을 걸 수 없다. 당신은 연병장 벽에 어떤 신념을 걸어 놓고 총질을 할 수 없다. 당신의 노예들이 만들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감옥 안에 그것을 가둘 수 없다"라는 인용문이 쓰여 있다.[176] 오른편에는 H-블록 담요시위자가 철조망, 아일랜드 삼색기와 북두칠성기에 둘러싸여 정치적 지위를 되찾기 위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든 모습으로 항의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이처럼 벽화 운동에 참여한 젊은이들은 상징적 이미지와 문구가 포함된 벽화를 통해 영국 정부의 부당함을 고발하고 공화주의 신념이 영국의 탄압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 모두 똑같은 영국의 희생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벽화의 활용 방식에 있어 독특한 특징이 나타났다. 공화주의 벽화가들은 책, 주간지, 팸플릿, 음반 재킷, 엽서 등 다양한 출판물을 참고하여 그들의 상상력을 추가해 벽화를 제작했고 그 벽화는 다시 출판물로 제작되었다. 예를 들어 모이라 거리(Moira Street) 벽화는 벨파스트의 서점인 저스트 북스(Just Books)가 제작한 정치 엽서를 부분적으로 모사한 결과물이다(도 43). 바비 샌즈의 글을 인용한 이 벽화는 조준하

175) 위의 책, p. 98.
176) https://petermoloneycollection.wordpress.com/1981/03/30/ocaseybreak-thatchers-back/, 2020.7.27.

고 있는 영국군을 향해 새총을 쏘는 두 젊은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 벽화는 이후 다시 엽서로 제작되었고 공화당 출판물에도 실렸다.[177] 쇼 로드(Shaw Road) 벽화 <IRA에게 승리를 Victory [to the] IRA>은 로켓포(RPG)와 아말라이트 자동 소총을 든 IRA가 삼색기로 된 아일랜드 섬 옆에서 무릎을 꿇고 조준하고 있는 장면을 그린 벽화다(도 44). 이 벽화는 1974년에 찍힌 IRA 사진과 포스터로부터 제작되었다.

이처럼 1980년대 초반의 공화주의 벽화는 다양한 출처의 이미지가 벽화로, 그리고 벽화에서 다시 책, 포스터, 엽서 등으로 리사이클 되면서 북아일랜드 사회에서 그 영향력이 점차 커질 수 있었다. 이것은 벽화를 직접 보지 못하는 대중에게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공화주의자들의 모습을 전파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었다. 이러한 벽화 제작 방식은 엽서와 판화를 옮겨 그렸던 20세기 초의 로열리스트 벽화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1981년의 공화주의 벽화는 오렌지 행진의 경로에 윌리엄 3세를 정형화하여 그렸던 로열리스트 벽화와 달리, 북아일랜드 가톨릭 노동자 계층 지역의 민심을 자유롭게 표현한 대중적 문화였고 영국 정부에 대한 저항의식을 읽을 수 있는 창구였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벽화가들에게 벽화 제작은 영국 정부의 치안 정책에 항의하는 정치적 행위였다. 따라서 그들은 1981년 교도소 내의 시위뿐만이 아니라 영국 법 제도의 불합리나 영국 보안군의 문제도 다뤘다. 북아일랜드 분쟁이 근본적으로 북아일랜드 가톨릭 민족주의자가 겪는 불평등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그들은 영국 정책 비판이라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

비치마운트 애비뉴(Beechmount Avenue)의 벽화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탄 공화주의자가 얼스터 방위 연대인 UDR 대원에게 폭행을 당하는 장면부터 '디플록 법정(Diplock Court)'을 지나 H-블록 담요시위자가 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도 45). 데리 지역의 크레간(Creggan)에 그려진 <정의의 컨베이어 벨트 Conveyor Belt of Justice> 역시 IRA 대원들의 전투장면부터 경찰이 이들을 체포하는 장면, '디플록 법정'에서의 선고 장면, 수감된 공화주의자가 교도소에서 담요시위를 벌이는 장면

177) Rolston(주 67), p. 100.

까지 네 단계로 법의 부당함을 압축하여 묘사하고 있다(도 46). 각 장면은 중앙의 아일랜드섬 주변으로 배치되어 있고, 북아일랜드의 붉은 땅 위로 유니언잭을 입은 군인이 총을 높이 들고 있는 형상을 묘사하고 있다.[178]

위의 두 벽화에 등장하는 '디플록 법정'은 1972년부터 시행된 디플록 경(Lord Diplock)의 비-배심 재판소로, 테러리스트 범죄를 한 명의 판사가 재판하는 전례 없는 제도였다. 영국 정부는 비밀 정보요원과 내부 변절자 등 밀고자의 증언에만 의존하여 용의자를 잡아들인 후 디플록 법정에서 재판했기 때문에, 이 제도로 인해 IRA뿐만 아니라 무고한 이들도 유죄 선고를 받는 피해를 받았다. 실제로 1981년부터 1983년 사이에 18명의 임시파 IRA 밀고자들과 7명의 로열리스트들이 제공한 정보로 인해 거의 60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후 항소심에서 증언이 철회되거나 미확인된 증거로 밝혀져 상당수 판결이 뒤집혔다. 1972년 이후 재판받은 디플록 법정의 피해자들이 1976년부터 교도소에서 담요시위를 벌이고 1981년에 단식투쟁을 시작한 근본적 원인은 이러한 부당한 법질서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영국본토와 다르게 북아일랜드에만 적용된 이러한 법체계는 민주사회 법질서를 무시한 조치였다는 비판과 "정의의 컨베이어 벨트"라는 조롱을 받았고 공화주의 벽화의 주제가 되었다.[179] 이 벽화들은 영국 정부가 정의를 본인들의 뜻대로 컨베이어 벨트처럼 기계적으로 찍어냈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81년 공화주의 벽화에 자주 등장한 주제 중에 "영국군 철수"가 있다. 1969년 8월 영국군이 분쟁에 개입한 이후 IRA와 신페인이 지속해서 영국 정부에 요구한 사항은 북아일랜드에서의 영국군 철수였다.[180] 벨파스트 앤더슨스타운(Andersonstown) 벽에는 '폭동' 진압복을 입은 영국 섬의 형상이 아일랜드 섬의 형상에게 경찰봉을 휘두르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도 47). 이 벽화 속에서 경찰봉을 든 영국 섬 이미지는 1973년

178) 위의 책, p. 88.
179) Arthur and Jeffery(주 85), pp. 73-74 and p. 77.
180) 영국 정부는 임시파 IRA와 1975년 임시 휴전을 선포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영국군 철수보다 먼저 IRA의 테러 활동을 끝낼 것을 종용했으나 어느 편도 주장을 먼저 굽히지 않음으로써 휴전은 종결되었다. 위의 책, p. 58.

영국에 설립된 친-아일랜드 민족주의 단체인 “군부대 철수 운동(The Troops Out Movement)” 도안을 옮겨 그린 것이다. 『아이리시 시티즌 뉴스페이퍼 the Irish Citizen Newspaper』에 실린 잭 클래퍼티(Jack Clafferty)의 도안은 이후 영국군 철수 운동을 상징하게 되었다.[181]

1981년 로스빌 플랫(Rossvill Flats) 벽화에는 대처 총리 머리로 형상화된 영국 섬의 이미지가 아일랜드 북부를 이빨로 물고 섬 전체를 흔드는 장면이 “영국인을 내보내라(Get the Brits Out)”라는 슬로건과 함께 묘사되어 있다(도 48). 북아일랜드 분쟁을 연구한 폴 아서(Paul Arthur)는 영국군 철수 운동이 영국인 철수(Brits Out)의 의미로 확장되는 것을 우려하며, “영국인(Brits)이 정확히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했다.[182] 그는 자신을 아일랜드인이면서 동시에 영국인으로 여기는 100만 명 이상의 개신교 연합주의자가 거주하는 북아일랜드에서 영국인 철수 문제는 종파적 적대감을 더 키울 수 있는 예민한 주제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슬로건은 영국군뿐만 아니라 UVF나 UDA가 가톨릭 민간인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가톨릭 민족주의자들의 반-영국(anti-British) 감정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다.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들은 공화주의 벽화가 급증하던 1980년대 초 공화주의 벽화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단식투쟁 시기에 가톨릭 지역과 인접한 샌디 로(Sandy Row) 등의 개신교 지역에서 간혹 “바비 샌즈를 죽게 하라(Let Bobby Sands Die)”나 “바비 샌즈를 지옥에서 썩게 하자(Let Bobby Sands Rot in Hell)”와 같은 그라피티가 발견되었으나 이러한 내용이 더는 벽화로 그려지지는 않았다(도 49).[183] 그러나 개신교 지역의 로열리스트 벽화가 반달리즘의 피해를 보지 않았던 반면 공화주의 벽화는 반복적으로 훼손되었다. 곧 경찰대와 영국군이 야간 순찰 중

181) “The Troops Out Movement”는 영국군이 북아일랜드 가톨릭 민족주의 단체를 공격하고 민간인을 살해한 것에 항의하여 1973년 영국에서 형성된 조직이다. 이들의 목표는 아일랜드에서의 영국군 철수와 아일랜드 국민 전체의 자기결정권 확보였다. https://petermoloneycollection.wordpress.com/1981/03/13/sasanach-amach/, 2020.8.17.

182) Arthur and Jeffery(주 85), p. 124.

183) Rolston(주 67), p. 34.

에 조직적으로 페인트 폭탄을 던져 공화주의 벽화를 훼손한 사실이 밝혀졌다. 파손된 벽화는 수정되지 않고 방치되어 가톨릭 민족주의자들에게 경찰과 영국군의 편파성을 알리는 증거가 되기도 했다.[184] 이처럼 영국군과 경찰이 공화주의 벽화에만 조직적으로 행했던 훼손 행위는 공화주의 벽화가 북아일랜드 사회에 미쳤던 영향이 실제로 컸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식투쟁은 북아일랜드의 민족주의 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고, 임시파 IRA의 정치조직인 신페인(Sinn Fein)이 민족주의자들 사이에서 북아일랜드의 공화당 정당으로 부상하게 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단식투쟁 시위자들의 사망 후 신페인은 1982년 10월 북아일랜드 선거에서 5명의 당선자를 내며 공식 정당이 되었다. 득표수로 보면 신페인은 북아일랜드 전체 인구의 약 10%이지만 민족주의자의 약 35%에 해당하는 투표자의 지지를 얻었다.[185] 단식투쟁에 대한 영국 정부의 강경책은 무력투쟁에 부정적이던 가톨릭교도들이 신페인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영국 정부가 1974년 합법적인 정당으로 인정한 이후에도 공식 후보를 내지 않았던 신페인은 1981년 바비 샌즈가 죽기 한 달 전 웨스트민스터 하원 의원으로 선출되자 투쟁 전략을 수정했다. 이때부터 신페인은 북아일랜드에서 임시파 IRA를 통한 무장투쟁을 계속하되 정당 정치를 통한 활동도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다. 이것은 신페인이 영국 정부와 임시파 IRA의 공식 대화 창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05년 아더 그리피스(Arthur Griffith)가 창당한 '우리 자신'을 뜻하는 신페인은 아일랜드 정치가 반드시 개신교도를 제외한 가톨릭교도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186] 1916년의 부활절 봉기 직후 처형된 패트

184) Sluka(주 77), p. 212.
185) Arthur and Jeffery(주 82) p. 58.
186) 신페인의 공화주의 이념은 1798년의 공화주의 봉기, 1848년의 청년 아일랜드 봉기와 1860년대의 페니언 독립운동에서 출발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공화주의 운동은 개신교 출신의 민족주의자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초의 신페인은 '아일랜드인의 아일랜드(Irish-Ireland) 건설'을 주장한 민족주의 언론인 데이비드 페트릭 모란(D. P. Moran)의 영향으로 문화에서 산업에 이르기까지 아일랜드 모든 것을 가톨릭 안에서 다소 제한된 방식으로 받아들였다. Cronin(주 17), pp. 98-99.

릭 피어스와 제임스 코놀리 등의 혁명가들이 순교자로 숭배되었을 때 신페인은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의 지지를 얻고 1918년 선거에서 압승했다.[187] 부활절 봉기 이후 신페인이 가톨릭 아일랜드인의 큰 지지를 받은 것처럼 1981년의 단식투쟁 직후 신페인은 다시 북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의 지지를 얻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신페인이 정당으로 선거에 참여하면서 1982년부터 공화주의 벽화는 신페인의 선거용 프로파겐다에 활용되기 시작했다. 벽화 비용은 공화당 주간지 『안 포블라크』가 부담했고, 단식투쟁 시기에 벽화를 그렸던 독립 벽화가들 중 일부는 신페인에 입당하여 당의 문화 전략에 참여했다. 단식투쟁 중에는 많은 수의 벽화가 자발적으로 그려졌던 반면 신페인의 선거용 벽화는 당의 계획에 맞춰 주로 포스터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공화주의 벽화의 인기는 1981년 10월 단식투쟁과 담요시위가 끝나면서 함께 시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신페인의 새로운 선거 전략으로 인해 상당수 벽화가 새롭게 그려졌고 인기를 유지할 수 있었다.[188]

선거용 벽화는 프로파겐다로 이용되기 위해 직설적이고 단순한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따라서 선거 공약이 벽화에 기재되기도 했다. 벨파스트 비치마운트(Beechmount Avenue) 벽화에는 “신페인에 투표하라(Vote Sinn Fein)”라는 슬로건 위로 젊은 금발의 여성이 삼색기를 들어 올리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도 50). 그 아래로 피켓을 들고 행진하는 여섯 명의 시위자들이 그려져 있는데, 각각의 피켓에는 “청년(Youth)”, “문화(Culture)”, “주거(Houses)”, “영국인 철수(Brits Out)”, “일자리(Jobs)”,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그리고 여성의 오른팔 아래로 “새로운 아일랜드를 위하여(For a New Ireland)”라는 슬로건이 쓰여 있다. 이 벽화는 신페인 당수 게리 아담스(Gerry Adams)를 위한 선거용

---

187) 신페인은 1919년에 IRA와 같이 아일랜드 독립전쟁을 일으켜 남아일랜드의 독립을 이뤄낸 아일랜드 정당의 이념을 잇고 있다. 신페인은 1918년 12월 웨스트민스터 선거에서 아일랜드의 대표당이 된 직후(웨스트민스터 하원의 아일랜드 105석 중 75석을 차지) 웨스트민스터 의회를 탈퇴하고 1919년 1월 21일 더블린에서 새로운 아일랜드 공화국의 임시 의회를 창설했다. 그리고 아일랜드 공화국의 건립을 위해 1919년 잉글랜드 군대가 아일랜드에서 완전히 철수될 때까지 전쟁을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고 독립전쟁을 시작했다. 위의 책, pp. 123-25.

188) Rolston(주 67), pp. 90-91.

벽화로 북아일랜드 가톨릭 시민권 운동부터 임시파 IRA의 통일 운동까지의 핵심 요구사항들을 선거 공약으로 요약해 놓았다. 실제로 신페인은 민족주의 커뮤니티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선거 전략 중 하나로 상담센터를 열고 실직한 청년들에게 사회보장법, 주택정책 등을 조언했다.[189]

판넬에 제작하여 벽에 부착한 1983년의 또 다른 선거용 벽화에는 더 직설적으로 "대처에게 반격하라(Strike Back at Thatcher)"라는 슬로건이 쓰여 있다(도 51).[190] 당시 가톨릭 민족주의 커뮤니티는 단식투쟁을 하는 교도소 시위자들과 7개월이나 타협하지 않았던 대처 총리에게 열 명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이미 단식투쟁 당시의 벽화에서 빈번하게 언급되었던 대처 총리의 이름은 선거용 벽화에서 초상화와 함께 쓰이면서 신페인이 단식투쟁 사건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그라피티 형식에서 탈피한 벽화가 1981년의 단식투쟁으로 급증한 이후 공화주의 벽화는 북아일랜드 사회에서 영국 정부에 저항하는 하나의 매체로 자리를 잡았고 신페인의 선거용 매체로 활용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1980년대 공화주의 벽화는 북아일랜드 분쟁의 주도권을 가톨릭교도가 갖도록 하는 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영국 정부의 치안 정책이 IRA의 무장활동에 대한 탄압에 집중되면서 가톨릭교도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던 북아일랜드 트러블은 1981년 단식투쟁 시위자들의 희생으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1981년 IRA 재소자들의 단식투쟁과 가톨릭 민족주의자들의 시위는 실제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1985년 앵글로-아이리시 협정이 체결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191] 1980년대 공화주의 벽화는

189) 위의 책, p. 90.
190) 앞의 책, p. 98.
191) 유럽의 주요 언론과 유럽인권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 of Human Rights)는 H-블록 시위에 대한 영국 정부의 대응에 비판적인 여론을 조성했다. 이 외에도 1984년 출간된 해거업 보고서(the Haagerup Report)는 북아일랜드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해 영국과 아일랜드가 더 긴밀히 협력할 것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았다. Kennedy-Pipe(주 76), p. 88 and p. 114.

1921년 북아일랜드에 건립된 개신교 자치정부와 영국 정부로부터 가장 억압받던 가톨릭 민족주의 노동자 계층의 민심을 대변했던 커뮤니티 벽화로 이들이 단결하는 데 구심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2) 앵글로-아이리시 협정(1985)과 벽화 양상 및 형식의 변화

1985년 말에 벨파스트 시청에는 “벨파스트는 No라고 말한다(Belfast Says No)”라는 현수막이 걸렸다(도52). 이 슬로건은 얼스터 연합주의자들이 1985년에 앵글로-아이리시 협정에 반대하여 벌인 “얼스터는 No라고 말한다(Ulster Says No)” 캠페인의 하나였다. 앵글로-아이리시 협정은 북아일랜드 벽화의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었다.

1985년 11월 15일 영국의 대처 총리는 아일랜드 공화국의 개럿 피츠제럴드(Garret FitzGerald) 수상과 앵글로-아이리시 협정을 체결하고 북아일랜드 문제가 양국의 공동 문제라는 사실을 공식화했다. 이 협정은 1983년 11월부터 1985년 3월까지 30차례 진행된 정부간 협의회(Intergovernmental Council)의 결과물이다. 이 협정의 제1조에는 “북아일랜드 지위 변화는 북아일랜드 국민 다수가 동의해야 일어날 것”이라는 양국 정부의 확약이 명시됐다. 제2조는 정부 간 협의회 틀 안에서 정치, 안보, 법률 및 국가 간 협력 증진을 검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정부 간 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했다.[192]

앵글로-아이리시 협정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북아일랜드 연합주의자들의 큰 반발을 샀다. 이 협정을 통해 첫째, UUP와 DUP 등의 개신교 연합당들이 협정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반면 가톨릭 정당인 SDLP는 아일랜드 공화국과 지속적으로 협정에 대해 논의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둘째, 앵글로-아이리시 협정은 북아일랜드 내부 문제, 특히 사법행정에 관하여 아일랜드 공화국에 발언권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192) 앵글로-아이리시 협정에 따라 런던과 더블린의 고위 관리로 구성된 사무국(secretariat)을 벨파스트 외곽의 메리필드(Maryfield)에 설치하기로 했다. Arthur and Jeffery(주 85), pp. 15-17.

있었다.[193]

위와 같은 이유로 1973년 서닝데일 협정 당시에 협정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었던 연합주의자들은 1985년의 앵글로-아이리시 협정에 대하여 한목소리로 반대하게 되었다. 연합주의자들은 이 협정을 영국의 배신으로 여겼고, 협정에 반대하는 청원서에 40만 명이 서명했다. UUP과 DUP는 집회, 파업, 시민 불복종 시위, 모든 연합당의 영국 하원직 사퇴 등 협정 규탄 시위를 주도했다. 일부 로열리스트들은 총을 들었고 북아일랜드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쳤으며 개신교 지역 곳곳에서 무력시위를 벌였다. UDA와 UVF는 새 정권의 협력자들을 사살하겠다고 위협했다. 경찰대인 RUC가 개신교 청년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자 일부 로열리스트들은 경찰대를 적으로 간주하게 되었다.[194] 그러나 보수당 정부는 이와 같은 얼스터 연합주의자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로열리스트와의 대립을 최대한 피했던 1974년의 총파업 때와 달리 앵글로-아이리시 협정을 철회하지 않았다.[195]

앵글로-아이리시 협정 바로 전인 1984년부터 로열리스트 벽화가들은 UVF, UDA나 UFF를 검은 복면을 쓴 총잡이로 그리면서 영토 수호의 임무를 띤 민병대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도 53).[196] 이것은 북아일랜드 사회에 이미 협정 기류가 감지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벽화에는 1689년 가톨릭 군대에 포위되어 데리 성안에서 굶어 죽으면서도 항복하지 않았던 개신교도들의 슬로건 “항복하지 말자(No Surrender)”가 등장한다. 전신에 검은 옷을 입고 복면을 쓴 샨킬 지역의 UVF 남성은 반 무릎 자세로 총을 들고 앉아 앞을 주시하고 있는데, 그의 등에는 얼스터 깃발과 오렌지회 깃발이 꽂혀 있다. 이 깃발들은 이

193) Rolston(주 67), p. 43.
194) Kennedy-Pipe(주 76), pp. 123-24.
195) 단식투쟁 시위자들의 죽음 이후 대처 정부의 강경책을 비난하는 영국 내 여론이 높았다. 이 와중에 1984년 10월 12일 임시파 IRA가 보수당 회의가 열리는 그랜드 브라이턴 호텔(Grand Brighton Hotel)에 폭탄을 설치해 고위 인사를 포함해 다섯 명이 죽고 31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이 당시 비밀리에 북아일랜드 문제를 놓고 아일랜드 공화국과 협상 중이던 대처 정부가 분쟁 해결책을 빠르게 모색하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Sluka(주 77), p. 61, p. 106 and pp. 117-18.
196) https://petermoloneycollection.wordpress.com/the-alan-skillen-murals/ 2020.8.15.

남성의 얼스터 정체성만을 보여주고 있다. "항복하지 말자"와 함께 윌리엄 3세의 보인 전투 승리를 지칭하는 "1690년을 기억하라(Remember 1690)"라는 슬로건은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 공화국의 북아일랜드 내정 간섭에 반대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슬로건은 얼스터 로열리즘 이념을 상기시키며 북아일랜드가 남쪽의 가톨릭 정부와 통일되는 것에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검은 복장과 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등장하는 이러한 벽화는 "군국주의적(militaristic)"이라고 불린다. 검은 복면에 큰 총을 들고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그 당시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의 실제 활동을 그대로 재현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당시 벽화에는 1972년 영국 정부의 직접 통치 이후 북아일랜드 공식 국기에서 제외되었던 얼스터 6개 카운티를 상징하는 국기가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들의 엠블렘과 같이 그려져 있다. 이는 북아일랜드의 얼스터 정체성과 함께 준군사조직의 활동을 강조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도 54). 그러나 이 얼스터 국기는 유니언잭과 스코틀랜드기를 양편에 두고 있어 세 지역(잉글랜드,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이 연합해야 한다는 의미를 여전히 지니고 있다.

빌 롤스톤은 로열리스트 벽화의 군국주의적 이미지는 아일랜드 통일 가능성이 커진 데 대한 로열리스트들의 불안한 심리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개신교 사회에서 역할이 줄어들고 있던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들이 그들의 존재감을 보여주려는 시도로 해석했다.[197] 검은 복면의 벽화 속 인물은 신원을 철저히 숨기고 있지만, 자신이 속한 준군사조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보다 조직을 강조하는 이들의 집단의식을 읽을 수 있다. 1965년 이후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들이 결성될 당시에도 제작되지 않았던 군국주의적 이미지가 앵글로-아이리시 협정 전후로 그려진 사실은 이 당시 벽화가 개신교 로열리스트들의 분노와 절박함을 드러내는 하나의 매체였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앤드류 핀레이(Andrew Finlay)는 합리주의로 자신을 포장했던 북아일랜드 로열리스트들이 1985년 앵글로-아이리시 협정이 발표되자 비이

197) Bill Rolston, *Drawing Support 3: Murals and Transition in the North of Ireland*, Belfast, (Dublin: Beyond the Pale Publications, 2003), p. 11.

성적 측면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오렌지 행진과 승리주의 벽화를 통해 가톨릭교도에 대한 우월주의를 표현하던 로열리스트들이 협정의 충격으로 그 뒷면에 감춰져 있던 패배주의를 폭력적 형태로 드러냈다는 것이다.[198]

로열리스트의 승리주의가 패배주의로 전환된 배경에는 경제적·제도적 변화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조선업과 섬유산업의 붕괴로 북아일랜드가 경제 불황을 맞으면서 노동자 귀족으로 불리던 로열리스트 노동자 계층은 다른 계층의 개신교도들보다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다. 게다가 영국 정부가 1972년부터 북아일랜드를 직접 통치하면서 가톨릭 시민권 운동의 원인이었던 제도적 불평등을 개선해 나갔기 때문에 주택, 교육, 선거권 등에서 개신교 특권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로열리스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아일랜드 공화국이 북아일랜드의 사법권에 개입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처럼 보이는 1985년의 앵글로-아이리시 협정은 로열리스트들이 법이 아닌 폭력에 더 의존하는 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주로 젊은 노동자 계층이 가입한 UDA, UVF, UFF 등의 준군사조직들은 1980년대로 넘어오면서 점차 범죄조직의 모습으로 수렴되고 있었다. 따라서 영국본토나 해외로의 이주가 어렵지 않았던 개신교 중산층과 달리, 아일랜드 북부에 소외되어 있다는 불안감을 항상 지니고 있던 로열리스트 노동자 계층은 1985년의 협정으로 그들의 고립이 더 확고해졌을 때 그 패배감을 가톨릭교도에 대한 증오로 표출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벨파스트 펄시 스트리트(Percy Street) 벽화에는 “북아일랜드에 민족주의 지역은 없으며 민족주의자들이 일시적으로 점유하는 지역만 있다”라는 글이 쓰였다. 오하이오 스트리트 벽화에는 누군가를 조준하고 있는 저격수 옆에 “UVF는 기회가 오면 언제 어디서든 목표로 한 공화주의자들을 공격할 권한이 있다”라는 글이 쓰였다(도 55). 이는 1965년 창립 이후 IRA와 IRA를 지원하는 공화주의자들에게 암암리에 폭력을 행사해 왔던 UVF가 공개적으로 가톨릭 공화주의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북

198) Andrew Finlay, “Defeatism and Northern Protestant ‘Identity’,” *The Global Review of Ethnopolitics*, 1:2(December 2001), pp. 3-4.

아일랜드 영토 소유권이 개신교도에게 있다는 것을 표명하는 경고의 메시지로 볼 수 있다.

이 당시 로열리스트의 군국주의적 벽화에는 1912년의 UVF와 1965년 창립한 UVF를 연결한 주제가 포함되었다. 1987년 UVF 창립 75주년 기념식 벽화에는 제1차 세계대전에 얼스터 36사단으로 참전했던 UVF 군인들의 이미지가 원 안쪽에 그려져 있고 그 왼편에는 1643년의 로열리즘 이념을 기반으로 작성된 1912년의 얼스터 규약이 적혀 있다(도 56). 얼스터 규약에는 얼스터를 가톨릭 정부에게 넘기는 것을 허용하는 왕의 권위에 따르지 않고 그 결정에 끝까지 저항한다는 결의가 포함되어 있다. 총을 든 얼스터 36사단의 군인들을 그린 원 주변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병사들을 추모하는 양귀비 이미지로 장식되어 있다. 로열리스트들은 영국군으로 참전한 얼스터 36사단을 벽화로 제작하면서 얼스터 개신교도들이 영국 시민권자로 존속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미 핏값을 치렀다는 것을 부각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199] 또한, 이 벽화는 얼스터 36사단이 빅토리아 훈장을 받을 만큼 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았던 시절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1965년 창설된 UVF의 정통성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기도 한다.[200] 앵글로-아이리시 협정으로 인해 영국 정부에 대한 로열리스트의 반감이 커졌지만, 현실적으로 로열리스트들은 아일랜드 통일보다 영국과의 합병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벽화를 통해 말하고 있다.

일부 공화주의자들도 앵글로-아이리시 협정에 반대하는 벽화를 그렸다. 그 이유는 협정이 북아일랜드 분쟁의 종식을 기대하게 된 가톨릭 민족주의자들이 신페인과 IRA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온건파 가톨릭 정당인 SDLP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배후에는 당시 IRA의 폭력행위에 반대했던 SDLP의 지도부 존 흄(John Hume)의 전략이 있었다. 존 흄과 가톨릭 민족주의자들은 아일랜드 출신 미국인들과 아일랜드 공화국의 국민이 IRA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77

199) 1916년 7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의 솜므 전투에서 영국, 프랑스 등의 연합군 약 62만 명과 독일군 약 5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Foster(주 26), p. 479.
200) Sluka(주 77), p. 210.

년부터 로비를 했다. SDLP의 전략이 반영된 앵글로-아이리시 협정이 체결되자 신페인과 임시파 IRA는 이것을 영국 정부와 아일랜드 공화국의 음모로 생각했고 영국본토에서 대규모 폭격과 테러 활동을 계속했다.[201] 이러한 상황은 1921년의 앵글로-아이리시 조약으로 아일랜드 분할이 결정되면서 그 당시의 IRA가 조약찬성파와 조약반대파로 나뉘어 내전을 치렀던 상황과 흡사하다. 조약반대파는 앵글로-아이리시 조약 때문에 1916년 부활절 봉기에서 선포되고 1919년의 임시 헌법으로 비준된 아일랜드 공화국이 포기되었다고 보았으나 연이은 전쟁과 내전에 지친 대다수 가톨릭 아일랜드인들은 조약반대파를 지지하지 않았다.[202] 아일랜드 분할 이후 남쪽의 아일랜드 정부가 북아일랜드 문제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던 것도 아일랜드 내전(1922-1923)의 여파였다고 볼 수 있다. 아일랜드 통일까지 투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임시파 IRA 역시 즉각적인 평화를 우선순위에 둔 가톨릭 민족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1989년 스트라반에 그려진 한 공화주의 벽화에는 협정의 두 주역인 마가렛 대처와 개럿 피츠제럴드의 초상화 사이에 “앵글로-아이리시 협정은 한 편은 반역자이고 다른 한 편은 살인자라는 것을 증명했다”라는 글이 쓰여 있다(도 57).[203] 이 벽화는 대처 총리를 단식투쟁 시위자들을 죽인 살인자로, 피츠제럴드 수상을 반역자로 보는 임시파 IRA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피츠제럴드가 반역자라고 언급된 배경에는 1987년 11월

---

201) 1970년 창당 이후 가톨릭 민족주의를 대표했던 SDLP는 ‘북아일랜드에서 사회주의 정당을 조직하고 유지하는 것’과 ‘북아일랜드 다수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아일랜드 통일의 명분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SDLP는 신페인과 달리 무장투쟁을 지지하지 않았다. 1973년 서닝데일 협정에 민족주의 대표 정당으로 참여한 SDLP는 권력-분담 행정부가 실패하자 전략을 수정하여 북아일랜드 문제에 더블린 정부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일을 꾸몄고 로비를 통해 미국 정치계의 협조를 구했다. Arthur and Jeffery(주 85), pp. 59-60 and p. 88; Kennedy-Pipe(주 76), p. 121.

202) R.F. 포스터는 아일랜드 내전(1922-1923)의 여파로 아일랜드가 이후로도 정치적 분열을 끊임없이 겪었다는 점에서 내전이 아일랜드 독립전쟁보다 아일랜드에 더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고 보았다. Foster(주 26), p. 512.

203) https://petermoloneycollection.wordpress.com/1989/02/09/a-traitor-and-a-murderess/ 2020.12.23.

임시파 IRA가 페르마 지역의 애니스킬렌(Enniskillen)에서 폭탄을 터뜨려 많은 사상자(11명의 사망자와 60명 이상의 부상자)를 낸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아일랜드 공화국이 같은 해 12월 새로운 범죄인 인도법(Extradition Act)을 통과시켜 테러를 범한 임시파 IRA 일원들을 더는 보호하지 않는 계기가 되었다.[204] 아일랜드가 분할된 이후에도 분할 결정에 반대하며 남아일랜드에서 게릴라전을 벌이던 IRA가 1936년에 불법단체로 금지되고 IRA 지도부가 숙청됐던 것처럼 1987년 이후 임시파 IRA는 다시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그려진 공화주의 벽화에는 로열리스트 벽화와 비슷한 '군국주의적 이미지'가 발견된다. 1989년의 벽화 <우리의 날이 오리라 We will have our day>에서 IRA 대원들은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과 큰 차이 없이 검은 복면을 하고 갖가지 무기로 무장을 한 채 누군가를 향해 공격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도 58).[205]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들이 적이 아닌 자신들이 무장한 모습을 벽화의 주인공으로 그렸던 것처럼, IRA 소속의 공화주의자들도 벽화에 IRA의 실제 전투장면을 그리고 있다. IRA 군인들 뒤로는 썬버스트(Sunburst) 깃발의 도안이 그려져 있다. 썬버스트 깃발은 아일랜드 독립을 상징하기 위해 1860년대 페니언들이 사용한 깃발로, 구름 아래나 위에서 비추는 태양광을 형상화한 것이다. 19세기 아일랜드 민족주의 사학자였던 존 코넬리우스 오캘러한(John Cornelius O'Callaghan)은 태양을 둘러싼 구름 사이로 빛을 발하는 썬버스트 이미지를 통해 오랜 분열과 영국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말했다.[206] 실제로 이 벽화의 '우리의 날'은 아일랜드 통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1985년의 앵글로-아이리시 협정 이후 북아일랜드 가톨릭 민족주의자들이 IRA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상황에서 임시파 IRA는 공화주의 벽화를 통해 분열의 위기를 극

---

204) 범죄인 인도 문제는 식민지 시기의 관행을 따라 영국에 범죄인 송환을 해왔던 아일랜드 공화국이 1964년부터 범죄인 송환을 거부하면서 영국과 항상 논쟁을 일으켜 왔던 문제였다. Kennedy-Pipe(주 76), p. 125 and pp. 130-32.

205)https://petermoloneycollection.wordpress.com/1989/04/11/beidh-ar-la-linn/ 2020.12.24.

206) Hayes-McCoy(주 97), p. 155.

복하고 아일랜드 통일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로열리스트 벽화와 공화주의 벽화 양편에서 제작된 총을 들고 복면을 한 이미지의 벽화는 상당히 다른 의미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UVF와 UDA 등의 준군사조직들은 얼스터 개신교도로 300년 이상 누려왔던 기득권이 남쪽의 아일랜드 공화국의 북아일랜드 내정 개입으로 사라질 상황에 대한 분노와 절망을 준군사적 벽화로 표출하였다. 이들에게 1985년의 앵글로-아이리시 협정은 아일랜드 통일로 가는 과정으로 해석되었고 실제로도 그러한 측면이 있었다. 반면 IRA를 포함한 공화주의자들은 아일랜드 통일의 시기와 방법에 있어 온건파 정당인 SDLP와 아일랜드 공화국에 주도권을 빼앗겼지만, 통일 가능성이 한층 커진 상황에서 절망보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확실히 북아일랜드 벽화의 두 축에 표현된 정치적 메시지는 반전되어 있었다.

3) "민족주의 신화화"와 벽화

공화주의 벽화는 1985년 이후 제작 건수는 줄었지만, 1987년 즈음부터 오히려 전문 벽화가들의 참여로 주제와 색채 구성에서 차별화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공화주의 벽화는 일회적 메시지 전달이 아닌 영구적 보존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에는 제라드 모 차라 켈리(Grard Mo Chara Kelly)가 있었다.[207] 롱 케시의 메이즈 교도소 출신인 제라드 켈리는 출소 후 1987년부터 1990년까지 30점이 넘는 벽화를 제작했다. 임시파 IRA 일원으로 강한 공화주의 신념을 지닌 그는 예술적 가치를 지닌 벽화가 대중적 지지를 얻는 동시에 정치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공화주의 벽화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했

207) 제라드 켈리(Gerard Kelly, 1957 -)는 아일랜드어로 "내 친구"를 뜻하는 모 차라(Mo Chara)를 가명으로 사용했다. 그를 세계에 알린 벽화는 주로 1987년에서 1990년 사이에 제작되었다. 제라드 켈리는 현재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다.

다.

제라드 켈리는 공화주의 벽화에 신화적 이미지가 부각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1987년 스프링힐 애비뉴(Springhill Avenue)에 누아다 왕(King Nuada) 벽화를 제작했다(도 59). 이전의 공화주의 벽화에서 볼 수 없던 화려한 색 표현과 정밀 묘사가 특징인 이 벽화는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누아다 왕과 아일랜드 대자연, 그리고 고인돌과 오검문자(ogham) 등 켈트족의 상징들로 채워져 있다. 누아다 왕은 아일랜드가 침략자들에 의해 점령된 후 아일랜드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싸웠던 신화 속 전사다. 그는 한 전투에서 오른팔을 잃고 왕위를 잃었지만, 은으로 팔을 만들어 끼우고 복위된 후 다음 전투에서 승리했다. 부활의 의미를 지닌 누아다 왕의 신화는 아일랜드의 자유와 통일을 위한 투쟁에 비유되기에 적합한 주제였다. 켈리는 이 작품을 위해 아일랜드 화가 짐 피츠패트릭(Jim Pitzpatrick)의『은 팔 the Silver Arm』에서 삽화를 가져와 도안의 원본을 변형하여 가로 30피트 세로 20피트(9m×6m) 크기의 벽화를 제작했다(도 60).[208]

이 벽화는 가톨릭 커뮤니티로부터 켈트 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하고 문화적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는 찬사를 받았다. 이 벽화는 북아일랜드 교육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일랜드 토착 문화 유산의 존재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젊은 층의 관심을 받았다. 켈트 신화를 그린 벽화는 저항의 메시지나 총기가 그려진 기존 벽화보다 덜 위협적인 유형으로 여겨졌고 실제로 영국군도 페인트 폭탄으로 이 벽화를 훼손하지 않았다. 여러 언론에서 이 벽화가 지닌 아름다움을 다뤘고, 벽화를 보러온 방문객이 늘어났다. 이 도안의 원작자 짐 피츠패트릭은 인터뷰에서 제라드 켈리가 문화적 자부심을 높이는 일을 했으며, 자신의 삽화가 그 일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209] 제라

---

208) Deborah Saleeby-Mulligan, "Painting the Irish Conflict: The Belfast Murals of Gerard Mo Chara Kelly." (Ph. D. Dissertation,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2006), pp. 162-169.

209) 제라드 켈리는 짐 피츠페트릭과 1990년 처음으로 만났다. 폭력 사용을 반대했던 피츠패트릭은 켈리가 자신의 그림을 차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대신 작품에 어떤 정치적 슬로건도 붙이지 말 것과 자신의 이름을 벽화에 넣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알려져 있

드 켈리의 누아다 왕 벽화는 1992년 스프링힐 재개발과정에서 붕괴되었으나, 2000년대에 인근 화이트록 로드(Whiterock Road)에 일부 수정되어 재제작되었다(도 61).

이 새로운 벽화 양식은 제작자 개인의 예술적 역량이 크게 작용했지만 메이즈 교도소 교육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1981년 단식투쟁 시위자들의 '다섯 가지 요구'가 대부분 수용되면서 교도소에 수감자를 위한 포괄적인 교육 체계가 재구축되었다. 1982년부터 5년 가까이 복역했던 제라드 켈리는 교도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일랜드 역사와 언어 및 미술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210] 그는 중세 아일랜드의『켈스의 서 The Book of Kells』의 <네 복음주의자 the Four Evangelists>의 정밀한 사본을 만들며 그림 실력을 연마했고, 8세기 화가의 양식화된 아일랜드식 장식을 배웠다고 알려져 있다(도 62).[211] 그는 인터뷰에서 1984년부터 벽화 제작을 염두에 두고 짐 피츠패트릭의 작품집 『정복의 서 The Book of Conquests』의 복잡한 도안과 미세한 표현을 모사했다고 밝혔다.[212] 그러나 피츠패트릭의 삽화는 고대 아일랜드 역사를 낭만적으로 묘사했을 뿐 작품 주제를 적절한 역사적 맥락에서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민족주의 신화화"의 한 형태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213] 반면 그레고리 골윈은 이러한 신화가 민족주의 이념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다. 위의 책, pp. 162-167 and p. 206.

210) 앞의 책, p. 88 and pp. 94-97.

211)『켈스의 서(The Book of Kells)』의 제작연도와 장소는 논란이 있으나 대략 8세기 후반 스코틀랜드의 이오나(Iona) 수도원에서 아일랜드 수도승들이 제작했다고 추정된다. 이 책은 9세기에 아일랜드 메드(Meath) 카운티의 켈스(Kells)에 위치한 수도원으로 옮겨졌다. 이 필사본은 신약성서 복음서의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으며, 필사본 내의 삽화 양식은 켈트 시대 고대 아일랜드 금속공예의 영향을 받은 여러 명의 예술가에 의해 제작되었다. 본래 제단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이 책은 그림으로 장식된 텍스트와 도상학적 의미를 담은 이미지로 유명하다. Bernard Meehan, *The Book of Kells: an illustrated introduction to the manuscript in Trinity College Dublin*, (London: Thames&Hudson, 1994), pp. 9-10.

212) 짐 피츠패트릭의 작품집 『정복의 서』는 고대 아일랜드 부족 투아타 데 다난(Tuatha De Danann)의 신화와 피츠패트릭의 낭만적이고 화려한 삽화가 담겨있다. 본문은 강력한 근육질의 전사들과 관능적인 여신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다. Jim Fitzpatrick, *The Book of Conquests*, (Surrey: Paper Tiger, 1978); Saleeby-Mulligan(주 208), pp. 102-104.

213) Rolston(주 67), p. 36; Saleeby-Mulligan(주 208), p. 95.

집단 정체성을 확고히 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행위에 대한 집단적 지지를 동원하는 서사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 주목했다.[214]

제라드 켈리의 벽화 역시 아일랜드 신화를 소재로 가톨릭교도들이 민족 정체성을 돌아보게 한 계기가 되었고 개신교도들에게 문화적 우월감을 일깨우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켈리의 이러한 시도 덕분에 1980년대 후반부터 공화주의 벽화는 표현 기술과 서사적인 부분에서 로열리스트 벽화보다 우월한 품질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는 1990년대 공화주의 벽화가 양식화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제라드 켈리 이전에도 켈트 영웅과 아일랜드 상징물을 그림으로써 단식투쟁 시위자들의 저항 정신의 뿌리를 아일랜드 신화에서 찾는 시도가 있었다(도 63). 이 벽화에는 일부 켈트 도안과 문자, 문장, 깃발 등이 나열되어 있다.[215] 화면의 오른편에는 창을 들고 방패를 든 아일랜드 전사가 그려져 있고 그 옆에 패트릭 피어스의 시 <나는 아일랜드다 Mise Eire>가 아일랜드어로 쓰여 있다.[216] 그러나 고대 아일랜드 신화, 아일랜드 민족적 전통이나 아일랜드 독립을 위한 IRA의 투쟁이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 표현되어 있지는 않다.

이와 달리 제라드 켈리는 6세기 전후의 켈트족 전설로 거슬러 올라가 벽화에 서사를 넣고 아일랜드 영웅들을 우상화했다. 교도소에서 아일랜드 고대사와 패트릭 피어스의 문학적 페니어니즘(literary Fenianism)을 접했던 제라드 켈리는 켈트 영웅인 쿠훌렌(Chchulainn)을 IRA 투쟁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했다(도 64).[217] 아일랜드 신화에 따르면 쿠훌렌은

---

214) Goalwin(주 9), p. 193.

215) Rolston(주 67), p. 95.

216) 1912년에 패트릭 피어스가 아일랜드어로 쓴 <나는 아일랜드다>의 영어 번역은 다음과 같다.

I am Ireland: I am older than the Hag of Beara.
/Great my glory: I who bore brave Cú Chulainn.
/Great my shame: My own children that sold their mother.
/Great my pain: My irreconcilable enemies who harass me continually.
/Great my sorrow: That crowd, in whom I placed my trust, decayed.
/I am Ireland: I am lonelier than the Hag of Beara.

217) 패트릭 피어스의 문학적 페니아니즘은 켈트족 모티브와 이론의 토양이 되었다. 그

얼스터 출신의 용맹한 고대 켈트족 전사다. 그는 전투에서 치명상을 입고도 적들과 맞서기 위해 스스로 돌에 몸을 묶고 싸우다 선 채로 죽음을 맞았다고 전해진다.

제라드 켈리가 1988년에 제작한 부활절 봉기 기념벽화에는 봉기의 주동자로 체포되어 1916년에 처형된 7인의 혁명가 초상과 그중 한 명인 패트릭 피어스의 시 <나는 아일랜드다>, 그리고 나무에 기대어 선 채로 죽어가는 전사 쿠훌렌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살리비-물리간(Saleeby-Mulligan)은 아일랜드를 지키다 전사한 켈트 전사의 명성이 부활절 봉기의 영웅들에게로 계승되었다는 서사와 그 명성이 현재의 IRA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이 벽화에 표현되어 있다고 보았다. 켈리는 쿠훌렌이 죽음을 맞는 순간을 그리기 위해 더블린 중앙우체국에 있는 올리버 세퍼드(Oliver Sheppard)의 동상을 벽화로 옮겨 그렸다(도 65).[218] 그는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역사일지라도 IRA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가톨릭 민족주의자들에게 IR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면서 이전과 다른 형식과 내용의 벽화를 완성했다. 그가 그린 서사를 지닌 벽화는 아일랜드 역사와 신화에 대한 가톨릭 커뮤니티의 대중적 관심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시기 반대편의 로열리스트 벽화에 나타난 가장 놀라운 시도는 아일랜드의 쿠훌렌 신화가 얼스터 개신교도의 선조로 재창조된 것이다. 이것은 UDA의 이안 아담슨(Ian Adamson)이 아일랜드 북부에 켈트족 이전에 거주했던 크루씬(Cruithin)을 자신들의 선조라고 주장하고 가톨릭 민족주의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개신교도의 선조로 재해석하면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개신교 신화를 만들기 위한 시도였다. 아담슨은 크루씬에 대한 역사를 발굴하면서, 2000년 전에 얼스터 지역에 살던 크루씬이 스코틀랜드로 넘어갔다가 17세기 영국의 아일랜드 식민지 농장

는 아일랜드를 위해 행복하게 죽어가는 아름다운 소년으로 묘사된 켈트족 영웅 쿠훌렌(Cuchulainn)을 통해 쿠훌렌의 이교도적 선행과 현재의 아일랜드인에게 요구되는 기독교적 선행 사이에 아무런 모순이 없다고 보았다. 피어스는 근대 아일랜드 공화주의 이념에서 게일주의 이상(the Gaelic ideal)과 1916년의 부활절 봉기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인물로 여겨진다. Foster(주 26), p. 458.

218) Saleeby-Mulligan(주 208), p. 105, p. 108 and p. 178.

개척기에 얼스터로 되돌아온 것으로 신화를 재구성했다. 이 논증에 따르면 얼스터 개신교도는 식민지 개척자가 아닌 켈트족으로부터 땅을 되찾기 위해 얼스터로 돌아온 크루씬의 후손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 만들어진 얼스터 개신교 신화는 UDA 주간지 『얼스터 Ulster』와 『로열리스트 뉴스 Loyalist News』에 발표되었다. 이 과정에서 로열리스트 벽화에는 크루씬이 크훌렌과 동일시되어 그려졌고, 그 크훌렌은 남쪽 아일랜드에서 온 침략자로부터 얼스터를 방어했던 최초의 얼스터 민병대로 묘사됐다(도 66). 이 벽화의 중앙에는 얼굴을 가리지 않은 UDA 대원이 총을 들고 영국 국기 위에 세워진 쿠훌렌 동상과 얼스터 개신교의 방패를 지키고 서 있다.[219] 그러나 크루씬을 얼스터 개신교도의 신화적 인물로 그린 결과물은 켈트족 역사와 거의 동일했고, 도상마저 공화주의 벽화의 쿠훌렌 이미지를 모방했기 때문에 로열리스트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웠다. 이것은 로열리스트들이 영국이나 아일랜드의 다른 지방들(렌스터, 먼스터와 코나흐트)과 구분되는 얼스터 만의 정체성을 만드는 과정에서 빚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얼스터 개신교 민족의 역사를 17세기의 영국과 분리해서 보려는 시도는 1970년대 후반부터 UDA 지도부에 의해 시도되었고 벽화는 그 결과물의 하나로 볼 수 있다. UDA 지도부는 1973년의 서닝데일 협정으로 영국 정부에 배신감을 느낀 후 북아일랜드에 평화와 안정을 제공할 독립 사상을 만들고 미국의 삼권 분립제도에 근거한 헌법과 위원회 및 권리장전을 제안해 왔다.[220] 얼스터 정체성을 강조하는 이 독립 움직임은 1985년의 앵글로-아이리시 협정 후 더 강해졌다. UDA 산하 얼스터 정치연구그룹(UPRG, the Ulster Political Research Group)은 1987년 1월에 발

219) Bruce(주 119), p. 234.

220) UDA 지도부 글렌 바(Glen Barr), 해리 치킨(Harry Chicken), 빌 스노디(Bill Snoddy)가 설립한 얼스터 새정치 연구그룹(NUPRG, New Ulster Political Research Group)은 1978년 11월 『종교적 분열을 넘어서 Beyond the Religious Divide』를 발행했다. 글렌 바는 "우리는 커뮤니티가 열망할 수 있는 정부, 정체성, 그리고 국적을 만들어야 한다. 그들이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얼스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공통분모는 그들이 얼스터맨이라는 것이다.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일깨워라. 그들이 다르다는 것, 영국의 2등급 영국인이 아니라 가장 멀리 있는 얼스터맨이라는 사실을..." 이라는 주장을 폈다. 위의 책, p. 231.

행한『커먼센스 Common Sense』에서 가톨릭 커뮤니티와의 “공동 결정, 권력 분담, 권리장전 그리고 사법행정을 위한 상호 합의에 근거한 얼스터 독립 정부”의 설립을 주장했다. 아서 오기(Arthur Aughey)는 트러블 시기 연합주의자들은 자신이 영국인도 아일랜드인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혼란을 겪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1800년 영국과의 합병(the Union)으로 ‘연합주의자’라는 공식 명칭을 얻었던 얼스터 개신교도에게 아일랜드 통일로 인한 합병 폐지는 곧 충성의 대상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221] 영국에게 배척당할 위기를 맞아 UDA는 가까운 미래에 가톨릭 아일랜드 국가 안에서 자신들이 개신교 소수민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얼스터 독립을 더 타당성 있는 대안으로 여겼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은 북아일랜드 내의 가톨릭교도와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

로열리스트들은 벽화를 통해 얼스터 개신교도를 위한 신화 만들기뿐만 아니라 영국 정체성과 얼스터 정체성 사이에서 어디에 더 무게 중심을 둘지도 드러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유니언잭을 북아일랜드의 영국 정체성을 강조할 때는 그렸고, 독립적 얼스터 정체성을 표현할 때는 제외했다. 198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유니언잭이 등장하는 벽화의 빈도가 확연히 줄었다.[222] 이것은 앵글로-아이리시 협정의 결과였다. 이처럼 얼스터 개신교도들은 근본적으로 영국에 남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면서도 영국의 배신으로 그것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북아일랜드의 독립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구상했다는 사실을 이 당시 벽화에서 발견할 수 있다.

민족주의적 신화를 벽화로 제작한 1980년대 후반의 벽화들은 공화주의자와 로열리스트가 각각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화주의자들은 벽화를 통해 가톨릭 아일랜드 민족의 자부심을 일깨웠던 반면에 로열리스트들은 윌리엄 3세 이

---

221) Arthur Aughey, "Recent interpretations of unionism", *Political Quarterly* 61:2(1990), p. 193.

222) Bill Rolston, *Drawing Support 2: Murals of War and Peace*, (Belfast: Beyond the Pale Publications, 1995), p. 2.

외에 자신들의 정통성을 증명할 만한 새로운 전통이나 신화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신화 창조 과정에서 공화주의 벽화의 도상을 모방한 로열리스트 벽화는 로열리스트들이 지녔던 한계, 즉 벽화 주제뿐 아니라 이미지와 소재의 빈약함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로열리스트들은 벽화에서도 아일랜드 영토를 4세기 가까이 점유하고 있는 침략자이자 북아일랜드에 남은 이방인이라는 정체성을 재확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절에서는 북아일랜드 분쟁의 전환점이 된 두 사건, 1981년 IRA 수감자들의 단식투쟁과 1985년의 앵글로-아이리시 협정이 초래한 벽화 주제 상의 변화를 분석했다. 1981년의 단식투쟁 사건을 계기로 급증한 공화주의 벽화는 형식적인 면에서 그라피티를 탈피하여 이미지 중심의 벽화로 발전했다. 또한, 공화주의 벽화는 북아일랜드 분쟁의 주도권을 가톨릭교도가 갖도록 하는 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었다. 이 당시 공화주의 벽화는 영국 정부에 의해 통제되던 언론을 대신하여 사회 비판적 기능을 담당했는데, 특히 포스터나 엽서 등으로 복제되면서 현장에 없던 이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대중적 매체로 주목을 받았다.

반면, 개신교 로열리스트들은 영국 정부가 아일랜드 통일 가능성이 큰 정책들을 발표할 때마다 패배주의적 성격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985년의 앵글로-아이리시 협정은 북아일랜드 개신교 연합주의 커뮤니티 전체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UVF와 UDA 등의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들은 영토 상실의 두려움과 영국 정부에 대한 배신감을 군국주의적 벽화로 드러냈는데, 이것은 가톨릭 민족주의자들을 향한 혐오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들은 총으로 무장한 자신들의 실제 이미지를 벽화로 제작하면서 그 총부리가 가톨릭교도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글로 적어놓았다.

개신교 노동자 계층의 절박한 심리는 자신들의 정당성을 구축하기 위해 제작됐던 윌리엄 3세의 도상이 이 시기에 거의 그려지지 않은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들에게 1985년의 앵글로-아이리시 협정은 자신들

이 북아일랜드에 구축해 놓은 정치체제의 심각한 균열을 의미한다. 개신교 로열리스트들은 자신들이 1921년 이후 구축해 놓았던 개신교 연합당 일당 체제로 회귀하지 못할 것이 명백해진 상황에서 윌리엄 3세의 도상이 이전과 같은 효력을 지니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로열리스트 벽화에 총잡이를 그림으로써 굶어 죽을지라도 항복하지 않았던 1689년 '데리 포위' 당시 개신교 이주민들처럼 아일랜드 통일을 거부하겠다는 신념을 드러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1980년대부터 급증한 북아일랜드 벽화는 가톨릭교도에 대한 차별과 탄압이 북아일랜드 사회에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를 이전보다 확연히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 깃발과 엠블렘 법과 같은 공권력의 차별적 규제 때문에 공화주의 벽화는 1969년 첫 등장부터 그라피티 형식으로 제작될 수밖에 없었고 저항 매체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223] 그러나 1981년 IRA 수감자들의 단식투쟁 기간에 결속한 가톨릭 민족주의자들은 영국 정부의 탄압에 맞서 이전보다 과감히 공공 공간에 자신들의 정치적 발언을 시각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했다. 단식투쟁 시위자들의 초상화나 담요시위 장면을 그린 벽화는 북아일랜드에서 동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가톨릭교도에 대한 탄압에 대한 증언이었고 공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한 가톨릭 민족주의자들의 정치적 행보의 결과였다.

가톨릭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차별과 탄압은 1980년대 로열리스트 벽화에서도 더 분명히 드러났다. 1908년부터 영국의 비공식적인 허가 아래 기념일에 맞춰 정기적으로 제작됐었던 로열리스트 벽화는 1985년의 앵글로-아이리시 협정 시기에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들의 저항 매체로 그 역할이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로열리스트들이 윌리엄 3세 도상 대신에 가톨릭교도에게 총을 겨누는 장면을 그렸다는 사실은 과거 17세기부터 얼스터에서 가톨릭 아일랜드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왔던 로열리스트들의 사고방식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1980년대 공화주의 벽화와 로열리스트 벽화는 제작 목적

223) 1954년 제정된 깃발과 엠블렘 법은 1987년에 폐지될때까지 북아일랜드에서 유니언잭이 아닌 깃발을 휘두르거나 그리는 것은 불법이었다. 법을 어기면 500파운드 벌금이나 최고 5년 형을 받았다. Miller(주 1), pp. 138-39; Silverman(주 83), p. 80.

이 달랐지만, 북아일랜드 분쟁이 가톨릭교도에 대한 탄압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더 확연히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2. 대중적 주제의 등장과 변화의 대중화

1990년대는 영국과 아일랜드 공화국이 1985년의 앵글로-아이리시 협정을 진전시켜 북아일랜드 분쟁을 완전히 끝내고자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던 시기다. 특히 1990년대 전반기는 영국 정부와 북아일랜드 정당들 사이에 임시파 IRA의 무기 해체(decommissioning)와 영구적인 휴전 방안이 논의되었다. 1994년 8월 31일 임시파 IRA는 영국 정부와의 휴전을 발표했고, 1991년부터 가톨릭 민간인에 대한 총격 중단을 선언했던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들도 10월 13일에 휴전을 발표했다.[224] 그러나 휴전 선언 이후 이들은 무기 해체와 다자간 평화회담 중 무엇을 먼저 하는가의 문제로 인해 다시 갈등을 겪었다. 그렇지만 오랜 분쟁에 지친 북아일랜드 국민 대다수는 과거의 분쟁 시기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정치계 역시 다자간 평화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이러한 북아일랜드 내부의 정치 변화는 북아일랜드 벽화가 변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절에서는 1994년 임시파 IRA와 UVF·UDA의 상호 및 영국과의 휴전 선언에 따른 벽화 주제와 형식의 변화를 다루고자 한다. 특히 1998년의 성 금요일 협정은 북아일랜드 분쟁 종식을 공식화하면서 벽화가 본격적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사건들은 북아일랜드 분쟁이 종식됐다는 공식 선언이었지만 북아일랜드 내부의 거주민들 사이에는 여전히 갈등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벽화에는 여전히 계속되던 공화주의자와 로열리스트 사이의 분쟁과 정부에

224) 북아일랜드 무장단체들의 휴전 선언은 1993년 12월 영국 정부와 아일랜드 공화국 정부가 공동발표한 다우닝 스트리트 선언(the Downing Street Declaration)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다우닝 스트리트 선언은 폭력 활동을 포기한 모든 정당이 평화회담에 참여하도록 허용한다는 선언으로서 북아일랜드 평화를 위한 현실적인 길을 열었다. https://www.bbc.co.uk/bitesize/guides/zdb48mn/revision/3, 2020.7.12.

대한 비판적 시각이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필요가 있다.

1) IRA와 UVF·UDA의 휴전 선언(1994)과 벽화의 대중화

1994년 무장단체들의 휴전 선언으로 북아일랜드 관광 산업이 재개되던 시기, 북아일랜드 벽화는 대중적 매체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벽화를 매개체로 한 관광 상품의 개발이었다. 1968년까지만 해도 한 해에 100만 명이 넘는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며 성장세에 있던 북아일랜드 관광 산업은 트러블 시기에 크게 위축되어, 1973년에 해외 관광객 수가 43만 명으로 급락했다. 이후 20년 넘게 고전하던 관광 산업은 휴전 첫해인 1994년 북아일랜드에 1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침체된 북아일랜드 경제를 활성화할 대책으로 주목받게 되었다.[225] 이 시기 대처 총리의 뒤를 이은 존 메이저 총리는 영국 헤리티지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여 1992년에 국가유산부(DNH, Department of National Heritage)를 신설하면서 국제 규모의 관광 산업을 장려하고 있었다.[226] 따라서 북아일랜드 벽화는 하나의 문화유산으로 재조명될 수 있었다.

관광이 재개된 1990년대 중반, 시의회와 예술위원회 등의 공공부문은 분쟁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에 거리를 둔 반면 민간부문은 분쟁지역의 벽화들을 이용한 관광 상품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학살이나 잔혹 행위가 일어난 피해지역을 관광객에게 소개하는 분쟁지역 벽화의 문화상품화는 '누구의 관점을 전달하는가'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장소 훼손 등 여러

---

225) 1923년 얼스터 관광개발협회(the Ulster Tourist Development Association) 설립 이후 해안 리조트 개발 등으로 북아일랜드는 1959년 해외방문자 63만 명, 1968년 100만 명 이상을 기록 중이었다. Stephen W. Boyd, "Post-conflict tourism development in Northern Ireland: Moving beyond murals and dark sites associated with its past," in Rami K. Isaac, Erdinç Çakmak and Richard Butler, eds., *Tourism and Hospitality in Conflict-Ridden Destinations*, (London: Routledge, 2019), pp. 231-33.

226) 존 메이저 총리는 1992년 국가유산부(DNH, Department of National Heritage)를 신설하여 방송, 예술, 스포츠, 관광, 국가유적, 영화산업 및 밀레니엄 펀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김정희(주 145), p. 437.

측면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었다.[227]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이 운영하는 관광회사들은 분쟁의 상징성을 지닌 벽화를 관광에 이용했는데, 대표적인 예로 '블랙 택시(black taxi)'를 들 수 있다.[228] 1970년대부터 분쟁지역의 대중교통 역할을 대신했던 블랙 택시의 이름을 딴 이 관광 상품은 공화주의자와 로열리스트 정치범 출소자들이 벽화 앞에서 분쟁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인기를 얻었다. 이 과정에서 가톨릭 지역인 폴스 로드는 아일랜드 정체성을 지닌 대표적인 분쟁지역으로 소개되었고 인접한 개신교 지역인 샨킬 로드는 영국 정체성과 로열리즘 이념을 상징하는 벽화로 홍보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벨파스트와 데리는 점차 벽화 도시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229]

2019년에 현장을 방문했던 본 연구자는 블랙 택시를 포함한 몇몇 벽화 관광을 이용했지만, 벽화의 의미에 대한 제한된 정보를 얻었을 뿐이며 벽화가 가볍게 다루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스티븐 보이드(Stephen Boyd)는 "관광 산업이 과거를 오늘날의 관광객에게 팔기 위해 너무 빨리 포장하고 상품화하며 그것의 원래 기능과 진정성을 소화하기 쉬운 작은 크기로 바꾸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230] 이것은 테오도르 아도르노(Theodor Adorno)가 다른 자본주의 상품들이 생산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문화가 자본주의 산업 안에 편입되는 것을 보며, 문화는 더 이상 현재에 대한 성찰적 이해를 위한 "저장소(repository)"가 아니라고 비판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231] 실제로 문화 산업 안에

---

227) Boyd(주 225), p. 237.

228) 1970년대 트러블 시기 대중버스는 종종 시위대에 의해 파괴되어 바리케이드로 쓰였다. 이때 블랙택시가 자주 중단되는 대중교통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되었다. 폴스 지역의 가톨릭 커뮤니티는 낡은 런던 택시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버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정해진 노선에 따라 여러 명을 태우고 하차시키는 블랙택시를 운행했다. 샨킬과 쇼어 등의 개신교 지역에서도 곧 블랙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Bruce(주 119), pp. 190-91.

229) Skinner and Jolliffe(주 7), p. 15.

230) Stephen W. Boyd, "Heritage as the USP for Tourism in Northern Ireland: Attraction Mix, Effective Storytelling and Selling of a Dark Past," in Glenn Hooper ed., *Heritage and Tourism in Britain and Ireland*,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6), p. 247 and p. 258.

231) Theodor W. Adorno, and J.M. Bernstein, *The Culture Industry: Selected Essays on Mass Culture,* Edited and with an Introduction by J.M. Bernstein, 2001, p. 9.

서 북아일랜드 벽화는 긴 역사적 맥락이 간소화되고 그것이 지닌 비판적 기능이 축소되어 대중에게 제공되고 있다. 민간 사업체가 진행하는 북아일랜드 벽화 관광은 비극적 역사를 충분한 사회적 논의 과정 없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북아일랜드 벽화의 문화상품화가 분쟁의 역사를 단순화하여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분쟁의 기억을 일반 여행객들에게 알릴 창구를 다양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 역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벽화가 가장 많이 그려져 있던 벨파스트 서부 디비스 스트리트(Divis Street)는 2003년부터 자유를 위해 투쟁했던 국내외 인물들을 기념하는 국제 장벽(International Wall)으로 불리기 시작했다(도 67).[232] 공화주의 벽화가들은 이미 1980년대 말부터 벽화를 통해 가톨릭 아일랜드인과 유사한 경험을 지닌 민족 단체들과 국제적 연대감을 형성해 오고 있었다. 국제 장벽에는 1798년의 공화주의 봉기를 주도했던 울프 톤, 19세기 미국의 노예제 반대 운동가였던 프레드릭 더글라스(Frederick Douglass), 팔레스타인 가자(Gaza) 분쟁 등 시대와 국가를 넘나들며 반-제국주의 투쟁, 혁명과 분쟁을 주제로 한 벽화가 총 망라되어 있다. 벽화에 그려진 인물이나 사건은 기념일이나 연관된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재제작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도판 67]의 왼편에는 2011년 단식투쟁 30주년 기념에 맞춰 단식투쟁 시위자와 담요시위자가 그려졌고, 오른편에는 2013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의 95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벽화가 추가되어 있다. 이렇게 한 벽화 속에 시간적·공간적으로 이질적인 사건이나 인물들을 함께 묘사함으로써 시간이 갈수록 북아일랜드 벽화는 “시간의 공간화”와 “공간의 혼성성”이 일어나는 장소이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말하는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의 모습을 대표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233] 아일랜드의

232) 디비스 스트리트는 벨파스트 서부의 개신교 지역과 가톨릭 지역을 연결하는 여러 거리 중 하나다. “디비스 스트리트의 국제 장벽(International Wall on Divis Street)”은 앤드류스 밀가루(Andrews Flour) 공장의 남쪽 경계에 위치해 노섬벌랜드 스트리트(Northumberland Street)부터 베벌리 스트리트(Beverley Street)로 이어지는 긴 벽이다.

233) 김정희, 「복원된 청계천과 그 후 - 계몽주의적 프로젝트의 포스트모던적 실현」,

역사, 북아일랜드 트러블과 세계 분쟁을 벽화의 한 화면에 담는 것은 각각의 사건이 지닌 의미가 반-제국주의나 권력에 대한 투쟁으로 묶여 간략히 소비된다는 측면에서 벽화의 문화상품화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휴전 이후 새로운 변화 중 하나는 벽화가 없던 새로운 지역에 벽화가 그려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노동자 계층 지역 안에서만 볼 수 있도록 그려졌던 벽화들이 관광 도시라는 타이틀에 맞춰 종파 중립 지역이나 도심 등으로 확장되었다. 닐 자만은 노동자 계층의 내부 결속력을 키우고 영국 정부에 저항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그려지던 벽화가 이때부터 더 넓은 사회를 대상으로 제작되었다고 보았다.[234] 이러한 변화는 벽화가들이 이전과 다른 목적으로 벽화를 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된 벽화의 문화상품화는 경제적 이익 추구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있었지만, 벽화 자체는 정치적 발언을 지속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북아일랜드 분쟁을 세계에 알리는 창구가 될 수 있었다.

1994년 이후 특히 공화주의 벽화가들은 영국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벽화 주제와 형식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그 결과의 하나로 전쟁장면 대신 과거 아일랜드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기념하면서 아일랜드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다룬 벽화들이 제작되었다. 무엇보다 새롭게 제작된 공화주의 벽화는 전반적으로 공화주의만의 양식을 만들어 벽화에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아일랜드의 전통적 매듭 장식(knotwork)으로 벽화의 외곽을 둘러서 거대한 액자 효과를 준 점이 그러하다. 매듭의 형태는 앞서 설명한 중세 아일랜드의『켈스의 서』(도 62)의 복잡한 도안부터 단순한 사슬 형태까지 벽화마다 다르게 적용되었다. 다만 모든 매듭 장식은 그 라인 장식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짙은 배경색에 흰색을 사용해 대비를 주거나 화려한 칼라로 채색되었다. 이러한 액자 효과의 테두리는 공화주의 벽화를 로열리스트 벽화와 구분하는 고유의 양식으로 점점 많은 수의 공화주의 벽화에서 발견되었다.

『현대미술학논문집』, 제12집(2008), pp. 185-87.

234) Wallace(주 21), pp. 183-84.

공화주의 벽화가들은 이러한 새로운 형식적 변화를 시도한 것 외에도 아일랜드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인물이나 사건을 벽화 주제로 선택했다. 19세기 유명 아일랜드 화가 페트릭 J. 하버티(Patrick J. Haverty, 1794-1864)의 1844년 작 <리머릭 파이퍼 The Limerick Piper>를 옮겨 그린 벽화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도 68). 하버티의 원작에는 맹인 거리 악사였던 파드라이그 오브라이언(Pádraig Ó Briain)이 아일랜드 자연을 배경으로 어린 딸을 옆에 두고 백파이프를 연주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이 작품은 화가가 오브라이언의 훌륭한 연주실력과 고상한 용모에 깊은 인상을 받고 그렸다는 사실로 유명해졌고, 가난하지만 기품있는 거리 음악가는 아일랜드인들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이 되었다.[235] 1980년대 말 제라드 켈리가 무력을 사용하는 공화주의 이념을 정당화하는 도구로서 고대 아일랜드 신화를 이용했던 것과 달리, 1990년대 중반부터 벽화가들은 가톨릭 민족주의자들에게 문화적 자부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실존 인물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95년 여름 동안에는 대기근 150주년을 맞아 대기근을 주제로 한 벽화가 서벨파스트 커뮤니티 축제인 포베일(Feile an Phobail)의 후원을 받아 가톨릭 거주지역에 여러 점 제작되었다. 이 중에서 뉴 로지(New Lodge)에 지금까지 보존된 한 벽화에는 평온한 아일랜드 대자연을 배경으로 굶주린 세 명의 여성과 한 아이가 말라버린 농지를 뒤지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도 69). 이 벽화는 대기근으로 굶주린 아일랜드 농민들을 구호하지 않은 영국 정부와 지주계급에 대한 비난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로즈나린 애비뉴(Rosnareen Avenue)에 그려진 같은 주제의 벽화에는 “감자 수확이 실패하고 대기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절망에 빠진 채 영국 병력이 식량을 배로 수송하는 것을 지켜보았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도 70).[236] 이 벽화의 중앙에는 평야 위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세 모녀가 앞쪽으로 펼쳐진 들판에 숨져 있는 사람들을 바

---

235) https://www.ouririshheritage.org/content/knowyour5k/the-limerick-piper-padraig-obriain-born-in-labasheeda-co-clare-1773, 2020.10.8.

236) Rolston(주 222), p. 8.

라보고 있다. 1847년 대기근 당시의 상황은 2018년에 발표된 영화 『블랙 '47 Black '47』에 잘 드러나 있다. 성공회 지주들에 의해 쫓겨나 굶어 죽거나 얼어 죽는 아일랜드인들의 모습과 개신교 성경 협회(Protestant Bible societies)가 개신교 종교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굶주린 가톨릭 아이들에게 수프를 주는 장면은 가톨릭 아일랜드인들이 잊을 수 없는 역사의 한 면을 보여준다.

1996년에 제작된 <떠돌이 교사와 야외학교 Itinerant teacher and hedge row school> 벽화는 17세기 이후 가톨릭 아일랜드인들이 처했던 교육 환경을 보여주는 하나의 역사적 기록이다(도 71). 이 벽화는 산속에서 한 선생이 10명 미만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벽화의 상단부에는 아일랜드어가 적혀 있다. 정장 차림에 모자와 신발을 갖춘 선생과 달리 학생 대부분은 맨발인 점으로 보아 하층민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야외 학교(hedge row school)는 아일랜드의 대중적 전문학교였던 시인 학교(the Bardic School)가 가톨릭 교리를 가르친다는 이유로 윌리엄 3세 시대에 폐지된 후에 그 대안으로 하층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했던 학교였다. 가난하지만 아이들이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컸던 아일랜드 농민들은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어 타지의 교사들을 일정 기간 고용하여 아이들의 교육을 이어갔다. 가톨릭 학교가 폐지된 17세기 말부터 가톨릭 아일랜드인들은 영국인 감시자들의 눈을 피해 야외 외진 곳에서 읽기·쓰기·산수뿐 아니라 역사·지리·수학·라틴어를 아일랜드어로 배웠다고 알려져 있다. 19세기 정치인이었던 토마스 위즈 경(Sir Thomas Wyse)은 1850년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 "아일랜드의 하위 계층은 다른 나라와 달리 중·상위층보다 더 교육을 잘 받는다"라고 적고 있다.[237] 무명의 삽화를 옮긴 이 벽화는 영국의 오랜 탄압

237) 시인학교는 17세기 중반까지 아일랜드어, 문학, 역사, 브레혼법을 가르쳤으나 크롬웰과 윌리엄 3세 시대에 가톨릭 교육을 중단시키려는 의도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었다. 1782년 가톨릭 구제안이 실시되며 과도한 교육 제한 법률이 완화되었으나 가톨릭 학교장은 영국 왕실에 충성을 맹세해야 했고 개신교 학생을 가르칠 수 없었으며 교사는 개신교 주교에게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등의 제약이 많았다. https://www.raggeduniversity.co.uk/2017/01/02/educational-history-the-hedge-schools-of-ireland/, 2020.10.8.

과 가난 속에서도 교육을 멈추지 않았던 가톨릭 노동자 계층의 문화적 자부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북아일랜드 분쟁 종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던 1990년대 중반부터 공화주의 벽화는 “영국인들을 내보내라”와 같이 정치적 슬로건을 사용하는 빈도가 줄었다. 그 대신에 과거 아일랜드 역사의 한 장면을 부각하면서 영국이 아일랜드에서 보였던 악행을 잊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벽화를 제작했다. 다른 한편으로 가톨릭 아일랜드인의 문화적 자부심이 표현된 이 시기의 공화주의 벽화는 아일랜드 역사를 북아일랜드 방문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홍보의 한 방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공화주의 벽화가들은 19세기 이전의 아일랜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뿐만 아니라 트러블 시기의 사건도 벽화 주제로 다루었다. 1987년의 누아다 왕 벽화로 유명해진 제라드 켈리 외에도 1990년대에는 전문 벽화가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238] 이로 인해 새로 제작된 벽화들은 기술적인 면에서 상당 수준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가톨릭 시민권 운동 장면과 트러블 시기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벽화를 주로 그린 보그사이드 아티스트(Bogside Artists)는 1994년부터 2008년까지 북아일랜드 분쟁이 시작된 가톨릭 빈민 지역 보그사이드에 12점의 벽화를 그렸다. 이들이 처음 제작한 벽화는 1969년 8월의 보그사이드 전투를 재현한 <화염병 시위자 The Petrol Bomber>다(도 72). 이 벽화는 보도사진 작가 클리브 림킨(Clive Limpkin)이 찍은 사진을 옮겨 그린 것이다(도 73). 화염병을 들고 방독면을 쓴 13살의 패디 코일(Paddy Coyle)을 근접 촬영한 원본 사진과 같이, 이 벽화는 그 당시 경찰과 대치 상황에 있던 가톨릭 민족주의자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

238) 벨파스트에는 제라드 켈리를 포함하여 대니 데베니(Danny Devenny), 마티 리온스(Marty Lyons), 안드레아 레드몬드(Andrea Redmond) 등 네 명이 주로 공화주의 벽화를 그렸다. 데리에서는 윌리엄 켈리(Willam Kelly), 톰 켈리(Tom Kelly), 케빈 해슨(Kevin Hasson)이 설립한 보그사이드 아티스트(Bogside Artists) 단체가 새로운 공화주의 벽화를 제작했다. 이들 중에서 윌리엄 켈리만 정식으로 미술교육을 받았다. Saleeby-Mulligan(주 208), p. 2.

다. 이 벽화는 영국 정부의 탄압에 저항하는 가톨릭 시민 정신, 더 나아가 아일랜드에만 특정할 수 없는 시민권 운동을 상징한다는 평가를 받았다.[239]

1997년에 보그사이드 아티스트는 14명의 가톨릭 시위대가 영국군의 총에 죽었던 1972년 1월의 블러디 선데이 사건을 25주년 추모 행사에 맞춰 제작했다(도 74). 이 벽화는 가톨릭 사제인 에드워드 달리(Edward Daly)가 블러디 선데이 총격 현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잭 더디(Jack Duddy) 시신을 옮기는 실제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사진 원본처럼 흑백으로 제작된 이 벽화에는 방독면을 쓰고 총을 든 한 영국 낙하산부대원이 '시민권(Civil Rights)'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발로 밟고 서 있다. 그 현수막의 핏자국만이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다. 1993년 존 메이저 총리는 블러디 선데이에 대한 SDLP의 재조사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나 신노동당의 토니 블레어는 총리가 된 직후인 1997년 6월 북아일랜드를 방문해 과거 영국의 탄압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또한, 그는 1998년 1월 블러디 선데이 재조사를 위해 제2차 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사빌 경(Lord Saville)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240] 보그사이드 아티스트의 벽화는 1990년대 중반 가톨릭교도가 가지고 있던 영국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민심은 북아일랜드를 둘러싼 정치계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그사이드 아티스트는 분쟁의 주요 사건과 인물을 벽화로 제작하는 것 외에도 2006년부터 자신들의 벽화를 주제로 하여 미국의 주요 미술관에서 순회전을 하며 북아일랜드 분쟁에서 발생했던 비-인권적 사건들을 세계에 소개하는 역할을 했다.[241] 분쟁에 관한 벽화를 그린 공을 인정받

---

239) 그 당시 런던 데일리 스케치(Daily Sketch) 사진기자였던 클리브 림킨은 "만약 보그사이드 전투를 정의하는 상징적 이미지가 있다면, 바로 폭동 첫날 찍은 이것이다"라고 말했다. Clive Limpkin, *The Battle of Bogside*, (Derry: Guildhall Press, 1972), pp. 76-77.

240) 사빌 경(Lord Saville)이 지휘한 블러디 선데이 제2차 조사위원회는 2010년 6월 15일 최종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영국 군인들이 그들의 행동을 숨기려는 시도에서 거짓말을 꾸며냈으며 영국군이 민간인을 향해 총을 쏘기 전에는 민간인들이 어떠한 위협도 가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41) 보그사이드 예술가들은 2008년《From Protest to Peace: Murals by The Bogside Artists of Northern Ireland》 타이틀로 미국 순회전을 열었다.

은 이들은 2010년 1월 요셉 보이스/데마르코 유럽 예술재단(Joseph Beuys/Demarco European Art Foundation)의 예술가 업적 펠로우쉽(Artists of Achievement Fellowship)을 수상했다.[242] 이와 같은 벽화가들의 성과는 벽화가 북아일랜드 사회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그린 벽화는 트러블을 겪었던 가톨릭 노동자 계층의 실제 모습을 증언하고 가톨릭교도의 관점에서 트러블을 돌아보게 했다는 점에서 벽화의 한시적 목적 이상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18세기와 19세기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소재로 한 공화주의 벽화와 달리 보그사이드 아티스트는 불과 30년도 채 지나지 않은 트러블 시기의 중요 사건들을 다루면서 가톨릭 민족주의자들에게 분쟁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보도사진을 벽화로 옮겨 그린 보그사이드 아티스트는 유혈 폭력이 실제로 보그사이드와 북아일랜드에서 일어났지만, 그것의 원인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는 이들에게 계속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선동적인 슬로건이나 IRA의 전쟁장면 없이도 이러한 벽화들은 가톨릭 아일랜드인들이 영국 정부에게 어떤 탄압을 받았는가를 보여주는 증거 자료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공 공간에 전시되는 효과가 있었다. 분쟁이 종식으로 향하던 이 시기에 공화주의 벽화가들은 벽화를 하나의 무기로 하여 분쟁에 책임이 있는 영국 정치계에 압력을 가하고 가톨릭 민족주의자들에게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메시지도 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휴전 이후 주제와 형식에서 변화를 보인 공화주의자들과 달리, 로열리스트들은 더 크고 정교하게 총잡이와 복면한 무장괴한 이미지를 계속 벽화로 그렸다. 예를 들어 우드스톡 링크(Woodstock Link)에는 태양처럼 빛나는 UVF 엠블렘 주위를 엄호하고 있는 네 명의 남성이 그려져 있다(도 75).[243]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 가까이에 노란색 배경으로 제

---

https://extramuralactivity.com/the-peoples-gallery/, 2020.10.7.

242) https://cain.ulster.ac.uk/bogsideartists/menu.htm, 2020.10.7.

243) Bill Rolston, *Drawing Support 4: Murals and Conflict Transformation in the*

작된 이 벽화는 중앙에 커다란 UVF 엠블렘을 배치하고 전신을 검은 옷으로 위장한 UVF 모습을 그려 넣어 자신들의 존재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했다.

1990년대는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들이 큰 위기에 봉착했던 시기로 볼 수 있다. 1985년의 앵글로-아이리시 협정 이후 계층에 상관없이 연합주의 커뮤니티들은 모두 동맹하여 파업을 벌이고 정치 단체들을 보이콧하면서 영국 정부의 결정에 저항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8년에 UDA의 마이클 스톤(Michael Stone)이 임시파 IRA 장례식에서 조문객들을 살해한 사건이 영국 텔레비전에 방영되면서 연합주의자들의 동맹은 깨지게 되었다. 중산층 연합주의자들은 UDA나 UVF의 폭력적 활동이 영국본토와 북아일랜드 개신교도와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중산층 연합주의자들은 UDA와 UVF 로열리스트가 RUC 즉 경찰대에도 고용되지 못할 정도로 사회의 가장 무능한 구성원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244] UDA와 UVF는 개신교 연합주의 주류 사회로부터 배척되고 있었다.

이처럼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들은 1994년 IRA를 따라서 휴전을 선언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UDA와 UVF는 중산층 연합주의자와 달리 영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IRA와 협상한 것을 항복이라고 해석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로열리스트들이 벽화에서 총기를 제거하지 않은 것은 휴전 이후에도 “항복하지 말자”라는 로열리즘 원칙을 고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96년 멀세이 스트리트(Mersey Street)에 제작된 <마스터, 우리는 순례자다 We are the pilgrims, master> 벽화에는 무장한 세 남성 이미지와 함께 영국 극작가 제임스 엘로이 플레커(James Elroy Flecker)의 대본에서 발췌한 “마스터, 우리는 순례자다; 우리는 언제나 좀 더 멀리 갈 것이다”라는 문구에 쓰였다(도 76) 이는 크레덴힐(Credenhill)에 있는 영국 특수부대(SAS) 본부 시계탑에 새겨진 슬로건으로 UVF의 무장 폭력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되었다.[245] 자신들이 제1

North of Ireland, (Belfast: Beyond the Pale Publications, 2013), p. 2.

244) Kennedy-Pipe(주 76), p. 143.

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군으로 참전했던 UVF의 정통성을 지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현재의 UVF는 영국으로부터 배척받던 이 시기에 영국군의 상징을 벽화로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점차 개신교 사회로부터도 배척되어 고립되고 있던 UVF는 평화 협상이 개신교도에게 불리하게 결론지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들을 IRA를 응징할 영국군과 같은 권위를 지닌 해결사로 여겼다고 볼 수 있다. 휴전 직후 영국 정부는 신페인에게 IRA의 무기 해체를 바로 시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신페인은 북아일랜드 전체의 비무장화가 먼저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평화회담이 결렬되고 있었다. 1996년 2월 임시파 IRA가 런던 도크랜즈(Docklands)를 폭격하면서 휴전은 2년도 지나지 않아 종식되었다.[246]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들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할 하나의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로열리스트 벽화에는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던 이미지가 등장했다. 헤비메탈 그룹 아이언 메이든(Iron Maiden) 앨범 표지 이미지를 옮겨온 하얀 해골의 에디(Eddie) 이미지는 1997년에 데리에 처음 등장한 이래 2001년까지 다양한 버전으로 벨파스트에 최소한 6점이 제작되었다(도 77). 하얀 해골의 에디 도상은 <우리가 유죄를 결정하고 형벌을 정한다 We Determine The Guilty, We Decide The Punishment> 벽화에서 1689년 제임스 2세의 자코바이트 병사들을 죽이는 윌리엄 3세의 병사로 묘사되어 있다. 찢긴 유니언잭과 칼을 들고 있는 에디의 오른편 뒤로는 파괴된 '자유로운 데리 코너'의 공화주의 벽화 두 점이 그려져 있어 17세기 가톨릭교도와 개신교도 사이의 전쟁이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에디 이미지를 그린 개신교 벽화가 단체인 에티튜드 아트워크(Attitude Artwork)는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을 위해 일부러

245) Rolston(주 13), p. 450.

246) 영국 정부와 IRA 사이가 경색되는 상황에서 1996년 1월 미국의 빌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이 보낸 상원 의원 조지 미첼(George Mitchell)이 무기 해체와 평화회담이 병행되도록 중재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무기 해체가 먼저라고 주장하며 합의를 거부했고, 임시파 IRA가 1996년 2월 런던 도크랜즈를 폭격하면서 휴전이 끝났다. Kennedy-Pipe(주 76), p. 160 and p. 165.

가톨릭교도들의 반감을 살 만한 '위협적'인 이미지를 찾아 그렸다고 밝혔다.[247] 타바나 스트리트(Tavanagh Street)의 에디 벽화에는 "밤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부드러운 발소리가 들리면 UFF가 아닌지 조심하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벨을 울린다"라는 글과 함께 검은 망토에 낫을 든 죽음의 신 '그림 리퍼(Grim Reaper)'가 그려져 있다. 이는 에디의 모습을 한 UFF가 언제든지 가톨릭교도를 죽일 수 있으며 죽임을 당한 이들은 그림 리퍼가 저승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 중에서 가장 많은 살인을 저질러 온 UFF는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가톨릭교도에게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얀 해골의 에디 이미지를 벽화로 제작했다고 볼 수 있다. UFF의 벽화는 UVF의 1996년 벽화에서처럼 더는 자신들이 행하는 폭력과 살인에 대해 정당성을 표명하지 않는다. 이들은 한발 더 나아가 벽화를 통해 본인들을 가톨릭교도를 죽이는 심판자로 그렸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관광 산업 재개로 북아일랜드 벽화가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던 이 시기에 개신교 지역민 중 일부는 이러한 로열리스트 벽화가 제작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이 벽화를 그렸다는 사실은 벽화에 반대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개신교 안에서도 어떤 이들은 벽화를 노동자 계층의 정치적 저항이나 하나의 대중적 문화로 여겼지만, 어떤 이들은 총이 그려진 벽화 자체에 반대했다.[248] 점점 개신교 노동자 계층 내부에서도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들을 주인공으로 그린 벽화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

247) 에디(Eddie the Head)는 영국 헤비메탈 밴드 아이언 메이든(Iron Maiden)의 마스코트다. 에디 이미지는 1980년에 처음 등장한 이후 이 그룹의 앨범 커버와 티셔츠, 포스터, 피규어 등의 상품으로 제작되었다. 북아일랜드 분쟁 동안 에디는 특히 UFF의 비공식 마스코트가 되었고 벽화로 그려졌다. 에디 이미지를 벽화로 옮겨 그린 에티튜드 아트워크(Attitude Artwork)는 디 로건(Dee Logan), 마크 로건(Mark Logan)과 마티 에드워드(Marty Edwards)로 이루어진 개신교 벽화가들이다. https://petermoloneycollection.wordpress.com/eddie-the-trooper/ 2020.12.26.

248) Jonathan McCormick and Neil Jarman, "Death of a mural", *Journal of Material Culture*, 10:1(2005), p. 50.

1993년 4월 벨파스트 동부의 뉴타운어드 로드(Newtownard Road)에 그려진 로열리스트 벽화에 대해 익명의 주민들이 불평을 제기한 사건은 벽화 이미지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한 첫 번째 사례다. 특히 노년층 주민들은 벽화 이미지에 대한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비난을 우려했다고 알려져 있다.[249] 같은 이유로 1994년 라트쿨레(Rathcoole) 주민들은 붉은 손 특공대인 RHC의 군국주의적 도상을 다른 이미지로 교체했다. 그러나 곧 준군사조직 벽화가들이 이전의 RHC 벽화를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1996년 크레가(Cregagh) 지역 UVF 추모벽화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다수가 철거를 원했지만, 빈민 지역 주택 소유권을 지닌 북아일랜드 주택공사(Northern Ireland Housing Executive, NIHE)는 벽화를 제거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주택공사의 한 대변인은 지역주민의 다수가 벽화의 철거를 원하더라도 일부 벽화들은 예술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닐 자만은 벽화의 존폐를 결정하는 것은 예술적 가치가 아니라 벽화를 후원하는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의 위력 때문이라고 보았다.[250]

위의 몇 가지 사례는 개신교 노동자 계층 사이에서도 지역 민병대를 자처하는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들의 벽화를 항상 찬성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건물의 법적 소유권을 지닌 주택공사조차 벽화 교체를 결정하는 데 있어 무장조직의 힘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사실로부터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들이 북아일랜드 사회에 미쳤던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성 금요일 협정(1998)과 그에 대한 입장 표명으로서의 벽화

1996년 2월 임시파 IRA의 런던 폭격으로 중단됐던 평화회담은 1997년 5월 토니 블레어 신노동당 정부의 출범으로 극적으로 재개되었다. 블레어 총리는 취임 직후인 6월 첫 방문지로 북아일랜드 벨파스트를

249) Jarman(주 22), p. 188.
250) 위의 책, p. 189.

선택해 방문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과거 영국의 탄압과 19세기 대기근 시기 아일랜드 식량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15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도록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1997년 7월에 임시파 IRA는 다시 휴전을 선언했다.[251]

1972년부터 북아일랜드의 개신교 자치정부를 폐지하고 북아일랜드를 직접 통치해온 영국 정부는 1998년 4월 10일에 아일랜드 공화국 정부와 성 금요일 협정을 맺고 북아일랜드 내정에서 손을 떼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벨파스트 협정'으로도 불리는 성 금요일 협정은 북아일랜드 정당들이 권력-분담 행정부를 설립하도록 한 합의다. 1972년 이전의 개신교 연합당 지배 체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협정 조항에는 다수당의 단독 통치를 막는 방안이 명시되었다.[252] 이로써 북아일랜드에는 개신교 정당들과 가톨릭 정당들이 행정부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성 금요일 협정은 거주민들에 의해 최종 합의가 결정됐다는 점에서 이전의 협정과 다르다.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 각각 국민투표를 통해 거주민 스스로가 협정 통과를 결정하도록 했다. 성 금요일 협정에 대한 찬반을 묻는 5월 22일 국민투표에 북아일랜드 국민 81%가 투표했고 투표자의 71.1%가 협정에 찬성했다. 종파별로 보면 가톨릭 인구의 99%와 개신교 인구의 51%가 협정에 찬성했다. 한편, 아일랜드 공화국은 56%의 투표율과 94-96%의 찬성률을 보였다. 이로써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 각각 국민 합의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언제든지 아일랜드섬 국민의 뜻으로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은 통일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253]

---

251) Rolston(주 197), p. 6.

252) 북아일랜드 새 의회는 비례대표제에 따라 108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선거로 확보한 의석수에 비례하여 12명의 행정장관을 임명하기로 했다.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36652/agreement.pdf, 2020.11.27.

253) Paul Dixon, "Tony Blair's Honourable Deception: In Defence of the 'Dirty' Politics of the Northern Ireland Peace Process," in Charles I Armstrong, David Herbert and Jan Erik Mustad, eds., *The Legacy of the Good Friday Agreement.* (Cham: Palgrave Macmillan, 2018), p. 47.

성 금요일 협정은 북아일랜드를 30년 동안 전쟁터로 만들었던 트러블이 공식적으로 종식된 것을 뜻했기 때문에 북아일랜드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투자자들과 기업들이 북아일랜드 경기 안정과 관광 산업의 성장을 더욱 기대하게 되었다.[254] 북아일랜드는 트러블 이전부터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영국 정부의 경제 지원을 받고 있었고 트러블 30년 동안 경제는 더 악화되었다.[255] 반면 아일랜드 공화국은 1995년에 1인당 GDP가 처음으로 2만 달러를 넘은 이래로 1997년에 세계 순위 20위(22,465달러)에 올라서며 15위(26,367달러)인 영국과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있었다.[256] 협정 이후 북아일랜드의 초점은 아일랜드 공화국과의 통일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라 종파 갈등을 줄이는 방안으로 향하게 되었다.

성 금요일 협정 이후 북아일랜드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은 벽화에서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커뮤니티와 지역 문화단체를 중심으로 군국주의적 이미지가 등장하는 벽화의 교체나 새로운 벽화 제작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벽화 출현과 마찬가지로 벽화 제거 역시 정치적 행위였다. 벽화가 관광 산업 자원으로의 효용성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도시 재생 논의가 진행될수록,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벽화 제거나 교체에 대한 협의가 본격화되었다.

무엇보다 벽화 제거에 대한 커뮤니티들의 관심은 거주민들의 실제 삶에서도 폭력을 제거하기 위해 필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두 커뮤니티의 접경 지역에 사는 가톨릭 노동자 계층은 1990년대 들어서도 자신들을 향해 총을 겨누는 벽화들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 위화감을 느꼈을 것이다. 개신교 노동자 계층 내부에서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

---

254) 신혜수, 북아일랜드, 길고도 멀었던 대립과 갈등」, 『역사비평』, 제43호(1998), 역사비평사, pp. 378-79.

255) 북아일랜드는 주력 산업인 린넨과 조선업이 양차 세계대전 이후 쇠퇴하면서 큰 경제 불황을 맞았고 1960년대 들어와 영국 재무부로부터 연간 4,500만 파운드의 원조를 받아야 했다. Foster(주 26), p. 584.

256) 아일랜드 공화국은 2001년 1인당 GDP에서 처음 영국을 앞지른 이후 2017년에 7만 달러를 넘었고 2019년에 IMF가 측정한 1인당 GDP 세계 순위에서 5위(77,742달러)를 차지했다.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DPC@WEO/AZE 2020.12.26.

이 자신들이 사는 지역의 벽을 장악하고 있는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들의 군국주의적 벽화를 불편해한다는 사실이 지역 신문을 통해 꾸준히 드러나고 있었다. 그러나 커뮤니티 내에서 이루어졌던 벽화 제거에 대한 논의가 정치적 벽화 제작의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특히 이 시기의 공화주의 벽화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장소로 여전히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성 금요일 협정 전후 가톨릭 지역의 새로운 공화주의 벽화 제작은 주로 커뮤니티 단체들의 후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공화주의자들은 1994년의 휴전 선언 이후처럼 벽화 주제를 아일랜드의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로 넓혀가는 한편 벽화를 통한 정치·사회적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동시대의 정치적 상황을 보며 벽화를 통해 사회 불합리에 대한 고발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공화주의 벽화의 비판 대상은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종파적 폭력을 일으키는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과 이들을 제대로 막지 못하는 영국 정부 및 새로운 북아일랜드 자치정부였다.[257] 성 금요일 협정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종파적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있지만, 실제로는 협정에 반대하는 준군사조직들이 여전히 종파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새로운 북아일랜드 자치정부는 이를 제대로 대처할 능력이 없었다.

1998년에 제작된 포르타다운(Portadown)의 한 공화주의 벽화는 오렌지 행진의 피해자인 가톨릭 거주민들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도 78). 이 벽화는 “협정: 종파적 괴롭힘에서 벗어나도록 하는가?(The Agreement: Free From Sectarian Harassment?)”라는 슬로건 위로 검은 실루엣의 세 무용수에게 화염병을 던지려는 듯이 서 있는 거대한 오렌지맨이 그려져 있다. 가톨릭 무용수들 뒤로 보이는 드럼크리 교회(Drumcree church)와 오렌지 행렬은 이들이 가톨릭 지역을 관통하여 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성 금요일 협정이 통과된 후에도 개신교 승리주의의 상징인 오렌지 행진으로 인해 폭력사태가 발생하자 공화주의자들은 모든 전통이 존중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했다.[258] 오렌

257) Rolston(주 197), p. 7.
258) Eamonn O’Kane and Paul Dixon, “The Northern Irish Peace Process: Political

지 행진이 지닌 개신교 영토 선포의 의미를 고려해 볼 때 이 소요사태는 이 행진이 개신교의 전통이라는 이유로 가톨릭 지역을 침범하여 벌어진 영토싸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1998년 5월의 국민투표로 성 금요일 협정이 통과된 이후에도 북아일랜드 권력-분담 행정부 설립은 정당 사이의 갈등으로 타협점을 쉽게 찾지 못한 데다가 협정에 반대하는 일부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들의 시위로 미뤄지고 있었다. 성 금요일 협정 전부터 북아일랜드의 가장 큰 논쟁 주제는 IRA의 무기 해체 시기, 정치범 석방 시기와 오렌지 행진 경로 변경 문제였다. 특히 드럼크리 오렌지 행진에 대한 논쟁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북아일랜드 전역에 시민 소요를 초래했다.

매년 7월 12일 드럼크리 개신교 교회에서 출발해 가톨릭 거주지인 가르바기 로드(Garvaghy Road)를 통과하는 포르타다운의 오렌지 행진은 1995년 7월 가톨릭 거주민들이 행진을 막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영국 정부는 1996년에 내렸던 오렌지 행진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번복하여 행진을 허용했고 1997년에도 개신교도들의 '폭동'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행진을 허용했다. 그러나 성 금요일 협정이 통과된 직후인 1998년 여름, 새로 조직된 독립 퍼레이드 위원회(the Independent Parades Commission)는 포르타다운의 오렌지 행진을 금지하기로 했다. IPC 결정에 분노한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들은 시위를 벌였고 7월 12일에 가톨릭 교도 집에 화염병을 던져 3명의 아이가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259] 드럼크리 교회가 촉발한 상황을 묘사한 위의 공화주의 벽화는 개신교도들의 특권의식이 초래한 폭력행위에 대한 비판이었을 뿐만 아니라 개신교도들의 가톨릭 영토 침해를 예전처럼 당하고 있지 않겠다는 선언의 의미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오렌지 행진은 북아일랜드 경기 침체가 가

Issues and Controversies," in Charles I Armstrong, David Herbert and Jan Erik Mustad, eds., *The Legacy of the Good Friday Agreement,* (Cham: Palgrave Macmillan, 2018), p. 27.

259) 1998년 여름 IPC가 행진 금지 결정을 내린 이후 몇 년 동안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들은 치안부대와 대립을 이어나갔고, 오렌지 행진 경로 변경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Neil Jarman, "A bitter Peace: Flag Protests, the Politics of No and Culture Wars," in Charles I Armstrong, David Herbert and Jan Erik Mustad, eds., *The Legacy of the Good Friday Agreement.* (Cham: Palgrave Macmillan, 2018), p. 126.

속화되던 1960년대 중반 이후 쇠퇴하고 있었다. 그러나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던 시기에 오렌지 행진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사실은 개신교 커뮤니티가 북아일랜드 영토에 대한 정통성을 재구축하기 위해 결속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1998년 가톨릭 민족주의자들의 손을 들어준 IPC의 결정과 정부의 태도는 개신교 커뮤니티를 다시 고립시키는 결정이었고 폭력사태가 계속되는 배경이 되었다.

개신교도들의 폭력사태로 미뤄지던 북아일랜드 자치정부는 1999년 11월, UUP의 데이비드 트림블(David Trimble)과 신페인의 게리 아담스의 합의로 설립될 수 있었다. 북아일랜드 자치정부는 2001년에 개신교도가 90% 정도였던 RUC를 폐지하고 새로운 경찰대인 PSNI(the Police Service of Northern Ireland)를 설립하여 가톨릭교도가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260]

그러나 2001년에 벨파스트 북부 아도인 지역에 그려진 공화주의 벽화는 가톨릭 정당이 참여한 자치정부가 설립된 후에도 가톨릭교도에 대한 종파적 괴롭힘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도 79). 성십자(Holy Cross) 가톨릭 학교 근처에 그려진 이 벽화에는 검은색 실루엣의 어른 한 명이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컴컴한 거리를 걷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그 위에는 “모든 이는 종파적 괴롭힘을 받지 않고 살 권리가 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두 아이가 입고 있는 붉은색 상의는 성십자 가톨릭 학교의 교복이다. 아도인 개신교 지역 로열리스트들은 2001년부터 2년 동안 개신교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 성십자 가톨릭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를 막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폭력을 가했다. 이 벽화는 성십자 가톨릭 학교 사건을 1957년에 있었던 미국 아칸소주(Arkansas)의 흑인 고교생에 대한 인종차별에 빗대어 묘사하고 있다.[261] 로열리스트 시

260) https://cain.ulster.ac.uk/issues/police/patten/patten2001.pdf, 2020.10.16.

261) 이 벽화의 배경인 "리틀 록 나인(Little Rock Nine)"은 아칸소주의 리틀 록 중앙 고등학교에 입학한 9명의 흑인 학생들에게 행해진 인종차별에 관한 사건이다. 1954년 미 대법원이 학교의 인종 분리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후, 1957년 아홉 명의 흑인 학생들이 처음으로 입학 허가를 받았지만, 아칸소 주지사와 인종차별주의 단체들은 주방위군을 동원해 흑인 학생들의 등교를 막았다. 당시 미 대통령 아이젠하워(Dwight David Eisenhower)는 연방 육군 101 공수사단을 투입하여 흑인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도록 했다. 그러나 이 9명은 매일 백인 학생들로부터 괴롭힘과 야유, 위협

위대가 가톨릭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돌, 폭죽, 소변을 채운 풍선 등을 던지며 통학을 방해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종파적 괴롭힘 때문에 경찰뿐 아니라 영국군까지 매일 가톨릭 학부모와 학생들을 호위하여 로열리스트 시위대를 피해 이들의 통학을 도와야 했다.[262] 이 당시 제작된 공화주의 벽화는 공권력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일부 로열리스트들의 종파적 괴롭힘에 대한 고발이며 비판이었다고 볼 수 있다. 성 금요일 협정이 아일랜드 통일로 가는 길을 더 확실히 열었지만, 일부 개신교 로열리스트들의 강한 반발은 그 길이 순탄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편 성 금요일 협정 이후로도 공화주의자들은 과거 트러블 기간 벌어진 종파적 살인 행위를 재조명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벽화를 계속 제작했다. 대표적으로 2001년에는 25년 전 플라스틱 총탄에 죽은 13살 소년 브라이언 스튜어트(Brian Stewart)의 초상화가 그가 살던 놀그렌 로드(Norglen Road)에 제작되었다(도 80). 그는 1976년 집 앞에서 매복해 있던 RUC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1998년 1월 재조사가 시작된 블러디 선데이에 이어, 트러블 시기 영국군과 경찰대원들의 과잉진압과 사건 은폐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가톨릭 민족주의자들에게 협정을 신뢰해도 된다는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플라스틱 총탄 희생자들에 대한 재조사는 사망자 17명 중 8명이 15세 아래 어린이였고, 대부분이 무고한 시민이었다는 사실을 밝혔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경찰 중 아무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263] 이 추모벽화는 가해자 처벌에 미온적이었던 북아일랜드 자치정부와 트러블 시기의 학살에 책임이 있는 영국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다.

성 금요일 협정 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임시파 IRA의 무기 해체는 미국의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10월 23일에야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영국 정부가 IRA에 대한 비밀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다음 해 중단되었다가 2005년 8월에야 완료되었다. IRA 무기 해체를 둘러싸고 북아일랜드 사회가 혼란스러웠던 2002년, 발리머피 벽화 프로젝

을 받아야 했다. https://nmaahc.si.edu/blog-post/little-rock-nine, 2020.10.16.

262)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01/sep/04/qanda.schools, 2020.10.16.

263) https://cain.ulster.ac.uk/issues/violence/rubberplasticbullet.htm, 2020.10.16.

트 위원회(Ballymurphy Mural Project Committee)는 트러블 시기에 희생된 IRA를 기념하기 위해 아홉 점의 벽화를 공화주의 벽화가들에게 의뢰했다. 이때 제작된 벽화에는 1994년 이후 한동안 그려지지 않았던 총기를 든 IRA의 모습이 다시 등장했다. 대표적으로 발리머피에서 활동하다 1977년 전투에서 사망한 토미 톨란(Tommy Tolan)과 그의 부대원들의 모습이 벽화로 제작되었다(도 81). <안전 가옥 Safe House>이라고 명명된 벽화 속 IRA 군인들은 총을 들고 있으나 미소를 띤 온화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한 가톨릭 가족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 이 벽화는 1970년대 가톨릭 노동자 계층 지역을 영국군과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으로부터 지켰던 실질적 보호자로서의 IRA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같은 지역에 여성 IRA 대원들을 그린 벽화 역시 분쟁 기간 중 살해된 실제 여성들이 무장한 채 깃발을 들고 행군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도 82).[264] 그러나 벨파스트 서부 가톨릭 지역 박공벽을 채운 이 새로운 형식의 추모벽화들은 총기가 등장한 벽화라는 점에서 논란을 피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휴전 이후 그려지지 않았던 무장한 IRA 대원들이 다시 벽화에 등장한 배경에는 추모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임시파 IRA는 심각한 내분을 겪고 있었다. 임시파 IRA에서 분리되어 새로 결성된 연속성 IRA(Continuity IRA)와 리얼 IRA(Real IRA)는 더 강력한 반-정부 조직으로서 폭탄테러를 지속하면서 IRA에 대한 국제적 평판에 악영향을 주고 있었다. 1986년 임시파 IRA로부터 분리된 연속성 IRA는 휴전, 협정, 무기 해체 등 모든 종류의 타협에 반대했고, 아일랜드가 통일될 때까지 군사 활동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1997년 임시파 IRA의 휴전 재개 결정에 반대하여 분리된 리얼 IRA 역시 경제적 피해와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북아일랜드와 영국에 폭탄테러를 벌였다. 1998년 8월 15일에는 리얼 IRA가 성 금요일 협정에 반대하여 오마(Omagh) 지역에 폭탄을 던져 29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265] 2000년은 북아일랜드에서 임시파 IRA의 무장해제

264) Rolston(주 197), p. 9.
265) "Danger Posed by the Real IRA and Continuity IRA at Greatest Level in Over a

검증 방식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던 시기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IRA의 무기 해체가 진행되고 있었던 2001년, 가톨릭 지역에서 전투 중 사망한 IRA를 그린 추모벽화들은 새로운 권력-분담 자치정부를 여전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기 해체를 반대하는 IRA 계파의 하나의 움직임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RA 추모벽화가 제작되던 2000년부터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 안에서도 새로운 형식의 벽화가 제작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로 1988년 임시파 IRA의 장례식에서 세 명의 조문객들을 살해하여 복역하다 2000년에 출소한 UDA의 마이클 스톤을 그린 벽화가 있다(도 83). 성 금요일 협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IRA 수감자들과 같이 UDA와 UVF 수감자들도 조기 석방되었는데, 마이클 스톤 역시 그중 한 명이었다. 벽화 중앙에는 콧수염을 한 그의 얼굴과 함께 "그의 유일한 범죄는 충성심이었다(His only crime was loyalty)"라는 슬로건이 쓰여 있다. 이 벽화는 IRA를 살해한 이들을 영웅으로 추앙하며 이들의 얼굴을 벽화로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로도 많은 수의 IRA와 가톨릭 민간인 살인에 가담한 로열리스트일수록 UDA의 영웅으로 인정받고 벽화의 중심인물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많은 수의 IRA를 살해한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 외에도 다른 이유로 준군사조직의 실제 얼굴이 그려지기도 했는데, 이는 민병대로서의 의미보다 UDA와 UVF 등 조직 내부의 세력 다툼에 따른 것이었다. 2000년 봄과 여름에 UDA 수장인 조니 아데어(Jonny Adair)의 의뢰로 호프웰 크레센트(Hopewell Crescent)부터 샨킬 퍼레이드(Shankill Parade)에 이르는 UDA의 활동 본거지에 열점 이상의 벽화가 제작되었다. 이때 준군사조직 내부 분쟁으로 1981년에 살해된 UDA의 수장 윌리엄 버키 맥컬러(William Bucky McCullough) 얼굴도 그가 살던 샨킬 지역 한 벽면에 그려졌다(도 84).[266] 이 시기 샨킬 지역 로열리스트 벽화는 지도부 변화에 따라 수시로 바뀌었다. UDA 대원들 사이에 13명이 사망하고 천여 명의 거주민들이 대피하는 유혈사태가 발생한 이후 패권을 빼

Decade." Targeted News Service (Washington, D.C, 2010).
266) Rolston(주 197), p. 11.

앗긴 조니 아데어와 그의 추종자들은 2003년에 로어 샨킬에서 퇴출당했다. UDA의 새 지도부는 조니 아데어의 지시로 제작된 벽화 대부분을 제거하거나 교체했다. 조나단 맥코믹(Jonathan McCormick)은 이 당시 로열리스트 벽화가 개신교 노동자 계층 지역을 점유하고 커뮤니티를 통제하고 있다는 힘의 상징이었다고 보았다.[267] 이처럼 2000년대 초까지 제작된 로열리스트의 군국주의적 벽화 대부분은 개신교 거주민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들의 세력을 과시하는 용도로 그려진 것이 많았다. 따라서 개신교 노동자 계층 사이에서도 군국주의적 이미지의 벽화나 살인범을 기념하는 벽화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3) 벽화 주제의 확장: 실존 인물을 이용한 서사

1998년 성 금요일 협정 이후 지역 커뮤니티, 종교단체, 문화단체, 스포츠클럽, 국제단체의 지원을 받은 기구 등 다양한 형태의 단체들이 특정 주제의 벽화를 전문 벽화가들에게 직접 의뢰하는 제작 방식이 증가했다. 이 새로운 벽화 제작 방식은 개신교 노동자 계층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특히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의 커뮤니티 단체들은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준군사조직들과 협상을 통해 벽화 교체에 나섰다. 예를 들어 게리 메이슨(Gary Mason) 목사는 동벨파스트에서 UVF와 RHC 지도자들과 협상을 벌여 무장한 복면 남성이 그려진 벽화를 제거하고 동벨파스트에서 태어난 축구선수 조지 베스트(George Best), 문학가 C.S. 루이스(C.S. Lewis)나 근처 할랜드 앤 울프 조선소에서 제작된 타이타닉호 이미지로 대체하도록 했다(도 85).[268] 타이타닉호를 그린 벽화는 1930년대 로열리스트 벽화의 전성기에도 등장한 주제였다. 벨파스트 출신의 문화예술·체육계 유명인이나 지역 명소를 그린 벽화는 지역민에게 거부감을 주던 군국주의적 이미지와 달리 지역의 정체

267) McCormick and Jarman(주 248), p. 64.
268) Rolston(주 13), pp. 452-53.

성을 대변하는 것으로 여겨졌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 샌디 로(Sandy Row)의 린필드 스트리트(Linfield Street) 상인들과 기업가들은 총기가 그려진 로열리스트 벽화가 새로운 기업가들의 투자를 막는다는 이유를 들어 준군사조직과 타협하여 벽화를 교체했다(도 86). 2005년에 제작된 벽화에는 아이들이 야외동물원에서 코끼리, 하마, 악어 등의 동물들을 보고 웃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2002년부터 서벨파스트 체육문화협회(the West Belfast Athletic and Cultural Society)와 동벨파스트 역사문화협회는 각각 15개의 벽화를 후원하여 연합주의 역사와 문화의 한 단면을 그리도록 했다(도 8). 이 벽화는 Ⅱ장에서 설명한 1643년의 엄숙동맹규약을 다룬 벽화로 동벨파스트 역사문화협회의 후원으로 제작되었다. 이처럼 여러 단체의 후원으로 제작된 벽화는 1985년의 앵글로-아이리시 협정 이후로 많이 그려진 준군사적 벽화들이 예전의 오렌지회를 상징하는 이미지나 스포츠·문화 아이콘으로 대체되는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269] 그러나 이러한 지역단체의 벽화 후원은 로열리스트 벽화의 군국주의적 요소가 얼스터 개신교 역사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을 뿐 여전히 벽화에서 종파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과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성 금요일 협정은 윌리엄 3세의 승리주의 이미지와 중무장한 민병대 이미지 외에 주제가 빈약했던 로열리스트들이 새로운 벽화 주제를 찾는 계기가 되었다. 성 금요일 협정에는 북아일랜드에 존재하는 다양한 민족 언어를 문화적 자산으로 보고 지원한다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17세기 스코틀랜드에서 얼스터로 이주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얼스터-스콧(Ulster-Scot)의 언어 및 문화 연구가 1998년에 시작되었다. 로열리스트들은 얼스터-스콧 에이전시(Ulster-Scot Agency)의 후원을 받고 얼스터-스콧 선조들을 벽화로 제작할 기회를 얻었다.[270] 1999년

---

269) McCormick and Jarman(주 248), p. 65.

270) 얼스터-스콧 에이전시(Ulster-Scot Agency)는 북아일랜드 문화·예술·레저부(the Department of Culture, Arts and Leisure)와 아일랜드 공화국의 커뮤니티·농촌·게일어 사무국(Department of Community, Rural and Gaeltacht Affairs)이 공동 출자하여 설치되었다. 이 후 얼스터-스콧 에이전시는 현재까지 언어, 음악, 춤과 축제 등의 문화를 주관하는 지역 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해 오고 있다.

에 벨파스트에는 도네갈 카운티 출신이자 미국 15대 대통령을 역임한 제임스 뷰캐넌(James Buchanan)을 묘사한 벽화가 제작되었다(도 87). 2000년에는 데리 지역에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을 그린 벽화가 제작되었다(도 88).[271] 워싱턴의 초상화 옆에는 "만약 다른 모든 곳에서 패배한다면, 나는 내 고향 버지니아의 스카치-아이리쉬(얼스터-스콧)와 함께 자유를 위한 마지막 입장을 취할 것이다"라는 미국 독립전쟁 당시 그의 발언이 적혀 있다. 이 벽화는 워싱턴이 지휘한 군대의 거의 절반이 얼스터-스콧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272]

얼스터-스콧의 정체성 연구는 1978년과 1987년 두 차례에 걸쳐 UDA 내부 정치그룹이 스코틀랜드와의 역사를 통해 얼스터 정체성을 만들고자 했던 시도와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러나 신화적 인물이나 얼스터의 독립 이념을 만들려고 했던 UDA와 달리 1998년 이후의 연구는 오히려 언어 연구와 얼스터 출신의 실존 인물들에게 관심을 돌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얼스터-스콧에 대한 연구는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과 구분되는 새 이미지를 로열리스트에게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얼스터-스콧 출신으로 미국에서 대통령, 장군, 군인이나 모험가로 이름을 남긴 인물을 그린 벽화는 19세기 미국에서 활동했던 가톨릭 독립운동단체인 페니언과 구분되는 아일랜드 개신교 이주민들의 존재를 북아일랜드 지역민들이나 해외방문객들에게 알릴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얼스터-스콧의 역사를 다룬 벽화는 여전히 '붉은 손' 도상을 포함하는 특징을 보였다. 14세기 게일 영주 오닐 가문이 문장과 깃발에 채택한 이후 얼스터를 상징해 왔던 붉은 손 도안은 1970년대부터 UDA나 UVF 등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들이 엠블렘으로 사용해 왔다. "4천 년의 얼스터-스콧의 역사와 유산"이라는 글이 적힌 한 벽화는 얼스터의 조상이

---

https://www.ulsterscotsagency.com/about-us/, 2020.10.13.

271) Bill Rolston(주 197), p. 12.

272)https://petermoloneycollection.wordpress.com/2003/02/28/george-washington/, 2020.10.13.

400년 전이 아닌 4천 년 전에 스코틀랜드에서 왔다는 역사를 설명하면서 벽화의 중앙에 크게 붉은 손을 그려놓았다(도 89). 이로부터 얼스터-스콧의 역사를 연구하는 단체들 역시 14세기 게일 영주가 사용한 도안을 옮겨 오면서도 가톨릭 아일랜드와의 관계를 배제하고, 얼스터-스콧의 역사를 17세기가 아닌 4000년 전으로 설정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 다른 역사연구를 통해 2002년에 제작된 한 벽화는 1649년에 있었던 올리버 크롬웰의 가톨릭 원주민 대학살을 다루며, 가톨릭교도에 대한 개신교도의 반감을 재현하고 있다(도 90). 이 벽화에는 "가톨릭은 종교 그 이상이다. 그것은 정치적 힘이다. 그래서 나는 가톨릭교회가 무너질 때까지 아일랜드에 평화가 없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라는 크롬웰의 글을 적어놓았다.[273] 이 벽화는 북아일랜드에 거주하는 다양한 민족들을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겠다는 성 금요일 협정 취지와 다르게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민족 및 종파적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1994년에 가톨릭과 개신교 양편의 무장단체들이 휴전을 선언한 후 벽화의 주제와 형식이 변화되는 과정을 고찰해 보았다. 북아일랜드 관광 산업의 재개와 벽화를 이용한 관광은 북아일랜드 벽화가 이전과 다른 목적으로 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공화주의 벽화와 로열리스트 벽화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변화의 방향이 달랐다. 공화주의자들은 전쟁장면 대신 과거 아일랜드의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기념하는 벽화를 제작하고 아일랜드의 민족적 자부심을 표현하는 한편 가톨릭 아일랜드인들에게 과거 영국의 탄압을 기억하고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반면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에 불만이 많았던 UVF와 UDA는 로열리스트 벽화에 군국주의적 요소를 더 많이 그리면서 그러한 이미지에 거부감을 지닌 개신교 노동자 계층 내부에서조차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의 세력은 빈민 지역의 주택 소유권을 지닌 주택공사도 벽화를 제거하는 결정을 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했던 것을 볼 수 있다.

1998년의 성 금요일 협정은 개신교 정당과 가톨릭 정당이 권력을 분

273) https://extramuralactivity.com/2004/07/27/cromwell/, 2020.10.30.

담하여 북아일랜드에 자치정부를 건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영국 정부와 아일랜드 공화국 정부 사이의 합의였다. 협정 통과 후 영국은 북아일랜드의 내정을 새로운 자치 정부에게 넘기는 권한 위임을 시작했다. 아일랜드 공화국은 아일랜드 양쪽의 다수가 원하면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는 아일랜드 통일에 대한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북아일랜드 권력-분담 자치정부는 1999년 행정부가 꾸려진 이후 2002년까지 4차례에 걸쳐 중단될 만큼 난항을 겪었다. 특히 이 시기 벽화는 여전히 북아일랜드 사회에 팽배해 있는 가톨릭교도와 개신교도 사이의 갈등을 더 분명히 보여주었다. 2000년대 초까지도 공화주의 벽화에는 여전히 UDA나 UVF에게 종파적 괴롭힘을 당하는 가톨릭 아일랜드인의 상황이 묘사되었다. 또한, 이에 단호히 대처하지 못하는 자치정부에 대한 비판과 트러블 시기에 있었던 문제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영국 정부에 대한 비난이 표현되어 있다.

성 금요일 협정 이후 로열리스트 벽화에도 얼스터-스콧의 역사연구와 같은 새로운 주제가 다루어지고 얼스터 개신교 정체성을 벽화로 제작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여전히 종파적 혐오감이 벽화를 통해 재생산되고 있었다. 벽화를 통해 본 성 금요일 협정 전후의 북아일랜드 사회는 민족적으로 쉽게 화해할 수 없는 골이 깊은 갈등을 표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Ⅳ. 정부 주도의 벽화 제작과 활용(2004-)

북아일랜드에서 폭력사태가 실질적으로 종식된 것은 2003년 북아일랜드 정치계가 새롭게 재정비되고 난 후다.[274] 2003년 11월 총선에서 개신교 강경파 DUP와 가톨릭 강경파 신페인이 새로운 권력-분담 행정부를 장악하게 되면서 북아일랜드 정치의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275] 1998년 7월 총선에서 온건파 UUP와 SDLP가 집권당이 되었던 첫 번째 권력-분담 행정부는 네 차례나 유예되는 파행을 겪었기 때문에 강경파 DUP와 신페인이 평화 프로세스의 완성을 책임지게 되자 이러한 정치계 변화는 오히려 북아일랜드 평화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2007년 5월 새롭게 출범한 권력-분담 행정부는 당해 여름 영국군 병력의 90%를 북아일랜드에서 철수하도록 했고 2009년 UVF의 무기 해체 완료와 UDA의 무기고 철수와 같은 성과를 보였다.[276] 개신교와 가톨릭 양편 모두 강경파들이 권력-분담 행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한 이후 북아일랜드에 폭력시위가 더 감소했고 해외기업 투자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확실히 북아일랜드 상황은 이전과 달라졌다. 역사가들은 이때부터 북아일랜드에 진정한 평화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277]

따라서 북아일랜드 자치정부는 2004년 즈음부터 본격적으로 커뮤니티 사이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었다. 북아일랜드 자치정부와 공공기관들은 벽화의 제거와 교체가 여전히 분쟁의 불

---

274) 북아일랜드 폭력사태로 인한 사망자 수는 1972년에 480명을 기록했다. 이후 1973년 255명, 1974년 294명, 단식투쟁이 일어난 1981년에 114명에 이르는 등 사망자 숫자는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세 자릿수 이상을 기록했다. 이후 차츰 감소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두 자릿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성 금요일 협정이 있었던 1998년에도 55명이 사망했고 2000년 19명, 2001년 16명이었다. 그러나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사망자는 5명 이하의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7명이 사망한 2016년 제외). https://cain.ulster.ac.uk/sutton/chron/index.html, 2021.1.15.

275) 2003년 11월 북아일랜드 총선에서 DUP 30석, UUP 27석, 신페인 24석, SDLP 18석, APNI 6석, 그리고 기타 소수정당들이 3석을 차지했다.

276) DUP의 이안 페이즐리와 신페인의 게리 아담스는 2006년 10월 영국 정부와 아일랜드 정부가 맺은 성 앤드류 협정(St Andrews Agreement)에 동의하였고 완전한 분쟁 종식을 약속했다. O'Kane and Dixon(주 258), pp. 21-22, and p. 26.

277) 위의 책, p. 23.

씨가 남아 있는 종파적 갈등 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 자치정부는 서로에게 강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벽화가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의 관계 회복을 막는 부정적 요인이라고 보았다.[278] 이에 따라 북아일랜드 자치정부는 기존의 종파적 갈등을 키우는 벽화를 지역 사회의 실질적 삶을 반영하는 '커뮤니티 벽화'로 교체한다는 목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또한, 북아일랜드 미술계는 이때부터 새로운 자치정부의 벽화 프로젝트에 협력하기 시작했다.

1994년부터 관광 산업의 필요에 맞춰 주로 민간단체들이 주도했던 벽화 제작은 2004년부터 정부가 벽화 프로젝트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주제와 형식 측면에서 더 다양해졌다. 무엇보다 2000년대 초까지도 벽화를 계속 제작했던 로열리스트들과 공화주의자들은 북아일랜드에 정치적 혼란 요인이 많이 제거되자 벽화를 통해 정치적 현황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빈도가 확연히 줄게 되었다. 이러한 정황들을 비추어 볼 때,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정부의 벽화 프로젝트는 북아일랜드 벽화의 주제와 형식이 바뀌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1920년대 멕시코 정부가 주도한 벽화 운동 역시 "인종적, 지역적, 계급적 균열을 봉합"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의 벽화 운동은 근본적으로 멕시코를 침략했던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주권과 자결권을 지키며 멕시코인들에게 "혁명 이후 국가가 새롭게 재구성한 지배 이념을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북아일랜드의 경우와 벽화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이 달랐다.[279] 북아일랜드 자치정부는 제1정당인 개신교 연합당과 함께 가톨릭 정당들도 선거로 확보한 의석수에 비례하여 새로운 정부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정 민족을 위한 지배 이

278) Andrew Hill and Andrew White, Painting Peace? Murals and the Northern Ireland Peace Process, *Irish Political Studies*, 27:1(2012), p. 81.

279) 멕시코 벽화 운동은 1910년 혁명 이후 새롭게 재정립된 멕시코 민족주의 이념을 대중에게 전파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한 벽화 운동이다. 1920년대 멕시코 교육부 장관이었던 호세 바스콘셀로스(José Vasconcelos)는 디에고 리베라(Diego Rivera), 호세 클레멘테 오로스코(José Clemente Orozco)와 다비드 알파로 시케이로스(David Alfaro Siqueiros) 등의 미술가들과 함께 스페인 식민지 이전의 멕시코 정체성, 즉 "인디언적 전통의 복원"을 강조하며 국가 주도의 벽화 운동을 시작했다. 이성형, 「멕시코 벽화 운동의 정치적 의미: 리베라, 오로스코, 시케이로스의 비교분석」,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2호(2002),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p. 106.

념을 구축하지 않았고 또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다. 인구 180만 명인 북아일랜드에서 새로운 자치정부의 최대 과제는 두 커뮤니티 사이의 분쟁이 재개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북아일랜드 자치정부의 벽화 프로젝트는 미국 필라델피아 시장이 도시 미화와 도시 정체성 구축을 목적으로 1984년에 설립한 반-그라피티 네트워크(Philadephia Anti-Graffiti Network, PAGN)와 1996년에 확대 개편한 필라델리아 벽화 프로그램(Mural Arts Program, MAP)과 비교될 수 있다. 필라델피아시는 1984년부터 30여 년 동안 도심에 3,600여 점의 벽화를 제작하여 '벽화 도시'라는 타이틀을 얻고 벽화를 관광에 이용해 왔다.[280] 그러나 북아일랜드의 경우 종파성이 강한 벽화 제거와 비-정치적 주제의 벽화 제작에 목적을 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그 제작 과정에서 차이가 있었고 사회적으로 더 철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는 2019년에 현장을 방문하고 자료를 수집하면서 서로에게 총을 겨누었던 트러블을 극복하기 위해 보는 이로 하여금 혐오감이 들게 하는 벽화의 제거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했다. 그러나 '중립적 이미지'의 벽화로 대체한다는 정부 프로젝트의 목적이 제대로 지켜질 수 없고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벽화 프로젝트의 중립성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견된 이후 북아일랜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벽화의 제거와 교체가 왜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북아일랜드 벽화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총을 포함한 도상을 제거하는 데 큰 의의를 두었을 뿐 새로운 도상이 지닌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과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 북아일랜드 벽화 교체 프로젝트의

280) 그라피티를 근절하기 위해 1984년 설립된 PAGN과, 도시 정체성 고양, 사회적 화합과 도시 미화를 위해 1996년 설립된 MAP의 활동 결과로 필라델피아 도심에 30년간 3,600여 점의 벽화가 제작되었다. 김지연은 필라델피아 벽화 프로젝트가 유색인종들의 모습만 벽화로 그렸고 시 정부의 이념적 목표를 반영하기 위해 "미학적 독창성보다는 상투적인 소재를 형상적인 양식으로 제작"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보았다. 김지연, 「필라델리아 벽화 프로젝트」,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4), pp. 19-20, p. 45 and pp. 123-26.

진행 과정을 살펴보고 그 결과물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렉시트 전후의 북아일랜드의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른 북아일랜드 벽화의 미래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1. 정부 주도의 벽화 교체 프로젝트

국가가 주도한 초기 프로젝트는 새로운 벽화 제작보다는 벽화나 엠블렘의 제거에 목적을 두었다. 2004년부터 북아일랜드 주택공사와 벨파스트 시의회는 커뮤니티 화합 유닛(Community Cohesion Unit, CCU)을 시작하여 논란이 되는 깃발과 벽화를 제거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281] 같은 해 북아일랜드 예술위원회와 문화예술레저부(Northern Ireland's Department of Culture, Arts and Leisure)는 사회적·경제적 재생이 필요한 지역에 예술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240만 파운드 복권기금으로 '지역 재생을 위한 미술(Art of Regeneration)'을 출범했다. 이 지원금은 준군사적 이미지의 벽화와 그라피티를 제거하고 공공미술품을 전시하는 데 사용되었다.[282] 1994년 국가유산부인 DNH 아래 신설된 국립복권(National Lottery)은 블레어 정부에 와서 문화·미디어·체육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CMS)가 맡아 더 확대됐고 국가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예술 지원에 사용되고 있었다.[283]

군국주의적 이미지와 선동적 슬로건으로 논란이 된 벽화를 새로운 벽화로 교체하는 정부 프로젝트는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리-이미징 커뮤니티 프로그램(re-imaging communities programme)으로 명명된 이 벽화 교체 프로젝트에는 3년의 기간 동안 330만 파운드의 복

281) Simone-Charteris(주 147), p. 220; https://www.nihe.gov.uk/Documents/Community-Cohesion-Strategy-2015-2020/Community-Cohesion-Strategy-2015-2020.aspx, 2020.11.2.

282) 공공기관들은 '지역 재생을 위한 미술과 함께 2005년 4월 '다기관 깃발 프로토콜(the multi-agency Flags Protocol)'을 도입하여 연말까지 1000개의 엠블럼을 제거하는 등 종파적 깃발 제거 작업을 커뮤니티와 함께 진행했다. Hill and White(주 278), p. 75.

283) 김정희(주 145), pp. 437-39 and p. 454.

권기금이 투입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운영은 예술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직된 컨소시엄이 맡았고, 이 컨소시엄은 공유된 미래, 커뮤니티 지원 정도, 예술 활동의 특징, 조직 및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과 같은 네 부문을 측정하여 지원금을 배분했다.[284] 여기서 '공유된 미래'는 분쟁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이미지로 바꿔야 달성될 수 있다고 본 기준이다.[285] 이러한 목적으로 새롭게 제작된 벽화는 아일랜드 분할 이후 벽화로 인해 공간적으로도 더 확연히 나뉜 삶을 살아온 개신교와 가톨릭 노동자 계층 양쪽 모두에게 북아일랜드 분쟁의 원인을 돌아보게 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일 수 있다. 2004년의 인구 주거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아일랜드 인구의 80%가 종파에 따라 섞이지 않고 따로 거주하고 있었다.[286] 이러한 환경은 이들이 상대 커뮤티니에 대한 적대와 혐오를 누그러뜨리는 것을 더 어렵게 했을 것이다.

1) 문화유산으로의 벽화 활용

2006년에 시작된 리-이미징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벽화 교체를 원하는 커뮤니티의 신청을 받아서 최대 5만 파운드의 기금을 지원한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그램의 운영진은 152명의 지역 및 외지 출신 예술가들을

---

284) 리-이미징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북아일랜드 예술위원회 주도로 제1부총리실(the Office of the First Minister and Deputy First Minister), 사회개발부(the Department for Social Development), 문화예술레저부(the Department of Culture, Arts and Leisure), 아일랜드 국제기금(the International Fund for Ireland), 북아일랜드 주택공사, 커뮤니티 관계위원회와 위로(the Community Relations Council and Solace), 지방자치단체 주지사 협회(the Society of Local Authority Chief Executives)와 고위 간부(Senior Managers)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단위 사업이었다. Rolston(주 13), pp. 453-54.

285) Maximilian Rapp and Markus Rhomberg, "Seeking a Neutral Identity in Northern Ireland's Political Wall Paintings," *Peace Review: A Journal of Social Justice*, 24(2012), p. 471.

286) David Herbert, "Legacies of 1998: What Kind of Social Peace Has Developed in Norther Ireland? Social Attitudes, Inequalities, and Territorialities," in Charles I Armstrong, David Herbert and Jan Erik Mustad, eds., *The Legacy of the Good Friday Agreement.* (Cham: Palgrave Macmillan, 2018), p. 252.

영입하여 그들에게 커뮤니티 거주민들이 바라는 이상적 이미지와 커뮤니티 정체성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임무를 주었다. 이 프로젝트는 전문 예술가들이 벽화를 제작하도록 하는 한편으로 지역 커뮤니티 주민들이 벽화 제작에 일정 부분 참여하도록 했다.[287] 리-이미징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1977년부터 4년간 노동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벨파스트 시의회가 주도했던 '스프루스 업 벨파스트' 프로젝트와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미술대학 학생이 아닌 전문 예술가 그룹을 참여시키고 참여 커뮤니티의 수와 예산 규모가 훨씬 컸다는 점에서 이 전보다 벽화 교체 프로젝트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벽화 교체 프로젝트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123점의 벽화를 대체하거나 추가했다. 지원금을 받은 커뮤니티는 개신교 지역 61점, 가톨릭 지역 23점과 혼합지역 39점이었는데, 개신교 커뮤니티에 기금 혜택이 편중된 것을 볼 수 있다. 앤드류 힐은 1994년 이후 자발적으로 아일랜드의 역사와 문화를 벽화로 제작한 가톨릭 지역과 달리, 개신교 지역은 준군사조직들이 논란이 많은 벽화를 계속 제작해 왔고 개신교 거주민들의 기존 로열리스트 벽화에 대한 불만이 컸기 때문에 벽화 교체를 신청한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다. 또 다른 이유로 그는 리-이미징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대한 가톨릭 커뮤니티의 부정적 태도를 들었다. 실제로 공화주의 벽화가 대니 데베니(Danny Devenny)는 분쟁 시기 가톨릭 커뮤니티를 위해 일하지 않았던 예술가들에게 돈을 주는 프로젝트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288]

벽화 주제로는 종파적 정치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를 제외하고 지역 역사·문화부터 실업·건강·범죄 등의 사회문제까지 다양한 주제가 선택되었다. 예를 들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로어 샨킬 지역 커뮤니티는 6개의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 벽화를 교체했고 4개의 새로운 벽화를 추가했다. 그중에서 아일랜드 출신 예술가인 에드 레이놀즈(Ed

287) Caroline Engel, "the Murals of Belfast: Politics and Conservation" (MA Thesis, University of Edinburgh, 2011), p. 24.

288) 리-이미징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재정난으로 2008년 여름 중단되기 전까지 108개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고, 2008년 12월에 50만 파운드를 추가 지원받아 15개 프로젝트를 추가했다. Hill and White(주 278), p. 78.

Reynolds)가 제작한 <보편적 인권 Universal Human Rights>은 사회문제를 다룬 대표적 벽화다(도 91). 이 벽화에는 가정, 학교와 직장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할 때 보편적 인권이 지켜질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 여섯 컷짜리 삽화가 만화 형식으로 그려져 있다. 벽화 옆에는 미국 영부인이자 사회운동가였던 엘리노어 루즈벨트(Eleanor Roosevelt)의 "보편적 인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 모든 남녀가 차별 없이 평등한 정의와 평등한 기회 및 평등한 존엄성을 추구하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다. [...]"라는 글이 쓰여 있다.

사회문제와 함께 많이 선택된 주제는 벽화가 그려진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역사적 소재였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샨킬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과 사건들을 기념하는 <샨킬 로드 A-Z 역사 A-Z History of the Shankill Road>가 드럼크리 오렌지 행진을 그린 벽화를 대체했다(도 92). 이 벽화에는 각 알파벳을 대표하는 샨킬 지역 출신 인물이나 단체를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C'에는 1881년에 샨킬에서 태어난 윌리엄 코너(William Conor)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는 조선소 노동자이자 오렌지 행진의 경로에 벽화를 제작했던 로열리스트 벽화가였다.

두 명의 무장한 남성을 묘사한 UDA 벽화는 <69 골드 러시 69 Gold Rush>로 교체되었다. 이 벽화는 1969년에 샨킬 지역 아이들이 철거된 땅에 매장된 금화를 발견하는 장면을 그린 벽화다(도 93).[289] 새로 제작된 벽화 옆에는 이전 벽화의 이미지와 함께 새 벽화의 의미와 지원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명판이 설치되었다(도 94). 앤드류 힐은 과거 분쟁에 관한 기록을 남긴 이 명판이 벽화 교체를 반대하는 일부 지역민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았다. 이 외에도 국가적 차원의 기념일을 다룬 <유럽 전승 기념일 VE Day> 벽화가 새롭게 추가되었다(도 95).[290] 이처럼 북아일랜드와 서구사회에서 활동하는 전문 예술가들이 참여한 이 프로젝트 결과물들은 벽화가 그려진 커뮤니티 지역의 역사나 북아일랜드의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선정했으나 지역 정체성보다는 보편적 이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

289) https://petermoloneycollection.wordpress.com/2009/07/15/69-gold-rush/ 2020.12.28.
290) Hill and White(주 278), pp. 76-77.

새로운 벽화의 형식은 참여한 예술가들의 작품 제작 방식을 그대로 활용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벽화에 디지털 이미지를 처음 도입하는 등의 새로운 벽화 제작 방식을 적용하기도 했다. 디지털 이미지 벽화는 복잡한 표현이 가능하고, 투명아크릴 수지나 알루미늄판에 인쇄하여 벽에 부착하기 때문에 페인트 벽화보다 내구성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 새롭게 제안된 이미지 중에서 재현하기 힘든 사진이나 글자가 많이 포함된 벽화부터 시범적으로 적용되었다.[291] 이러한 시도는 블레어 정부의 DCMS가 "접근, 우수함, 교육,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며 디지털 혁명을 장려하고 전통적인 예술과 거리가 먼 '거리 미술'에도 기금을 제공한 결과로 볼 수 있다.[292] 그러나 디지털로 출력된 벽화는 스프레이나 붓으로 그려진 벽화와 비교해 보면 오히려 지역 홍보물에 가까워 보인다. 위 예시 중에서 <샨킬 로드 A-Z 역사>와 <유럽 전승 기념일>이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된 벽화다.

새로운 벽화 주제는 예술위원회 협력단의 검열을 통해 선정되었다. 예술위원회는 커뮤니티가 제안한 새 벽화 주제에 정치적이거나 종파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록 그 주제가 지역 정체성을 대표한다고 해도 거절할 권한이 있었다. 한편으로 예술위원회의 새 벽화 검열은 정부가 테러조직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비난을 피하려는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벽화 지원금이 전달되기까지 커뮤니티와의 포괄적 협의가 필요했는데, 예술위원회의 검열에 불만이 제기되면서 커뮤니티와 주제 결정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기도 했다. 한 예로, 벨파스트 남쪽의 타바나흐 스트리트(Tavanagh Street)에 그려져 있던 하얀 해골의 에디 이미지는 <빌리 왕 King Billy> 벽화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커뮤니티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도 96). 예술위원회는 윌리엄 3세 이미지가 종파적 분열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참여 예술가와 지역 커뮤니티에 이미지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로열리스트들은 이 이미지가 지역 역사를 대표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예술위원회가 결국 그 주장을 받아들였다.[293] 이러한 사례는 종파적 폭력행위는 이

291) Rolston(주 243), p. 8.
292) 김정희(주 145), pp. 446-48.

전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가톨릭과 개신교 커뮤니티 사이에 불신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거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커뮤니티 프로젝트에 종파성을 배제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2) 벽화 교체 프로젝트의 성과와 한계

2009년에 작성된 벽화 교체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보고서는 10개의 프로젝트와 프로젝트에 참여한 약 2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리-이미징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세 가지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첫째, 설문 응답자 대다수가 해당 프로젝트가 지역의 외관을 개선했으며 새로 제작된 벽화가 외지에서 온 이들을 더 환영하도록 만들었다고 보았다. 둘째로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상징적 이미지의 의미를 신중하게 논의하도록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고 그것이 커뮤니티 간 관계 개선에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셋째, 응답자들은 프로젝트 안에서의 개방된 토론 방식이 커뮤니티의 결속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았다. 보고서는 이전에 논란이 된 군국주의적 이미지들이 항상 지역주민들의 동의 아래 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며 리-이미징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계기로 거주민들이 그들의 거주지역에 대한 권한을 더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평가했다.[294] 확실히 공공기관 주도의 벽화 교체 프로젝트는 지역 커뮤니티에서조차 반대했던 군국주의적 이미지를 국가의 도움을 받아 제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술가와 벽화 주제 선정부터 커뮤니티 참여 방식에 이르기까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발견되었다.

리-이미징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포함한 정부의 벽화 교체 프로젝트

---

293) Rolston(주 13), pp. 455.

294) Independent Research Solutions, "Evaluation of the Re-Imaging Communities Programme: A Report to the Arts Council of Northern Ireland," *Arts Council of Northern Ireland* (June 2009), p. 2, Engel(주 378), p. 23에서 재인용.

는 첫째, 참여 예술가 선정 과정에서 기존에 활동하던 벽화가들이 대부분 제외되고 커뮤니티 외부의 예술가에게 거의 전적으로 벽화 제작을 의존했다는 점에서 커뮤니티의 정체성이 제대로 표현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커뮤니티는 예술가 추천 권한이 거의 없었고 원주민 벽화가들은 전시 경험이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얻기 어려웠다. 무엇보다 예술위원회는 기존의 벽화를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집단이 그린 시대착오적 벽화로 여겼기 때문에 프로젝트에서 대부분의 기존 벽화가를 제외했다. 특히 현장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협업이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의 경우 수감 경력이 있는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 출신과 IRA 출신의 참여가 배제되었다. 빌 롤스톤은 지역 커뮤니티가 아닌 외부 출신 예술가들이 주도한 벽화 교체 프로젝트는 커뮤니티 문화를 제대로 반영하기보다 기금제공자의 의도에 맞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295]

마리아 시몬-차테리스(Maria Simone-Charteris)는 교체된 벽화가 커뮤니티 정체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벽화가 제작된 후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 지역 거주민들이 벽화에 애착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리-이미징 커뮤니티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벽화가 지역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보았다.[296] 실제로 기존의 공화주의 벽화가들과 로열리스트 벽화가들에게 이러한 벽화 교체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더 주었다면 2000년대 커뮤니티가 지닌 사회적 문제들을 더 공론화할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공공기관 주도로 제작된 벽화 대부분이 예전부터 등장했던 이미지들, 예를 들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얼스터 의용군인 UVF, 지역 출신 예술가와 운동선수, 심지어 윌리엄 3세와 같이 종파적 의미를 지닌 역사 등 진부한 주제와 소재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술가 선정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

295) 공화주의 벽화가에게 정부 프로젝트의 벽화를 맡긴 경우도 있었지만, 예술위원회는 이들이 외부에서 온 예술가들보다 논란이 될만한 도상을 포함시킨다고 보았다. Rolston(주 13), pp. 456-57.

296) Simone-Charteris(주 147), p. 219.

둘째로, 벽화의 정치성과 종파성을 제외한다는 정부의 검열 기준은 실제로 벽화 선정 과정에서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개신교 지역에 새로 제작된 얼스터 36사단 기념벽화는 총을 들고 있는 군인의 이미지도 검열을 통과했던 반면, 로리 오도넬(Rory O'Donnell)과 휴 오닐(Hugh O'Neill) 백작이 1607년에 스페인으로 탈출하는 역사적 장면을 그린 가톨릭 지역의 커뮤니티 벽화는 칼이 있던 원본을 수정한 후에야 벽화로 제작될 수 있었다(도 97).[297] 이 벽화는 아일랜드가 완전히 영국 식민지가 되기 이전에 아일랜드 북부 얼스터를 통치하던 오닐 가문 영주들이 9년 전쟁(1593-1603)에서 패한 후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으로 망명하는 순간을 묘사하고 있다.[298]

세계대전에 영국군으로 참전한 얼스터 군인보다 영국 왕실에 대항했던 역사적 인물에 더 엄격한 검열 기준이 적용된 사실은 새 벽화 선정 기준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1521년 보름스(Worms)에서 추기경 앞에서 설교하는 장면을 묘사한 <마틴 루터 Martin Luther> 벽화는 가톨릭에서 분리된 개신교 초기역사를 다룬다는 점에서 종파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역사적 사실을 다룬다는 이유로 선정될 수 있었다(도 98). <마틴 루터 Martin Luther> 벽화의 명판에는 '루터의 종교개혁'이 어떻게 개신교주의(Protestantism)를 창시하고 유럽 전역의 가톨릭주의(Catholicism)를 분열시켰는지를 설명하고 있다.[299] 이는 종파적 사고에 이의를 제기하기보다는 종파적 차이를 더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서술한 윌리엄 3세를 그린 벽화가 정부 기금으로 제작된 새 벽화로 선정된 사실 역시 논란의 여지가 많다. 아일랜드에서 '가톨릭 왕에게 승리한 개신교 왕'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윌리엄 3세는 처음 그려진 1908년 이후 북아일랜드에 남겨진 가톨릭교도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 이미지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런데도 윌리엄

297) Rolston(주 13), p. 458.
298) https://petermoloneycollection.wordpress.com/2009/07/15/the-flight-of-the-earls/, 2021.1.15.
299) Hill and White(주 278), p. 78.

3세를 다룬 벽화는 이후로도 꾸준히 제작되어왔다(도 99).

이러한 몇 가지 사례들은 북아일랜드 자치정부가 벽화 프로젝트에서 여전히 개신교도들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미 사회학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북아일랜드의 벽화연구를 진행해 왔고 북아일랜드 거주민 대부분이 윌리엄 3세의 의미를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아일랜드에 여전히 개신교 우월주의가 남아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부가 주도한 벽화 교체 프로젝트는 특정 지역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하는 데 이용되었는데, 이것은 종파적·정치적 이미지의 재생산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벽화의 문화상품화로 볼 수 있다.[300] 2000년대 초 벨파스트 시의회는 성 금요일 협정 조항 중에서 '소수민족의 언어를 문화적 자산으로 지원'한다는 조항에 따라 폴스 로드 일대를 게일터흐트 지구(Gaeltacht Quarter), 즉 아일랜드 지구로 지정했다. 이것은 아일랜드어를 가톨릭 지역의 문화적 특성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인 동시에 분쟁 기간 황폐해진 가톨릭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기도 했다.

아일랜드어 특구로 지정된 게일터흐트 지구에는 리-이미징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이중언어, 즉 아일랜드어와 영어로 장식된 벽화가 제작되었다. 그 외에도 시의회의 후원을 받아 아일랜드 문화를 소개하는 벽화도 다수 제작되었다(도 100). 이 벽화에는 아일랜드어로 운영되는 게일 게임 클럽과 그 상징인 검은 새가 그려져 있고, 검은 새와 관련된 시가 아일랜드어와 영어로 적혀 있다. 벽화 속의 아일랜드인은 아일랜드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벨파스트 도시 풍경에서 벗어나 '게일터흐트 지구'로 불리는 특정 장소에 있다는 것을 알린다. 벨파스트 시의회는 2013년 '빅 게일터흐트 지구 계획(Big Gaeltacht Quarter Plan)'을 발표하여 2015년까지 이 지역의 벽화 수를 두 배로 늘

300) Katy Radford, "Extra-mural activities and trauma tourism: Public and community sector re-imaging of street art in Belfast", in Jonathan Skinner and Lee Jolliffe, eds., *Murals and Tourism: Heritage, Politics and Identity,* (New York: Routledge, 2017), p. 254.

려 도시 벽화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가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301] 그러나 이처럼 정부에 의해 새롭게 구축된 가톨릭 지역 이미지는 지역적 민족적 경계를 강화하는 또 다른 정치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북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어를 쓴다는 것은 영국 정부에 대한 저항을 의미했다. 아일랜드어는 영국성과 구별되는 이질적 집단의 상징이었다.[302] 벽화에 이중언어를 표기하는 것은 아일랜드 정체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아일랜드어 보존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아직 사회적으로 화합되지 않은 가톨릭교도와 개신교도 사이에 이질감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벽화 교체 프로젝트의 초기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종파성과 정치성이 표현된 벽화를 제거하는 데 목적을 둔 프로젝트는 그 자체로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포함하여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분쟁 시기를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커뮤니티 사이에 적대감과 혐오를 키운다는 점에서 일부 정치 평론가들은 벽화와 깃발, 슬로건 등이 정체성의 문화적 표현이 아니라 갈등을 불러모으는 시대착오적 이미지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몬-차테리스는 이에 대하여 상징물의 의미가 역동적이고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된 견해라고 보았다.[303] 예를 들어 글렌토란 커뮤니티 트러스트(Glentoran Community Trust)의 축구 클럽을 기념하는 벽화를 대체하여 2011년에 다시 등장한 <스스로 방어할 권리

---

301) 벨파스트 시의회는 2000년대 초 게일터흐트 지구를 포함한 7곳의 관광특구 성당지구(Cathedral Quarter), 타이타닉 지구(Titanic Quarter), 린넨 지구(Linen Quarter), 퀸스 지구(Queen's Quarter), 도서관지구(Library Quarter), 마켓 지구(Market Quarter))를 발표했고 2010년대에 6곳으로 재조정하여 운영 중이다. Siun Carden, "The Gaeltacht Quarter of Mural City Irish in Falls Road murals", in Jonathan Skinner and Lee Jolliffe, eds., *Murals and Tourism: Heritage, Politics and Identity,* (New York: Routledge, 2017), pp. 237-38, and p. 250.

302) 위의 책, pp. 242-45.

303) Simone-Charteris(주 147), pp. 224-25; Carden(주 301), p. 241.

the Right to Defend Yourself> 벽화에는 검은 복면을 쓴 두 명의 UVF 대원이 묘사되어 있다(도 101).[304] 그러나 IRA와 UVF가 각각 공식적으로 2005년과 2009년에 무기 해체를 완료했기 때문에, 2011년의 군국주의적 벽화는 이러한 이미지가 처음 등장했던 1980년대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시대에 따라 벽화 속 각 이미지의 정치적 의미와 사회적 역할은 유동적일 수 있다. 신페인 당사 건물에 2015년 그려진 단식투쟁 시위자 바비 샌즈 초상과 "공화주의자이든지 아니든지, 모든 사람은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그의 글은 1981년 가톨릭 지역에 그려진 샌즈의 의미와 같을 수 없다(도 102). 1981년 단식투쟁 시위자들의 사망 당시 임시파 IRA의 정치조직으로서 무장투쟁에 관여했던 신페인은 1994년의 IRA 휴전과 2005년의 IRA의 무기 해체 완료에 중심 역할을 하면서 IRA 무장활동에 연결된 이미지를 버리고 새로운 정당으로 변모했다. 아일랜드 공화국과의 통일 가능성이 더 커질수록 공화주의자들은 과거와 같은 폭탄테러와 군사 활동을 벌일 이유가 적어졌다고 볼 수 있다. 각 벽화는 저항 매체로 처음 그려질 당시의 목적이 사라지고 다른 맥락에 놓이더라도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지역의 문화 정체성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엘레노 번힐(Eleanor Burnhill)은 "폭력과 살인을 축하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확실히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희석해서도 안 된다. 벽화는 커뮤니티 문화와 정신의 한 부분이고 커뮤니티와 연결된 폭력 역시 그 특정 문화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305] 앤드류 힐은 정치·종파적 이미지가 무분별하게 복제되지 않도록 하는 시도는 환영받아야 하지만, 이 과정이 불편한 북아일랜드 분쟁의 역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306]

위에서 설명한 비판을 근거로, 본 연구자는 북아일랜드 자치정부가

---

304) https://extramuralactivity.com/2011/05/28/the-right-to-defend-yourself/, 2021.1.18.
305) Eleanor Burnhill, "Weeds and wild flowers: political tourism in Belfast," *Edinburgh Review,* 8 May 2007, p. 5. https://www.eurozine.com/weeds-and-wild-flowers/, 2020.10.28.
306) Hill and White(주 278), pp. 83-84.

‘군국주의적 도상’을 종파적으로 ‘중립적인’ 도상으로 대체하겠다는 목적이 잘 지켜지지 않았고, 새롭게 제작된 벽화들이 커뮤니티 정체성을 제대로 다룬 벽화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정부 프로젝트의 벽화 주제로 인기가 높은 제1차 세계대전의 솜므 전투 장면은 1930년대 로열리스트 벽화에서 이미 주요 소재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진부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군국주의적 도상 전체를 제거하지 않고 일부는 보존하거나 커뮤니티가 새로 제작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정부의 벽화 교체 프로젝트가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점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가톨릭 커뮤니티와 개신교 커뮤니티 사이에 서로에 대한 고정관념과 불신이 여전히 남아 있는 북아일랜드 사회에서 정부의 벽화 프로젝트는 두 커뮤니티의 화합을 위한 시도였지만, 결과물은 오히려 국가의 시각을 강요한 측면이 있었다. 결과물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적었다면, 벽화는 거주민들의 종파적 관점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서로에게 적대적인 두 커뮤니티의 사회적 인식 변화는 인위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0년대에 들어서 북아일랜드는 분쟁의 기억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 북아일랜드는 해외방문객 수와 관광 수입이 각각 1995년 1백55만 명과 2.14억 파운드에서 2014년 2백17만 명과 5.14억 파운드로 급증했다. 또한, 데리는 2013 영국의 문화도시(the UK City of Culture)로 선정되었다.[307] 전문가들은 관광객들 사이에 과거 트러블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고 20년 안에 방문객들의 관심을 받지 않으리라고 예측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일랜드와 영국의 오랜 분쟁과 트러블이 앞으로 어떻게 기억되고 기념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벽화와 같은 역사적 전시물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의 한 부분일 수 있다.

2006년의 리-이미징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후속으로 북아일랜드 정부는 2013년에 기금 312.5만 파운드로 ‘예술을 통한 평화 구축: 리-이미징 커뮤니티(Building Peace through the Arts: Re-imaging

307) Boyd(주 230), p. 255.

Communities)'를 재개했다. 소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최대 15,000파운드,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최대 50,000파운드의 보조금이 커뮤니티에 제공되었고 2015년까지 북아일랜드 전역과 아일랜드 공화국과의 국경 지역에 약 100건의 커뮤니티 기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2006년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예술가들이 지역단체들과 협력하여 예술을 통해 활기차고 매력적인 공공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308]

2004년부터 10년 이상 진행된 공공기관 주도의 벽화 교체 프로젝트는 학계·사회단체·커뮤니티 등의 비판 속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이제 군국주의적 벽화의 제거보다는 새로운 주제의 벽화 제작으로 옮겨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브렉시트와 북아일랜드 벽화

정부가 주도한 프로젝트들은 아일랜드와 유럽 출신 예술가들을 벽화 제작에 참여시키면서 커뮤니티가 지닌 정체성이 제대로 반영된 벽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 한계를 드러낸 반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벽화들이 등장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또한, 2010년대에 들어오면 예술위원회가 제작한 벽화뿐 아니라 지역 미술제를 통해 제작된 벽화나 다양한 단체들이 후원한 벽화들이 이전보다 많아졌는데, 특히 도심의 상업지구에 그려진 벽화는 주제나 형식 면에서 더 자유롭게 제작될 수 있었다.

실제로 도심을 포함한 몇몇 지역은 최근 들어 종파적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 '제3의 공간', 즉 중립적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다.[309] 이러한 공

---

308) 이 후속 프로젝트에는 북아일랜드 예술위원회 외에도 유럽연합 평화 3 프로그램(EU's PEACE Ⅲ Programme)과 국제 아일랜드 기금(the International Fund for Ireland)이 보조금을 제공했다. Simone-Charteris(주 147), pp. 220-21.

309) 예를 들어 벨파스트시는 타이타닉 지구에 수백 채의 새 아파트와 사무실을 짓고 모든 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도심의 새로운 중립적인 공간을 조성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타이타닉' 명칭이 개신교 측의 상징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립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Rapp and Rhomberg(주 285), p. 472.

간에 그려진 벽화에는 국내외 예술가들의 작업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대표적으로 런던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아일랜드 거리미술가인 코너 해링턴(Conor Harrington)은 2012년 5월에 성당 지구 예술 축제(Cathedral Quarter Arts Festival)에 참가하여 <벨파스트의 결투 The Duel of Belfast>로 알려진 벽화를 그렸다(도 103).[310] 이 벽화에는 죽은 개의 사체 옆에서 칼을 들고 결투하는 두 사람과 그 뒤편의 의자에 앉아 결투를 지켜보는 한 사람이 그려져 있다. 고전적 회화 양식을 응용한 작품을 제작해 온 헤링턴은 그의 스타일대로 이 벽화를 완성했다. 그는 이 작품에서 수 세기 동안 분쟁을 겪어온 벨파스트의 역사를 비유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 거리예술가로 알려진 MTO가 2014년에 그린 <프로타고라스의 아들 Son of Protagoras> 벽화는 위의 작품과 같은 맥락에서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도 104). 프로타고라스는 신의 존재 여부를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책을 썼다는 이유로 아테네에서 쫓겨났던 B.C. 5세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다. MTO는 이 벽화를 통해 '종교적 집착이 평화의 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의 벽화에서, 프로타고라스의 아들로 보이는 한 소년이 몰타 기사단(the Knights of Malta) 십자가와 라틴 십자가가 새겨진 화살에 맞은 비둘기를 두 손으로 감싸고 있다.[311] 이 벽화는 인적이 드믄 한 주차장 벽에 그려져 있지만, 벨파스트 거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자주 찾는 벽화 명소로 알려지게 되었다.

맨체스터 출신 예술가인 노마드 클랜(Nomad Clan) 역시 2016년에 노스 스트리트(North Street)에서 열린 거리 미술제에 참가하여 벨파스트를 주제로 한 새로운 형식의 벽화를 제작했다(도 105).[312]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할랜드 앤 울프' 조선소의 동음이의어에서 착안한 이 벽화에는 선박과 조선소가 있는 바다를 배경으로 늑대와 한 여성이 서로 바라보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미술 작품은 작품이 그려진 공간을 이용하는 이들의 사상에 따라, 그리고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310) https://extramuralactivity.com/2013/07/13/the-duel/, 2020.12.29.
311) https://extramuralactivity.com/2014/10/03/son-of-protagoras/, 2020.11.9.
312) https://extramuralactivity.com/2017/10/07/harland-wolf/, 2020.12.29.

있다.[313] 위에 소개한 세 벽화는 북아일랜드의 역사와 지역의 상징을 주제로 제작되었지만 보는 이들의 관점과 생각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주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2010년대부터 확실히 북아일랜드 벽화에는 2000년대 초반까지 보였던 종파적 갈등과 정치적 사건에 기반한 사회 비판적 주제나 권력에 대한 저항의 의미가 드러나 있지 않다. 현재 가톨릭과 개신교의 접점 지역에 그려진 종파적 갈등을 드러내는 벽화는 벽화 관광을 위해 보존되거나 복원된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이것이 북아일랜드 사회에 종파적 갈등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성 금요일 협정 이후 서로 다른 민족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지난 갈등을 잊고 함께 살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깃발, 벽화, 행진과 같은 문화적 상징물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

예를 들어 2012년 12월 벨파스트 시의회가 시청에 유니언잭의 게양 일수를 연 18회(주로 왕립 기념일)로 제한하자 로열리스트 노동자 계층은 이를 개신교에 대한 불공정한 문화 탄압으로 보고 3개월간 비폭력 거리 시위를 벌였다. 2013년 7월에는 퍼레이드 위원회가 크럼린 로드 행진을 금지한 것에 항의하는 오렌지맨의 시위가 벌어졌고 그 시위는 8월까지 이어졌다.[314] 2010년대에 벌어진 시위는 대부분 비폭력적으로 조용히 진행되었다. 주로 개신교도들이 벌인 시위였다는 점에서 북아일랜드 분위기가 불과 한 세대 사이에 크게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북아일랜드 사회에 정치적·제도적 불합리가 이전보다 많이 감소한 후에 제작된 벽화는 특정 집단의 이념을 표명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세 점의 벽화에서 볼 수 있듯이 북아일랜드에서 최근에 새롭게 제작된 벽화는 과거의 종파적 갈등을 하나의 소재로 사용할 뿐이며 벽화 도시의 명성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결정은 북아일랜드가 영국과 결별하고 아일랜드 공화국과의 통일이 한층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315]

---

313) 김정희, 「미술속의 공간정치학: 도시설계도, 회화와 미술관 건물의 '공간표현'」,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제21집(2004), 서양미술사학회, p. 49.
314) O'Kane and Dixon(주 258), p. 30.

영국의 EU 탈퇴는 북아일랜드 정치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북아일랜드가 EU와 육지 경계가 되는 영국의 유일한 지역이 된다는 점에서 북아일랜드에서 브렉시트의 의미는 영국본토와 다르기 때문이다. 브렉시트 이후 진행된 협상에서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의 국경문제가 EU와 영국의 실질적인 무역협상에 큰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316] 그러나 영국 정부는 EU 단일시장을 떠나겠다는 결정을 확고히 했다. 영국은 2020년 1월 31일 유럽연합에서 정식으로 탈퇴했고, 12월 31일까지 이행기를 거친 후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을 탈퇴하기로 최종 합의가 마무리되었다.[317]

실제로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 사회에서 아일랜드 통일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있다. 1998년의 성 금요일 협정 이후에도 가톨릭 인구조차 35%만이 아일랜드 통일을 지지했는데, 이러한 분위기는 200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2016년 6월 이후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통일에 대한 북아일랜드 거주민들의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2017년 3월 아일랜드 통일에 대한 북아일랜드의 지지율은 50%였고 같은 해 12월의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60%로 증가했다. 통일에 대한 가톨릭 중산층과 개신교 연합주의자들의 거부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수치로 확인되었다.[318]

여기에는 경제적 요인도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아일랜드 공화국은 2001년 1인당 GDP 수치에서 처음 영국을 앞지른 이후 2017년에 7만 달러를 넘어섰고 2019년에 5위(77,742달러)를 차지하며 23위(44,177달러)인 영국을 크게 앞섰다. IMF는 각 국가의 2025년 1인당 GDP를 예

---

315) 데이빗 카메론(David Cameron) 영국 총리는 유로 지역 재정위기, 중동부 유럽국가들의 유럽연합(EU) 가입과 대규모 난민 유입에 대한 대응책으로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Brexit)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72.2% 투표율에서 51.9% 찬성과 48.1% 반대로 EU 탈퇴가 확정되었다. 55.8%가 브렉시트에 반대한 북아일랜드는 EU 탈퇴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316) Jarman(주 238), p. 111 and p. 126.

317) 다만 단일시장 관련 EU 법령 일부가 북아일랜드에 일정 기간 유지되며 차후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형준, 조동희, 「브렉시트 개시: 의미와 쟁점」, 『오늘의 세계경제』, 제20호(20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1-10.

318) John D. Brewer, “The Sociology of the Northern Irish Peace Process,” in Charles I Armstrong, David Herbert and Jan Erik Mustad, eds., *The Legacy of the Good Friday Agreement.* (Cham: Palgrave Macmillan, 2018), pp. 285-86.

측하면서 아일랜드 공화국이 112,518달러로 세계 2위, 영국이 48,734달러로 23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319] 브렉시트 이후 두 나라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따라서 아일랜드 국경문제를 포함한 경제적 관점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 공화국과의 통일을 선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북아일랜드를 둘러싼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볼 때 이제 북아일랜드 거주민들은 벽화의 의미를 트러블 시기와 같은 정치적 의미로 해석하지 않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공화주의 벽화에 그려진 피닉스(Phoenix)는 무장독립운동을 했던 공화주의자들의 부활을 상징하지만, 이제 가톨릭 민족주의자들은 이것을 영국에 대한 투쟁을 부추기는 이미지로 해석하지 않을 것이다(도 106). 피닉스는 1980년대 공화주의 벽화에 자주 등장했던 이미지로, 완전히 불에 타서 재가 된 곳에서 부활함으로써 "패배로 보이는 것으로부터의 승리"를 전하기 위해 페니언이 19세기 중반에 처음 사용했던 도안이다.[320] 하지만 현재의 피닉스에는 북아일랜드의 평화와 앞으로 있을 통일에 대한 기대감, 가톨릭 승리주의 의미가 더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검은 복면의 총잡이를 그린 벽화는 여전히 가장 번화한 동부 벨파스트 대로변의 한 벽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전과 달리 총구는 아래를 향하고 있다. "공격받으면 스스로 방어할 권리"라는 슬로건에서 알 수 있듯이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은 공격보다 방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도 101). 데이비드 허버트(David Herbert)는 2000년대 들어 북아일랜드 정부가 중산층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는 도심 재생과 도시 외곽 산업단지 성장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반면, 트러블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은 노동자 계층에게 가장 적은 혜택을 주었다고 보았다.[321] 미래가 없다고 느끼는 로열리스트들을 과거 로열리즘 이념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단절되고 고립된 커뮤니티를 개방시키는 북아일랜드 사회구조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19)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DPC@WEO/AZE 2020.12.26.
320) Hayes-McCoy(주 97), pp. 149-50.
321) David Herbert(주 10), p. 260.

벨파스트 동부 지역의 한 벽화에는 얼스터 개신교를 상징하는 푸른색 상의를 입은 소년과 가톨릭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초록색 상의를 입은 한 소녀가 할랜드 앤 울프 조선소 크레인을 배경으로 악수를 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벽화 가운데에는 <이제 그만 No More>이라는 시가 쓰여 있다. 개신교 노동자 출신인 짐 윌슨(Jim Wilson)이 제작한 이 벽화는 그의 손자를 벽화에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는 폭격과 살인을 멈추고 아이들에게 증오를 넘겨주지 말자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322] 이 벽화는 개신교 노동자 계층 로열리스트가 더 이상의 소모적인 분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벽화로 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1998년 성 금요일 협정 이후로도 계속되었던 폭력사태가 2005년 즈음에 실질적으로 종식되면서 북아일랜드 벽화의 제작 목적이 바뀌는 과정을 고찰해 보았다. 2004년부터 정부가 진행한 벽화 제거와 교체 프로젝트는 개신교도와 가톨릭교도의 관계 회복과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총을 든 무장괴한의 이미지를 제거하는 것이 개신교와 가톨릭 커뮤니티 사이의 종파적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새로운 벽화 제작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고 그 결과물들은 윌리엄 3세 이미지부터 지역 출신 유명인 등 진부한 주제가 반복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공공기관들이 벽화 주제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치적 관점이 벽화에 반영되거나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 여러 문제가 발견되었다.

IRA를 포함한 공화주의자에게는 개신교 연합당 지배 세력과 영국

---

322) 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No more bombing, no more murder/ No more killing of our sons/
No more standing at the grave side/ Having to bury our loved ones/
No more waking up every hour/ Hoping our children, they come home/
No more maimed or wounded people/ Who have suffered all alone/
No more minutes to leave a building/ No more fear of just parked cars/
No more looking over our shoulders/ No more killing in our bars/
No more hatred from our children/ No more. No more. No more!"
https://extramuralactivity.com/2016/05/18/no-more-again/ 2020.12.30.

정부에 대한 저항이나 통일을 위한 투쟁이라는 목적이 사라졌다. 대신 공화주의 벽화는 그동안 개신교 중심의 북아일랜드 사회에서 제대로 교육되지 않았던 가톨릭 민족 문화를 다룬 공공미술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북아일랜드에서 로열리스트 벽화는 개신교의 정통성 구축이라는 처음 그려질 당시의 목적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이제 그러한 벽화를 제작하고 재생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가톨릭교도로부터 영토를 지켜야 한다는 로열리스트 벽화의 제작 목적을 유지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것을 벽화의 주제로 삼는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한 세기 전에 노동자 계층의 문화로 시작된 북아일랜드 벽화 전통은 여전히 과거의 분쟁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 무엇보다 최근 새롭게 제작된 벽화들은 기념적 의미를 지닌 벽화가 과거의 도상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일랜드와 유럽 출신 벽화가들이 제작한 벽화들은 북아일랜드 벽화가 여러 방식으로 제작되고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가 될 것이다.

V. 결 론

지금까지 1908년부터 한 세기에 걸쳐 아일랜드 북부에 제작되어 온 벽화를 고찰해 보았다. 본 연구는 동시대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의견 표명을 위해 제작되었던 벽화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벽화의 사회적 역할과 변화 과정을 분석해 보았다.

본 논문은 북아일랜드 벽화를 국내에 처음 소개하는 연구로, 북아일랜드 벽화 이미지의 기원과 누가 왜 어떤 의미로 벽화를 그렸는지에 대해 정치·경제·사회적 층위를 고려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로열리스트 벽화와 공화주의 벽화가 지닌 역사적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영국의 아일랜드 침략과 이주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 역사와 연결된 벽화들의 정치적 의미를 고찰해 보았다. 또한, 벽화 주제와 형식의 변화 요인과 그 방향을 비교하고 한 세기 동안의 흐름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2021년은 앵글로-아이리시 조약이 체결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앵글로-아이리시 조약은 아일랜드 북부 얼스터의 6개 카운티가 영국에 통합되어 1922년에 북아일랜드가 건립되도록 결정한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의 합의였다. 또한, 영국은 2016년의 국민투표로 결정된 브렉시트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이행기를 마치고 2021년 1월 1일부터 EU를 완전히 떠났다. 북아일랜드가 EU와 육지 경계가 되는 영국 영토라는 점에서 국경문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브렉시트 실행을 늦추는 하나의 요인이었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현재, 영국뿐 아니라 서구사회는 앞으로 아일랜드 통일 가능성에 대해 이전보다 더 큰 관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 1998년의 성 금요일 협정에 따라 아일랜드 통일은 북아일랜드 거주민들과 아일랜드 공화국 거주민들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북아일랜드가 영국을 떠나 아일랜드 공화국의 일부가 될 경우, 그동안 영국 국적 아래서 거주민들의 삶에 묻혀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던 북아일랜드 벽화의 제작 배경과 의미가 재조명될 수 있을 것이다.

북아일랜드 벽화들의 도상적 의미를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08년에 등장한 로열리스트 벽화와 1969년에 시작된 공화주의 벽화 양편 모두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일관되게 개신교도들이 가톨릭교도들을 억압해 왔다는 사실을 표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08년에 로열리스트 벽화가 처음 제작된 이유는 아일랜드 자치법안이 재상정되기에 앞서 윌리엄 3세의 정통성을 계승한 얼스터 개신교도들에게 얼스터 영토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가톨릭교도들이 얼스터 영토에 대한 권리 주장을 못 하게 하기 위한 오렌지회의 전략이기도 했다. 이러한 개신교도들의 정치적 의도는 북아일랜드 건립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로열리스트 벽화는 아일랜드 북부 얼스터의 6개 카운티에 남겨진 가톨릭교도들을 북아일랜드 개신교 정부의 일당 지배 체제에서 소외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1969년 이전에 가톨릭교도들이 그린 벽화가 거의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가톨릭 차별 정책이 벽화와 같은 전시물에도 적용됐기 때문이다. 1969년 이전까지 북아일랜드에서 벽화는 철저히 개신교도들을 위한 문화였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1981년 IRA 수감자들의 단식투쟁 이후 로열리스트와 공화주의자 양편 모두 벽화를 통해 가톨릭교도들에 대한 제도적 차별과 탄압을 더 적극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가톨릭교도들이 공공 공간에 벽화를 그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1981년부터 급증한 공화주의 벽화는 북아일랜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톨릭교도들에 대한 탄압에 대한 증언이었다. 또한, 공화주의 벽화는 공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한 가톨릭 민족주의자들의 정치적 행보의 결과였다. 반면 1985년의 앵글로-아이리시 협정으로 인해 로열리스트 준군사조직들이 윌리엄 3세 도상 대신에 가톨릭교도들에게 총을 겨누는 장면을 그렸다는 사실은 과거 17세기부터 가톨릭 아일랜드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왔던 개신교 로열리스트들의 사고방식이 20세기까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한편 1998년 북아일랜드 분쟁 종식이 공식적으로 선언되고 실질적인

유혈사태가 거의 사라진 2000년대 중반 이후, 북아일랜드 자치정부는 개신교도와 가톨릭교도 사이의 화합을 주제로 벽화 교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러나 개신교 우월주의적 관점은 정부에 의해 제작된 벽화에서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북아일랜드가 영국에 소속되어 있는 한 얼스터 역사의 일부라는 이름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1980년대 공화주의 벽화는 북아일랜드 내부의 종파 간 분쟁과 별개로, 북아일랜드에서 활동한 IRA와 남쪽의 아일랜드 공화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아일랜드 자유국(1922-1949)을 거쳐 1949년에 영국에서 완전히 독립한 아일랜드 공화국은 아일랜드 독립전쟁(1919-1921) 승리의 주역인 IRA에 우호적일 수 없었다. 1921년 아일랜드 분할에 반대했던 조약반대파 IRA는 아일랜드 내전(1922-1923) 이후 숙청을 당했고, 1950년대 북아일랜드에서 재개된 IRA의 무장활동 역시 아일랜드 공화국의 견제를 받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1969년부터 공화주의 벽화를 그린 임시파 IRA 역시 아일랜드 공화국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영국의 강력한 치안 정책 아래 폭력조직이라는 이미지가 더욱 부각되었다. 이것은 북아일랜드 가톨릭 민족주의자들이 트러블 초기인 1970년대에 IRA를 지지하거나 IRA 활동에 동참하는 것을 막았던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981년 IRA 수감자들의 단식투쟁은 아일랜드 공화국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IRA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공화주의 벽화에는 아일랜드의 통일을 염원하는 IRA 시위자들의 초상화가 그려졌고 그들의 글이 적혔다. 이 과정에서 공화주의 벽화는 북아일랜드 가톨릭교도들이 결속하고 아일랜드 공화국이 트러블의 종식을 위해 영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가톨릭 아일랜드인들 사이의 갈등도 포함하고 있는 공화주의 벽화는 단순히 영국 정부와 개신교 연합주의자들의 탄압에 대한 저항 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분열된 가톨릭 아일랜드 민족의 화합에 대한 희망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로열리스트 벽화는 한 세기 이상 계속되어 온 얼스터 개신교

도들과 영국 정부와의 긴장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북아일랜드 개신교도들은 '영국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영국시민권을 지키고 싶어 하는 이들이지만, 영국 정치계와 개신교 연합주의자들의 관계는 이해관계에 따라 항상 전복될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특히 아일랜드 자치법안 상정 문제는 19세기 말부터 개신교 연합주의자들이 영국 정부에 대항하여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강한 반발을 일으켰다. 1973년의 서닝데일 협정에 반대했던 로열리스트들의 총파업이나 1985년의 앵글로-아이리시 협정 이후 연합주의자들의 강경 대응 역시 동일한 역사적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85년 즈음 등장한 군국주의적 도상은 연합주의자들 내부에 존재했던 반동 문화의 발현으로 볼 수 있고 영국 정부와 얼스터 개신교도 사이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본 논문은 북아일랜드 벽화가 영국과 아일랜드의 대결 구도로만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경제적 층위 안에서 벽화의 의미를 세분해서 봐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개신교 노동자 계층과 가톨릭 노동자 계층이 시작한 북아일랜드 벽화는 현재 북아일랜드에서 하나의 대중적 문화로 소개되고 있다. 무엇보다 1980년대부터 개신교 패배주의 문화와 가톨릭 저항 문화가 벽화로 경쟁적으로 그려진 데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 북아일랜드 자치정부가 벽화를 후원했다는 점에서 벽화는 북아일랜드만의 독특한 문화가 되었다. 또한, 정부뿐 아니라 거리 미술 축제나 문화단체들이 새로운 벽화 제작에 계속 참여하면서 벽화의 대중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북아일랜드 벽화는 분쟁을 소재로 한 문화상품화라는 측면에서 비판의 시각도 있지만, 북아일랜드 분쟁을 해외에 알리는 하나의 창구가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

그러나 관광 상품화로 이용되는 지역과 몇몇 노동자 계층 지역을 제외하고 벽화는 재개발이나 지역 재생 과정에서 제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브렉시트 이후 아일랜드 통일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로열리즘 이념과 공화주의 이념 논쟁이 과거 분쟁의 유산이 된 현재, 몇몇 벽화 교체 프로젝트들의 결과물과 새로운 벽화 동향은 2000년대 초까지의

벽화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벽화의 지속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아일랜드 벽화는 아일랜드 통일이 이루어지는 가까운 미래에 통일로 인해 파생되는 새로운 문제를 다루며 또 다른 변화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벽화를 트러블의 유산으로 여기며 기념관에 보존하고, 벽화를 대체할 새로운 비판 문화를 생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든 20세기 북아일랜드 지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민심이 표현된 북아일랜드 벽화는 역사적으로 그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주로 영국과 북미에서 진행된 북아일랜드 벽화에 관한 연구는 미술 관련 분야보다 사회학이나 정치학, 인류학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졌고, 벽화연구가 가톨릭 민족주의보다 개신교 연합주의 측면에 치우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남쪽의 아일랜드 국가와 분리되어 영국 국가의 일부로 한 세기를 보낸 북아일랜드의 정치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본 연구자는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이 통일되는 가까운 미래에, 현재까지 북아일랜드에서 진행되어 온 벽화에 관한 연구가 재조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향후 북아일랜드 벽화연구는 아일랜드 국가 아래서 이전에 다루어지지 않은 측면들이나 주장들을 논의할 기회가 더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논문, 도록

김정희, 『문명화, 문화주의, 기업문화: 영국 정부의 예술 정책』,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 「복원된 청계천과 그 후 - 계몽주의적 프로젝트의 포스트모던적 실현」, 『현대미술학논문집』, 제12집(2008), pp. 181-226.

----, 「미술 속의 공간정치학: 도시설계도, 회화와 미술관 건물의 '공간 표현'」,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제21집(2004), 서양미술사학회, pp. 49-59.

----, 「포스터속의 레닌이미지에 나타난 레닌과 스탈린 시대 권력의 도상학」,『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제15집(2001), 서양미술사학회, pp. 77-109.

김지연, 「필라델리아 벽화 프로젝트」,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4.

박지향, 『클래식 영국사』, 김영사, 2012.

----, 『슬픈 아일랜드』, 기파랑, 2008.

박흥식, 「헨리 8세의 개혁과 수도원 해산」, 『역사학보』, 제214집(2012), 역사학회, pp. 271-94.

신혜수, 「북아일랜드, 길고도 멀었던 대립과 갈등」, 『역사비평』, 제43호(1998), 역사비평사, pp. 370-79.

윤형준, 조동희, 「브렉시트 개시: 의미와 쟁점」, 『오늘의 세계경제』, 제20호(20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1-10.

이성형, 「멕시코 벽화운동의 정치적 의미: 리베라, 오로스코, 시케이로스의 비교분석」,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2호(2002),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pp. 103-22.

케네스 오 모간(Kenneth O.Morgan) 외,『옥스퍼드 영국사 The Oxford History of Britain』(1993), 영국사연구회 옮김(한울 아카데미, 1997).

Adorno, Theodor W. and Bernstein, J.M., *The Culture Industry:*

Selected Essays on Mass Culture, Edited and with an Introduction by J.M. Bernstein, 2001.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ies: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Verso, 1983.

Arthur, Paul, and Jeffery, Keith, *Northern Ireland since 1968*, USA: Blackwell Publishers Ltd, 1988, Second edition 1996.

Aughey, Arthur, "Recent interpretations of unionism", *Political Quarterly* 61:2(1990), pp. 188-99.

Benjamin, Bret, "Dirty Politics and Dirty Protest: Resistance and the Trope of Sanitation in Northern Ireland," *Literature Interpretation Theory*, 10:1(1999), pp. 63-89.

Boyd, Stephen W., "Post-conflict tourism development in Northern Ireland: Moving beyond murals and dark sites associated with its past," in Rami K. Isaac, Erdinç Çakmak and Richard Butler, eds., *Tourism and Hospitality in Conflict-Ridden Destinations*, London: Routledge, 2019, pp. 226-39.

----, "Heritage as the USP for Tourism in Northern Ireland: Attraction Mix, Effective Storytelling and Selling of a Dark Past," in Glenn Hooper ed., *Heritage and Tourism in Britain and Ireland*,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6, pp. 245-61.

Brewer, John D., "The Sociology of the Northern Irish Peace Process," in Charles I Armstrong, David Herbert and Jan Erik Mustad, eds., *The Legacy of the Good Friday Agreement.* Cham: Palgrave Macmillan, 2018, pp. 271-89.

Bruce, Steve, *The Red Hand: Protestant Paramilitaries in Northern Irel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Carden, Siun, "The Gaeltacht Quarter of Mural City Irish in Falls Road murals", in Jonathan Skinner and Lee Jolliffe, eds., *Murals and Tourism: Heritage, Politics and Identity,* New York: Routledge, 2017, pp. 236-51.

Connell, K.H., “The Population of Ireland in the Eighteenth Century,” *The Economic History Review*, 16:2(1946), pp. 111-24.

Coulter, Colin, “The character of unionism”, *Irish Political Studies*, 9:1(1994), pp. 1-24.

Craith, Mairead Nic, *Plaural Identities-Sigular Narratives: The Case of Northern Ireland*, New York: Berghanhn Books, 2002.

Cronin, Sean, *Irish Nationalism: A History of Its Roots and Ideology*, Dublin: The Academy Press, 1980.

Dixon, Paul, “Tony Blair’s Honourable Deception: In Defence of the ‘Dirty’ Politics of the Northern Ireland Peace Process,” in Charles I Armstrong, David Herbert and Jan Erik Mustad, eds., *The Legacy of the Good Friday Agreement,* Cham: Palgrave Macmillan, 2018, pp. 37-55.

Doyle, Mark, *Fighting like the Devil for the Sake of God: Protestants, Catholics and the Origins of Violence in Victorian Belfast*, Manchester: Palgrave Macmillan, 2009.

Engel, Caroline, “the Murals of Belfast: Politics and Conservation”, MA Thesis, University of Edinburgh, 2011.

Finlay, Andrew, “Defeatism and Northern Protestant ‘Identity’,” *The Global Review of Ethnopolitics*, 1:2(December 2001), pp. 3-20.

Fitzpatrick, Jim, *The Book of Conquests*, Surrey: Paper Tiger, 1978.

----, *The Silver Arm*, Dublin: Butler Sims, 1983.

Foster, R.F., *Modern Ireland, 1600-1972*, London: Penguin, 1988.

Gibbon, Peter, *The origins of Ulster Unionism: the formation of popular protestant politics and ideology in nineteenth-century Ireland*,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75.

Goalwin, Gregory, “The Art of War: Instability, Insecurity, and Ideological Imagery in Northern Ireland’s Political Murals, 1979 - 1998,”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tics, culture, and society*,

26:3(2013), pp. 189-215.

Greenwood, C.J. *International Law Repor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Hartnett, Alexandra, "Aestheticized Geographies of Conflict: The Politicization of Culture and the Culture of Politics in Belfast's Mural Tradition," in Helaine Silverman, ed., *Contested Cultural Heritage: Religion, Nationalism, Erasure, and Exclusion in a Global World*. New York, NY: Springer New York, 2010, p. 69-103.

Hayes-McCoy, G.A., *A History of Irish Flags from Earliest Times*, Dublin: Academy Press, 1979.

Herbert, David, "Legacies of 1998: What Kind of Social Peace Has Developed in Norther Ireland? Social Attitudes, Inequalities, and Territorialities," in Charles I Armstrong, David Herbert and Jan Erik Mustad, eds., *The Legacy of the Good Friday Agreement,* Cham: Palgrave Macmillan, 2018, p. 249-70.

Herbert, Trevor, "Brass and Military Bands in Britain - Performance Domains, the Factors that Construct them and their Influence," in Suzel Ana Reily and Katherine Brucher, eds., *Brass Bands of the World: Militarism, Colonial Legacies, and Local Music Making*, New York : Routledge, 2013, pp. 33-53.

Hill, Andrew, and White, Andrew, "Painting Peace? Murals and the Northern Ireland Peace Process", *Irish Political Studies*, 27:1(2012), pp. 71-88.

Jarman, Neil, "A bitter Peace: Flag Protests, the Politics of No and Culture Wars," in Charles I Armstrong, David Herbert and Jan Erik Mustad, eds., *The Legacy of the Good Friday Agreement.* Cham: Palgrave Macmillan, 2018, p. 109-32.

----, "Painting Landscapes: The Place of Murals in the Symbolic Construction of Urban Space", (1997), in Michael E. Geisler, ed.,

National Symbols, Fractured Identities, New England: Middlebury College Press, 2005, p. 172-91.

----, "The Orange Arch: Creating Tradition in Ulster," *Folklore*, 112:1(Aprch 2001), pp. 1-21.

----, "Troubled Images." *Critique of Anthropology* 12:2(1992), pp. 145-65.

Kennedy-Pipe, Caroline, *The Origins of the Present Troubles in Northern Ireland*, London and New York: Addison Wesley Longman, 1997.

Lees, Loretta, and Melhuish, Clare, "Arts-led regeneration in the UK: The rhetoric and the evidence on urban social inclusion,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22:3(2015), pp. 242-60.

Limpkin, Clive, *The Battle of Bogside*, Derry: Guildhall Press, 1972.

Loftus, Belinda, "Wall-Painting in Northern Ireland: An Occasion for Celebration?", Belfast: Unpublished paper, 1980.

Loomba, Ania, *Colonialism/ Postcolonialism*, London: Penguin, 1988.

McBride, Ian, *History and Memory in Modern Ire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McCormick, Jonathan and Jarman, Neil, "Death of a mural", *Journal of Material Culture*, 10:1(2005), pp. 49-71.

Meehan, Bernard, *The Book of Kells: an illustrated introduction to the manuscript in Trinity College Dublin*, London: Thames&Hudson, 1994.

Miller, David W., *Queen's Rebels: Ulster Loyalism in Historical Perspective*, Dublin: Gill and Macmillan, 1978.

Mitchell, Claire, "Behind the ethnic marker: Religion and social identification in Northern Ireland. *Sociology of Religion,* 66:1(2005), pp. 3-21.

O'Kane, Eamonn and Dixon, Paul, "The Northern Irish Peace Process:

Political Issues and Controversies," in Charles I Armstrong, David Herbert and Jan Erik Mustad, eds., *The Legacy of the Good Friday Agreement,* Cham: Palgrave Macmillan, 2018, pp. 15-33.

Radford, Katy, "Extra-mural activities and trauma tourism: Public and community sector re-imaging of street art in Belfast", in Jonathan Skinner and Lee Jolliffe, eds., *Murals and Tourism: Heritage, Politics and Identity,* New York: Routledge, 2017, pp. 254-70.

Ramsey, Gordon, "Playing Away: Liminality, Flow and Communitas in an Ulster Flute Band's Visit to a Scottish Orange Parade," in Suzel Ana Reily and Katherine Brucher, eds., *Brass Bands of the World: Militarism, Colonial Legacies, and Local Music Making*, NY: Taylor & Francis Group, 2013, p. 177-98.

Rapp, Maximilian, and Rhomberg, Markus, "Seeking a Neutral Identity in Northern Ireland's Political Wall Paintings," *Peace Review: A Journal of Social Justice*, 24(2012), pp. 470-77.

Rolston, Bill, *Drawing Support 4: Murals and Conflict Transformation in the North of Ireland*, Belfast: Beyond the Pale Publications, 2013.

----, "Re-imaging: Mural painting and the state in Northern Ire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Studies*, 15:5(2012), pp. 447-66.

----, *Drawing Support 3: Murals and Transition in the North of Ireland*, Belfast, Dublin: Beyond the Pale Publications, 2003.

----, *Drawing Support 2: Murals of War and Peace,* Belfast: Beyond the Pale Publications, 1995.

----, Drawing Support: Murals in the North of Ireland, Belfast: Beyond the Pale Publications, 1992.

----, *Politics and Painting: Murals and Conflict in Northern Ireland*, Cranbury, NJ: Associated University Press, 1991.

----, "Politics, Painting and Popular Culture: The Political Wall

Murals of Northern Ireland," *Media, Culture & Society,* 9:1(1987), pp. 5-28.

Saleeby-Mulligan, Deborah, "Painting the Irish Conflict: The Belfast Murals of Gerard Mo Chara Kelly", Ph. D. Dissertation,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2006.

Scull, Margaret M., "The Catholic Church and the Hunger Strikes of Terence MacSwiney and Bobby Sands." *Irish Political Studies*, 31: 2(2016), pp. 282-99.

Silverman, Helaine, ed. *Contested Cultural Heritage: Religion, Nationalism, Erasure, and Exclusion in a Global World.* NY: Springer New York, 2010.

Simone-Charteris, Maria T., "State intervention in re-imaging Northern Ireland's political murals: Implications for tourism and the communities", in Jonathan Skinner and Lee Jolliffe, eds., *Murals and Tourism: Heritage, Politics and Identity*, New York: Routledge, 2017, pp. 217-32.

Skinner, Jonathan and Jolliffe, Lee, "'Wall-to-wall coverage': An introduction to murals tourism", in Jonathan Skinner and Lee Jolliffe, eds., *Murals and Tourism: Heritage, Politics and Identity,* New York: Routledge, 2017, pp. 3-24.

Sluka, Jeffrey A., "The Politics of Painting: Political Murals in Northern Ireland," in Carolyn Nordstrom and JoAnn Martin, eds., *The Paths to Domination, Resistance, and Terro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 pp. 190-216.

Todd, Jeniffer, "Two traditions in unionist political culture", *Irish Political Studies*, 2:1(1987), pp. 1-26.

----, "Northern Irish nationalist political culture", *Irish Political Studies*, 5:1(1990), pp. 31-44.

Wallace, Martin, *Northern Ireland: 50 Years of Self-Government*,

Newton Abbot: David & Charles, 1971.
Woods, Oona, *Seeing is Believing: Murals in Derry*, Derry: Guildhall Press, 1995.
Wright, Frank, "Protestant ideology and politics in Ulster". *European Journal of Sociology.* 14:2(1973), pp. 212-80.

웹사이트 자료

Alphahistory, "Cameron Report on unrest in Northern Ireland (1969)". https://alphahistory.com/northernireland/cameron-report-unrest-northern-ireland-1969/, 2020.5.18.
An Phoblacht, "Remembering 1981 - After the funeral of Bobby Sands", 9 May 2016. https://www.anphoblacht.com/contents/25988, 2020.7.27.
BBC, "The Downing Street Declaration (1993): key terms". https://www.bbc.co.uk/bitesize/guides/zdb48mn/revision/3, 2020.7.12.
BFI Player, "The Agony of Belfast", https://player.bfi.org.uk/free/film/watch-the-agony-of-belfast-1920-online?play-film, 2020.12.18.
Burnhill, Eleanor, "Weeds and wild flowers: political tourism in Belfast," *Edinburgh Review,* 8 May 2007, p. 5. https://www.eurozine.com/weeds-and-wild-flowers/, 2020.10.28.
Cain, "Sutton Index of Deaths". http://cain.ulst.ac.uk/sutton/, 2020.9.17.
Cain, "the Bogside Artists". https://cain.ulster.ac.uk/bogsideartists/menu.htm, 2020.10.7.
Cain, "List of People Killed by 'Rubber' and 'Plastic' Bullets". https://cain.ulster.ac.uk/issues/violence/rubberplasticbullet.htm,

2020.10.16.
Cain, “Examples of Nationalist Posters”. https://cain.ulster.ac.uk/images/posters/nationalist/index.html 2020.12.20.
Cain, “Flags Used in Northern Ireland”. https://cain.ulster.ac.uk/images/symbols/flags.htm 2020.12.20.
Extramural Activity, “The People’s Gallery”. https://extramuralactivity.com/the-peoples-gallery/, 2020.10.7.
Extramural Activity, “Cromwell”. https://extramuralactivity.com/2004/07/27/cromwell/, 2020.10.30.
Extramural Activity, “The Silent Unseen”. https://extramuralactivity.com/2016/05/03/the-silent-unseen/, 2020.11.9.
Extramural Activity, “Son of Protagoras”. https://extramuralactivity.com/2014/10/03/son-of-protagoras/, 2020.11.9.
Extramural Activity, “The Duel”. https://extramuralactivity.com/2013/07/13/the-duel/, 2020.12.29.
Extramural Activity, “Harland and Wolf”. https://extramuralactivity.com/2017/10/07/harland-wolf/, 2020.12.29.
Extramural Activity, “No More, Again”. https://extramuralactivity.com/2016/05/18/no-more-again/, 2020.12.30.
Fitschen, Steve, “Defending ‘In God We Trust’”, *National Legal Foundation*, 11 February 2018. https://nationallegalfoundation.org/briefings/defending-in-god-we-trust/ 2020.12.18.
Housing Executive, “Community Cohesion Strategy 2015-2020”. https://www.nihe.gov.uk/Documents/Community-Cohesion-Strategy-2015-2020/Community-Cohesion-Strategy-2015-2020.aspx, 2020.11.2.

International Monetary Fund, “GDP per capita, current prices”.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DPC@WEO/AZE 2020.12.26.

Jeffery, Simon, “Violence at Holy Cross school”, 4 September 2001.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01/sep/04/qanda.schools, 2020.10.16.

McKenna, Fionnuala, “Violence and Civil Disturbances in Northern Ireland in 1969: Report of Tribunal of Inquiry”. https://cain.ulster.ac.uk/hmso/scarman.htm, 2020.6.10.

Melaugh, Martin, “The Hunger Strike of 1981-A Chronology of Main Events”. https://cain.ulster.ac.uk/events/hstrike/chronology.htm, 2020.7.27.

Melaugh, Martin, Lynn, Brendan, and McKenna, Fionnuala, “Religion in Northern Ireland”. https://cain.ulster.ac.uk/ni/religion.htm, 2020.9.17.

National Museum of African American History & Culture, “The Littel Rock Nine”. https://nmaahc.si.edu/blog-post/little-rock-nine, 2020.10.16.

National Museum of Ireland, “'The Limerick Piper' Pádraig O'Briain”. https://www.ouririshheritage.org/content/knowyour5k/the-limerick-piper-padraig-obriain-born-in-labasheeda-co-clare-1773, 2020.10.8.

Northern Ireland Office, “Report of the Independent Commission on Policing for Northern Ireland”, August 2001. https://cain.ulster.ac.uk/issues/police/patten/patten2001.pdf, 2020.10.16.

Parsons, Michael, “Social media’ in 19th century Ireland”, 2015. https://www.irishtimes.com/life-and-style/homes-and-property/fine-art-antiques/social-media-in-19th-century-ireland-1.2085305, 2020.3.19.

Peter Moloney Collection, “Visual History 04 - Paramilitary Murals

(1981-1982)”.
https://petermoloneycollection.wordpress.com/visual-history-4-paramilitary-murals-1981-1982/, 2020.6.14.
Peter Moloney Collection, “Visual History 02 - The Catholic Insurgency”.
https://petermoloneycollection.wordpress.com/visual-history-2-the-catholic-insurgency/ 2020.6.16.
Peter Moloney Collection, “O’Casey Break Thatcher’s Back”,
https://petermoloneycollection.wordpress.com/1981/03/30/ocaseybreak-thatchers-back/, 2020.7.27.
Peter Moloney Collection, “Visual History 03 - The Prison Protests (1981)”.
https://petermoloneycollection.wordpress.com/visual-history-3-the-prison-protests-1981/. 2020.7.27.
Peter Moloney Collection, “Visual History 05 - 1983-1987”.
https://petermoloneycollection.wordpress.com/visual-history-5-1983-1987/, 2020.8.15.
Peter Moloney Collection, “Sasanach Amach”.
https://petermoloneycollection.wordpress.com/1981/03/13/sasanach-amach/, 2020.8.17.
Peter Moloney Collection, “Plastic Death”.
https://petermoloneycollection.wordpress.com/1981/03/08/plastic-death/, 2020.8.19.
Peter Moloney Collection, “The Alan Skillen Murals”.
https://petermoloneycollection.wordpress.com/the-alan-skillen-murals/, 2020.8.19.
Peter Moloney Collection, “‘Hawks’ & Doves”.
https://petermoloneycollection.wordpress.com/hawks-doves/, 2020.9.29.

Peter Moloney Collection, “George Washington”. https://petermoloneycollection.wordpress.com/2003/02/28/george-washington/, 2020.10.13.

Peter Moloney Collection, “Visual history 1- the Protestant Ascendancy”. https://petermoloneycollection.wordpress.com/visual-history-1-the-protestant-ascendancy/ 2020.12.18.

Peter Moloney Collection, “The Landing Of William III At Carrickfergus June 1690”. https://petermoloneycollection.wordpress.com/1975/01/03/the-landing-of-william-iii-at-carrickfergus-june-1690/ 2020.12.18.

Peter Moloney Collection, “Ulster’s Solemn League and Covenant”. https://petermoloneycollection.wordpress.com/2005/01/16/ulsters-solemn-league-and-covenant/ 2020.12.18.

Peter Moloney Collection, “The Red Hand of Ulster”. https://petermoloneycollection.wordpress.com/2007/08/31/the-red-hand-of-ulster/, 2020.12.21.

Peter Moloney Collection, “A Traitor and a Murderess”. https://petermoloneycollection.wordpress.com/1989/02/09/a-traitor-and-a-murderess/, 2020.12.23.

Peter Moloney Collection, “Beidh Ár Lá Linn”. https://petermoloneycollection.wordpress.com/1989/04/11/beidh-ar-la-linn/, 2020.12.24.

Politico, “NATO begins bombing Serbia, 24 March 1999”, 24 March 2019. https://www.politico.com/story/2019/03/24/this-day-in-politics-march-24-1231269, 2020.10.16.

Ragged University, “Educational History: The Hedge Schools of Ireland”.

https://www.raggeduniversity.co.uk/2017/01/02/educational-history-the-hedge-schools-of-ireland/, 2020.10.8.

Ritchie, Daniel, "review of *Ulster Liberalism, 1778-1876: the Middle Path*", (review no. 1145), 2011. https://reviews.history.ac.uk/review/1145, 2020.4.2.

The Newsroom, "Great Unionist Convention of 1892 showed Ulster's resolve to remain in UK", *News Letter*, 18 July 2017. https://www.newsletter.co.uk/news/great-unionist-convention-1892-showed-ulsters-resolve-remain-uk-1107799, 2020.4.4.

"The Poster Workshop". http://www.posterworkshop.co.uk/aboutus.html 2020.12.21.

Troubles Archives, Arts Councils of Northern Ireland, http://www.troublesarchive.com/artforms/visual-art/, 2020.12.30.

Ulster-Scots Agency, https://www.ulsterscotsagency.com/, 2020.10.13.

Ulster University, "The CAIN(Conflict Archive on the INternet)", https://cain.ulster.ac.uk/index.html, 2020.12.30.

UK Government, "The Belfast Agreement", 10 April 1998.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36652/agreement.pdf, 2020.11.27.

Vigilantism, "Ideologies Of Vigilante Groups". https://law.jrank.org/pages/2287/Vigilantism-Ideologies-vigilante-groups.html, 2020.7.22.

도판

[도판 1] 아일랜드(Ire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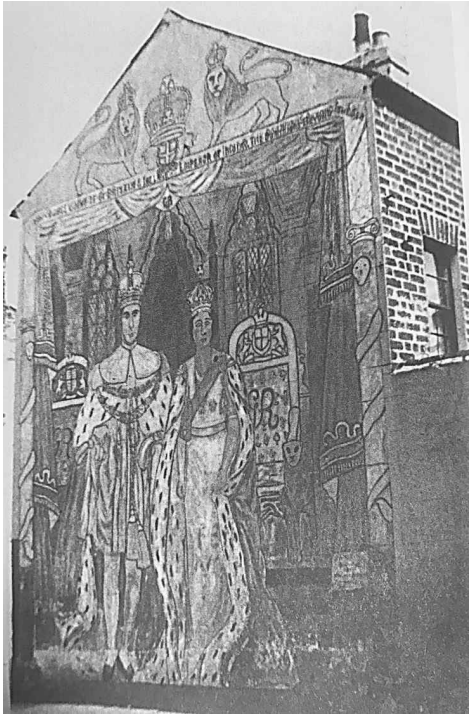
[도판 2] 오렌지회 행진 (Orange Order Parade)

[도판 3] 작가미상, <빌리 왕 King Billy>, 1908, 헨리빌 스트리트(Henryville Street), 벨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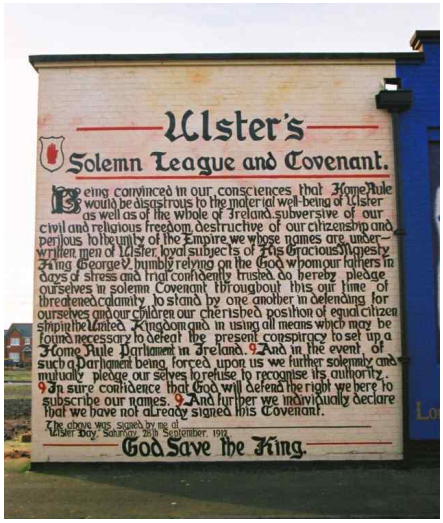
[도판 4] 작가미상, <보인 전투에서의 윌리엄 3세 William III at the Battle of the Boyne>, 1920s, 헨리 스트리트(Henley Street), 벨파스트.

[도판 5] 벤자민 웨스트(Benjamin West), <보인 전투에서의 윌리엄 3세 William III at the Battle of the Boyne>, 1778, 마운트 스튜어트.

[도판 6] 바비 잭슨(Bobby Jackson), <1690년 6월 키릭퍼거스에 도착한 윌리엄 3세 The Landing of William Ⅲ at Carrickfergus June 1690>,1916, 클라렌스 플레이스(Clarence Place), 데리.



[도판 7] 작가미상, <조지 6세와 엘리자베스 왕비의 대관식 Coronation of King George Ⅵ and Elizabeth>, 1937, 리틀 쉽 스트리트(Little Ship Street), 벨파스트.



[도판 8] 작가미상, 동벨파스트 역사와 문화 협회(the East Belfast Historical and Cultural Society), <얼스터의 엄숙동맹규약 Ulster's Solemn League and Covenant>, 2005, 쏜다이크 스트리트(Thorndyke Street), 벨파스트.

[도판 9] 바비 잭슨 주니어(Bobby Jackson Jr.), <보인 전투에서의 윌리엄 3세 William Ⅲ at the Battle of the Boyne>,
오른쪽 <데리 구출 the Relief of Derry>, 1982. 파운튼(Fountain), 데리.

[도판 10] <항복하지 말자 No Surrender>, 1970, 호프웰 스트리트(Hopewell Street), 벨파스트.

[도판 11] <당신은 지금 자유로운 데리로 들어가고 있다 You are now entering Free Derry>, 1971 촬영, 보그사이드(Bogside), 데리

[도판 12] <당신은 지금 자유로운 데리로 들어가고 있다 You are now entering Free Derry>, 2019 촬영, 데리.

[도판 13] 평화의 벽(Peace Wall), 2019 촬영, 벨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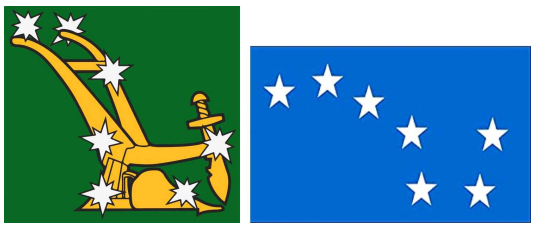
[도판 14] 민중의 민주주의(People's Democracy) 포스터, 1969.

[도판 15] <IRA>, 1969.

[도판 16] <자유를 위한 임시파 IRA 대원들 Provisionals For Freedom>, 1972, 브랜디웰(Brandywell), 데리.

[도판 17] <영국특수부대 살인자들 SAS Murderers>, 1972, 그로스베너 로드(Grosvenor Road), 벨파스트.

[도판 18] 작가미상, <제임스 코놀리 James Connolly>, 1972, 페어필드 스트리트(Fairfield Street), 벨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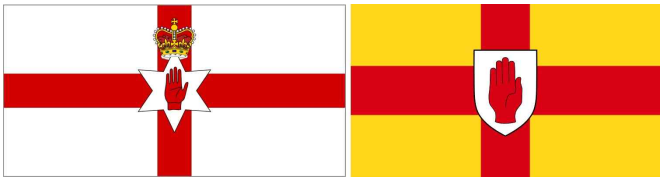


[도판 19] 왼쪽: 1914년의 아일랜드 시민군(Irish Citizen Army) 깃발, 오른쪽: 1934년 수정된 깃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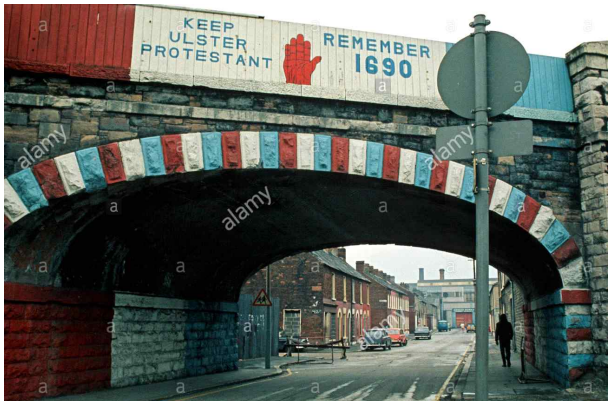
[도판 20] 다우니 형제(Dowie Brothers), <윌리엄 3세 King William>, 1968, 얼 른 스트리트(Earl Ln Street), 벨파스트.

[도판 21] 작가미상, <믿음, 희망과 관용 Faith, Hope and Charity>, 1969, 란(Larne).

[도판 22] 작가미상, <신과 얼스터를 위해 For God and Ulster>, 1972, 벨파스트.



[도판 23] 왼쪽: 북아일랜드(얼스터 6개 카운티) 국기(1953-1973), 오른쪽: 14세기 얼스터 지방의 깃발.



[도판 24] 작가미상, <얼스터 개신교도를 방어하라 Keep Ulster Protestant>, 1972, 메멜 스트리트(Memel Street), 벨파스트.

[도판 25] UVF, UDA, YCV 및 UFF 엠블렘

[도판 26] 작가미상, <얼스터의 붉은 손 the Red Hand of Ulster>, 2007, 본드 플레이스(Bond Place), 데리.

[도판 27] 브렌단 엘리스(Brendan Ellis)와 제라딘 조단(Geraldine Jordan), <정글 장면 Jungle scene>, 1977, 스프링힐 애비뉴(Springhill Avenue), 벨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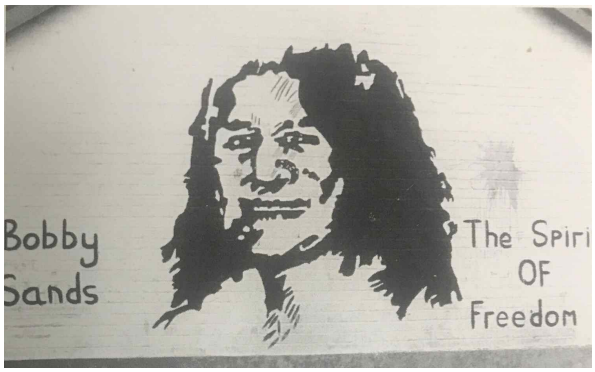
[도판 28] 레이 맥크로우(Ray McCullough)와 어니 프란시스(Ernie Francis), <지역 어린이들 Local youngsters>, 1977, 디스라엘리 스트리트(Disraeli Street), 벨파스트.

[도판 29] 데렉 세이모(derek Seymour)와 테리 머피(Terry Murphy)<권투선수들 Boxers>, 1978, 하이 필드(High Field), 벨파스트.

[도판 30] 존 카슨(John Carson)과 마우린 다비스(Maureen Davis), <용접공들 Welders>, 1978, 에인스워스 애비뉴(Ainsworth Avenue), 벨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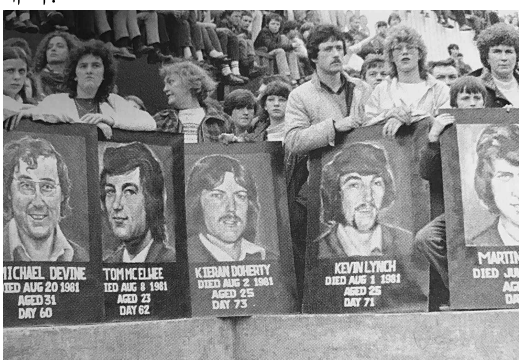
[도판 31] 레슬리 니콜(Leslie Nicholl)과 론다 브라운(Rhonda Brown), <스파이더맨 Spiderman>, 1979, 로드 스트리트(Lord Street), 벨파스트.

[도판 32] 작가미상, <헐링과 게일 축구를 하는 남성들 Men playing hurling and Gaelic football>, 1988, 어퍼 메도우 스트리트(Upper Meadow Street), 벨파스트.



[도판 33] 작가미상, <바비 샌즈 Bobby Sands>, 1981, 크레간 하이츠(Creggan Hights), 데리.

[도판 34] 바비 샌즈 (Bobby Sands), BBC(1981)



[도판 35] 단식투쟁 시위자들의 포스터를 든 시위대의 모습, 1981.

[도판 36] 작가미상, <바비 샌즈 Bobby Sands>, 1981, 쇼우스 로드(Shaws Road), 벨파스트.

[도판 37] 작가미상, <자유의 정신 Spirit Of Freedom>, 1981, 웨스트랜드 스트리트(Westland Street), 데리.

[도판 38] 제라드 켈리(Gerard Kelly), <바비 샌즈 Bobby Sands>, 1989, 세바스타폴 스트리트(Sebastapol Street), 벨파스트

[도판 39] 작가미상, <정의를 갈망하는 자들은 복되다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for justice>, 1981, 록마운트 스트리트(Rockmount Street), 벨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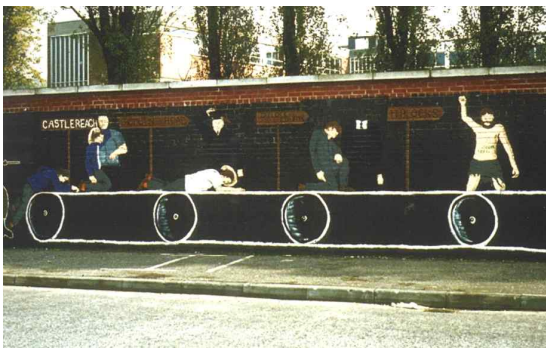
[도판 40] 작가미상, <정의를 갈망하는 자들은 복되다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for justice>, 1981, 화이트록 로드(Whiterock Road), 벨파스트.

[도판 41] <다섯 가지 요구 Five Demands>, 1981, 화이트록 로드(Whiterock Road), 벨파스트.

[도판 42] 작가미상, <대처의 등을 쳐라 Break Thatcher's Back>, 1981, 록모어 로드(Rockmore Road), 벨파스트.

[도판 43] 작가미상, <탄압과 저항 Repression and Resistance>, 1984, 모이라 스트리트(Moira Street), 벨파스트.

[도판 44] 왼쪽: 작가미상, <IRA에게 승리를 Victory [to the] IRA>, 1981, 쇼 로드(Shaw Road), 벨파스트. 오른쪽: 1974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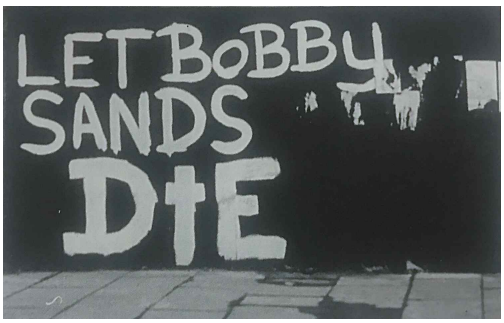


[도판 45] 작가미상, <정의의 컨베이어 벨트 Conveyor belt of justice>, 1981, 비치마운트 애비뉴(Beechmount Avenue), 벨파스트.

[도판 46] 작가미상, <정의의 컨베이어 벨트 Conveyor belt of justice>, 1981, 크레간(Creggan), 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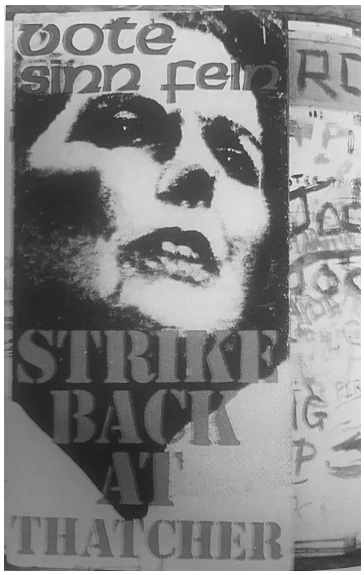
[도판 47] 왼쪽: 작가미상, <영국인 철수 Sasenach Armach(Brits Out)>, 1981, 앤더슨스타운(Andersonstown Road), 벨파스트, 오른쪽: <영국군 철수 Troops Out Now> 포스터.

[도판 48] 작가미상, <영국인들을 내보내라 Get the Brits Out>, 1981, 로스빌 플랫(Rossvill Flats), 벨파스트.



[도판 49] <바비 샌즈를 죽게 하라 Let Bobby Sands Die>, 1981, 샌디 로(Sandy Row), 벨파스트.

[도판 50] 작가미상, <새로운 아일랜드를 위해 For a New Ireland>, 1983, 비치마운트 애비뉴(Beechmount Avenue), 벨파스트.



[도판 51] 작가미상, <대처에게 반격하라 Strike Back at Thatcher>, 1983, 벨파스트.

[도판 52] <벨파스트는 No라고 말한다 Belfast Say No>, 1985, 벨파스트 시청, 벨파스트.

[도판 53] 알렌 스킬렌(Alan Skillen), <항복하지 말자 No Surrender>, 1984, 펄시 플레이스(Percy Place), 벨파스트.

[도판 54] 작가미상, <UFF 의용군 UFF volunteers>, 1988, 벨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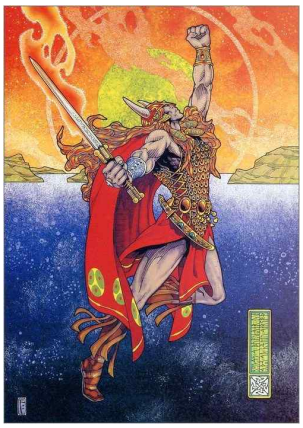
[도판 55] 작가미상, <얼스터 의용군 UVF>, 1985, 오하이오 스트리트(Ohio Street), 벨파스트.

[도판 56] 작가미상, <얼스터 36사단 Soldiers of the 36th Ulster Division>, 1987, 데르보크(Dervock), 앤트림.

[도판 57] 작가미상, <반역자와 살인범 A Traitor and A Murderess>, 1989, 발리콜만 에스테이트(Ballycolman estate), 스트라반(Strabane).

[도판 58] 작가미상, <우리의 날이 오리라 We will have our day(Beidh Ár LáLinn)>, 1989, 사우스 링크(South Link), 벨파스트.

[도판 59] 제라드 켈리(Gerard Kelly), <누아다 왕 King Nuada>, 1987, 스프링힐 애비뉴(Springhill Avenue), 벨파스트.



[도판 60] 짐 피츠페트릭(Jim Fitzpatrick), ≪은 팔 the Silver Arm≫의 삽화, 1983.

[도판 61] 제라드 켈리(Gerard Kelly), <누아다 왕 King Nuada>, 2000년대 재제작(2019년 촬영), 화이트록 로드(Whiterock Road), 벨파스트.

[도판 62] <사도 요한 St John>, ≪켈스의 서 the Book of Kells≫, 8세기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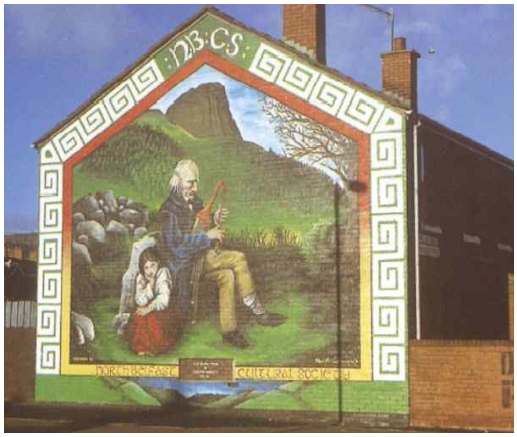
[도판 63] 작가미상, <나는 아일랜드다 Mise Eire>, 1985, 챔버레인 스트리트(Chamberlain Street), 데리.

[도판 64] 제라드 켈리(Gerard Kelly), <1916년의 쿠훌렌 1916 Cuchulainn>, 1988, 모나흐 로드(Monagh Road), 벨파스트.

[도판 65] 올리버 셰퍼드(Oliver Sheppard), <쿠훌렌 Cu Chulainn>, 1911-1912, 더블린 중앙우체국.

[도판 66] 작가미상, <UDA와 쿠훌렌 UDA with Cuchulainn>, 1992, 뉴타우너즈 로드(Newtownards Road), 벨파스트.

[도판 67] 왼쪽: 숀 맥베이(Sean McVeigh), 2011, 오른쪽: 루카스 퀴레이(Lucas Quigley), 2013, 국제 장벽(International Wall), 노스엄버랜드 스트리트(Northumberland Street), 벨파스트.



[도판 68] 죠셉 헤가티(Joseph Hegarty) <케이브힐 기슭의 백파이프 연주자 Uileannpiper on slopes of Cave Hill>, 1994, 플락스 스트리트(Flax Street), 벨파스트.

[도판 69] 작가미상, <대기근 150주년 150th anniversary of the Great Famine>, 1995(2019 촬영), 뉴 로지 로드(New Lodge Road), 벨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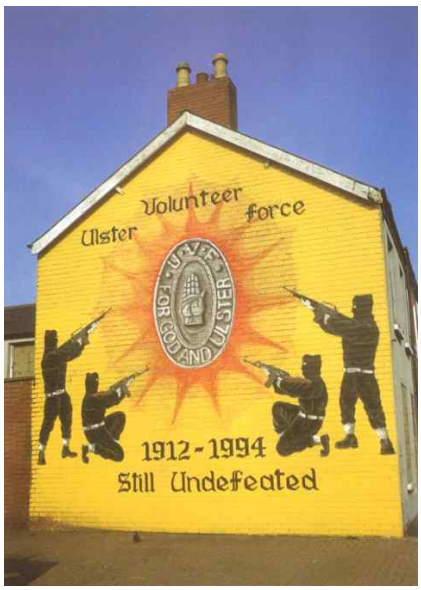
[도판 70] 작가미상, <대기근 150주년 150th anniversary of the Great Famine>, 1995(2019 촬영), 뉴 로지 로드(New Lodge Road), 벨파스트.

[도판 71] 작가미상, <떠돌이 교사와 야외학교 Itinerant teacher and hedge row school>, 1996, 아도인 애비뉴(Ardoyne Avenue), 벨파스트.

[도판 72] 보그사이드 아티스트(Bogside Artists), <화염병 시위자 Petrol Bomber>, 1994(2019 촬영), 로스빌 스트리트(Rossville Street), 데리.

[도판 73] 클리브 림킨(Clive Limpkin), <화염병 시위자 Petrol Bomber>, 《보그사이드 전투 The Battle of Bogside》, 1969.

[도판 74] 보그사이드 아티스트(Bogside Artists), <블러디 선데이 Bloody Sunday>, 1997(2019 촬영), 로스빌 스트리트(Rossville Street), 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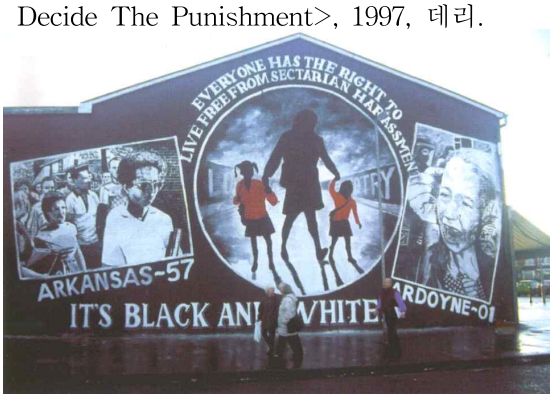


[도판 75] 작가미상, <1912-1994 여전히 건재한 UVF 1912-1994 Still undefeated UVF>, 1994, 우드스톡 링크(Woodstock Link), 벨파스트.

[도판 76] 작가미상, <마스터, 우리는 순례자다 We are the pilgrims, master>, 1996(2019 촬영), 멀세이 스트리트(Mersey Street), 벨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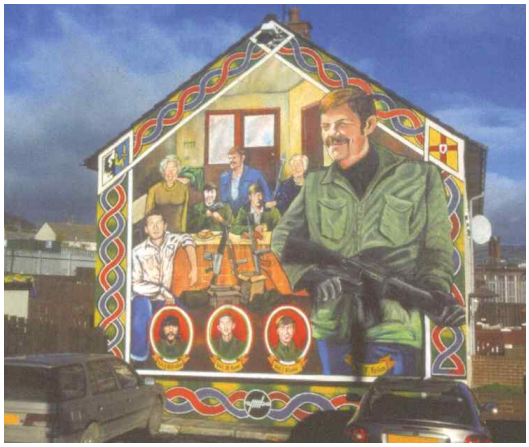
[도판 77] 에티튜드 아트워크(Attitude Artwork), <우리가 죄를 결정하고 형벌을 정한다 We Determine The Guilty, We Decide The Punishment>, 1997, 데리.

[도판 78] 작가미상, <협정: 종파적 괴롭힘에서 벗어나도록 하는가? The Agreement: free from sectarian harassment?>, 1998, 포르타다운(Portadown),아마(Armagh).



[도판 79] 작가미상, <블랙 앤 화이트! It's Black And White!>, 2001, 아도인 로드(Ardoyne Road), 벨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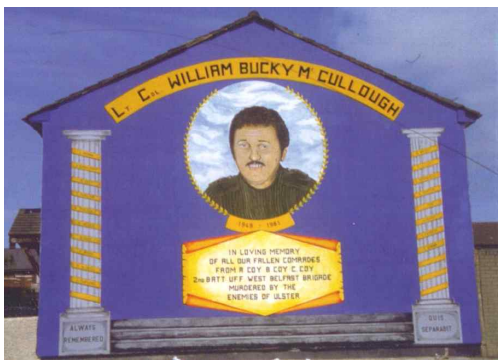
[도판 80] 작가미상, <브라이언 스튜어트 Brian Stewart>, 2001, 놀그렌 로드(Norglen Road), 벨파스트.



[도판 81] 작가미상, <안전 가옥 Safe House>, 2001, 발리머피 드라이브(Ballymurphy Drive), 벨파스트.

[도판 82] 작가미상, < 붉은 옷의 여성 Lady in Red>, 2002(2019 촬영), (발리머피로드 Ballymurphy Road), 벨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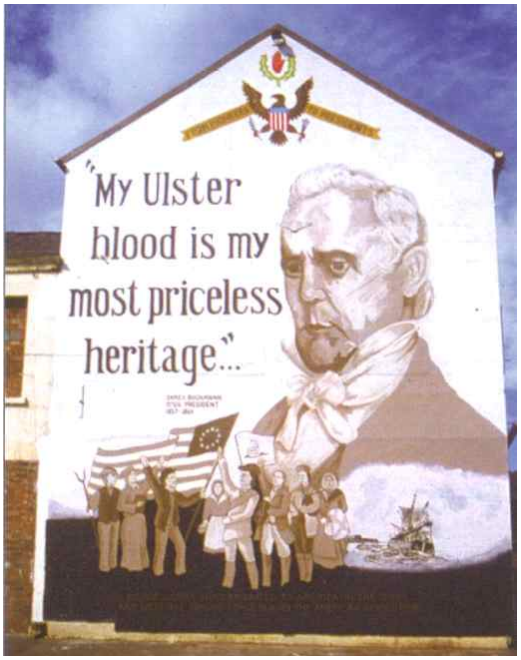
[도판 83] 작가미상, <마이클 스톤 Michael Stone>, 2000, 템플모어 애비뉴(Templemore Avenue), 벨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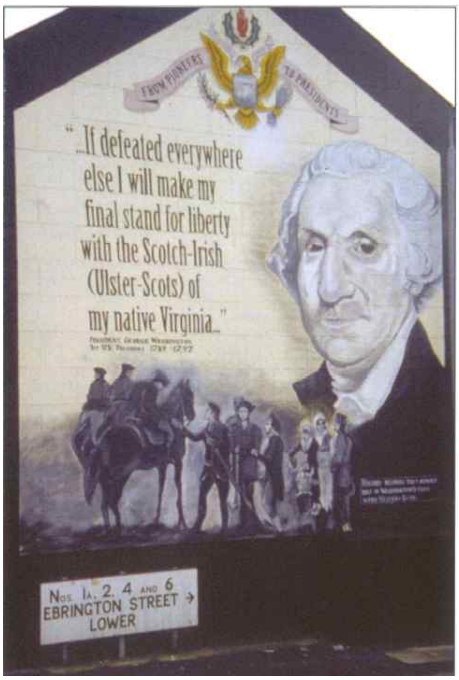
[도판 84] 작가미상, <윌리엄 버키멕크로우 William Bucky McCullough>, 2000, 호프웰 크레센트(Hopewell Crescent), 벨파스트.

[도판 85] 작가미상, <할랜드 앤 울프 Harland and Wolff>, 2006, 케닐워스 플레이스(Kenilworth Place), 벨파스트.

[도판 86] 작가미상, <아이들 Children>, 2005, 린필드 로드(Linfield Road), 벨파스트.



[도판 87] 작가미상, <내 얼스터 혈통은 가장 귀중한 유산이다 My Ulster Blood Is My Most Priceless Heritage>, 1999, 아인스워스 스트리트(Ainsworth Street), 벨파스트.



[도판 88] 작가미상, <조지 워싱턴 George Washington>, 2000, 에브링턴 스트리트(Ebrington Street), 데리.

[도판 89] 작가미상, <얼스터-스콧인들의 4000년 4000 Years Of Ulster-Scots>, 1999, 아보니엘 로드(Avoniel Road), 벨파스트.

[도판 90] 작가미상, <올리버 크롬웰 Oliver Cromwell>, 2002, 샨킬 퍼레이드(Shankill Parade), 벨파스트.

[도판 91] 에드 레이놀즈(Ed Reynolds), <보편적 인권 Universal Human Rights>, 2009(2019 촬영), 호프웰 크레센트(Hopewell Crescent), 벨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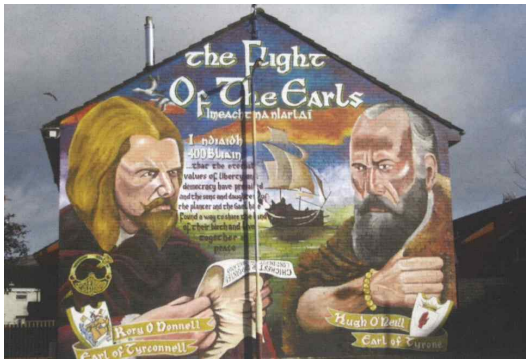
[도판 92] 작가미상, <샨킬 로드 A-Z 역사 A-Z History of the Shankill Road>, 2009(2019 촬영), 샨킬 로드(Shankill Road), 벨파스트.

[도판 93] 팀 멕카시(Tim McCarthy), <69 골드 러시 69 Gold Rush>, 2009(2019 촬영), 샨킬 로드(Shankill Road), 벨파스트.

[도판 94] <69 골드 러시 69 Gold Rush> 명판, 샨킬 로드(Shankill Road), 벨파스트.

[도판 95] 작가미상, <유럽 전승 기념일 1945년 5월 8일 VE Day - 8th May 1945>, 2009(2019 촬영), 도버 플레이스(Dover Place), 벨파스트.

[도판 96] 존 대런 서톤(John Darren Sutton), <빌리 왕 King Billy> , 2008, 타바나흐 스트리트(Tavanagh Street), 벨파스트.



[도판 97] 대니 데베니(Danny Devenny), <1607년 백작의 탈출 Flight of the Earls, 1607>, 2008, 아도인 애비뉴, 벨파스트.

[도판 98] 작가미상, <마틴 루터 Martin Luther>, 2009, 노스 바운더리 스트리트(North Boundary Street), 벨파스트.

[도판 99] 작가미상, <윌리엄 3세 King William Ⅲ>, 2010(2019 촬영), 샌디로(Sandy Row), 벨파스트.

[도판 100] 작가미상, <벨파스트 호수 전사들 Laochra Loch Lao [Belfast Lough Warriors]>, 2010, 다비스 스트리트(Davis Street), 벨파스트.

[도판 101] 작가미상, <스스로 방어할 권리 The Right To Defend Yourself>, 2011(2019 촬영), 뉴타운너즈 스트리트(Newtownards Street), 벨파스트.

[도판 102] 대니 데베니(Danny Devenny), 마티 리온스(Marty Lyons), <바비 샌즈 Bobby Sand>, 2015(2019 촬영), 세바스타폴 스트리트(Sebastapol Street), 벨파스트.

[도판 103] 코너 해링턴(Conor Harrington), <벨파스트의 결투 The Duel of Belfast>, 2012(2019 촬영), 힐 스트리트(Hill Street), 벨파스트.

[도판 104] MTO, <프로타고라스의 아들 Son of Protagoras>, 2014(2019 촬영), 탈봇 스트리트(Talbot Street), 벨파스트.

[도판 105] 노만 클란(Noman Clan), <할랜드 앤 울프 Harland & Wolf>, 2016(2019 촬영), 힐 스트리트(Hill Street), 벨파스트.

[도판 106] 작가미상 <1969년의 재로부터 Out of the ashes of 1969>, 2012(2019 촬영), 뉴 로지 로드(New Lodge Road), 벨파스트.

[도판 107] 짐 윌슨(Jim Wilson), <이제 그만 No More>, 2016(2019 촬영), 케닐워스 플레이스(Kenilworth Place), 벨파스트.

Abstract

Murals in Northern Ireland: Visual Remark on Contemporary Political Situations

Min A Lee
Art Management, Interdisciplinary Program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urals in Northern Ireland refers to gable wall paintings which have been painted in the North of Ireland from the first advent of the mural in 1908. Since the North of Ireland was incorporated into the United Kingdom in 1922, more than 2,000 paintings have been painted. This study examines how murals have appeared as visual remarks on contemporary political situations in Northern Ireland and then deals with their impact on the society as well as the process of changes in their themes and styles.

Most murals in Northern Ireland have been painted during the 40 years between the Troubles(1968-1998) and the peace process. The Troubles can be summarized as a bloody conflict between the British government and the Irish Republican Army(IRA), and between the

IRA and the Loyalist paramilitary groups such as UVF and UDA. The conflict sometimes became a trilateral one because the British government also considered the Loyalist paramilitary groups an illegal organization. It was more of a religious-based territorial dispute than a religious war. Murals contain religious, ethnic and cultural ideologies which have been formed from the 17th century when both English and Scottish Protestants moved in Ireland and Irish Catholic natives struggled for survival.

The main groups who painted murals are divided into two. One is Protestant Loyalists in the working-class. Loyalists have painted the image of William III on gable walls, who established the Protestant Ascendancy from the end of the 17th century in Ireland. When the political dispute over the independence of Ireland began in the early 20th century, Loyalist murals with the image of William III were a means of claiming their legitimacy of Ulster territory as well as their British identity. However, since the Anglo-Irish Agreement in 1985, they have painted their militaristic image armed with guns as a warning to Catholics residents. The way they opposed to the British government's political decision was to threaten Catholic communities. It can be said that the Loyalist murals in the 1980s reaffirmed that Protestants in Northern Ireland have had the mindset of invaders who occupied the Irish territories for more than three centuries.

The other was the IRA and Republicans, mostly working-class Catholics, who painted murals as part of a struggle against political and economic discrimination on them in Northern Ireland. When the Troubles began in 1968, Republicans painted a graffiti-style mural indicating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Protestants and Catholics resumed, and the IRA's military campaign began in earnest.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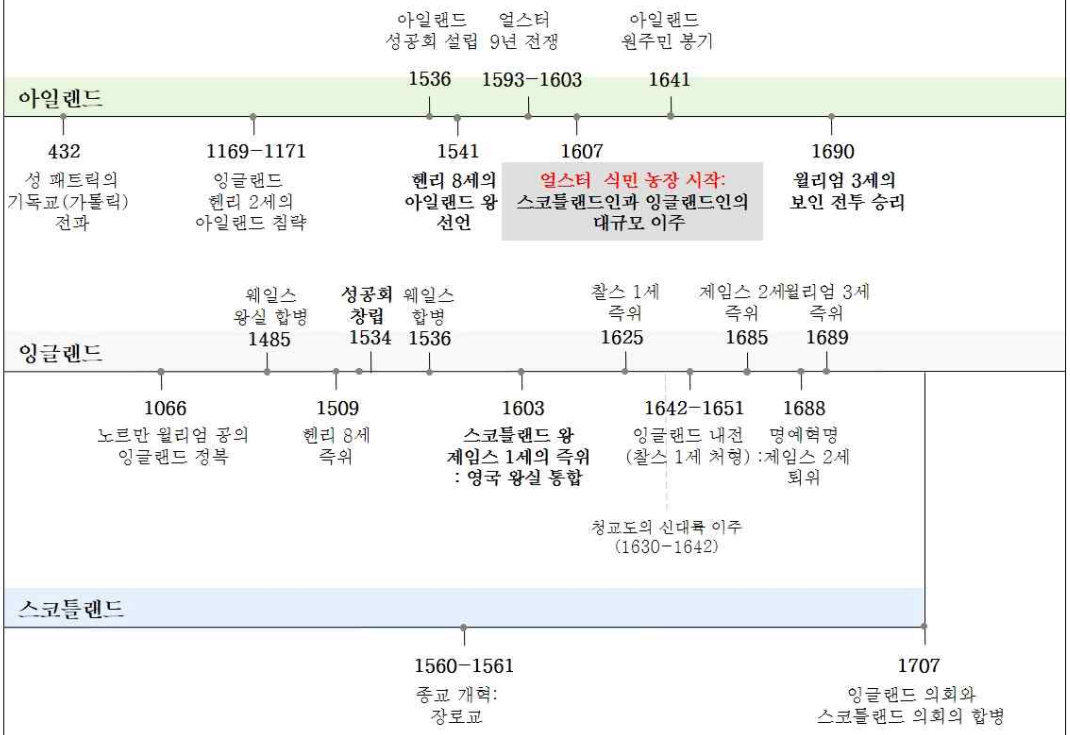
Republican murals, which soared in 1981 following the hunger strike of IRA prisoners, not only became an instrument for revealing British political repression but also played a role in exposing systematic discrimination against Catholics to Western society. Above all, the Republican murals painted in the 1990s extended the subject of murals to Irish history and culture, while maintaining their critical functions.

The Troubles ended with the Good Friday Agreement between the UK and the Republic of Ireland in 1998, which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the unification of Ireland. Since 2004, the new power-sharing self-government of Northern Ireland have started mural projects to promote harmony between the Catholic community and the Protestant community. The government intended to exhibit political neutrality in terms of mural themes. However, murals funded by the government had limitations in reflecting the ideas of both Catholic and Protestant communities as well as expressing their identity. Above all, the government affected the mural theme. For example, the image of William III have reappeared in the government mural project, which can be an evidence showing that Protestant Ascendancy still exists in the new self-gover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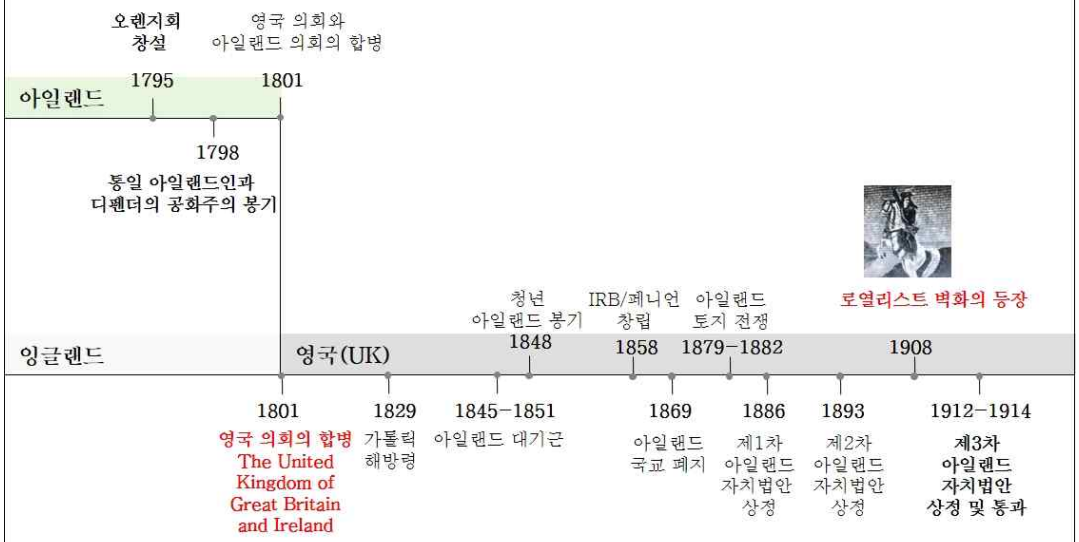
In 2021 the UK left EU and now the possibility of the united Ireland is rising. Murals in Northern Ireland will now need to pay attention to its value as a historical monument.

keywords : Murals in Northern Ireland, the Troubles, Loyalist, Republican, the 1981 Irish Hunger Strike, Good Friday Agreement, Re-imaging communities program
Student Number **: 2017-305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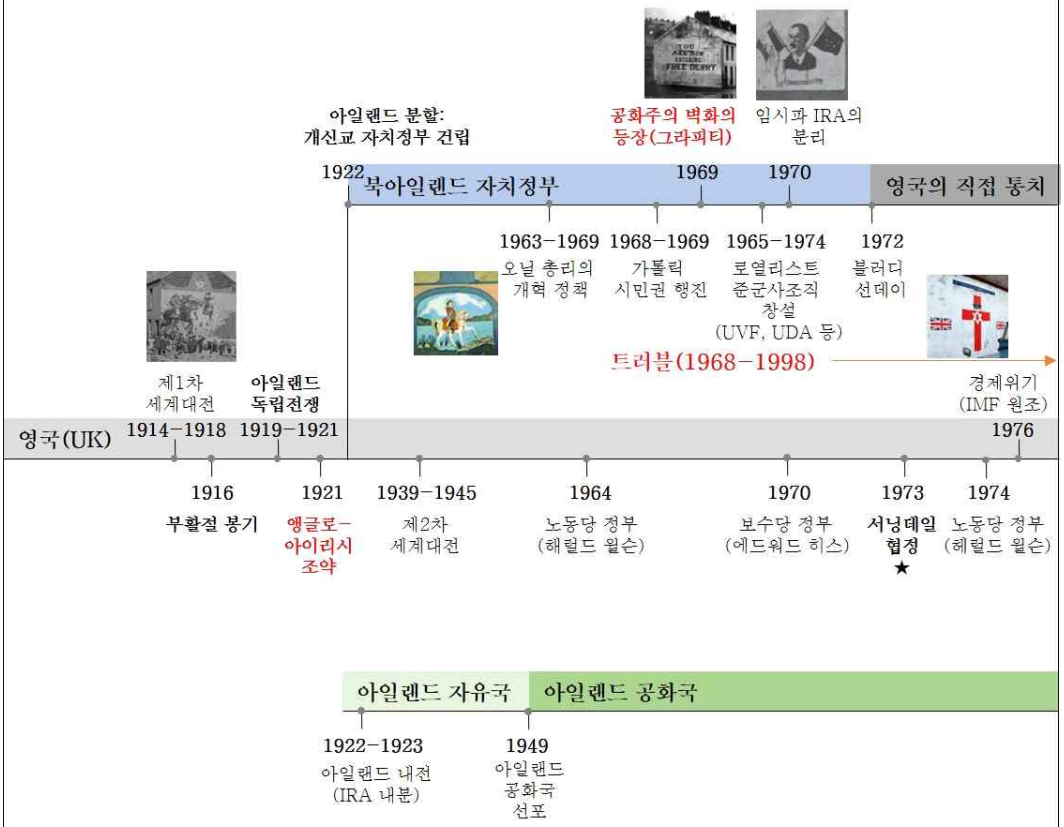
연 표


아일랜드
성공회 설립
1536
얼스터
9년 전쟁
1593−1603
아일랜드
원주민 봉기
1641
432
성 패트릭의
기독교(가톨릭)
전파
1169−1171
잉글랜드
헨리 2세의
아일랜드 침략
1541
헨리 8세의
아일랜드 왕
선언
1607
얼스터 식민 농장 시작:
스코틀랜드인과 잉글랜드인의
대규모 이주
1690
윌리엄 3세의
보인 전투 승리
잉글랜드
웨일스
왕실 합병
1485
성공회
창립
1534
웨일스
합병
1536
찰스 1세
즉위
1625
제임스 2세
즉위
1685
윌리엄 3세
즉위
1689
1066
노르만 윌리엄 공의
잉글랜드 정복
1509
헨리 8세
즉위
1603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1세의 즉위
: 영국 왕실 통합
1642−1651
잉글랜드 내전
(찰스 1세 처형)
1688
명예혁명
:제임스 2세
퇴위
청교도의 신대륙 이주
(1630−1642)
스코틀랜드
1560−1561
종교 개혁:
장로교
1707
잉글랜드 의회와
스코틀랜드 의회의 합병

연 표


오렌지회
창설
1795
영국 의회와
아일랜드 의회의 합병
1801
아일랜드
1798
통일 아일랜드인과
디웬더의 공화주의 봉기
청년
아일랜드 봉기
1848
IRB/페니언
창립
1858
아일랜드
토지 전쟁
1879–1882
로열리스트 벽화의 등장
1908
잉글랜드
영국(UK)
1801
영국 의회의 합병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1829
가톨릭
해방령
1845–1851
아일랜드 대기근
1869
아일랜드
국교 폐지
1886
제1차
아일랜드
자치법안
상정
1893
제2차
아일랜드
자치법안
상정
1912–1914
제3차
아일랜드
자치법안
상정 및 통과

연 표



★ 영국 정부와 아일랜드 공화국 정부 간 합의

연 표

공화주의 벽화의 급증

공화주의 벽화의 변화

북아일랜드: 영국의 직접 통치

1977–1981
스푸르스 업 벨파스트 벽화 프로젝트(정부)

1981
IRA 수감자들의 단식투쟁

로열리스트 벽화의 변화

1994
IRA와 UVF·UDA의 휴전 선언

영국(UK)

1979
보수당 정부
(마가렛 대처)

1985
앵글로–아이리시 협정
★

1993
다우닝 스트리트 선언
★

1997
신노동당 정부
(토니 블레어)

아일랜드 공화국

★ 영국 정부와 아일랜드 공화국 정부 간 합의

연 표

공화주의 벽화의 변화
임시파 IRA
무기 해체 완료
2005
UVF 무기
해체 완료
2009
북아일랜드: 영국의 직접 통치
북아일랜드 자치정부
1998
성 금요일 협정
찬반 국민 투표
1999
권력-분담
자치정부 출범
2006-2009
리-이미징 커뮤니티
벽화 프로그램
2013-2015
리-이미징 벽화
프로그램 재개
로열리스트 벽화의 변화
영국(UK)
1997
신노동당
정부
(토니 블레어)
1998
성 금요일
협정
★
2006
성 앤드류
협정
★
2010
보수당
연립 정부
2015
보수당 정부
(데이비드
캐머런)
2016
브렉시트
국민투표
2021
영국의
EU
탈퇴
아일랜드 공화국
1998
성 금요일 협정
찬반 국민 투표
★ 영국 정부와 아일랜드 공화국 정부 간 합의